발간등록번호 54-6280254-000071-01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이전건립을 위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발간등록번호 54-6280254-000071-01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이전건립을 위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제 출 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이 보고서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을 위한 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6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연구책임

최응천 |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동국대학교박물관장

연구총괄

김건희 | 세린문화예술 (공동)대표
세린문화예술연구소장

연구위원

박윤옥 | 세린문화예술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원

권보경 | 동국대학교 박물관

연구보조

(행정업무 포함) 김수현 |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
배정현 | 세린문화예술연구소 연구원

자문위원

조우성 | 인천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장원 |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이숙희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연구분장

연구영역	연구원		연구보조		감수
	집필	보완			
기본구상	김건희				
제1장 연구개요					최응천
제2장 제1절 인천시립박물관에 대한 이해					
제2절 신축이전의 필요성					
제3절 신축이전사업 추진경과			김수현		
제3장 인천시립박물관의 운영방향					
제4장 제1절 조사연구 기본계획					
제2절 소장품관리 기본계획	권보경	김건희	김수현		
제3절 전시 기본계획	김건희		배정현		
제4절 교육 기본계획	박윤옥	김건희			
제5절 홍보마케팅 기본계획			김수현		
제6절 경영 기본계획	김건희		배정현		
제7절 건축 기본계획			김수현		
제8절 기존 건축물 활용계획					
제5장 제1절 신축이전사업 추진계획			배정현		
제2절 콘텐츠 운영계획			김수현		
부록					
참고문헌					
최종수정, 교정 및 편집			김수현		

목차

제1장 연구개요 ·····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 6
1. 연구목적 ····· 6
2. 연구범위 ····· 6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7

제4절 연구 추진체계 ····· 9

제2장 신축이전사업의 타당성 검토 ····· 11
제1절 인천시립박물관에 대한 이해 ····· 13
1. 제1기 세창양행 사택 시기(1945-1950) ····· 13
2. 제2기 제물포구락부 시기(1953-1989) ····· 21
3. 제3기 옥련동 525번지 시기(1990-현재) ····· 26
4. 종합 ····· 29

제2절 신축이전의 필요성 ····· 30
1. 인천시립박물관의 입지 분석 ····· 30
2. 인천시립박물관의 규모 분석 ····· 33

제3절 신축이전사업 추진경과 ····· 38
1. 박물관 건물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시도 ····· 38
2. 검토된 신축이전 대상 후보지 ····· 40
3.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신축이전(안) 추진경과 ····· 47

제3장 인천시립박물관의 운영방향 ····· 53
제1절 기본성격 및 방향설정을 위한 전제 ····· 55
1. 기본전제 ····· 55
2.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이해 ····· 56
3. 전시분석을 통한 포괄범위 검토 ····· 57

4. 문헌분석을 통한 포괄범위 도출 ····· 58

제2절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성격과 방향 ····· 59
1.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성격 ····· 59
2.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방향 ····· 61
3.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63

제4장 박물관 운영 기본계획 ····· 65
제1절 조사연구 기본계획 ····· 67
1. 기본방향 ····· 67
2. 조사연구 프로그램 ····· 69
2. 조사연구 성과 공유 ····· 73
4. 아카이브 ····· 77
5. 인력 ····· 81
6. 예산 ····· 82

제2절 소장품관리 기본계획 ····· 85
1. 기본방향 ····· 85
2. 소장품 현황 ····· 86
3. 소장품 수집 ····· 87
4. 수장고 ····· 92
5. 보존처리 ····· 98
6. 인력 ····· 101
7. 예산 ····· 103

제3절 전시 기본계획 ····· 106
1. 기본방향 ····· 106
2. 전시콘텐츠 특성화 방안 ····· 108
3. 전시연출 방안 ····· 119
4. 전시구성 및 시나리오 ····· 125
5. 인력 ····· 136
6. 예산 ····· 138

제4절 교육 기본계획 ····· 140
1. 기본방향 ····· 140
2. 교육프로그램 분석 ····· 142
3. 교육프로그램 개발방향 기본구상 ····· 145
4. 인력 ····· 157

5. 예산 ····· 160

제5절 홍보마케팅 기본계획 ····· 162
1. 기본방향 ····· 162
2. 인천시립박물관 브랜드 구축 및 자산화 ····· 164
3. 관람객 개발 ····· 165
4.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 168
5. 인력 ····· 186
6. 예산 ····· 188

제6절 경영 기본계획 ····· 190
1. 기본방향 ····· 190
2. 박물관 명칭 ····· 192
3. 조직 구성 ····· 194
4. 인력 ····· 204
5. 예산 ····· 206

제7절 문화콘텐츠로서 박물관 건축 기본계획 ····· 210
1. 기본방향 ····· 210
2. 신축박물관(안) 검토 ····· 216

제8절 기존 건축물 활용계획 ····· 229
1.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건축물 활용계획 ····· 229
2. 이전 후 현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활용계획 ····· 235

제5장 단계별 운영방안 ····· 237
제1절 신축이전사업 추진계획 ····· 239
1. 단계별 신축이전 추진일정(안) ····· 239
2. 전체 일정표 ····· 243

제2절 준공 이후 콘텐츠 운영계획 ····· 244

부록 ····· 247

참고문헌 ····· 255

그림목차

〈그림 001〉 연구의 필요성 ····· 4
〈그림 002〉 연구범위 ····· 6
〈그림 003〉 연구 추진체계 ····· 9
〈그림 004〉 제1기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 13
〈그림 005〉 인천시립박물관 개관에 관한 기사 ····· 13
〈그림 006〉 바리야크호 포탄 ····· 14
〈그림 007〉 포탄의 명문 ····· 14
〈그림 008〉 인천시립박물관 '세 가지 시선, 러일전쟁'전 해설문 ····· 15
〈그림 009〉 인천향토사료 ····· 18
〈그림 010〉 세창양행 사택 위치 ····· 18
〈그림 011〉 세창양행 사택 모형 ····· 19
〈그림 012〉 세창양행 사택 평면도 ····· 19
〈그림 013〉 제2기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 21
〈그림 014〉 제물포구락부 평면도 ····· 21
〈그림 015〉 초기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의 전문분야 ····· 22
〈그림 016〉 〈〈향토인천의 안내〉〉 ····· 23
〈그림 017〉 1962년 인천향토사료 ····· 23
〈그림 018〉 제물포구락부 위치 ····· 24
〈그림 019〉 제3기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 26
〈그림 020〉 인천시립박물관 배치도 ····· 26
〈그림 021〉 옥련동 525번지 시기 인천시립박물관 위치 ····· 27
〈그림 022〉 인천시립박물관 항공지도 ····· 30
〈그림 023〉 송도 센트럴파크 부지 ····· 38
〈그림 024〉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시립박물관 예상 조감도 ····· 38
〈그림 025〉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 ····· 39
〈그림 026〉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배치도 ····· 39
〈그림 027〉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간 오솔길 ····· 40
〈그림 028〉 부평 캠프마켓 전경 ····· 41
〈그림 029〉 일본육군 조병창 ····· 41
〈그림 0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도 ····· 42
〈그림 0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도 ····· 44
〈그림 0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도 ····· 45
〈그림 033〉 2016년도 인천뮤지엄파크안 ····· 48
〈그림 034〉 2018년 3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안 ····· 49
〈그림 035〉 2018년 10월 인천뮤지엄파크안 ····· 49
〈그림 036〉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전제 ····· 55

〈그림 037〉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이해 ····· 56
〈그림 038〉 인천시립박물관의 전시구성 ····· 57
〈그림 039〉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성격 ····· 59
〈그림 040〉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방향 ····· 61
〈그림 041〉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63
〈그림 042〉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67
〈그림 043〉 더브리티시박물관의 '세계의 박물관' ····· 71
〈그림 044〉 인천 노포 조사 ····· 72
〈그림 045〉 건평돈대 발굴조사 ····· 72
〈그림 046〉 인천도시역사관의 '오래된 가게 인천 노포' 학술보고서 ····· 73
〈그림 047〉 전시를 통한 조사연구 성과 공유 ····· 73
〈그림 048〉 인천시립박물관 2018년도 연보 ····· 74
〈그림 049〉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 ····· 74
〈그림 050〉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연구 성과 공유 ····· 74
〈그림 051〉 논문집 〈인천문화연구〉 ····· 75
〈그림 052〉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 75
〈그림 053〉 '소유물이 아닌 사람들' ····· 76
〈그림 054〉 연대별 지도 ····· 76
〈그림 055〉 관련 유물과 출처 ····· 76
〈그림 056〉 유물에 관한 설명 ····· 76
〈그림 057〉 인천시립박물관 특별전 전시도면 ····· 77
〈그림 058〉 인천향토사료 ····· 77
〈그림 059〉 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 아카이브 ····· 78
〈그림 060〉 아카이브에 소장된 1871년 박물관 도면 ····· 78
〈그림 06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 79
〈그림 062〉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역사아카이브' ····· 79
〈그림 063〉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85
〈그림 064〉 연화문수막새 ····· 87
〈그림 065〉 도장무늬병 ····· 87
〈그림 066〉 보물285호 금동보살입상 ····· 89
〈그림 067〉 예천박물관 ····· 90
〈그림 068〉 예천군, 예천박물관에 기증 · 기탁하는 협약 체결 ····· 90
〈그림 069〉 2015-2019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 수집 추이 ····· 92
〈그림 070〉 인천시립박물관 수장고 ····· 93
〈그림 071〉 인천시립박물관 수장고 ····· 93
〈그림 072〉 부산박물관 보존관리동 ····· 95
〈그림 073〉 보존관리동 위치 ····· 95
〈그림 074〉 보존관리동 수장고 ····· 95
〈그림 075〉 보존관리동 수장고 ····· 95

〈그림 076〉 서울역사박물관 은평수장고 ····· 96
〈그림 077〉 서울시 통합수장고 조감도 ····· 96
〈그림 078〉 세종시 통합수장고 조감도 ····· 97
〈그림 079〉 인천시립박물관 보존과학실 ····· 99
〈그림 080〉 인천시립박물관 X-Ray실 ····· 99
〈그림 081〉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106
〈그림 082〉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에 관한 전시 ····· 108
〈그림 083〉 매머드 상아 ····· 108
〈그림 084〉 로벤 아일랜드 감옥 ····· 109
〈그림 085〉 감옥 속의 넬슨 만델라 ····· 109
〈그림 086〉 순장인골 복원 모형: 가야소녀 송현 ····· 111
〈그림 087〉 시가현립비와코박물관 상설전시 중 '박물관 지하지층 조사' ····· 111
〈그림 088〉 선사시대 유물 전시 ····· 112
〈그림 089〉 여러면석기 ····· 112
〈그림 090〉 인천 중구 출토 석기 ····· 112
〈그림 091〉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 꽃' 설명문 ····· 113
〈그림 092〉 아우구스투스부르크성 ····· 114
〈그림 093〉 일상사박물관 ····· 114
〈그림 094〉 '2002 서울 스타일'전 전시배치도 ····· 115
〈그림 095〉 가족구성원 ····· 115
〈그림 096〉 이원태 가족의 집 ····· 115
〈그림 097〉 포장마차 ····· 116
〈그림 098〉 초등학교 ····· 116
〈그림 099〉 인천시립박물관 온라인 전시 ····· 118
〈그림 100〉 검단선사박물관 온라인 전시 ····· 118
〈그림 101〉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의 상호작용형 디지털아카이브 ····· 119
〈그림 102〉 정적 전시 ····· 120
〈그림 103〉 동적 전시 ····· 120
〈그림 104〉 가상현실 체험 ····· 121
〈그림 105〉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 121
〈그림 106〉 가상현실 콘텐츠 속 안내자 ····· 121
〈그림 107〉 가상현실 속 캐릭터와 상호작용 ····· 121
〈그림 108〉 전시구성 ····· 125
〈그림 109〉 세창양행 사택과 칼 볼터 ····· 126
〈그림 110〉 홈펠 중위 기증품 ····· 126
〈그림 111〉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140
〈그림 112〉 디지털 전시가이드: '똑또기' ····· 145
〈그림 113〉 전시연계 교육: 가족워크숍 ····· 146
〈그림 114〉 전시연계 교육: 학술회의 ····· 146

〈그림 115〉 영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혼자 할 수 있어요!(Kan själv!)' ····· 147
〈그림 116〉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꼬꼬마! 가자~ 박물관으로' ····· 147
〈그림 117〉 국립민속박물관 장애인 대상 교육 ····· 152
〈그림 118〉 부산박물관 장애인 대상 교육 ····· 152
〈그림 119〉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 154
〈그림 120〉 서울역사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 ····· 154
〈그림 121〉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나는 문화재 탐험' ····· 154
〈그림 122〉 부산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 ····· 154
〈그림 123〉 교구 대여프로그램: '상자 속 역사' ····· 155
〈그림 124〉 교구 대여프로그램: '추억의 여행가방' ····· 155
〈그림 125〉 서울역사박물관 온라인 교육 ····· 156
〈그림 126〉 서울역사박물관 유튜브 ····· 156
〈그림 127〉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162
〈그림 128〉 브랜드 가치 피라미드 ····· 164
〈그림 129〉 2019년도 인천광역시 연령별 인구수 ····· 166
〈그림 130〉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국적별 외국인 수 ····· 167
〈그림 131〉 특별전 〈커피, 양탕국에서 커피믹스까지〉 포스터 ····· 168
〈그림 132〉 인천시립박물관 홍보마케팅 관련 반응 ····· 168
〈그림 133〉 보도자료 제공 ····· 169
〈그림 134〉 보도기사 ····· 169
〈그림 135〉 취재지원 ····· 169
〈그림 136〉 '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 ····· 170
〈그림 137〉 '별에서 온 그대' 소품 전시 ····· 170
〈그림 138〉 인천시립박물관 연관어 관계도 ····· 170
〈그림 139〉 키워드 상세정보 ····· 170
〈그림 140〉 인천시립박물관 2019년도 상설공연 일정 ····· 172
〈그림 141〉 인천시립박물관 전시실 콘서트 ····· 173
〈그림 142〉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온라인 콘서트 ····· 173
〈그림 143〉 인천시립박물관 소식지 ····· 174
〈그림 144〉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 175
〈그림 145〉 인천시립박물관 사회관계망 서비스 ····· 176
〈그림 146〉 네이버지도 뮤지엄뷰 ····· 178
〈그림 147〉 구글 예술 및 문화 ····· 178
〈그림 148〉 인천시립박물관 온라인 전시 ····· 178
〈그림 149〉 인천시립박물관 온라인 전시 ····· 178
〈그림 150〉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 ····· 178
〈그림 151〉 세창양행 사택 도안 배지 ····· 179
〈그림 152〉 제물포구락부 도안 배지 ····· 179
〈그림 153〉 소장품을 응용한 문화상품 ····· 179

〈그림 154〉 문화상품과 관련된 소장품에 대한 설명 ····· 179
〈그림 155〉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홈페이지 ····· 180
〈그림 156〉 수익금 사용용도 ····· 180
〈그림 157〉 인천시립박물관 문화상품점 ····· 180
〈그림 158〉 인천시립박물관 카페 ····· 181
〈그림 159〉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 ····· 181
〈그림 160〉 일민미술관 카페 ····· 181
〈그림 161〉 일민미술관 카페에 대한 반응 ····· 181
〈그림 162〉 더브리티시 박물관 '레스토랑 패키지' ····· 182
〈그림 163〉 더브리티시 박물관 홈페이지의 카페 및 레스토랑 ····· 182
〈그림 164〉 일본 나리타공항 박물관 환승투어 ····· 183
〈그림 165〉 디아이씨 가와무라기념미술관 지도 ····· 183
〈그림 166〉 렘브란트의 1635년작 '넓은 챙모자를 쓴 남자의 초상화' ····· 183
〈그림 167〉 녹차와 화과자 ····· 183
〈그림 168〉 인천시립박물관 국제교류전 ····· 185
〈그림 169〉 토지금고마을박물관 ····· 186
〈그림 170〉 쑥골마을박물관 ····· 186
〈그림 171〉 독쟁이마을박물관 ····· 186
〈그림 172〉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190
〈그림 173〉 인천시립박물관 운영조례 ····· 192
〈그림 174〉 인천시립박물관 로고 ····· 192
〈그림 175〉 인천시립박물관 도록 ····· 192
〈그림 176〉 부산박물관 로고 ····· 193
〈그림 177〉 울산박물관 로고 ····· 193
〈그림 178〉 부산박물관 운영조례 ····· 193
〈그림 179〉 울산박물관 운영조례 ····· 193
〈그림 180〉 서울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 193
〈그림 181〉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93
〈그림 182〉 조직구성의 기본방향 ····· 195
〈그림 183〉 인천시립박물관 조직도 ····· 195
〈그림 184〉 국립중앙박물관 조직도 ····· 196
〈그림 185〉 서울역사박물관 조직도 ····· 199
〈그림 186〉 신축이전 후 인천시립박물관 조직도 ····· 201
〈그림 187〉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배치도 ····· 202
〈그림 188〉 신축이전 후 인천시립박물관 부서별 인력배치 ····· 205
〈그림 189〉 2019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규모 ····· 208
〈그림 190〉 2020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규모 ····· 208
〈그림 191〉 '랜드마크'로서의 박물관건축 기본방향 ····· 210
〈그림 192〉 조형적인 부분 ····· 211

〈그림 193〉 조형적인 부분의 분리 ····· 211
〈그림 194〉 스코츠데일 웨스트박물관 외관 ····· 211
〈그림 195〉 스코츠데일 웨스트박물관 기본구조 ····· 211
〈그림 196〉 안드스트룸박물관 외관 ····· 211
〈그림 197〉 안드스트룸박물관 내부 ····· 211
〈그림 198〉 모형1 ····· 212
〈그림 199〉 모형2 ····· 212
〈그림 200〉 모형3 ····· 212
〈그림 201〉 3D 설계프로그램 ····· 212
〈그림 202〉 구겐하임 빌바오 남측 ····· 213
〈그림 203〉 남측에서 본 구겐하임 빌바오 ····· 213
〈그림 204〉 구겐하임 빌바오 북측 ····· 213
〈그림 205〉 선박 모양 ····· 213
〈그림 206〉 프랭크 게리와 물고기 ····· 213
〈그림 207〉 물고기 모양을 응용한 스케치 ····· 213
〈그림 208〉 외관의 물고기 모양 ····· 214
〈그림 209〉 내부의 물고기 모양 ····· 214
〈그림 210〉 이란현립란양박물관 ····· 214
〈그림 211〉 구겐하임 빌바오 ····· 214
〈그림 212〉 광둥성박물관 ····· 214
〈그림 213〉 광둥성박물관 ····· 214
〈그림 214〉 지하1층 평면도 ····· 216
〈그림 215〉 지하1층 박물관 공간 배분 ····· 217
〈그림 216〉 지상1층 평면도 ····· 220
〈그림 217〉 지상1층 박물관 공간 배분 ····· 221
〈그림 218〉 지상2층 평면도 ····· 222
〈그림 219〉 지상2층 박물관 공간 배분 ····· 223
〈그림 220〉 지상3층 평면도 ····· 224
〈그림 221〉 지상3층 박물관 공간 배분 ····· 225
〈그림 222〉 지상4층 평면도 ····· 226
〈그림 223〉 지상4층 박물관 공간 배분 ····· 227
〈그림 224〉 박물관 부지 변경(안) ····· 228
〈그림 225〉 (구)OCI 사옥 ····· 229
〈그림 226〉 인천뮤지엄파크 배치계획도 ····· 229
〈그림 227〉 인천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입면도 ····· 230
〈그림 228〉 극동방송 사옥과 선교사 사택 ····· 231
〈그림 229〉 극동방송 사옥과 선교사 사택 ····· 231
〈그림 230〉 극동방송 사옥 ····· 232
〈그림 231〉 선교사 사택 ····· 232

〈그림 232〉 선교사 사택 내부 ····· 232
〈그림 233〉 선교사 사택 내부 ····· 232
〈그림 234〉 톰 왓슨과 선교사들 ····· 232
〈그림 235〉 방송제작 모습 ····· 232
〈그림 236〉 한국복음주의방송국 안테나 ····· 233
〈그림 237〉 일본 나가사키 오란다자카 ····· 234
〈그림 238〉 벨기에 안드스트룸박물관 ····· 235
〈그림 239〉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236
〈그림 240〉 인천시립박물관 신축이전사업 소요기간 ····· 239

표목차

〈표 001〉 인천뮤지엄파크 건립개요 ····· 3
〈표 002〉 연구내용 및 방법 ····· 7
〈표 003〉 인천시립박물관 연표: 1945-1950년 ····· 13
〈표 004〉 주요 공립박물관 개관연도 ····· 17
〈표 005〉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당시 전시구성 ····· 20
〈표 006〉 인천시립박물관 연표: 1953-1989년 ····· 21
〈표 007〉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1953-1989년 ····· 22
〈표 008〉 인천시립박물관 연표: 1990-현재 ····· 26
〈표 009〉 2006년 증 · 개축 후 인천시립박물관 규모 ····· 28
〈표 010〉 주요 공립박물관 버스노선 ····· 31
〈표 011〉 버스 배차간격 ····· 32
〈표 012〉 주요 공립박물관 지하철노선 ····· 32
〈표 013〉 인천 소재 공립박물관 규모 ····· 33
〈표 014〉 주요 특별/광역시립박물관 규모 ····· 34
〈표 015〉 주요 도시 인구현황 ····· 35
〈표 016〉 주요 공립박물관 전시실 ····· 35
〈표 017〉 지방의 국립박물관 규모 ····· 36
〈표 018〉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 ····· 42
〈표 019〉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 ····· 44
〈표 0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 ····· 46
〈표 021〉 2018년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추진과정 ····· 49
〈표 022〉 인천시립박물관 신축규모(안) 변경 전후 ····· 50
〈표 023〉 인천시립박물관의 포괄범위 ····· 58
〈표 024〉 2019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조사연구사업 ····· 69

〈표 025〉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조사연구사업 ····· 69
〈표 026〉 인천시립박물관 학술회의 ····· 75
〈표 027〉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조사연구업무 인력배치 현황 ····· 81
〈표 028〉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연구부 인력 ····· 82
〈표 029〉 주요 공립박물관 조사연구업무 관련 예산 ····· 83
〈표 030〉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연구업무 관련 최소 필요 예산 ····· 84
〈표 031〉 서울역사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예산 ····· 84
〈표 032〉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소장품 현황 ····· 86
〈표 033〉 인천시립박물관 시대별 소장품 현황 ····· 87
〈표 034〉 2015-2019년도 수집방법별 소장품 현황 ····· 89
〈표 035〉 2015-2019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 수집 추이 ····· 92
〈표 036〉 2015-2019년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및 위탁관리 추이 ····· 92
〈표 037〉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수장고 현황 ····· 93
〈표 038〉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수장고 증개축/보수 현황 ····· 93
〈표 039〉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수장고 문제점 ····· 94
〈표 040〉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수장고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 94
〈표 041〉 최소로 필요한 수장고시설 및 면적 ····· 95
〈표 042〉 재질별 소장품 현황 ····· 98
〈표 043〉 2015-2019년도 보존처리 현황 ····· 99
〈표 044〉 보존처리시설 면적 ····· 99
〈표 045〉 최소 필요 보존처리시설 및 면적 ····· 100
〈표 046〉 인천시립박물관 보존처리업무 관련 향후 필수 보유장비 ····· 101
〈표 047〉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유물관리업무 인력배치 현황 ····· 102
〈표 048〉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 인력배치 현황 ····· 102
〈표 049〉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관리부 인력 ····· 103
〈표 050〉 주요 공립박물관 소장품관리업무 관련 예산 ····· 104
〈표 051〉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수집 예산(안) ····· 104
〈표 052〉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관리 예산(안) ····· 105
〈표 053〉 인천시립박물관 보존처리 예산(안) ····· 105
〈표 054〉 인천시립박물관 보존처리업무 관련 필수 보유장비 예산(안) ····· 105
〈표 055〉 '2002 서울 스타일'전 ····· 115
〈표 056〉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상관관계 ····· 119
〈표 057〉 데이비드 딘의 관람동선 분류 ····· 123
〈표 058〉 바이즈만의 길찾기 이론의 특성 ····· 124
〈표 059〉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전시업무 인력배치 현황 ····· 136
〈표 060〉 2019년에 개최된 서울역사박물관 특별전 ····· 137
〈표 061〉 인천시립박물관 전시부 인력 ····· 137
〈표 062〉 주요 공립박물관 전시업무 관련 예산 ····· 138
〈표 063〉 2016-2018 인천시립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142

〈표 064〉 2016-2019 인천시립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내용 ····· 143
〈표 065〉 인천광역시 대안학교 ····· 150
〈표 066〉 문화다양성 교육의 핵심가치 ····· 151
〈표 067〉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현황 ····· 152
〈표 068〉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교육업무 담당 인력배치 현황 ····· 157
〈표 069〉 부산박물관 교육홍보부 인력현황 ····· 159
〈표 070〉 국립민속박물관 2019년도 교육업무 관련 인력현황 ····· 159
〈표 071〉 인천시립박물관 교육교류부 인력(안) ····· 160
〈표 072〉 주요 공립박물관 교육업무 관련 예산 ····· 160
〈표 073〉 인천시립박물관 관람객 수 변화추이 ····· 165
〈표 074〉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람객 수 변화추이 ····· 165
〈표 075〉 인천광역시 인구수 변화추이 ····· 166
〈표 076〉 인천시립박물관 청소년기자단 ····· 177
〈표 077〉 국립현대미술관 회원제도 ····· 184
〈표 078〉 인천시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현황 ····· 186
〈표 079〉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홍보마케팅업무 인력배치 현황 ····· 187
〈표 080〉 인천시립박물관 교육교류부 인력 ····· 187
〈표 081〉 주요 공립박물관 홍보마케팅업무 관련 예산 ····· 188
〈표 082〉 서울역사박물관 홍보마케팅 예산 ····· 189
〈표 083〉 인천의 지명변천 ····· 192
〈표 084〉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업무분장 ····· 196
〈표 085〉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 업무분장 ····· 196
〈표 086〉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업무분장 ····· 197
〈표 087〉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업무분장 ····· 198
〈표 088〉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업무분장 ····· 199
〈표 089〉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업무분장 ····· 200
〈표 090〉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인력현황 ····· 204
〈표 091〉 신축이전 후 인천시립박물관 정규인력 ····· 205
〈표 092〉 주요 공립박물관 예산 ····· 206
〈표 093〉 2018년도 국립박물관 예산현황 ····· 207
〈표 094〉 2018년도 국립박물관 예산구성비 비교 ····· 207
〈표 095〉 인천시립박물관 2015-2018년도 세입현황 ····· 209
〈표 096〉 (구)OCI 사옥 활용계획(안) ····· 230
〈표 097〉 극동방송 사옥 및 선교사 사택 활용계획(안) ····· 234
〈표 098〉 인천시립박물관 활용계획(안): 수장고 및 기록보관실 ····· 235
〈표 099〉 인천시립박물관 활용계획(안): 인천광역시 시사기록원 ····· 236
〈표 100〉 인천시립박물관 활용계획(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별관 ····· 236
〈표 101〉 인천시립박물관 신축이전사업 추진 일정표 ····· 243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 공간협소, 접근성 떨어짐 등 현 박물관 건물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하 '인천시박' 또는 '인천시립박물관')을 확장하여 신축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몇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됨

○ 2016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와 (주)디씨알이(DCRE)간에 <용현 ·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 사회공헌(기부채납) 협약서>가 체결됨(인천광역시 2018:29). 인천시는 해당부지 내 53,092m^2(16,060평)의 공간에 인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을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함(<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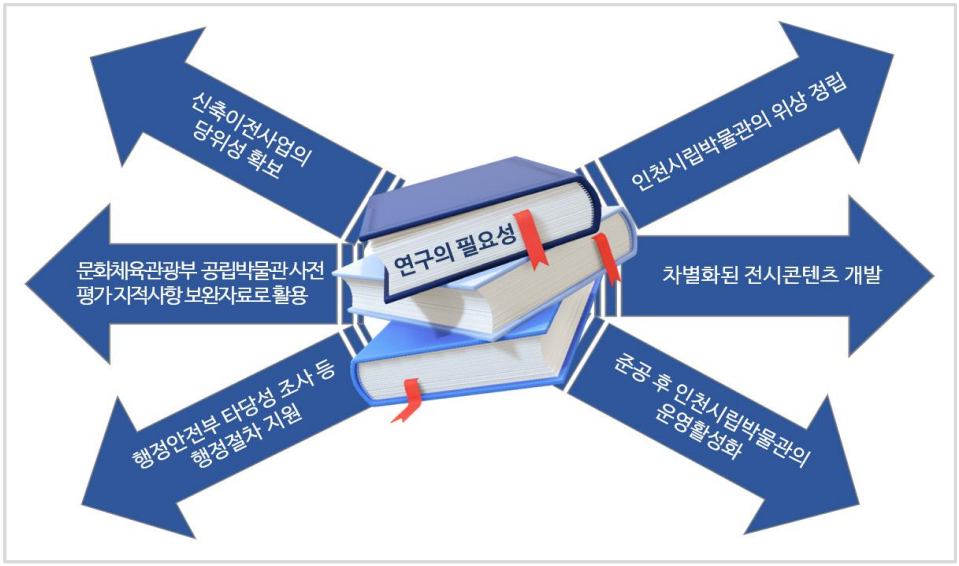
○ 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박을 확장하여 신축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19년 5월 인천시박 신축이전사업이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신축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짐

시설		연면적	규모	주요시설	사업비
시립박물관		14,625m^2	지하1/지상4	전시실, 수장고 등	859억원 (국비: 200억원, 시비: 659억원)
시립미술관		14,982m^2	지하1/지상4	전시실, 수장고 등	1,148억원 (시비)
예술공원 (문화부지)		1,802m^2	지상1 (8개동)	갤러리, 화랑 등	25억원 (시비)
문화 산업 시설	콘텐츠플라자	38,000m^2	지하4/지상7	판매시설, 극장 등	852억원 (민간)
	콘텐츠빌리지	14,000m^2	지하3/지상7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입주 등	431억원 (민간)

<표 1> 인천뮤지엄파크 건립개요(인천광역시 2019:1)

2. 연구의 필요성



〈그림 1〉 연구의 필요성

① 신축이전사업의 당위성 확보

○ 인천시박을 신축 및 이전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검증 절차가 요구됨

② 문화체육관광부 요구사항 이행

○ 2019년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시 문체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됨

③ 행정절차 지원

○ 향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의 기초자료 마련 필요

④ 인천시립박물관의 위상 재정립

○ 검단선사박물관 · 송암미술관 · 인천도시역사관 · 한국이민사박물관 등의 분관뿐만 아니라, 인천에 관한 전시를 하는 유사박물관들이 같은 지리적 공간인 인천에 설립되면서, 인천시박의 위상 재정립이 서서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천시박의 위상 정립을 위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게 됨

⑤ 인천시립박물관의 전시 차별화

○ 지역밀착형 전시소재 발굴과 함께, 인천시박만의 특색있는 전시구현을 통해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에 인천시박만의 차별화된 전시운영을 위한 학술용역이 요청됨

⑥ 준공 후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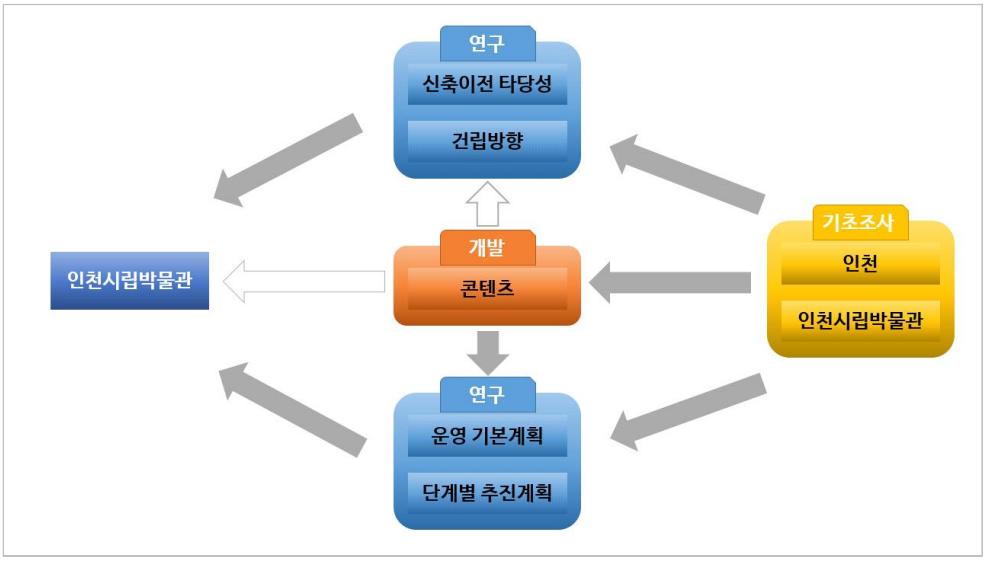
○ 문체부가 보완을 요구한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안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인천시박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1. 연구목적

○ 효율적인 박물관 신축이전사업 추진에 기여
○ 준공 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운영기본계획(안) 제시
○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박의 위상 정립에 일조

2. 연구범위



〈그림 2〉 연구범위

○ 인천시박에 관한 기초조사
○ 전시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인천에 관한 기초조사
○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 신축이전의 타당성 및 박물관 운영방향 연구
- 박물관 콘텐츠 개발
- 운영기본계획(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안) 연구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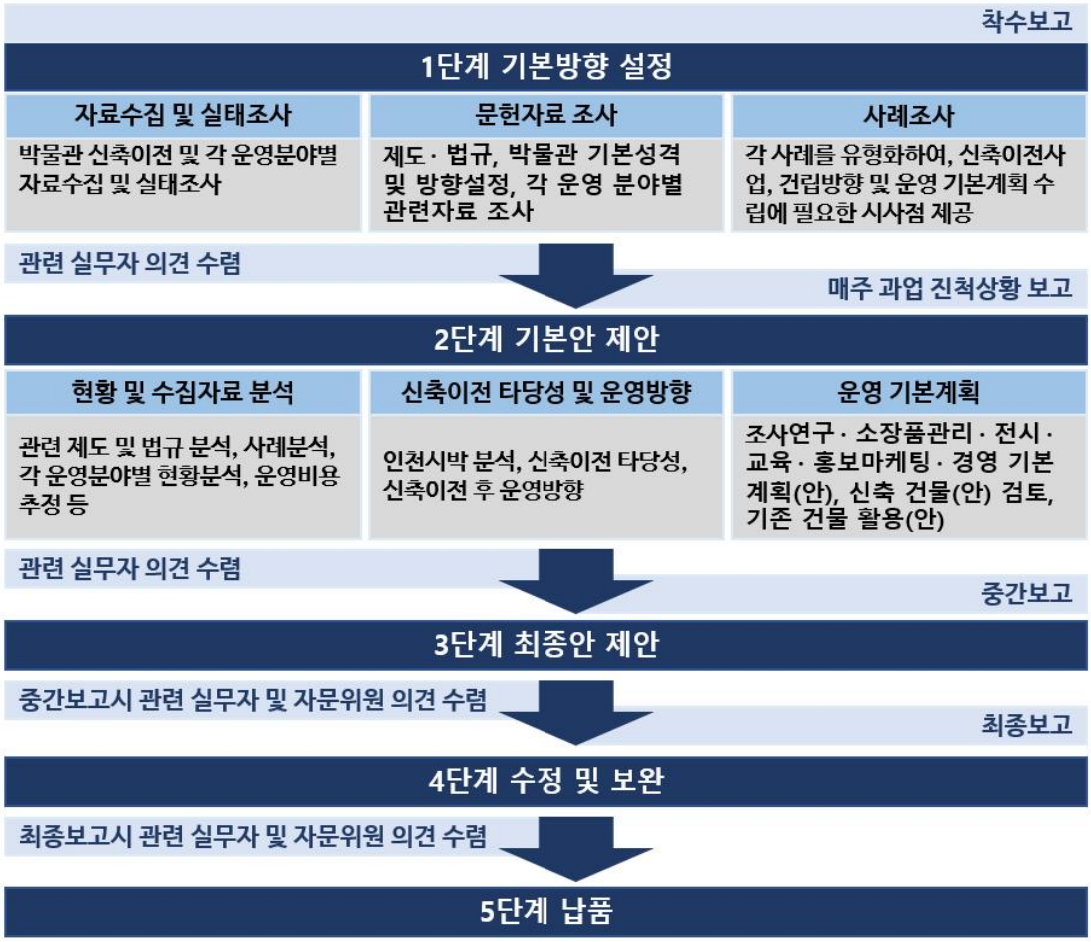
○ 과업지시서의(<부록 1>) 내용을 정리해 <표 2>와 같은 연구내용 및 방법 도출

주제		내용	방법
신축 · 이전 타당성		• 인천시박에 대한 이해(위상, 건물 중심) • 신축 · 이전의 필요성(당위성 제시) • 신축 · 이전 추진경과	문헌자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건립방향		• 인천시박의 성격 설정 · 위상 및 정체성 정립 • 인천시박의 포괄범위 검토 • 분관 및 인천 소재 타박물관과의 차별화 방안 모색	문헌조사 사례조사
운영기본계획안	조사연구	• 실용성 높은 중장기적 조사연구 방향과 운영에 대한 기본구상 • 학술교류 활성화 및 조사연구 성과 공유방안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방안 • 운영비용 추정	문헌자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소장품관리	• 소장품 수집 및 재원확보 방안 • 소장품관리 및 보존 계획: 소장품관리 시설(수장고, 보존처리실)에 대한 기본구상, 보존과학기능의 확대와 시설확충 방안 • 운영비용 추정	문헌자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제도 및 법규
	전시	• 지역성을 표출하는 전시 기본구상: 전시방향 설정, 전시소재 발굴, 콘텐츠 개발(기초자료 조사, 전시대상 제안), 전시내용 구성 및 시나리오 제안 • 전시연출(디자인, 동선) 유형 제시 * 도면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시공간 연출, 공간디자인, 동선계획은 제외 • 준공 후 콘텐츠 운영전략 • 운영비용 추정	문헌자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교육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본구상 • 운영비용 추정	문헌자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홍보 · 마케팅	• 대내외적 홍보 · 마케팅에 대한 기본구상(내외국인 방문객 유치방안) • 정보화 방안(디지털박물관, SNS 등) • 운영비용 추정	문헌자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주제		내용	방법
운영기본계획안	경영	• 합리적인 경영방안 수립: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조직구성 • 재정확보방안(지방재정 부담 해소) • 인천시박과 시립미술관의 역할 분담 최적안 도출 • 운영비용 추정	문헌자료조사 사례조사 실태조사 제도 및 법규
	건축	• 현재 제시된 신축건물(안) 검토 • OCI 건물, 극동방송 사옥, 선교사 사택지, 기존 박물관 건물에 대한 공간활용계획(안)	문헌조사 사례조사
단계별 운영방안		• 단계별 신축이전사업 추진계획 • 연차별 수행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준공 후 콘텐츠 운영전략)	사례조사

〈표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 추진체계



〈그림 3〉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신축이전사업의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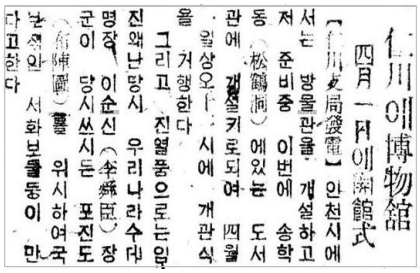
제1절 인천시립박물관에 대한 이해

1. 제1기 세창양행 사택 시기(1945-1950년)

1) 역사적 배경



〈그림 4〉 제1기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인천시립박물관)



仁川에博物館
四月一日에開館式

〈그림 5〉 인천시립박물관 개관에 관한 기사(동아일보 1946)

년월일	내용
1945년 10월 13일	인천박물관 개관 준비 착수
1945년 10월 31일	초대 관장 이경성 취임
1946년 1월-1950년	관원을 위한 교양교육 연구회 개최
1946년 4월 1일	인천박물관 개관
1946년 12월 17일	인천박물관협의원회 창립
1947년 1월	'인천부립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1947년 5월-6월	경주고적 조사
1947년 7월 1일	〈경주고적답사보고전〉 개최
1949년 5월-10월	인천고적 조사
1949년 8월 15일	'인천시립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1950년 6월 27일	한국전쟁 발발로 휴관에 들어감(약 2년 10개월간)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포격으로 박물관 건물 소실

〈표 3〉 인천시립박물관 연표: 1945-1950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ㄱ:24, 2016ㄴ:11)

○ 이 시기를 인천시박의 '태동 · 탄생 · 성립기'로 볼 수 있음
○ 1946년 4월 1일 인천시박의 개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그림 4-5>)
○ 1945년 개관한 서울의 국립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과 평양의 국립중앙력사박물관(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일제에 의해 설립되어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선총독부박물관과 평양부립박물관을 한국인이 인수했다는 점에서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 1946년 4월에 개관한 인천시박도 일제가 설립한 인천향토관을 한국인이 인수했다는 점에서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 해방 후 물자 및 식량부족, 신탁통치반대 등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한국인에게 부여되어 있었음. 인천향토관의 소장품과 건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인 인천시박의 개관을 위한 건물보수 · 소장품 수집 · 전시 등을 전개한 활동의 주체가 한국인이었다는 점은 '독립'과 '자주권'이라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보여줌

-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자폭한 러시아 순양함 바리야크(Variag)호에서 획득한 물질문화 중 한 포탄 위에 "露艦ワリヤク號戰利品(러시아 군함 바리야크호 전리품)"이라는 일본어 명문을 새긴 철판을 용접함(<그림 6-7>). 이 포탄은 바리야크호의 선수기 · 꼬레이츠호의 선수기 · 숭가리호의 러시아 상업깃발 · 소총과 포탄 · 닻과 노 등과 함께 러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전리품으로 일본인들이 획득하여 보관해오다, 후에 인천향토관에 전시함(장윤이 2011:209). 이 전시에는 관람객에게 대국 러시아를 이긴 제국의 신민으로서의 승리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고 기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임. 여기에는 지배국인 일본의 시각만이 있고, 상대국인 러시아와 피지배계층인 한국인의 시각은 배제



〈그림 6〉 바리야크호 포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번호: 00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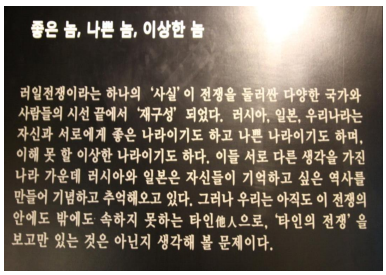
〈그림 7〉 포탄의 명문
(장윤이 2011:209)

- 일본에 전리품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자폭한 러시아 바리야크함은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김명균 2014)
- 러일전쟁 당시 대한제국인에 대해 해외언론들은 "일본군 속에 한국 짐꾼은 어깨에 무거운 가축사료를 지고 간다", "압록강으로 진격하는 일본군 행렬 속에서 부역하는 한국인 짐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간수

레'이다"라는 기사가 보도됨(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0)

- 광복/독립이라는 역사적 배경 아래,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인천시박의 탄생은 물질문화에 대한 해석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할 수 있다는 자주권 보장을 의미함
- 이러한 자주권 보장의 좋은 사례는 인천시박의 특별전에서 찾을 수 있음. 인천시박은 2010년 12월 1일-2011년 1월 30일 특별전 '세 가지 시선, 러일전쟁'을 개최함. 이 전시의 내용구성 및 전개, 해설문에 나타난 한국인으로서의 시각에 주목할 필요 있음(<사례 1>)

〈사례 1〉 특별전 '세 가지 시선, 러일전쟁'





〈그림 8〉 인천시립박물관 '세 가지 시선, 러일전쟁'전 해설문

[전시 해설문 전문]

- **도입해설문**

러일전쟁 혹은 일로전쟁日露戰爭의 주인공은 전쟁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와 일본이다. 재미있는 것은 두 주인공 모두 성공적인 전쟁을 치렀다는 데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서구열강의 세력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승리자, 일본. 항복을 거부하고 명예를 지킨 위대한 패배자, 러시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이 전쟁을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한다.

- **해설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러일전쟁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전쟁을 둘러싼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의 시선 끝에서 '재구성' 되었다.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는 자신과 서로에게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나쁜 나라이기도 하며, 이해 못 할 이상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은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은 역사를 만들어 기념하고 추억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전쟁의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하는 타인他人으로, '타인의 전쟁'을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 **해설문 "세 가지 시선, 러일전쟁"**

현재의 우리도 100년 전의 우리도...
같은 곳에 서 있다.

지금, 여기,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인천시박이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이경성에 의하여 ‘인천’에 설립되었다는 점이 상징하는 바가 큼

> 사실 내가 27세의 젊은 나이로 박물관에 뜻을 가진 것은 1940년대로, [...] 동경 유학 시절 고유섭 선생의 처남인 이상래와 동경에서 생활을 같이하며 그 인연으로 고유섭 선생과 서신을 교환하게 되고 고 선생의 지도에 따라 고고학에 뜻을 두고 장차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종사하려는 뜻을 굳힌 때문이다.
>
> [...] 학교 생활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중단되어 버렸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박물관에 대한 애착은 끊임없이 이어져 해방되던 1945년 9월의 어느날 대담하게도 군정청 교화국장 최승만을 찾았다. 그랬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전화로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원 박사를 불러서 나를 소개하고 모처럼 기특한 젊은이가 생겼으니 잘 지도하라고 김 박사에게 맡겼다. 그때부터 나는 아직 개관하지 않은 박물관 사무실에 출근하여서 빈 집을 지켰다.
>
> (이경성 1998:36)
>
> 이렇게 하는 일도 없어 자경전에 출근하는 것이 열흘쯤 되던 어느날 인천에서 미군정관 홈펠 중위가 젊은 통역관 최원영과 더불어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인즉 인천에 향토관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향토관을 박물관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홈펠 중위가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의 장학관으로서 교육, 문학을 담당했던 이였기 때문에 나온 생각인 것 같았다.
>
> [...] 고향인 인천에 시립박물관을 창설하는 일은 무척이나 구미가 당겼다. 그래서 나는 며칠 후 자경전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 1945년 10월이 다되어 가는 어느날 인천으로 돌아온 나는 임홍재 시장을 만나고 향토관을 두루 살핀 후 그것을 시립박물관으로 만들 결심을 하였다.
>
> (이경성 1998:37)

- 인천시박은 관이 주도해 설립한 공립박물관이 아닌, 인천시민이 주도해 설립한 공립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인천시민의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미군정 당국은 1945년 9월 26일 인천군정관 부내 일본인 각 과장 해임 및 한국인으로 각 과장을 임명하였고, 1945년 10월 6일 모스 중위 주재로 인천부윤(인천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임홍재가 인천부윤으로 선출됨(인천광역시 2004:31, 36).
- 당시 상황에 대해 이경성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음

> 1945년 10월 31일 나는 인천시장실에서 미군정관과 시 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인천시립박물관장 발령을 받았다. 대우는 촉탁이고 월급은 300원이었다. 우선 개관 날짜를 만국공원 주변에 꽃이 만발하는 4월 1일로 정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
> 갑자기 치르는 박물관 건설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같은 전문적인 직원도 없는 터에 일을 하자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번 임 시장으로부터

> 꾸중을 들었는데 돈도 없이 일만 저지른다는 것이 이유였다. 갑자기 생긴 박물관인지라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
> 때마침 미군정 시대이고 홈펠 중위와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난 덕에 일은 생각보다도 잘 진척되었다. 낡은 박물관 벽의 흠을 수리하기 위한 모든 재료는 인천에 있는 여러 공장에서 직접 실어 왔다. 몇 트럭에 달하는 목재와 페인트, 못 등 건물 수리에 필요한 재료를 홈펠 중위와 직접 지프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선기계제작소, 인천제정 등 창고를 뒤져서 기증받았다.
>
> 그래서 건물의 낡은 마루를 고치고 페인트칠을 해서 아름답게 수리하였다.
>
> (이경성 1998:37-38)

- 홈펠 중위의 도움과 이경성의 노력이 없었다면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 설립'이라는 역사를 가질 수 없었음. 참고로 한국 공립박물관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인천시박이 개관한 지 17년이 지난 1963년이 되어서야 다음 공립박물관이 개관함(<표 4>)

개관연도	소재지	박물관
1963	광주	도립광주박물관(광주역사민속박물관)
1974	밀양	밀양군립박물관(밀양시립박물관)
1978	부산	부산직할시립박물관(부산박물관)
2002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1	울산	울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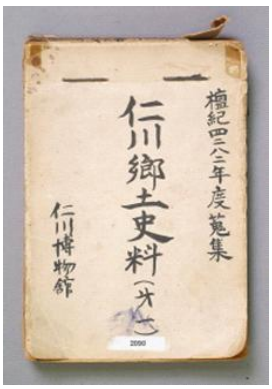
〈표 4〉 주요 공립박물관 개관연도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천시박의 가치는 인천의 지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화 박물관의 설립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1946년 9월 9일 이경성은 <<대중일보>>에 <향토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이란 글을 게재함. 이 글에서 "향토라는 것은 우리의 출생지 또는 생존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감정과 결합한 세계"이며 "국사라는 것이 중앙적 역사와 지방사를 종합할 적에 정당한 가치를 보유"한다고 강조하며 온전한 국사 편찬의 한 축으로서 지역사의 위상을 설정함(이희환 2007)
- 이 글에서 이경성은 인천이 국제항구도시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향토색이 없고, 이는 역사적 전통의 부재와 사회적 특성인 인구의 이합집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해방 이후 일본인이 펴낸 <<인천부사>>를 대체할 인천 지역사 연구의 절실함을 피력함(이희환 2007)
- 1949년 인천시박은 계양산방면 · 동춘동방면 · 문학방면 · 서천방면 · 주안방면 · 덕적도 · 선미도 등 인천지역의 고적조사 실시(인천광역시립

박물관 1998:7)

- 1949년 수기로 된 <인천향토사료 1 · 2> 발간



〈그림 9〉 인천향토사료
(인천시립박물관)

2) 위치



〈그림 10〉 세창양행 사택 위치(네이버지도,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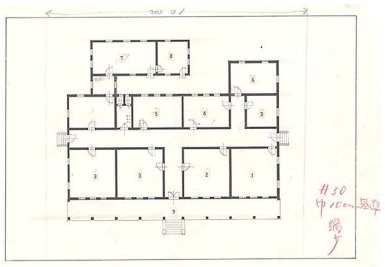
- ○ 세창양행 사택은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1가 1번지'에 위치(<그림 10>)
- ○ 소실된 세창양행 사택은 현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위치에서 남향으로 지어져 인천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고 함(배성수 2015)
- ○ 이곳은 개항 이후 인천의 중심부로 발달해온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인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좋은 위치임

3) 건물

(1) 건물개요



〈그림 11〉 세창양행 사택 모형
(김건희)



〈그림 12〉 세창양행 사택 평면도
(아이-뷰 2018)

○ 세창양행 사택은 독일계 무역회사인 세창양행(Edward Meyer & Co.)의 제물포(인천) 지점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1884년)로, 인천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서구식 주택임. 1899년 6월 인천을 방문한 독일 황제의 동생인 하인리히 왕자가 주재한 파티가 이 건물에서 개최됨(인천광역시 2015:83-84)

○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함에 따라, 일제는 이 건물을 몰수해 적산가옥으로 처리함(1916년). 이후 청광각(淸光閣)으로 불리며 인천부립도서관(1922년)을 거쳐 인천향토관(1941년)으로 사용됨(최성연 2002:78-82).

○ 해방 후 인천시박의 건물로 사용되던 중 1950년 인천상륙작전 때 함포사격으로 소실됨

(2) 건물형태 및 구조

○ 건평 173.15평(572m^2)의 건물로, 회칠을 한 외벽에 붉은 기와지붕을 얹은 별장류의 주택(<그림 11>). 아케이드를 갖춘 일부 2층의 벽돌건물로 중국인 대목이 시공한 건물임(윤일주 1966:269)

○ 내부시설로는 사무실, 응접실, 침실, 부엌, 식당, 오락실 등이 있음

(3) 박물관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시사점

○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자 인천 최초의 박물관이 대한민국/인천 최초의 서구식 건물에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당시 이 건물은 존스턴 별장과 함께 인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함

○ 내부가 여러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여러 개의 전시실로 사용 가능(<그림 12>)

- 1946년 개관 당시 총 5개의 전시실이 있었음(<표 5>)

전시실	전시품
제1호실	고려시대 금속제품, 조선시대 금제 풍차, 옥제품, 자개 장식품, 이순신장군 포진도
제2호실	고구려시대 도기
제3호실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백자, 김옥균 친필
제4호실	조선시대 백자, 중국 도자기
제5호실	신라시대 토기, 석기, 기와
제6호실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관련 사진 및 무기, 맘모스 상아

〈표 5〉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당시 전시구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ㄱ:59)

○ 이 건물의 단점은 겨울 기후에 취약한 건물이고, 공간이 협소해 별도의 수장고와 아카이브/자료보관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임

4) 한국전쟁과 인천시립박물관

○ 성장을 계속하던 인천시박은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6월 27일 무기휴관에 들어감. 당시 상황에 대해 이경성은 아래와 같이 회고하고 있음

> […] 1950년 6월 25일 갑작스런 북한군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인천이 북한군에 점령당한 어느날 이북에서 사명을 띠고 온 김용태라는 사람이 박물관으로 와서 일체의 소장품과 건물을 접수했다. 그리고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직장을 지키라는 것이다.
>
> 그 얼마 뒤에 건물을 군대에서 쓸테니까 비우라는 명령이 있어서 창고에 있는 물건을 제외하고 진열장 속에 있던 대표적인 소장품을 시장에서 사 온 상자에 포장해서 박물관 아래쪽의 구 시장 관사에 있는 방공호로 옮겼다. 그러나 그곳도 사흘만에 북한 군대가 사용한다며 폐쇄하였다. 그래서 당시 수위로 있던 김정용의 친척이 사는 송림동으로 옮겼다. 현재 인천광역시박물관에 전시된 초창기의 소장품은 이렇게 소개(疏開)되었기 때문에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함포 사격으로 소실된 박물관 건물과는 달리 현재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
> (이경성 1998: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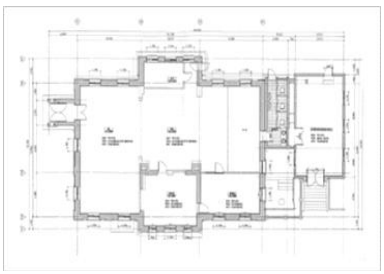
○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유엔군의 포격으로 북한군이 사용하고 있던 인천시박 건물이 소실됨

2. 제2기 제물포구락부 시기(1953-1989년)

1) 역사적 배경



〈그림 13〉 제2기 인천시립박물관 건물(최모란 2018:20)



〈그림 14〉 제물포구락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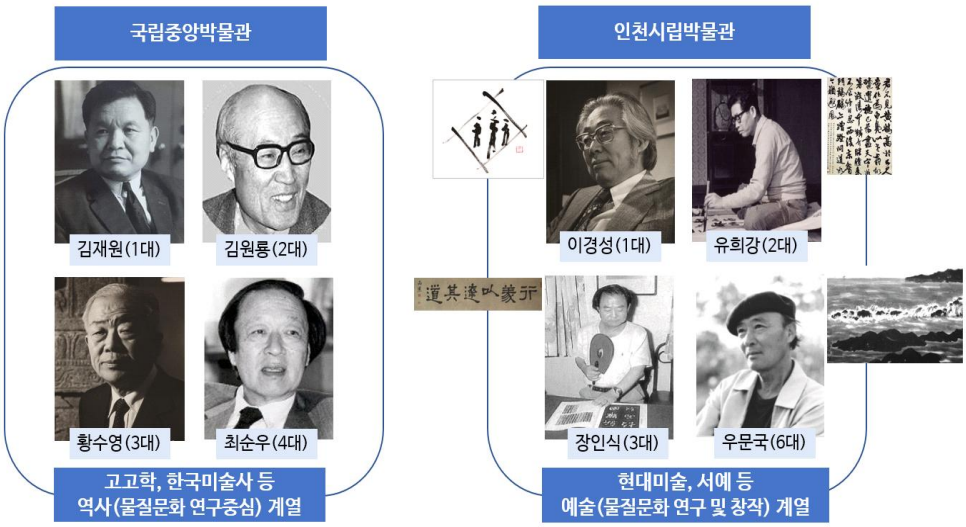
년월일	내용
1953년 4월 1일	박물관 이전복관
1953년 5월 21일	시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이던 유물 반입
1953년 9월-12월	인천 남동 · 문학 · 부평 방면 고적 조사
1954년 9월-12월	인천지역 고적 조사
1956년 4월 30일	개관 10주년 기념 〈개인 소장품 전시회〉 개최
1957년 11월 30일	인천 주안동 고인돌 발굴(김원룡, 이경성 참여)
1962년 11월	〈국립박물관소장 국보급유품 특별전시회〉 개최
1963년 6월	인천 영종도 운남동 고인돌 발굴
1965년 11월- 1966년 5월	인천 서곶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발굴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조사)
1981년 1월 31일	박물관 첫 도록 발간(유물 151점 선별수록)
1981년	'인천직할시립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1987년 12월 30일	이전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물 신축 착수
1989년 12월 20일	신 박물관청사 완공

〈표 6〉 인천시립박물관 연표: 1953-1989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ㄱ:24, 2016ㄴ:11)

○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 사령관 간에 휴전이 조인됨. 인천시박이 재개관한 것은 이보다 앞선 1953년 4월 1일임. 이에 대해 이경성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음

>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재개관을 강행한 이유는 6 · 25 전쟁 통에 박물관의 물건들이 다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것의 건재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날짜를 4월 1일로 잡은 것도 기후가 좋은 때이기도 했지만 첫 개관일이 4월 1일이었던 때문이기도 했다.
>
> (이경성 1998:50)

○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천시박 관장으로 이경성(미술평론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미술이론가, 미술가), 유희강(서예가), 장인식(서예가), 우문국(화가) 등 인천지역 예술가들이 부임했다는 점으로(<그림 15>), 초기 제물포 구락부 시기의 기획전시를 보면 관장들의 예술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표 7>)



〈그림 15〉 초기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의 전문분야

관장	날짜	기획전
이경성	1953년 4월 30일-6월 24일	제1회 고미술전
	1953년 5월 1일-10일	김철세 개인사진전
	1953년 7월 4일-16일	문총 주최 미술전
	1953년 12월 23일-29일	문총 주최 미술전
	1954년 2월 13일-21일	경기도계엄민사부 주최 시화전
	1954년 3월 5일-14일	한미친선예술사진전
유희강	1954년 10월 7일-13일	교육청 주최 아동미술품전시회
	1955년 3월	3 · 1절기념 사진전
	1955년 12월 4일-1956년 1월 20일	제1회 남녀중고생 미전
	1956년 3월	인천미협 주최 미전
	1956년 4월 30일-5월 12일	개관10주년기념 개인소장전
	1956년 10월	제1회 남녀중고생 사진전
	1957년 2월	제2회 남녀중고생 미전
	1958년 3월 15일-4월 6일	제3회 남녀중고생 미전
	1958년 9월 25일-10월 7일	제4회 남녀중고생 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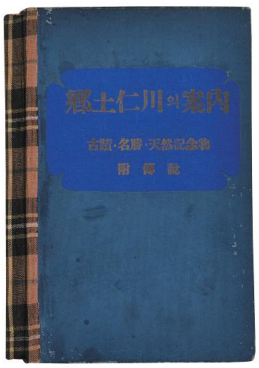
〈표 7〉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1953-1989년(인천광역시 1998:17)

- 참고로, 1947년 4월 1일 이경성은 홈펠 중위의 도움으로 인천 항동에 있는 옛 영국영사관 건물을 활용하여 지금의 '예술의 전당'과 같은 구성과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립예술관'을 창설함. 이곳에서 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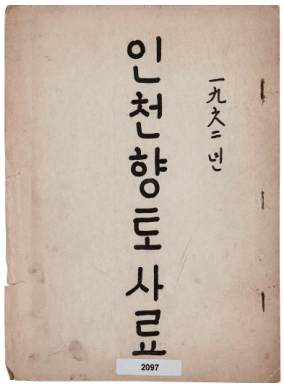
동 · 이상범 · 배렴 등 서울의 일류화가들의 작품을 대여해 대규모의 한국근대미술전을 개최하기도 함. 창설 후 약 1년간 이경성은 인천시립예술관과 인천시박 관장직을 겸함(이경성 1998:40-41). 이를 통해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을 가질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이들이 인천시박과 인천의 문화유산 수호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관장직을 수행한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박의 위상 재정립 가능

- 1959년 발간한 <<향토인천의 안내>>에서(<그림 16>) 제2대 관장 유희강은 "이 향토를 소개하는 소책자는 건국 이후 신문화 건설의 획기적인 단계에 있어서 향토사 연구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시하려는데 의도가 있다"고 밝힘(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ㄴ:69)
- 이들 관장의 지휘 아래 1950-60년대 인천시박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인천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한편, 꾸준히 인천의 지역사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활동과 수집활동을 전개함(<그림 17>)



〈그림 16〉 <<향토인천의 안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ㄴ:69)



〈그림 17〉 1962년 인천향토사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ㄴ:68)

- 제6대 관장직을 맡은 화가 우문국의 다음 글을 통해 박물관에 대한 그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외국인 관광객 등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선 찾는 곳이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전시품을 훑어보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기 때문이다.
>
> 인천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이 고장의 자랑이다. [...]
>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98:47-48)

○ 고유섭의 다음 글에서 '고적'을 '박물관' 또는 '소장품'으로 바꿔 읽어봄

으로써, 당시 이들 관장들이 가진 인천시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이면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고적은 인간 생활의 전통을 보여주는 증징체다. 창조는 전통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역사는 생활의 잔해가 아니라 창조의 온상이며, 고적은 한낱 역사의 조백이 아니라 역사의 상징, 전통의 현현인 것이다.
>
> (인천문화재단 2006:235)

○ 안타깝게도 1968년 말 행정 주사 대우였던 관장 직급이 행정 사무관으로 상향되면서, 행정공무원이 관장으로 부임하기 시작함(특히 정년퇴임을 1년 앞둔 퇴임 예비 공무원의 배치 자리로 변질함). 관장의 박물관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 열악한 예산 · 전문인력 부족 · 인천시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은 1970-80년대의 인천시박에 침체기를 가져옴(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ㄱ:42). 이에 국립박물관측에서 인천시박을 저토록 고물상 창고처럼 방치시킬 바에는 차라리 폐쇄하는 편이 좋겠다는 경고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됨(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98:56)

2) 위치



〈그림 18〉 제물포구락부 위치(네이버지도)

○ 제물포구락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1가 11번지'에 위치함(<그림 18>)

○ 자유공원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구락부는 세창양행 사택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음

3) 건물

(1) 건물개요

○ 1891년 인천 중구 관동 1가 8-2번지의 목조 단층건물에 설립된 제물포구락부는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을(서양인, 중국인, 일본인) 위한 사교장이었음. 초기에는 일본인 위주의 사교모임이었으나, 그 후 회원자격 기준이 엄격해지고 입회절차가 까다로웠던 까닭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서양인들만의(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친목을 돕는 사교장으로 변화됨. 이러한 서양인 주축의 제물포클럽은 1901년 자유공원 기슭으로 신축이전함(강덕우 2020:11)

○ 이후 제물포구락부 건물(1901)은 '일본제국 내향군인회인천연합회 소속의 정방각(1913년) → 일본부인회관(1934년) → 미군장교클럽(1945년) → 대한부인회 인천지부 회관(1947년) → 북한국 대대본부(한국전쟁 중) → 미군 사병클럽 → 시의회 · 교육청 · 인천시박 공동 사용(1952년) → 인천시박(1953)'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됨

○ 1993년 7월 인천시는 이 건물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함

(2) 건물형태 및 구조

○ 벽돌조 2층 건물(지상1층, 반지하1층)로 연와조. 지붕은 일본식 합각지붕과 맨사드 지붕으로 처리했으며, 마감재료는 양철을 사용

○ 크기는 대지 446.9m^2, 연면적 367.11m^2(111평) - 1층 110.13m^2(34평), 2층 56.98m^2(17평)임

○ 내부시설로는 사교실, 도서실, 당구대 등이 있고, 근처에 테니스장이 있음

(3) 박물관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시사점

○ 1952년 7월경 미군 사병구락부로 활용되고 있던 이 건물을 인천시박 건물로 양도받음. 진열장 등 집기를 구입할 예산부족으로 개관은 1953년으로 미룸. 대신 그때까지 인천시의회와 교육청과 공동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기로 결정(배성수 2008)

○ 한국 근현대건축에 영향을 준 러시아 건축가 아파나시 세레딘-사바틴(Afanasy Seredin-Sabatin, 1860-1921)이 이 건물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당초 사교장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건물이라, 박물관 용도로 쓰기에는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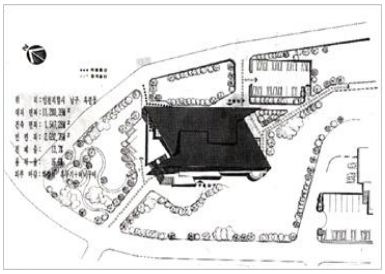
모가 협소하다는 점이 이 건물의 가장 큰 단점임
- 1946년 개관 당시보다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전시 및 교육 공간 협소
- 지속적인 수집활동에 의한 소장품 증가로 별도의 수장고와 아카이브/자료보관 시설 필요

3. 제3기 옥련동 525번지 시기(1990-현재)

1) 역사적 배경



〈그림 19〉 제3기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ㄱ:43)



〈그림 20〉 인천시립박물관 배치도

년월일	내용
1990년 5월 4일	신축건물로 이전 개관
1992년 11월 23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거 문화부 등록
1993년 2월-8월	영종 · 응유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1993년 4월 23일	인천직할시립박물관 지역문화학교 지정
1994년 9월 6일-18일	해외박물관 조사(미국)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1995년 11월 25일- 1996년 1월 8일	송산선사유적지 발굴조사
1995년 12월 16일-18일	해외박물관 조사(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타이완)
2001년 2월 1일	박물관 자원봉사단 출범
2004년 4월 1일	임시 휴관. 박물관 증 · 개축 공사 착수
2006년 7월 10일	박물관 증 · 개축 공사 완료 후 재개관
2007년 12월 7일	송암미술관 분관 편입
2008년 1월 28일	검단선사박물관 분관 편입
2012년 2월 27일	한국이민사박물관 분관 편입
2014년 1월 1일	컴팩스마트시티(인천도시역사관) 분관 편입
2016년 3월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기관'으로 등록

〈표 8〉 인천시립박물관 연표: 1990-현재(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ㄱ:24, 2016ㄴ:11)

○ 1970-80년대 인천시박이 침체기를 겪었다면, 1987년 신축이전사업 추진, 1988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학예연구사 채용, 1990년 신축 박물관으로 이전, 1995년 지방자치 시대 개막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인천시박에 활력을 불어넣게 됨

2) 위치



〈그림 21〉 옥련동 525번지 시기 인천시립박물관 위치(네이버지도,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 제3기 인천시립박물관 건물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에 위치함 (<그림 21>)
○ 제1기와 제2기 건물에 비해, 현저하게 접근성이 떨어짐
○ 능허대로 및 능허대로 191번길을 통해 박물관으로 접근시 모텔 밀집지역을 접하게 됨(<그림 21>의 보라색)

3) 건물

(1) 건물개요

○ 인천시박 역사상 처음으로 박물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지 내 이전됨에 따라, 대지분할이 이루어짐
○ 이 건물은 1991년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 수상

(2) 건물규모 및 시설

① 1990년 개관 당시

○ 크기는 대지 9,753m^2(2,950평), 연면적 2,692m^2(814평), 전시공간 800m^2(242평)임[1)]

○ 내부시설로는 전시실 3개, 옥외전시장, 수장고 2개를 갖춤

○ 박물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간협소가 가장 큰 단점으로 드러남

- 별도의 기획전시실이 없어 매년 상설 전시실의 유물을 옮긴 후 특별전 개최
- 강의실이 없어, 인근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영상관을 대관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1995년 강화군 · 옹진군 · 김포군 검단면 통합, 2000년 이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천시의 면적이 확장, 내외국인 등록인구 증가 등에 따라 인천의 역사를 조명하는 인천시박의 포괄범위도 넓어짐. 이에 따라 수장고 · 전시 · 교육 공간의 확충이 요구됨

② 2006년 증 · 개축

○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박물관 증 · 개축 공사 실시

○ 증 · 개축 후 박물관의 크기는 <표 9>와 같음

(단위: m^2)

대지면적	연면적	전시공간	수장공간	교육공간	기타공간
11,114.5 (3,362평)	5,831 (1,764평)	1,533.4 (464평)	547.5 (166평)	674.4 (204평)	2,696.7 (816평)

〈표 9〉 2006년 증 · 개축 후 인천시립박물관 규모

○ 내부시설로 전시실 5개, 기획전시실, 옥외전시장, 수장고 4개, 보존처리실, 세미나실, 석남홀(200석 규모)을 갖추게 됨

1) 제1전시실 247m^2, 제2전시실 290m^2, 제3전시실 263m^2

4. 종합

○ 1990년 개관한 인천시박의 건물 설계 시, 기존에 인천시박이 전개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기획전시실과 교육시설(강의실) 설치를 위한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1990년 옥련동에서 재개관한 인천시박 건물이 제1기와 제2기 타용도 건물을 활용한 박물관 건물에 비해 대지는 약 20배, 건물 면적은 6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후인 2004년에 증 · 개축 공사를 시작함

○ 이에 2025년 인천뮤지엄파크 부지에서 재개관할 인천시박 건물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위상 재구축에 걸맞는 건물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이를 통해 문화도시 인천의 르네상스 시대 개막에 일조할 수 있음

○ 성공적인 신축이전사업을 위해, 세창양행 사택 · 제물포구락부 · 옥련동 시기의 박물관 건물에 대한 소회가 담긴 김양수의 다음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나는 멋들어진 이 건물관이[세창양행 사택] 박물관으로 있을때 생전 처음 박물관 건물을 대했기 때문에 박물관이란 이렇듯 우아한 건물이어야 한다고 선입견을 갖게 되어서 그뒤 포격으로 박물관 건물이 소진이 된 탓으로 현대 인천문화원 건물인 〈제물포구락부〉자리에다 1.4후퇴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박물관의 복관(復館)을 보았을 때 사실 박물관 건물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제물포구락부〉건물도 각국지계안에 세워진 서양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양식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첫 건물이 워낙 박물관 건물로 훌륭했었기때문에 두번째 건물은 성에 차지 않았다 늘 임시 가옥(家屋)에 들어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같은 기분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45년만인 1990년 송도 옥련동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곁으로 박물관건물을 새로 짓고 이전하여 멋진 위용을 자랑하는 새건물을 과시하게 된 박물관이 되었으나 왜 그런지 나는 제일 첫번째 건물에 정이 들어서 그런지 박물관 건물로서는 자꾸 첫 〈청광각〉건물만이 박물관인 것 같은 감흥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다.
>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98: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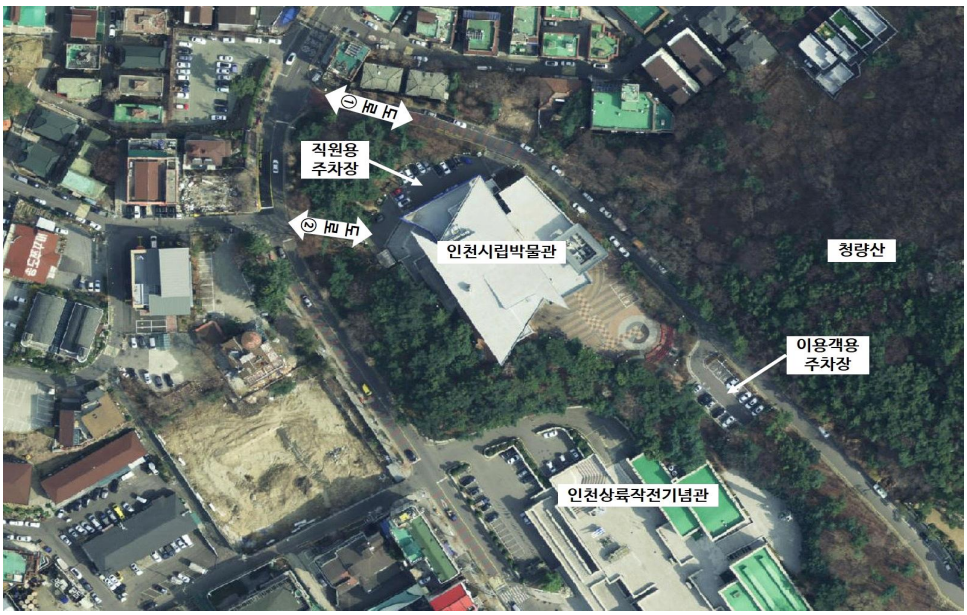
제2절 신축이전의 필요성

1. 인천시립박물관의 입지 분석

1) 위치

도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지　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

○ 인천시박은 청량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상업시설, 주거지 등이 있음



〈그림 22〉 인천시립박물관 항공지도(네이버 지도)

○ 산기슭에 위치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의 시설확장은 불가능함
○ 이전에 주 출입로로 사용하던 '도로②'는 도로의 종단곡선 정점부에 있어 진출하는 차량의 시거(視距, sight distance)가 전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 진출차량과 도로 진행차량의 충돌위험이 상존해 폐쇄함
○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인접해 있으나, 두 시설 간 18m의 표고차가 있으며 연계성이 높지 않음
○ 오히려 청량산 등산객의 박물관 유입이 눈에 띔

2) 신축이전의 필요성: 접근성

(1) 대중교통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함. 이는 주요 공립박물관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짐

① 버스

○ 2개의 정류소에 간선버스 노선 5개(8, 9, 16, 65-1, 112-2), 지선버스 노선 1개(523), 광역버스 노선 1개(9200) 경유(<표 10-11>)

○ 버스정류장에서 박물관까지 급경사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기에, 실제 도보 소요시간은 10분 이상 걸림. 버스 이용 불편

박물관	정류장명	소요시간 (정류장에서 박물관까지)	버스노선
인천시립 박물관	송도유원지	도보 8-10분(555m)	9, 111-2, 9200
	축현초등학교	도보 3-5분(203m)	8, 16, 65-1, 523
부산 박물관	시립박물관	도보 약 3-5분(173m)	51, 68, 134
	시립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도보 약 1-2분(98m)	138, 138-1, 1006
서울역사 박물관	광화문, 금호아시아나본관앞	도보 약 1-2분(126m)	470, 741, 601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장)	도보 약 3-5분(206m)	790, 799, 1002, 7019, 9709, 9710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장, 강북삼성병원	도보 1-2분(92m)	101, 470, 601, 704, 720, 741, N37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앞	도보 약 4분(241m)	160, 260, 270, 271A, 271B, 273, 370, 470, 600, 602, 702A(서오릉), 702B(용두초교), 705, 720, 721, 741, 1004, 8600, 8601, 8601A, 9701, N26, N37
울산 박물관	공영탑	도보 12분(771m)	713, 724, 1127, 1705
	올림푸스아파트 앞	도보 9분(608m)	106, 206
	울산박물관, 울산대공원동문앞	도보 4분(277m)	205, 225, 453, 715, 857

〈표 10〉 주요 공립박물관 버스노선

버스	기점	종점	배차간격(분)	
			평일	주말
8(간선)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송내역	6-9	8-12
9, 16(간선)	무지개아파트(동남아파트)	가좌동차고지	16-22	21-27
65-1(간선)	동춘동종점	주안역환승정류장	15-19	15-19
111-2(간선)	무지개아파트(동남아파트)	부평역(로터스프라자)	10-13	14-17
523(지선)	동춘동종점	인명여자고등학교	11-12	12-17
9200(광역)	송도파크레인 동일하이빌	강남역 서초현대타워 앞	7-15	7-15

〈표 11〉 버스 배차간격(인천버스정보시스템)

② 지하철

○ 인근에 지하철 부재(<표 12>)

○ 가장 근접한 지하철은 수인선(평일 주간 배차 시간 15분) 송도역으로, 박물관까지 도보로 약 20분 이상(1,32km) 소요

박물관	지하철역	소요시간 (역에서 박물관까지)
인천시립박물관	-	-
부산박물관	2호선 대연역	도보 11분(784m)
서울역사박물관	1호선 시청역	도보 15분(850m)
	2호선 시청역	도보 16분(980m)
	3호선 경복궁역	도보 10분(720m)
	5호선 광화문역	도보 7분(470m)
	5호선 서대문역	도보 8분(600m)
울산박물관	-	-

〈표 12〉 주요 공립박물관 지하철노선

(2) 주차

○ 이용객용 주차장 출입 통로(<그림 22>의 '도로①') 폭이 8m로 좁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며, 대형버스의 진입이 어려움

○ 장애인 주차공간을 포함해 34면(408m^2)의 야외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지상 주차면적 확장 불가능

○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각급 학교의 단체 관람을 유도하거나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음

2. 인천시립박물관의 규모 분석

1) 인천 소재 공립박물관 규모

○ <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인천에는 15개의 공립박물관이 있음(<표 13>)

(단위: m^2)

박물관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전시 공간	수장 공간	교육 공간	자료/ 도서실	사무 공간	기타	주차
강화역사 박물관	14,187	4,233	1,125	255	81	-	127	78	348 (29대)
강화자연사 박물관	4,888	2,712	1,134	200	33	-	56	25	336 (28대)
강화전쟁 박물관	3,475	993	555	47	-	6	54	-	912 (76대)
검단선사 박물관	10,216	1,970	786	102	-	18	126	-	216 (18대)
녹청자 박물관	4,700	834	342	76	157	-	76	-	216 (18대)
부평역사 박물관	17,956	3,109	944	135	255	33	115	33	372 (31대)
소래 역사관	1,234	1,424	540	62	90	-	54	-	168 (14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58,241	2,045	882	87	42	-	127	78	192 (16대)
영종 역사관	5,000	2,936	939	196	100	30	46	-	1,356 (113대)
인천개항 박물관	1,298	880	768	39	37	-	25	-	240 (20대)
인천시립 박물관	11,114	5,830	1,495	345	393	126	200	56	408 (34대)
인천도시 역사관	7,715	8,444	2,950	222	424	27	96	56	876 (73대)
짜장면 박물관	582	846	566	18	-	13	23	-	-
한국근대 문학관	1,176	1,740	605	138	94	-	94	-	96 (8대)
한국이민사 박물관	10,793	4,190	1,224	141	84	50	2,678	-	540 (45대)

<표 13> 인천 소재 공립박물관 규모

○ 신축이전 후 인천시박의 규모가 인천 최초의 박물관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규모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립중앙박물관이 분관인 지방의 국립박물관이나 타박물관과 차별화되는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박물관의 규모임. 용산에 신축이전 당시 보도된 기사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날 문을 열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웅장한 규모만으로도 입장객의 눈길을 끈다. 새 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9만2936평, 연건평은 4만616평이다. 건물 길이는 최대 404m, 건물 최고높이는 43m, 지상 6층이며 전시영역은 8200여 평에 달해 규모로 따지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박물관이다.
>
> (장승철 2005)

2) 주요 특별/광역시립박물관 규모

○ <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주요 특별/광역시립박물관의 규모는 <표 14>와 같음

(단위: m^2)

박물관	개관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전시 공간	수장 공간	교육 공간	자료/ 도서실	사무 공간	기타	주차
인천시립 박물관	1946	11,114	5,830	1,495	345	393	126	200	56	408 (34대)
부산 박물관	1978	27,428	14,831	4,208	2,062	1,569	150	611	173	(84대)
서울역사 박물관	2002	99,728	20,974	5,065	1,684	909	173	782	287	(114대)
울산 박물관	2011	33,058	14,408	3,197	1,241	486	160	170	62	(126대)

〈표 14〉 주요 특별/광역시립박물관 규모

○ 2020년 3월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각 도시별로 살펴보면, 인천시의 인구가 울산시보다 2.5배 이상 많으나, 박물관의 규모는 울산박물관이 더 넓음(<표 15>)

○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신축이전 후 인천시박의 대지면적은 미술관과 공원을 포함해 25,570m^2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울산박물관을 위시해 부산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음

(단위: 명)

특별/광역시	인구	내국인	외국인
인천	3,029,261	2,957,026	72,235
부산	3,452,910	3,404,423	48,487
서울	10,010,983	9,729,107	281,876
울산	1,162,573	1,143,148	19,425

〈표 15〉 주요 도시 인구현황(부산광역시 2020:2; 서울특별시 2020:2; 울산광역시통계 2020; 인천데이터포털)

○ 각 공립박물관의 전시실 구성을 살펴보면(<표 16>), 인천시박의 역사1실에서 다루는 주제를, 부산박물관에서는 7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임의로 각 박물관의 전시공간을 전시실 수로 나누어보면, 인천시박의 각 전시실 평균은 214m^{2}이고, 부산박물관의 각 전시실 평균은 324m^{2}임
-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함에 있어서, 214m^{2}의 전시실 1곳에서 구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인천을 전시하는 것과 324m^{2}인 전시실 7곳에서 각 실마다 주제를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 청동기시대 · 삼한시대 · 삼국(가야)시대 ·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의 부산으로 나눠 전시하는 것은 내용의 구성 및 전개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

박물관	전시공간(평균)	전시실	전시실 구성
인천시립박물관	1,495m^2 (214m^2)	7실(3개층)	역사1실 · 역사2실 · 서화실 · 공예실 · 기증실 · 기획전시실 · 작은전시실
부산박물관	4,208 (324m^2)	13실(3개층)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 청동기시대 · 삼한시대 · 삼국(가야)시대 ·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실 · 근대실 · 현대실 · 미술실 · 기획전시실 · 기증전시실
서울역사박물관	5,065 (563m^2)	9실(3개층)	조선시대의 서울 · 개항, 대한제국기의 서울 · 일제강점기의 서울 · 고도성장기 서울 · 정보의 다리 · 도시모형 영상관 · 기획전시실A · 기획전시실B · 기증유물전시실
울산박물관	3,197 (533m^2)	6실(2개층)	역사관 · 산업사관 Ⅰ · 산업사관 Ⅱ · 기획전시실 Ⅰ · 기획전시실 Ⅱ · 어린이박물관

〈표 16〉 주요 공립박물관 전시실

3) 주요 국립박물관 규모

○ 국립중앙박물관의 분관인 지방의 국립박물관들이 각기 소재하고 있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박과 공통점이 있음. 이에 <표 14>의 '공립박물관 연면적'의 평균인 14,011m^2 이상인 국립박물관을 사례로 선정함(<표 17>)

박물관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시 공간	수장 공간	교육 공간	사무 공간	기타
국립경주 박물관	면적(m^2)	135,547 13,025	28,183	6,247	8,417	1,167	2,756	9,596
	구성비(%)			27	36	5	10	34
국립광주 박물관	면적(m^2)	82,993 5,575	15,127	3,470	1,890	1,965	1,300	6,502
	구성비(%)			23	13	13	1	43
국립김해 박물관	면적(m^2)	53,555 7,823	16,783	3,622	2,871	1,179	1,782	7,329
	구성비(%)			22	17	7	11	44
국립대구 박물관	면적(m^2)	101,094 7,223	15,189	2,644	3,216	1,572	867	6,890
	구성비(%)			17	21	10	6	45
국립부여 박물관	면적(m^2)	61,429 9,597	14,483	2,334	1,287	2,349	1,167	7,346
	구성비(%)			16	9	16	8	51
평균	면적(m^2)	86,924 8,649	17,953	3,663	3,536	1,646	1,574	7,533
	구성비(%)			20	20	9	9	42

〈표 17〉 지방의 국립박물관 규모(국립중앙박물관 2019ㄱ:152, 194, 272, 406, 442)

○ 신축이전될 인천시박의 적정규모 산출 및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위해서는 주요 국공립박물관의 사례검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천시박 실무자의 경험을 우선으로 최소 필요면적 산출 및 필요공간 구성이 요구됨

4) 신축이전의 필요성: 공간협소

(1) 박물관의 위상 재정립

○ 인천 최초의 박물관으로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적으로 다루는 거점이자,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서 공립박물관 분야에서 선도적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위상 재정립에 적합한 규모 필요

(2) 기능 활성화

① 수장 및 보존처리공간 부족

○ 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과 비교해 볼 때, 인천시박의 수장공간은 평균의 44% 정도로 매우 협소함. 효율적이고 안전한 소장품 관리를 위한 수장공간과 보존처리공간 필요

○ 공간 부족은 향후 지속적인 소장품 수집활동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

- 인천시박의 관장이었던 검여 유희강의 유물 1,000여점이 2019년 5월 인천시박이 아닌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됨(이주영 2019).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장공간의 확보 필요

○ 충무계획에 따른 전시와 비상시 인천 소재 타기관 소장품의 인천시박 소개절차 이행이 불가능

① 전시공간 부족

○ 선사시대-근대까지 인천의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기에 상설전시공간이 매우 부족함

○ 또한 105평에 준하는 기획전시실 1실만을 보유하고 있어, 역동적인 인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인천시박의 전시공간 면적은 평균의 35% 정도로 매우 협소한 상태임. 이는 인천시의 문화적 위상에 걸맞지 않음

② 교육공간 부족

○ 강당(200석), 다목적실(60석), 세미나실(20석) 등 세 곳의 교육시설에서 유아, 초등학생 등 대상별로 총 9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필요

(3) 관람객 서비스

①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공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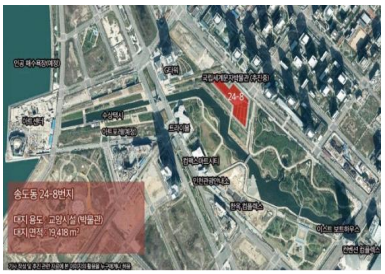
○ 공간부족으로 물품보관함 · 수유실 · 휴게장소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카페나 문화상품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등을 배려하는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조성을 위한 시설 설치가 어려움

제3절 신축이전사업 추진경과

1. 박물관 건물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시도

1) 2013년 센트럴 파크 부지 내 신축이전 시도



〈그림 23〉 송도 센트럴파크 부지 (송도타임즈 2015)



〈그림 24〉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시립박물관 예상 조감도(지건태 2013)

(1) 위치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번지
- 대지면적: 19,418m^2(5,800평)

(2) 추진경과

- 인천시박 신축이전 후보지로 인천 파라디아스호텔 인근 · 제물포고등학교 · 송도국제도시 · 부평미군기지(2016년 12월 반환예정) 등이 거론됨
- 2012년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송도국제도시가 신축이전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그림 23>)
- 건립방식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박물관 건물을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고, 건립사업비는 약 600억-800억 원으로 전망했으며, 이전 시기는 2018년-2020년으로 예상함(<그림 24>)
- 인천시는 인천경제청 및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인천시박 신축이전 사업 협의. 인천시 문화재과 등에서 박물관 이전사업비 등 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남창섭 2013)
- 또한 부평미군기지 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 분관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함

(3) 추진결과

○ 송도 주민들의 “인천 원도심 내 콘텐츠를 송도에 옮기[기]는 인천 제살깎기에 불과하다. 새로운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등의 민원 발생(송도타임즈 2015)

○ 2015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부지로 확정(<그림 25>)



〈그림 25〉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문화체육관광부)

2) 2014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지로 확장 시도



〈그림 26〉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배치도(인천상륙작전기념관)

(1) 위치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

○ 대지면적: 24,347m^2(7,365평)

○ 건물면적: 1,793m^2(542.5평)

(2) 추진경과

○ 2014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중구 월미도로 이전하고, 기념관 부지를 인천시박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현준 2014)

(3) 추진결과

○ 보수단체 간 운영권 갈등, 일부 시민들의 반대, 시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기념관 이전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인천시박 확장안도 무산됨(한갑수 2017)

3) 2020년 차량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도

○ 2020년 5월 인천시박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 사이에 오솔길을 조성해 기념관 주차장 공유(<그림 26>)

○ 이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단체관람객의 차량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처방책임

- 기념관에서 큰 행사(예: 인천상륙 기념행사, 2017년 유승민 대선 출정식 등)가 개최될 경우,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몰려들기에 기념관 주차장 사용에 제한이 있음



〈그림 27〉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간 오솔길(인천시립박물관)

2. 검토된 신축이전 대상 후보지

1) 옥련동 소재 현재 시설 증개축(안) 재검토

○ 연수구의 현 인천시박 건물을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안 재검토

(1) 현 건물의 장점

○ 전시 · 교육 등을 위한 공간분할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음

○ 전시실에서 다음 전시실로 이동 시 계단이 없음
○ 정월대보름 행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옥외 공간 있음

(2) 현 건물의 단점

○ 전시실의 층고가 낮아 조명반사, 음향울림 등의 문제점과 시설물 설치 시 제한이 있음
○ 현 인천시박 건물은 규모의 협소가 가장 큰 문제임
○ 위치적으로 일반대중의 접근성이 떨어져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 따름(박물관 이용률 저하)
○ 대형버스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단체관람객 유치가 어렵고, 어린이 단체관람 승하차 시 위험 따름

(3) 증개축 가능 여부

○ 유휴공간이 없어 더 이상의 증개축이 불가능함

2) 캠프마켓 부지(안)



〈그림 28〉 부평 캠프마켓 전경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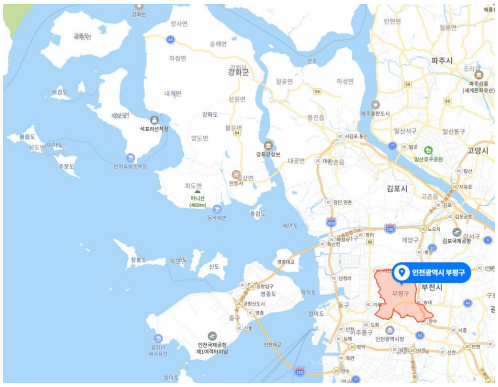


〈그림 29〉 일본육군 조병창
(박재우 2019)

○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에 인천시박을 이전하는 안(<그림 28>).
○ 대지면적은 총 440,000m^{2}로 2019년 223,000m^{2}을 반환받음. 미군 제빵공장의 이전이 완료되면 217,000m^{2}의 반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홍재경 2020)

(1) 인근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환경

○ 해당 부지가 있는 부평구의(<그림 30>)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은 <표 18>과 같음



〈그림 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도(네이버 지도)

구분	시설	시설현황
전시 시설	부평역사 박물관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 홈페이지: portal.icbp.go.kr/bphm/ • 개 관: 2007년 3월 • 근현대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전시
체험 시설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67 갈산배수펌프장 내 • 홈페이지: portal.icbp.go.kr/bpgncce/sub/summary.asp • 지구온난화 현상과 각종 환경문제를 전시와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체험공간
	안전체험관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0 • 홈페이지: portal.icbp.go.kr/safe/ • 2015년 6월에 개관한 부평안전체험관은 수도권 최고의 시설을 갖춘 재난 체험 공간
공원 시설	부영공원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3동 •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무기를 제조하는 조병창이 있었으며 해방 후 미군 군수지원부대(애스컴시티)의 일부분이었음. 이후 부대 규모가 축소되며 한국군 68경 자동차 대대가 주둔했다가 2001년 부영공원이 조성됨
	부평공원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6-1번지일원 • 일제강점기에 군수용품을 생산했던 미쓰비시 공장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부평공원은 1998년부터 공원으로 조성해 2002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문을 엶
	부평숲 인천 나비공원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26-47 • 홈페이지: portal.icbp.go.kr/butterflypark/ • 나비를 주제로 조성된 생태공원. 수도권 유일의 곤충전문 테마파크
	부평지하호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 24곳의 부평지하호는 일제강점기 인천 일본육군조병창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0년 전부터 새우젓 숙성 및 저장 창고로 사용
문화 유산	부평 두레놀이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전승되는 두레농악으로 과거 농사일을 할 때 신명을 돋우던 두레패 농악을 계승함(시도무형문화재 제26호)

	십정동 고래우물터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79번지 • 300-40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터. • 현재는 사라진 주안염전을 곁에 두었으며, 일제강점기 가뭄이 극심할 때도 항상 물이 넘쳐났다고 전해짐
자연 유산	굴포천 생태하천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41 • 조선 중종때 강화 손돌목에서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판 하천

〈표 18〉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

(2) 부지 내 신축이전의 장점

○ 백운역과 부평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함

○ 부지 내 건축물을 증개축해 사용하면 건축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인천시박의 이전은 이 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부지 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흔적인 일본육군조병창의 주물공장 건물과 굴뚝(<그림 29>), 일제가 전국에서 수탈한 쇠붙이를 실어오던 철길과 플랫폼, 미쓰비시 줄사택, 지하토굴 등과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캠프마켓'의 정문과 벙커 등은 일제강점기 조병창에서 해방 후 주한미군기지로 이어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문화재청은 2018년 캠프마켓 부지 내 근대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병창의 주물공장으로 쓰였던 건물과 굴뚝 등 역사 · 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의 보존을 권고함

(3) 부지 내 신축이전의 단점

○ 부지 내 토양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위한 추가 비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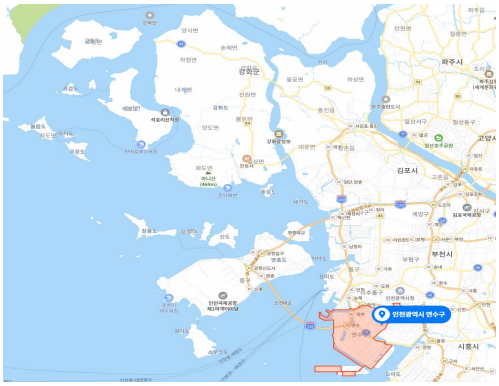
○ 이전(안) 검토 당시, 캠프마켓의 반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인천시박의 건립 일정 수립에 차질이 예상됨

3) 송도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의 유보지를 활용하는 안

(1) 인근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 해당 부지가 있는 연수구의(<그림 31>)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은 <표 19>와 같음



〈그림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도(네이버 지도)

구분	시설	시설현황
전시시설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 • 홈페이지: www.landing915.com/ •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적 기념관
	가천 박물관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02번길 40-9 • 홈페이지: www.gcmuseum.org/ • 한국의료생활사 전문 박물관
	인천도시 역사관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 홈페이지: www.incheon.go.kr/museum/MU050101 • 인천시립박물관 분관.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이라는 도시의 형성과 변화과정 전시
문화유산	흥륜사	• 주소: 인천광역시 청량로102번길 40-9 • 홈페이지: www.hrt.kr/ • 고려 우왕 662년 나옹스님이 창건한 사찰인 관음종 흥륜사는 〈묘법연화경〉 권3(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66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1(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68호) 등 소장
자연유산	아암도 해안공원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5 • 송도유원지 앞 바닷가에 있는 아암도에 조성된 공원

〈표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

(2) 부지 내 신축이전의 장점

○ 접근성이 좋은 편임

-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공항 및 고속철도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입지. 인천시내에서의 접근은 지하철 1호선과 각종 버스노선을 통해 가능

- 단, 가장 많은 접근수요가 예상되는 센트럴파크역에서의 접근은 셔틀버스 운영 검토 필요

○ 구도심으로 이전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2배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됨. 부지 매입비가 싸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3) 부지 내 신축이전의 단점

○ 부지 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기에, 문화인프라 건설측면에서 중복투자가 될 수 있음

○ 현재 인천시의 신도심(송도 등 국제업무지구)과 원도심 간의 개발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송도에 인천시박을 건립할 경우, 이러한 개발 격차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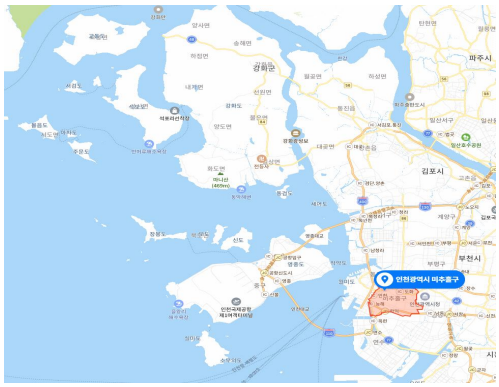
○ 주변에 호텔 · 트레이드 센터 · 송도국제컨벤시아 등이 있어 교통 혼잡 문제 발생 가능

3) 인천뮤지엄파크

○ (주)디씨알이가 기부채납한 부지인 용현 · 학익 1블록에 신축이전하는 안

(1) 인근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 해당 부지가 있는 연수구의(<그림 32>)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은 <표 20>과 같음



<그림 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도(네이버 지도)

구분	시설	시설현황
전시시설	국제성서박물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9번길 9 주안감리교회 내 교육관(시민공원 후면) • 홈페이지: www.biblemuseum.or.kr/ • 한국어 및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발행된 다양한 성경 소장 및 전시
	범패민속문화박물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70번길 11-13 • 홈페이지: www.inmuseum.or.kr/kor/museum/index.php?m_code=MUSEUM1542071281 • 범패 및 작법무와 관련된 유물, 국내외 불교의식법구, 민화 등 전시
	불교사리박물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 37 서광사 내 • 홈페이지: www.sarimuseum.com/ • 부처님의 진신사리, 십대 제자의 사리 등 전시
	송암미술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류대로 55번길 68 • 홈페이지: www.incheon.go.kr/museum/MU020101 • 인천시립박물관의 분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서화 등 미술품 전시
	송암박두성기념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길 357번길 105-19 • 홈페이지: www.ibusongam.or.kr/ • 한글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고 애맹사상 및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박두성의 유품과 자료를 전시한 기념관
	인하대학교박물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1호관 지하 • 홈페이지: museum.inha.ac.kr/user/museum/ • 1976년 개관. 인천에서 실시한 학술조사를 통해 수습한 유물 전시
체험시설	인천어린이박물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내 • 홈페이지: www.enjoymuseum.org/ •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식 박물관
문화유산	문학산성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64-69 • 문학산 정상 부분에 위치하는 돌로 만든 산성. <<인천부읍지>>에는 임진왜란 때 인천부사였던 김민선과 백성이 산성에서 왜군을 격퇴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짐.
	인천도호부관아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하나로 상급기관인 목(牧)과 하급기관인 군(郡) · 현(縣) 사이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도진도(花島鎭圖)〉를 근거로 객사 · 동헌 · 공수 등 7동의 건물을 복원함(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향교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 15세기 중반에 중수되었다고 전해지나 현재의 주요건물은 조선 후기의 건물로 추정됨(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자연유산	문학산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며, 문학산 둘레길이 조성되어있음

〈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

(2) 부지 내 신축이전의 장점

○ 타 대안 대비 부지확보가 용이함. 기부채납부지를 활용하기에 사업비용 절감 및 건설비용 최소화 효과 있음
○ 수인선 학익역(가칭)이 개통될 예정으로 접근성이 좋음
○ 복합문화단지의 일부로 건립되기에, 단지 내 시설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며, 타 시설 이용객을 박물관으로 흡수할 수 있음
○ 대상지는 오랜 기간동안 인천의 대표적인 낙후 공업지대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이 지역에 건립됨으로써 도시재생에 일조

(3) 부지 내 신축이전의 단점

○ 용현 ·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폐석회 처리계획에 공공용지의 폐석회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부지 내 폐석회의 완전한 처리가 담보되어야 함
○ 행안부의 수시 중앙투융자심사가 개최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2021년 국가예산에 인천뮤지엄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이에 2025년 인천시박의 개관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3.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신축이전(안) 추진경과

1) 2016년도 인천뮤지엄파크(안)

○ 2016년 10월 18일 인천시는 시민의 문화주권 내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디씨알이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학익역(수인선 미개통역) 인근 용현 · 학익구역 1블록 부지에 인천시박, 시립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안(<그림 33>) 발표(배영수 2016)
○ 인천뮤지엄파크 사업 추진 예산은 2,665억 원(국비 601억 원, 시비 911억 원, 민간자본 1,153억 원)으로, 2017년 사업 타당성 용역 등을 거치면 2018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착공,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음(배영수 2016; 박창우 2017)



〈그림 33〉 2016년도 인천뮤지엄파크안(배영수 2016)

○ 인천시는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의 핵심 앵커시설로 추진 계획인 인천뮤지엄파크 사업이 인천시를 문화 랜드마크 중심도시로 부상시킬 문화시설 집적단지로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콤플렉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박창우 2017)

2016년도 인천뮤지엄파크 사업안의 의의

- 인천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산이자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던 인천시박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물도 협소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던 만큼, 그간 이전 대상지를 꾸준히 물색해 온 인천시의 문화정책상의 고민 해소 및 인천시박의 숙원사업 달성
- 당시 시의 재정 여건 상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시립미술관을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건립하기로 확정함으로써, 10년 넘게 건립부지 등에서 지역사회의 이견이 갈리며 거듭되던 논의 종결. 이로써 지역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현실화

(배영수 2016)

2) 2018년도 인천뮤지엄파크(안)



〈그림 34〉 2018년 3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안(지건태 2018)



〈그림 35〉 2018년 10월 인천뮤지엄파크안(인천광역시 2018:120)

○ 2018년 3월 인천시 발표에 의하면(<그림 34>), 인천시박은 OCI 사옥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어린이박물관과 함께 연면적 19,850m^{2}의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며, 시립미술관은 연면적 14,000m^{2}의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원을 가운데 두고 박물관과 마주보게 건립될 예정이었음(지건태 2018 등 참조). 시는 2,85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사업에 착수해 2022년 준공할 계획이었음

○ 2018년 3월 이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추진과정은 <표 21>과 같음

날짜			추진내용
2018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회의개최(인천뮤지엄파크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6월	1일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7월	5일	용역 일시중지
		23일	현장보고회 개최(시장님 보고)
	8월	21일	현장보고회 개최(행정부 시장님 보고)
	9월	3일	현장보고회 개최(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보고)
		17일	현장보고회 개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보고)
		27일	용역 재개
	10월	11일	2차 주민공청회 개최
		19일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시장님 보고)

〈표 21〉 2018년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추진과정
(인천광역시 2018:29)

○ 2018년 10월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안에 의하면, OCI 사옥이 있는 대지를 분할해 박물관과 미술관을 배치함

○ 보존건물인 OCI 사옥을 가운데 두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연결함
○ 신축되는 인천시박의 대지면적 및 연면적이 축소됨(<표 22>)

시설	연면적(m^2)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박물관	19,850	14,625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4층
미술관	14,000	14,982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4층

〈표 22〉 인천시립박물관 신축규모(안) 변경 전후

○ 애초 인천시박 신축이전사업에서 출발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에서 '박물관을 제외하고 미술관만 건립해라', '미술관 건립에 우선하여 미래 작가 육성에 힘써라' 등 인천 미술계 인사들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이보람 2020; 인천광역시 2018:82)
○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총관람객 수는 3,304,453명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총관람객 수는 2,445,969명(과천관 911,179명, 서울관 1,185,168명, 덕수궁관 349,622명)임.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에 있기에 국립현대미술관의 통계에서 과천관을 제외할 경우, 총관람객 수는 1,534,709명임 (국립중앙박물관 2019ㄱ:18; 국립현대미술관 2019:318).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관람객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이러한 수치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에 시사하는 바는 큼
○ 2020년 1월 기준으로 본관과 분관 다 합해 총 47,189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1946년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소장품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시박의 규모가 개관을 위한 전시품 수집활동을 최근에 시작한 시립미술관의 규모보다 작다는 것은 향후 인천시박의 또다른 신축이전사업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시사점

○ 1990년 연수구 옥련동으로 신축이전한 인천시박은 14년 후인 2004년 증개축을 위해 임시휴관함. 2006년 재개관 후 10년도 안 돼 인천시박의 신축이전문제가 제기됨
○ '접근성', '전시공간 부적합', '수장공간 포화상태' 등이 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필요
○ 인천시박 신축이전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 제1기 세창양행 사택에서 약 5년(1945년-1950년), 제2기 제물포구락부

에서 약 36년(1953년-1989년), 제3기 옥련동에서 약 35년(1990년-2025년) 그리고 무엇보다도 1950년 박물관 건물 소실 후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사라질 위기를 겪은 약 2년 10개월(1950년-1953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시박으로서는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건립부지 및 건물 확보가 매우 절실함

-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부지 및 건물확보는 인천시박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시와 시민의 문제로, 런던하면 더브리티시박물관(The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 파리하면 루브르박물관이 연상되듯,[2] 인천하면 인천시박이 연상될 수 있도록 인천의 대표 문화콘텐츠로서의 위상정립과 인천시민의 자긍심으로 연결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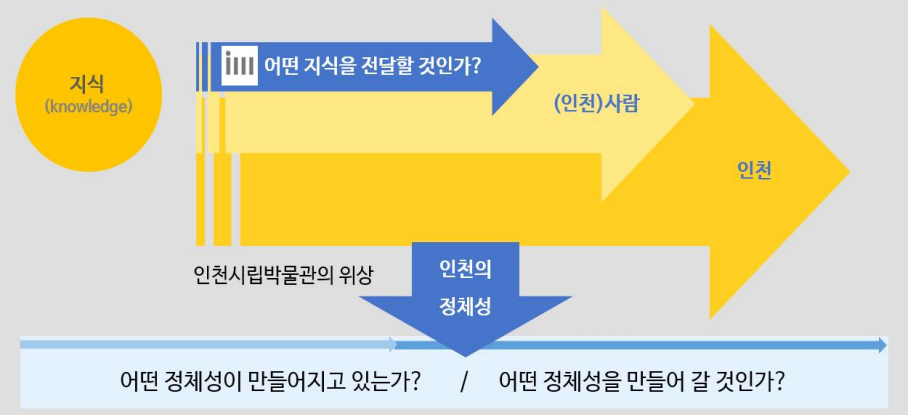
2) 더브리티시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은 국립기관으로 인천시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함

제3장

인천시립박물관의 운영방향

제1절 기본성격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전제

1. 기본전제



〈그림 36〉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전제

○ 신축이전 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원점으로 돌아가 박물관으로서 '어떤 지식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인천'이라는 개념과 지리적 공간의 가변성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2020년 현재의 인천(8개구 2개군 1읍 19면 134개동)이 되기까지 인천의 다양한 면모를 체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현재의 인천이라는 개념의 형성과정에 관여해 온 사람들을 피동적인 '그림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전시영역에서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수집하고 어떻게 전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 필요

○ 이와 함께 인천이라는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고 인천의 고유성은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 현재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향후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시박의 위상 정립

2.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이해

○ 국내 공립박물관 수를 살펴보면, 2005년 134관에서 2019년 366관으로 크게 증가함(문화체육관광부 2017ㄱ:3, 2019ㄴ: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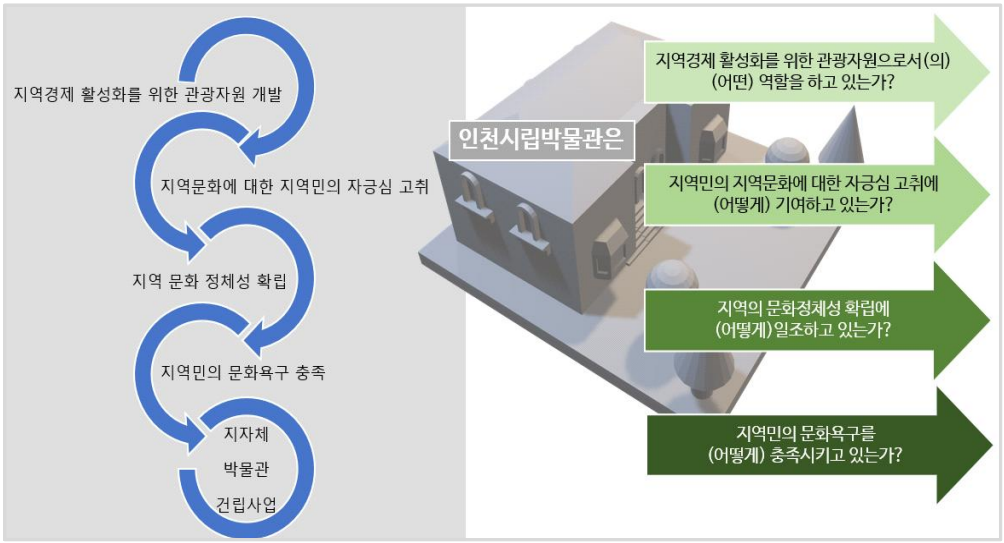
○ 이는 박물관건립에 국고지원, 등록박물관의 신축 및 개보수시 융자지원 정책과 함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2003년 5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박물관 등록 및 등록취소 등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한 박물관 건립 붐이 가속화함(문화체육관광부 2011:3-4)

○ 2020년 현재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립박물관을 살펴보면, 거제시립박물관 · 김천시립박물관 · 성남시립박물관 · 영천시립역사박물관 · 옥천역사박물관 등이 있음

○ 매년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박물관 건립사업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그림 37>)

○ 이에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박의 신축이전 후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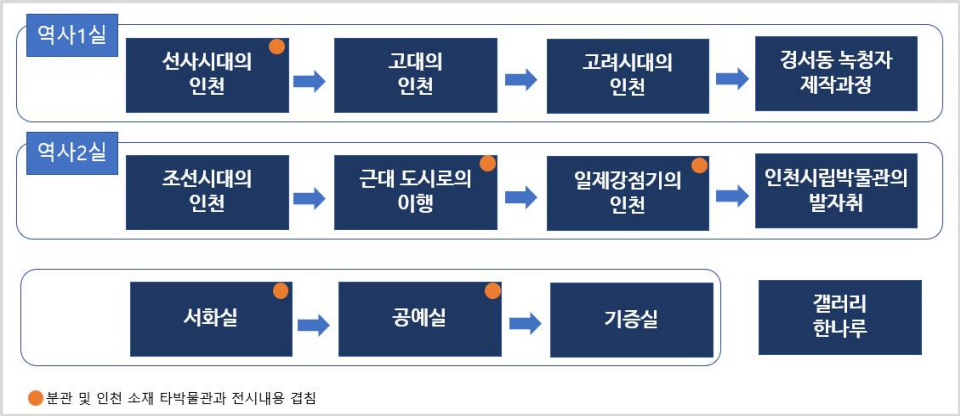
-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
-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일조하고 있는가?
- 지역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림 37>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이해

3. 전시분석을 통한 포괄범위 검토

○ 인천시박의 상설전시는 <그림 38>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그림 38〉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구성

○ ‘역사1실’과 ‘역사2실’은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인천을 주제로 관련 물질문화를 전시하고 있음

○ ‘서화실’은 조선시대 후기에서 근현대까지의 회화와 서예, 북관대첩비 탁본 등을, ‘공예실’은 삼국시대 토기, 고려시대 도자기와 불구, 조선시대 도자기와 목조보살좌상, 조선후기와 근대의 목공예품과 금속공예품, 중국 명대 불상 등을 전시하고 있음

○ 분관 및 인천 소재 타박물관과 내용이 겹치는 전시실은 ‘선사시대의 인천’, ‘근대 인천’, ‘일제강점기의 인천’, ‘서화실’ 및 ‘공예실’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자 인천 최초의 박물관인 인천시박이 1946년 4월 1일 이후 인천에 설립된 박물관들의 전시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시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주객이 전도된 것임

○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전문박물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인천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주제별 통사적인 접근이 바람직함

○ 인천시박은 거시적 관점에서 ‘인천 백과사전’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유사 주제 박물관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한 주제를 세분화해 현미경으로 보듯 상세히 보여줌으로써 인천의 역사와 문화 조명에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시대별 인천상 제공 가능 및 인천의 고유성 규명에 일조할 수 있음

○ 전시주제의 확대에 있어서 타박물관과 주제가 겹칠 경우, 이를 피하기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해 홍보 효과 제고 및 같은 주

제를 다루는 모든 박물관에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4. 문헌분석을 통한 포괄범위 도출

○ 국내외 역사학계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표 23>과 같은 인천시박의 포괄범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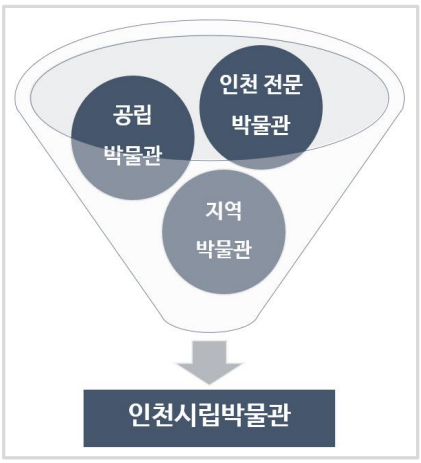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핵심단어
인천	사람		남성 · 여성, 몸, 사람의 종류, 삶,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년, 출산 · 육아/양육, 출생 · 성장 · 죽음
	무형적 요소		경험, 마음, 신세타령, 심성, 인식, 정신상
	생활모습	가정	가계운영, 가정의례, 가족, 가훈, 부부, 자녀, 친족, 혼인(배우자 선택과정, 혼인의례, 혼수, 신혼여행), 적자 · 양자 · 서자, 족보, 축첩
		물질문화	도구, 일상용품, 사치용품
		사회	공동체, 관료생활, 관습, 군대생활, 규범, 도덕, 도시, 마을 · 고을 · 나라, 농촌 · 산촌 · 어촌, 마을의례, 사교생활, 선물 · 뇌물, 세대관계, 신분(노비 · 사대부 · 중인 · 평민 · 향리), 열녀, 유배생활, 의례(기제사 · 상례 · 묘제 · 시묘살이 · 제례), 이웃, 촌락, 향촌생활규범, 협회
		신앙	가내신앙, 마을신앙, 무속, 점복, 종교, 주술, 풍수
		언어	문집, 민담, 설화, 소설, 속담, 수수께끼, 신화, 야사, 일기, 전설
		여가	놀이, 문예, 오락, 축제, 연희
		예술	공예, 민화, 민요, 춤
		의료	민간의료, 약국, 의원, 질병
		의식주	복식, 옷차림, 구황식품, 기호식품, 섭생, 식품, 음료, 음식, 부엌, 온돌, 전통주택, 주거, 주택
		일	경제, 관직, 노동, 농업, 상업, 공업, 생업기술, 직업훈련, 화폐
	생활양식	경향	사치풍조, 유행
		제도	과거제도, 교육제도, 법률(소송 · 재산상속 · 재판), 호적제도
		풍속	세시풍속
	변화상		교류, 기술의 보급 및 전파, (서)양식
	환경		공간, 자연, 계절

〈표 23〉 인천시립박물관의 포괄범위

(문옥표 외 2004:6-13; 브로델 1995ㄱ-ㄴ; 자르네 1995).

제2절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성격과 방향

1.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성격



〈그림 39〉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성격

1) 인천 전문박물관

○ 인천의 지역사, 문화사 및 생활사 전문 연구기관 및 학습기관으로 자리매김

○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 사건이나 생활상을 과거-현재-미래의 상관관계하에서 조명

- 현재와 분리된 과거가 아닌 오늘을 있게 한 과거라는 시각에서 전시 및 교육 내용 기획
-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창조해 가고 있는 인천의 미래상 검토 기회 제공

○ 기존 박물관과는 차별화된 주제접근 지향과 인천시박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시 및 가치 창출

- 인천관련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역사 · 사회 · 문화 · 환경 등 전체 맥락에서 종합적인 접근 시도
- 물질문화를 생산한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미치는 정신세계 · 유행 · 자연환경 등과 같은 요소들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
- 인천의 고유성 탐색

2) 지역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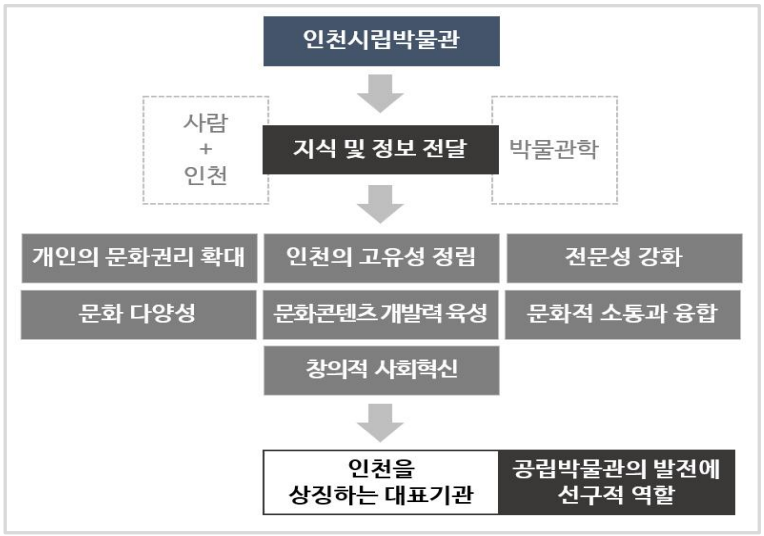
○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어 온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과 변화상 부각을 통해 지역문화의 메카로 도약
○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방점을 둔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의 가시적인 성공지표이자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인천의 공동체적 정체성 구축의 구심체 역할 수행
○ 인천문화에 기반한 창조적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 지역밀착형 박물관 지향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유도
○ 인천 내 유사 대체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3) 공립박물관

○ 공적 재원이 투자되는 공립박물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보편적 시민권으로서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에 문화향유 취약계층의 박물관 접근성 강화
○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인천 시민사회의 문화적 수준 제고
○ 인천 내 타박물관 및 유사시설과의 협력망 형성을 통해, 인천고유의 문화생태계 조성
○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서, 국내 공립박물관계의 전문성 강화 및 발전에 선두적 역할 수행

2.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방향

○ 신축이전 후 인천시박의 기본방향은 <그림 40>과 같음



〈그림 40〉 인천시립박물관의 기본방향

① 지식 및 정보 전달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적재산의 축적에 일조한다는 사명감 아래, 인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② 인천의 고유성 정립

○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인천의 물질문화를 소장하고 있는 인천시박은 물질문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전시 · 교육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인천의 고유성 모색 및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음

③ 문화콘텐츠 개발력 육성

○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문화원형을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은 소장품에 대한 창조적 해석능력 배양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인천 고유의 지역문화를 생성하고 진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문화콘텐츠 분야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소장품 활용 극대화

④ 문화다양성

○ 세계화의 속도에 비해, 국내 박물관은 한국역사 및 문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국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외 특정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세계화에 일조

○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해외 특정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 세계 속의 인천, 문화의 다양성 등에 대한 인천시민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 각 도시와 인천의 질적 문화교류 향상을 통한 우호증진 도모 및 다문화 관련 쟁점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음

⑤ 박물관의 전문성 강화

○ 박물관학을 기반으로, 박물관 운영관리 내실화 및 전문인력의 역량 제고. 이를 통해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

⑥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성별 · 연령별 · 계층별 문화수용능력의 차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이 요구하는 문화적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⑦ 문화적 소통과 융합

○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인천사회에서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 문화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

- 이주민의 한국문화 습득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인천시민의 이주민 문화 습득도 중시하는 쌍방향 소통 및 융합의 장 제공

⑧ 창의적 사회혁신

○ 인천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조.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생활과 유리된 박물관이 아닌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

3.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 인천시박의 기본성격 및 건립방향을 토대로, <그림 41>과 같은 지향가치 도출



〈그림 41〉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제4장

박물관 운영 기본계획

제1절 조사연구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그림 42〉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1)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 조사연구기능 강화

○ 인천시박 조사연구업무 담당자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 강화(<그림 42>)

○ 박물관의 본질적 역할인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기[3] 위하여 조사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인력 확보

○ 박물관운영 내실화 및 개선을 위하여 전반적인 박물관업무 영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자체 진단제도 개발 및 적용. 이를 통해 박물관의 질적 수준 제고

○ 조사연구를 통해 축적하게 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조사연구 부문에서 인천시박의 전문성 제고 및 박물관계에서 입지 강화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박물관'이란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고고(考古) · 인류 · 민속 · 예술 · 동물 · 식물 · 광물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의 원천

○ 물질문화 및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인천에 대한 심층적이고 특성화된 조사연구체계 구축
○ 인천의 문화원형 탐색 및 그 이면에 내재된 기술적 · 재료적 · 역사적 · 문화적 · 환경적 정보를 조사연구하여, 인천의 역사성과 지역성 규명 시도. 이를 통해 인천학 발전에 일조
○ 조사연구 성과가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의 다양화 및 교육담당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로 재구성해 제공

3) 통하다: 대한민국 속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

○ 인천시민의 지적욕구 · 여가문화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전시 · 교육 · 홍보마케팅 등에서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이를 통해 인천시민과 박물관이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
○ 지역사회, 국내외 연구자/박물관/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망 구축을 통해 시너지 제고
○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인천의 역사 · 문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 · 교육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2. 조사연구 프로그램

1) 조사연구 현황 및 시사점

(1) 현황

○ 인천시박은 1947년 5-6월 경주 고적 조사, 1949년 5-6월 인천 고적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조사연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부록 2>)

○ 2005년의 경우, '강화 정밀지표조사: 삼산 · 서도면'(약 9개월), '강화 창후리 고분 발굴조사'(약 5개월),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영흥 · 자월 · 북도면'(약 8개월), '교동향교 소장자료 조사보고'(약 8개월), '강화 교동 무학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약 2개월) 등 총 5개의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함

○ 2019년 추진한 조사연구사업은 <표 24>와 같음

박물관	조사연구 사업명
인천시립박물관	• 인천 남동공단 학술조사(2019.2-12.) • 학술조사 보고서 제32집 〈주안공단〉 발간
송암미술관	• 소장품 해제(서화, 묘지 등 177점) • 소장품 감정평가(13회 개최, 1,100점)
인천도시역사관	• 인천 송도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 학술조사보고서 〈없었던 섬 송도, 그곳을 살아간 사람들〉 발간.
한국이민사박물관	• 하와이 소재 한인 이민 및 독립운동 자료 조사

〈표 24〉 2019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조사연구사업

○ 2020년 현재 추진계획인 조사연구사업은 <표 25>와 같음

박물관	조사연구 사업명
인천시립박물관	• 인천 남동공단 학술보고서 발간 • 인천 캠프마켓 학술조사 및 보고서 발간
송암미술관	• 소장품 해제(회화류, 제발 100점 예정) • 소장품 감정평가(20회 개최, 1,000점 예정)
인천도시역사관	• 인천 도시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한국이민사박물관	• 소장품 중 에네켄 관련 학술조사

〈표 25〉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조사연구사업

(2) 시사점

○ 전담인력 부족

- 현재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눈에 띄는 인구유입과 인구구성의 다양화, 광범위한 개발과 도시화, 생활문화의 급변이 두드러짐
- 따라서 급격히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및 근대기 문화의 기록과 동시대 생활문화 변화상의 기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이에 최근 인천시박의 조사는 주로 인천 지역의 전통문화, 근현대 생활문화 등 두 가지 갈래로 매년 1개 이상의 주제로 기획 · 진행되고 있음
-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인천시박의 인력은 유물관리부 2명(학예연구사 1명, 공무직 1명)이며, 전담이 아니라 다른 학예업무와 병행하고 있음
- 일정 기간 집중할 필요가 있는 현지조사가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조사연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전담인력 부족으로 박물관의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사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요구됨

○ 전문인력 확보

- 매년 조사연구 주제나 조사방법(빅데이터 활용, 영상촬영, 특정 외국어 구사 등)에 따라, 해당 수요에 적합한 능력을 확보한 전문인력 채용(예: 기간제) 필요
- 현재 인천시박은 고고학 · 문화인류학 · 미술사 · 복식사 · 한국사 · 문화재보존과학 · 박물관학 · 박물관교육 · 미술교육 · 역사교육 · 평생교육 · 실내디자인 전공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추후 민속학 관계 전공자와 같이 분야별 미보유 전공자의 단계적인 확보가 요구됨

○ 예산 확보

- 박물관 학술조사의 영역이 전통문화나 고고학적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근현대 생활사 및 생활문화로 넓어지면서 다양한 조사방법이 등장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진 · 영상촬영, 도면 · 일러스트 제작 등 전문적인 영역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사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예산상의 문제로 산적한 과제 중 우선순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시기를 놓쳐 기록하지 못한 채 소실되는 문화유산 발생

○ 별도 부서 신설 필요

- 박물관의 조사연구 활동은 수집 · 전시 · 교육 · 보존 · 홍보마케팅 등

전반적인 박물관업무의 기초적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 해외 주요 박물관의 경우, 조사연구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조사연구 및 출판 활동을 통해 담론 주도, 홍보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부서 신설 시 학술회의 개최 · 발간자료 관리 및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운영 · 박물관자료 아카이빙 등 관계업무 포괄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별도의 전담인력 2-3명을 두어 조사연구와의 병행은 지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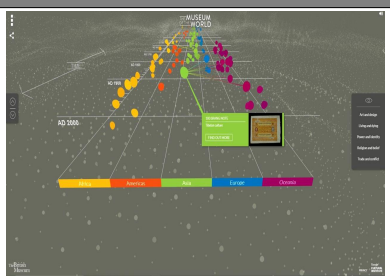
2) 조사연구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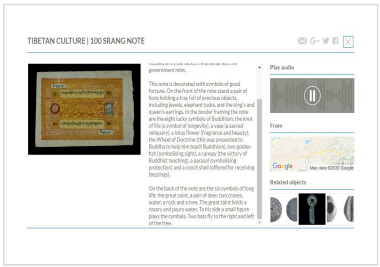
(1) 소장품에 대한 조사연구

○ 전시된 공개 소장품만이 아닌 미공개 소장품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

○ 재료, 형태/디자인, 기술, 환경, 역사, 출처, 가치/부여된 의미, 박물관에 수집되기까지의 이력, 국내외 연관 물질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 점의 소장품에 대한 해석 시도(<사례 2>). 이를 통해 해당 소장품을 둘러싼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속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에 대한 인식 가능

〈사례 2〉 연관 물질문화에 대한 정보





〈그림 43〉 더브리티시박물관의 '세계의 박물관'

- 더브리티시박물관(The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은 2015년 '세계의 박물관(Museum of the World)'이라는 웹페이지를 개설함
- 이 웹페이지를 통해 시대별 · 지역별(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 주제별 소장품 검색 가능
- 소장품 한 점을 선택하면 연관 유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강점임
- 이 밖에 해당 소장품에 대한 해설, 오디오로 된 설명, 구글 지도상 출처표시도 제공하고 있음

(2) 인천 관련 조사연구

○ 인천 관련 조사연구는 인천시박이 설립이래 현재까지 잘 수행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그림 44〉 인천 노포 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9:23)



〈그림 45〉 건평돈대 발굴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8:7)

○ 인천 근현대 생활사 및 생활문화 관련 조사연구에 있어서, 박물관으로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조사연구대상의 생활문화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무엇을 기록하고 수집할 것인가' 등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 농촌생활 · 어촌생활 · 도시생활 등과 같은 구조와 각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행위라는 관점에서 조사연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세계나 가치체계에 좀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음
- 물질문화를 생산/이용한 사람들의 의식세계 · 가치체계 · 취향 등 무형의 요소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각 물질문화가 생산되고 사용된 맥락과 생산자나 이용자의 주관적인 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
- 인천의 현재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없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2000년대의 인천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인천의 현재 생활상에 대한 조사연구 실시

(3) 쟁점 중심의 조사연구

○ 코로나19와 같이 인천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화젯거리가 되는 것을 조사연구대상에 포함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박물관이 아닌, 밀착형 박물관으로 인천시박의 위상정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음

(4)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 인천시민의 생활상의 토대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인천시박 소장품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해짐

(5) 해외 박물관과 공동 조사연구

○ 인천시 및 인천시박과 자매결연한 도시, 인천역사와 관련성/유사성이 있는 도시, 외국인 관람객 및 인천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도에 따라 특정 국가의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제를 선정해 조사연구 실시

○ 이를 전시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쌍방향 문화교류에 일조

(6) 박물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 박물관학에 기반을 두고, 소장품 등록 및 관리 · 전시콘텐츠 개발 · 전시연출기법 · 교육프로그램 개발 · 방문객에 대한 연구 · 물질문화학 · 신기술 적용 · 홍보마케팅 · 접근성 · 자체 평가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이를 실지 박물관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인천시박의 전반적인 기능 강화

3. 조사연구 성과 공유

○ 인천시박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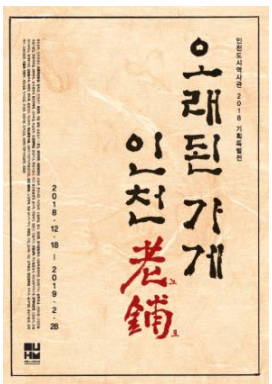
1) 전시 및 교육

○ 전시를 통한 조사연구 성과 공유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심화된 조사연구 성과 공유



〈그림 46〉 인천도시역사관의 '오래된 가게 인천 노포' 학술보고서 (인천도시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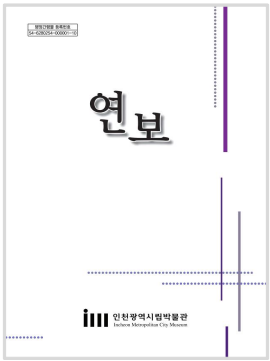


〈그림 47〉 전시를 통한 조사연구 성과 공유(인천도시역사관)

2) 출판물

(1)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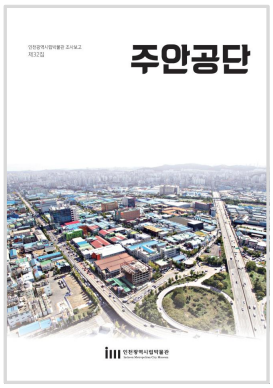
○ 한 해 동안 박물관에서 수행했던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그림 48>)



<그림 48> 인천시립박물관 2018년도 연보

(2) 학술조사 보고서

○ 인천시박은 매년 학술조사 후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학술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그림 49>)



<그림 49>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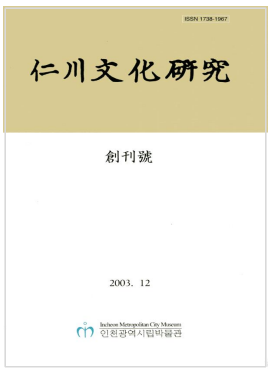


<그림 50>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연구 성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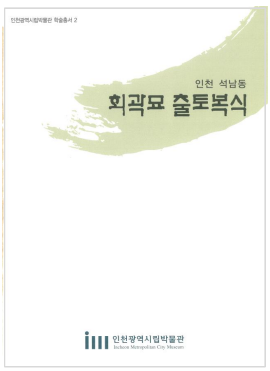
○ 보고서는 박물관 홈페이지 ‘학술조사’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그림 49>)

(3) 학술서적

○ 인천시박은 논문집 <인천문화연구>를 2001-2015년에 발간한 바 있음(<그림 51>)



〈그림 51〉 논문집 〈인천문화연구〉



〈그림 52〉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 학술총서도 발간한 바 있음(<그림 52>)

○ <인천문화연구>와 학술총서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학술총서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2005)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

2) 학술회의

○ 인천시박은 조사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개최일	학술회의	비고
2003. 10. 31.	개항장 인천과 조계	인천 개항 120주년 기념
2004. 11. 6.	고려시대 강화의 사회와 문화	
2005. 8. 26.	조선시대 유학과 인천	
2006. 10. 20.	화교-세계화의 주역	국제학술회의
2007. 5. 26.	인천 연안의 고고학	서울 경기 고고학회 공동학술회의
2007. 12. 8.	고려시대 도자와 인천	
2008. 12. 12.	철도를 통해 본 인천의 근대	
2009. 11. 30.	근 · 현대 자료의 수집과 보존	
2010. 11. 24.	러일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선	
2012. 11. 2.	한 · 러교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인천의 역할	국제학술회의
2013. 5. 31.	한국 · 러시아 그리고 고려인	러시아 지역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2014. 8. 29.	인천 영종도 호적과 한국 호적 자료의 현황과 특성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16. 12. 9.	고려 강도의 공간 구조와 고고유적	강화고려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2018. 11. 16.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	한국중세고고학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19. 11. 8.	인천지역 근현대 산업유산 연구현황과 과제	인천민속학회 공동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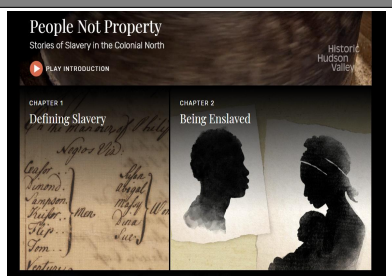
〈표 26〉 인천시립박물관 학술회의

○ 학술회의를 전시 및 교육과 연계할 경우, 공유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음

3) 온라인

○ 박물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조사연구 성과 공유
○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조사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음
○ 타 기관과 차별화된 인천시박만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바람직함(<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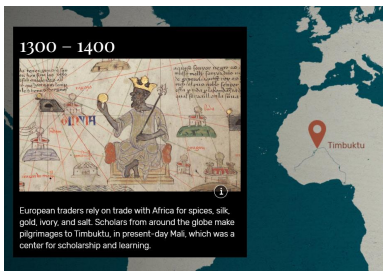
〈사례 3〉 히스토릭 허드슨 밸리의 '소유물이 아닌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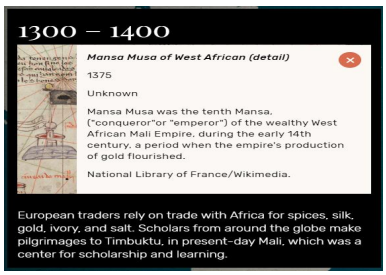
〈그림 53〉 '소유물이 아닌 사람들'



〈그림 54〉 연대별 지도



〈그림 55〉 관련 유물과 출처



〈그림 56〉 유물에 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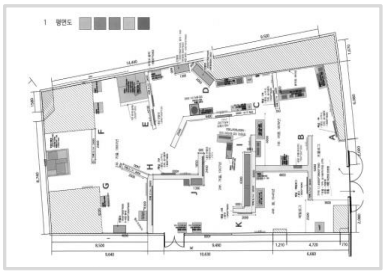
- 조사연구 성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박물관은 아니지만 히스토릭 허드슨 밸리(Historic Hudson Valley)의 '소유물이 아닌 사람들(People Not Property)'에 주목할 필요 있음
- 노예제도를 다룬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머리말, 1장 노예제도에 대한 정의, 2장 노예가 되다, 3장 저항을 선택하다, 4장 정의를 추구하다'로 구성
- 연대별 지도(TimeMap)에서는 '1400-1599, 1600-1699, 1700-1799, 1800-1865' 구분해 연대순으로 노예제도를 다루고 있음. 상호작용 기법을 적용한 이 지도는 각 연대를 세분화하여 관련 유물 및 지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물에 대한 정보를 클릭하면 유물에 대한 설명과 소장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음

4. 아카이브

○ 아카이브는 도서관과 구별되는 시설로,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은 도서관(National Art library), 학습실(study room),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이 시설들은 모두 일반대중에게 개방됨

○ 아카이브와 구분하기 위한 사례로서 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의 도서관은 '장식미술 박물관'을 표방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방대한 분량의 미술 및 장식미술관련 도서를 소장하고 있음. 또한 박물관의 전시도록, 미술품경매업체의 카탈로그 등도 소장하고 있음. 이를 모델로 인천시박 도서실은 인천관련 도서, 박물관학 관련 도서, 전시도록, 학술보고서 등을 소장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아카이브에서는 박물관의 모든 업무 관련 자료(사진, 서류, 서간 등), 도면(박물관 건물, 전시, 지표/발굴조사 등), 박물관 관련(전시, 교육, 소장품 등) 언론매체 보도자료 등을 소장함(<그림 57-58>). 후대에 역사적 자료가 되는 원본 소장 및 보존이라는 점에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음



〈그림 57〉 인천시립박물관 특별전 전시도면(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9:54)



〈그림 58〉 인천향토사료(인천시립박물관)

1) 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 소장품 수집관련 서류 · 사진 · 평가 · 구입처, 전시관련 서류 · 도면 · 사진 · 업체관련 자료 등의 원본자료는 후대에 역사적 자료가 되기에 이 자료들의 보존은 매우 중요함

- 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은 1992년 한국실을 개관하면서 한 기증자가 19세기 조선에서 수집한 물건을 전시하게 되었을 때, 기증자의 후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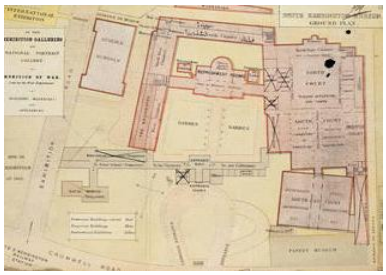
게 보낸 개관식 초청 편지도 아카이브에 보관하고 있음

○ 해외 박물관의 아카이브 체계 및 운영방식을 참조하여, 인천시박 아카이브 구축(<사례 4>)

〈사례 4〉 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의 아카이브



〈그림 59〉 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 아카이브(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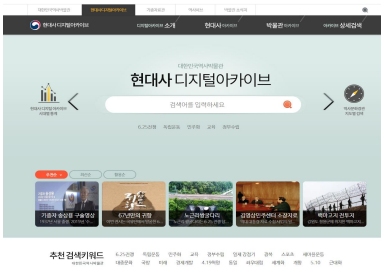


〈그림 60〉 아카이브에 소장된 1871년 박물관 도면(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

- 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은 네 개의 아카이브를 박물관 건물과는 별도의 건물인 블라이스 하우스(Blythe House)에 두고 있음(〈그림 59〉)
- 빅토리아 · 알버트박물관 아카이브(The V&A Archive): 박물관의 역사와 소장품수집과 관련된 자료, 전시 등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관련된 자료, 박물관 관련 보도자료 등을 수집 및 소장하고 있으며, 원본자료를 공개하고 있음(〈그림 60〉)
- 베아트리스 포터 컬렉션(The Beatrix Potter Collections): 편지 · 데생 · 수채화 · 사진 등 1973년에 기증된 베아트리스 포터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및 소장하고 있으며, 원본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미술 · 디자인 아카이브(The Archive of Art and Design): 1978년에 설립되었고, 미술 · 디자인 작업과정과 관련된 개인 · 협회 · 기업 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 및 소장하고 있으며, 원본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음
- 비앤에이 공연예술 아카이브(V&A Theatre and Performance Archive): 세익스피어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영국 공연예술사 관련 자료(공연예술 단체 · 공연 기획자 · 배우 · 무대 디자이너 · 연극사진 · 포스터 · 일기 · 서신 · 신문스크랩 · 디자인 스케치 · 드로잉 등)를 수집 및 소장하고 있으며, 원본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음
- 아카이브의 일반공개는 사전예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자료복사는 금지되어 있으나 사진촬영은 허용

2)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인천시박은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사례를 검토 후, 유행하는 최신기술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그림 61-62>)



〈그림 6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그림 62〉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역사아카이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방안 제안

(1) 기반구축 단계(2021-2022년)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장품 · 사진 · 문서 등의 디지털화 작업 진행

- 각 자료의 특성에 맞춰서 텍스트 · 이미지 · 그래픽 · 영상 · 음향 등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화
- 디지털 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화된 자료를 각 자료에 맞는 메타데이터 입력
- 입력된 메타데이터 검증 및 보완

② 시스템 개발

○ 디지털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개발

- 디지털자료 등록 기능: 디지털화된 자료를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메타데이터 관리기능: 등록된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소장품별 · 기증자별 등 주요 그룹별로 일괄 메타데이터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분류체계 관리기능: 초기에 확정된 분류체계를 추가 ·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기능. 기존에 입력된 분류체계의 경우, 해당 분류체계가 수정될 경우 리스트를 제공해 메타데이터에서 수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그룹 관리기능: 소장품 등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자료의 공개여부 및 이력관리 기능: 자료 공개대상 및 공개 여부, 디지털화 이후의 변화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검색 및 열람 기능: 등록자원에 대한 통합검색 및 상세검색 기능과 등

록자원을 유형별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뷰어 기능
- 통계 기능: 등록자원에 대한 각종 통계 및 리포팅 기능(이용현황, 검색어 등)

③ 인프라 구축
- 디지털아카이브 웹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도입
- 디지털아카이브 관리시스템, 웹서비스관리시스템, 위치정보관리시스템, 디바이스관리시스템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도입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도입
- 디지털아카이브 콘텐츠를 물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스토리지 도입
- 웹서비스에 필요한 미들웨어 도입(WAS) 및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감당하고 검색서비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입(DBMS)

(2) 시스템 확충 단계(2023-2024년)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추가된 디지털아카이브의 데이터 확충 및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콘텐츠 구축

② 시스템 개발
○ 디지털아카이브 관리시스템 성능 개선
- 인천시박 내부의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과 연계
- 국내외 유사기관들과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검색 및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적용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이용자의 다양한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모바일 앱 개발
- 개발된 앱은 박물관 홈페이지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함

③ 인프라 구축
○ 박물관 홈페이지와 아카이브 웹서비스를 분리할 수 있도록 웹서버 도입
○ 주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서버 도입
○ 검색서비스 성능개선과 데이터베이스 관리기능 활성화를 위한 검색엔진 도입

(3) 시스템 안정 및 확산 단계(2025-2026년)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추가된 디지털아카이브 데이터 확충

② 시스템 개발

○ 디지털아카이브 관리시스템 성능 개선

- 앞의 두 단계를 거치면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토대로 디지털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개선(인터페이스 등)

③ 인프라 구축

○ 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중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미러링서버 도입

○ 백업서버 및 스토리지 확충

5. 인력

1) 현황

[타]: 타 업무와 겸직

박물관	인원	직종	업무내용
인천시립 박물관	1	학예관	유물관리부 업무총괄. [타]
	2	학예사	소장품 해제. [타]
	1	학예사	학술조사 기획 및 운영, 학술회의 기획 및 운영. [타]
	1	학예사	학술조사보고서. [타]
	1	공무직	소장유물 도록 관리. [타]
	1	공무직	학술조사 및 학술회의 운영. 학술자료 관리. [타]
인천도시 역사관	1	학예관	인천도시역사관 업무총괄. [타]
	1	학예사	학술조사. [타]
	1	공무직	학술조사 운영 지원. [타]
한국이민사 박물관	1	학예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업무총괄. [타]
	1	학예사	한국이민사 자료 학술조사. [타]
	1	공무직	학술조사. [타]

〈표 27〉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조사연구업무 인력배치 현황

○ 2020년도 현재 인천시박 및 분관의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표 27>),

조사연구업무 담당자는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소장품관리 · 보존처리 · 교육 등 타 업무도 겸하고 있음

○ 조사연구업무 현황 분석 및 향후 전개할 업무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유물관리부서와 별도로 조사연구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연구부에 필요한 능력: 민속학/인류민족학 전공자, 도시사/근대건축사 전공자, 구술조사/현지조사(참여관찰) 경력자 등

2) 인력 증원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조사연구부 운영인원은 총 8명으로 <표 28>과 같음

조사연구부[4]	총 8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7명

〈표 28〉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연구부 인력

6. 예산

1) 현황

○ 인천시박의 조사연구업무 관련 예산은 <표 29>와 같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6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241,000원 증가했다가 2017년도에 감소함. 이는 2015년과 2017년 학술회의 미개최가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2018년부터 조사연구 관련 예산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8,100,000원에 달함. 이는 2020년도 본예산의 약 0.29%에 해당함

4)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계획(안)'에는 '연구개발부'로 되어있음. '연구개발'이라는 용어는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을 의미하며, 연구개발에는 "기초연구 → 제품아이디어 탐색 → 아이디어 평가 → 제품화 결정 → 생산 →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이에 인천시박의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단위: 천원)

박물관명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시립 박물관	예산(원)	18,652	12,159	24,400	10,900	20,900	24,900
	구성비(%)	0.23	0.18	0.33	0.14	0.23	0.28
서울역사 박물관	예산(원)	936,908	977,761	1,194,906	904,075	812,550	795,250
	구성비(%)	5.80	4.39	7.56	6.27	5.39	5.37
부산 박물관	예산(원)	168,557	151,783	145,300	176,150	195,000	174,550
	구성비(%)	1.30	1.29	1.22	1.33	1.36	1.27
울산 박물관	예산(원)	248,613	260,098	287,085	353,197	117,269	225,414
	구성비(%)	2.06	2.16	2.09	3.03	1.02	2.00

〈표 29〉 주요 공립박물관 조사연구업무 관련 예산

2) 운영비용 추정

○ 인천시박 조사연구 관련 예산은 '학술조사 및 보고서 제작', '학술회의 및 자료집 발간'에 집행되고 있음

○ 비교를 위해 선정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조사연구 관련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고문서 · 전적류 등록해제'를, 울산박물관의 경우 조사연구 관련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박물관 유물조사' 예산을 조사연구 예산에 더함(<표 29>). 부산박물관은 조사연구 관련 예산을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의 조사연구업무 관련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50배가 넘으며, 부산박물관의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9배가 넘으며, 울산박물관의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약 13배에 달함

○ 지난 5년간 박물관 전체예산에서 조사연구업무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천시박은 평균 0.23%, 서울역사박물관은 평균 5.8%, 부산박물관은 평균 1.3%, 울산박물관은 평균 2.06%를 차지하고 있음. 울산박물관의 경우 2018년도 예산을 제외하면, 평균 2.32%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연구기관으로서 박물관의 기능과 전시 · 교육 · 홍보 마케팅 · 경영 등의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조사연구 역량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조사연구업무 예산(5.8%)이 교육업무 예산(4.53%)에 비해 비중이 큼

○ 신축이전에 따른 규모 확대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필요한 조사연구업무 관련 예산은 276,000,000원임(<표 30>)

(단위: 천원)

항목	예산	세부내용
학술조사	161,000	• 조사추진비: 50,000,000원 x 2건 = 100,000,000원(해제 작성, 원고료, 공간 · 건축물 실측, 미디어 촬영 및 편집, 자문회의 개최, 번역 등) • 보고서 발간비: 20,000,000원 x 2건 = 40,000,000원 • 출장여비: 500,000원 x 12회 = 6,000,000원 • 장비 등 물품 구입비: 5,000,000원 x 1식 = 5,000,000원 • 기타 운영비: 10,000,000원 x 1식 = 10,000,000원
학술회의	15,000	• 원고료 및 발표수당: 5,000,000원 x 1식 = 5,000,000원 • 자료집 발간비: 5,000,000원 x 1식 = 5,000,000원 • 기타 운영비: 5,000,000원 x 1식 = 5,000,000원(다과 등 물품 구입, 기념품 제작 등)
아카이브	100,000	• 운영비: 100,000,000원 x 1식 = 100,000,000원(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 디지털 데이터화 비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계	276,000	-

〈표 30〉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연구업무 관련 최소 필요 예산

○ 참고로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성장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예산은 <표 31>과 같음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0,000	187,585	31,325	32,600	29,085	3,000	333,595

〈표 31〉 서울역사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예산

제2절 소장품관리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그림 63〉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1)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 소장품관리기능 강화

○ 인천시박 소장품관리업무 담당자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 강화 (<그림 63>)
○ 인천시박 및 상위기관에서 '인천시박의 정체성과 차별화 전략은 결국 소장품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공유
○ 지향점인 "인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밝히고 알리고 보존하여, 인천의 진화에 기여한다"를 달성하기 위한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
○ 소장품 수집계획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집분야 설정
○ 인천시박의 미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수집하는가"에 좌우된다는, 즉 원천자료의 확보와 확보방식은 향후 박물관이 전개할 모든 활동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집계획과 수집업무의 중요성 인지
○ 소장품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소장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 수장공간 확보, 과학적인 보존기반 구축 및 관련 전문인력 확충
○ 소장품 수집 · 관리 · 보존처리를 통해 축적하게 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각 부문에서 인천시박의 전문성 제고 및 박물관계에서 입지 강화

2. 소장품 현황

○ 2020년 1월 기준 인천시박 및 분관의 소장품 현황은 <표 32>와 같음

(2020년 1월 기준)

박물관	계	소장품	보관관리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관리 국가귀속 문화재	비 고
계	47,189	39,631	4,055	3,503	
인천시립박물관	17,660	14,407	2,782	471	
검단선사박물관	4,312	7	1,273	3,032	참고자료(복제) 7점 미포함
송암미술관	11,139	11,139	-	-	
인천도시역사관	253	253 (547)	-	(3)	실 유물 수량 (본관유물 임시이관)
한국이민사박물관	13,825	13,825	-	-	

〈표 32〉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소장품 현황

○ 2018년 12월 기준 부산박물관 및 분관의 소장품 수는 74,759점으로, 인천시박 및 분관 소장품 수의 1.5배가 넘음(부산박물관 2019:13)

○ 2019년 1월 기준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품 수는 201,295점으로, 인천시박 및 분관 소장품 수의 4.26배가 넘음(서울역사박물관 2019:3)

○ 소장품은 박물관을 타기관과 구분하는 핵심잣대이며, 박물관이 지역민/국민/인류를 대신해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물적증거로, 박물관이 전개하는 모든 업무의 중심에 있으며, 전시와 교육을 통한 문화향유권리의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인천시박의 소장품은 인천의 자산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인류의 자산으로, 인류/한국의 역사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물적증거임

○ 이에 '인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질적 · 양적인 차원에서의 소장품 확보가 매우 중요함

3. 소장품 수집

1) 체계적인 소장품 형성

○ 인천시박의 소장품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인천을 각 시대별로 조명하기에는 소장품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표 33>)

(2020년 1월 기준)

시대	소장품(점)	비고
선사-초기철기	46	
원삼국	5	
낙랑	2	
삼국	117	
통일신라	28	
고려	549	
조선	1,522	
대한제국	933	
일제강점기	4,135	
대한민국	3,632	광복 이후
국외	2,851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미상	587	
계	14,407	

〈표 33〉 인천시립박물관 시대별 소장품 현황

- 일례로 기와와 항아리가 주를 이루는 28점의 통일신라 유물로 이 시기의 인천을 전시하기는 매우 어려움(<그림 64-65>)



〈그림 64〉 연화문수막새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번호: 000023)



〈그림 65〉 도장무늬병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번호: 000497)

○ 이에 한정된 예산 · 인력 · 수장공간을 가진 박물관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특정 주제를 조명하기에 충분한 수량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수집계획 수립 필요

〈사례 5〉 영국 런던박물관 소장품

- 영국 런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은 유골 2만여 점을 포함해 생활용품 · 의상 · 회화 · 사진 등 60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음
- 런던박물관의 근현대 수집대상은 런던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남은 물품은 물론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낙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글 등임(박상현 2017)

○ 체계적인 소장품 형성을 위하여, 각 시기별 인천 관련 물질문화를 주제별로 수집하기 위한 관심과 조사연구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소장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들이 있는지, 수집이 필요한 공백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 필요. 이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분야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설정
- 발굴 등 인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물질문화 확보
-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천 관련 물질문화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특정 전시를 위한 기증이나 대여 유도, 또는 보존처리지원 등 현황파악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 모색이 요구됨. 해당 물질문화의 중요도에 따라, 구입 · 기증 · 기탁 · 복제 등 상황에 적합한 수집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타박물관 소장품 중 인천과 관련된 물질문화에 대한 기초조사 필요. 해당 물질문화의 중요도에 따라 대여 또는 복제
- 골동품상, 경매업체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
- 해외 소재 인천 관련 물질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전개

2) 용도별 수집유형

○ 전시 및 보존자료: 영구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으며, 전시용으로 활용하는 물질문화

○ 교육자료: 교육프로그램에서 실물체험용으로, 보존처리에서 시험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물질문화, 전문인력 유물감정 훈련용 가품 등

○ 참조자료: 소장품과 관련된 정보(출처, 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이력 등)

3) 수집방법

○ 지난 5년간 인천시박은 총 7,650점을 수집했으며, 수집방법을 살펴보면 구입(41.7%), 기증(27.8%), 위탁(18.1%), 수집(12.2%), 복제(0.2%) 순으로 나타남(<표 34>)

수집방법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입	3,192	96	331	264	2,255	246
기증	2,119	142	879	97	514	487 45,151컷
위탁	1,388	-	-	314	449	625
수집	934	179	355	137	5	258
복제	17	3	-	-	11	3

〈표 34〉 2015-2019년도 수집방법별 소장품 현황

(1) 구입

○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함. 특히 경매품이나 국가 또는 시 · 도 지정문화재 중 인천 관련 유물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 긴급 예산투입이 가능한 유연한 체제 필요

- 2020년 5월 간송재단은 재정난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매각하기로 결정함. 이에 보물 284호와 285호가 경매에 나오게 됨(<그림 66>)



〈그림 66〉 보물285호 금동보살입상
(박지현 2020)

(2) 기증

○ 기증방법의 다각화를 통한 소장품 수집 모색

- 기증품이 들어오면 기증경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기증유도를 위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음

- 기증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박의 수집범위에 들어가는 실물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소장가 또는 기관이 타박물관이 아닌 인천시박에 기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채널 개발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질문화 중 인천시박의 수집범위에 들어가는 잠재 기증품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특별전 형식으로 소규모 전시를 정기적으로 기획

- 박물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집하기를 원하는 주제를 선정 후, 주제를 공고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유도함. 일반대중이 대여한 물품들을 기반으로 전시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품들의 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음. 전시 후, 인천시박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시품들은 교섭을 통해 기증 유도
- 특별전을 기획할 시, 개인소장품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각 소장가에게 각 물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소장가와 각 물품의 관계(개인적 가치)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부각할 수 있는 세밀한 기획이 요구됨

○ 실물자료를 기증받을 때, 기증자의 생애와 기증받는 자료의 수집 및 소장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수집해야 함

○ 인천시와 협력하여 지역 내 잠재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기증 및 기탁유도를 통한 소장품 확보(<사례 6>)

〈사례 6〉 예천군, 지역 거점 박물관 육성 위해 기증 · 기탁 협약 체결



〈그림 67〉 예천박물관
(이상만 2020)



〈그림 68〉 예천군, 예천박물관에 기증 · 기탁하는 협약 체결(경상매일신문)

- 2016년 예천군은 지역 사찰, 문중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물급 유물 700여점을 포함한 총 1만여점의 유물을 예천박물관에 기증 · 기탁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천박물관이 지역문화유산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함
- 군은 지난 2012년부터 동산문화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외부반출 1만9천693점, 지역 내에 소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2만점의 유물 등 약 4만여점이 확인됐으며, 지난 1월 다량의 유물을 소유한 8곳과 보물 706점, 도지정 16점 등 총 1만411점에 대한 기증 · 기탁 협약을 완료함
- 이번 협약체결에 이어 4월부터는 일반 군민이 소장한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 기증 · 기탁을 진행할 예정
- 군은 군민들로부터 기탁받은 예천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상설전시하고 교육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학생, 출향인들이 예천문화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천의 혼'을 일깨우는 신도청 거점 박물관으로 육성할 계획
- 특히, 예천은 신도청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출토유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장시설이 없어 문화재 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량으로 문화재를 보유한 사람들이 고령자이고 도난에 따른 관리시설 보충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장고 및 전시시설 확충사업도 병행할 방침
- 2020년 5월 예천군은 의성김씨 남악종택(용문면 구계리 소재, 조선 중기 문신이자 퇴계 이황의 문인인 남악 김복일의 종택)으로부터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1403-1420년)로 인출된 농서 '사시찬요(四時纂要)'를 비롯한 2,000여점의 유물을 기탁받음

(이상만 2020; 장덕필 2016)

(3) 매장문화재 위탁관리

○ 인천시박은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기관으로, 인천에서 출토된 유물을 위탁관리해 오고 있음. 2019년에는 인천지역 유적 4개소의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618건 625점 인수

(4) 자체 학술조사 등을 통한 수집

○ 폐업하는 점포, 공장지대 등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물질문화로, 2019년에는 232건 258점을 수집함

(5) 복제

○ 원형의 확보가 어렵지만, 전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물자료의 경우 복제품으로 대체. 2018년 인천시박은 소장품인 석남동 출토 여성복식의 전시를 위해 복제품 4건 6점 제작

(6) 이관

○ 폐관하는 박물관의 자료 중 인천시박의 수집범위에 속하는 자료의 이관
○ 자료 이관시, 실물자료 이외에 실물자료와 관련된 문서까지 수집해야 함

(7) 기탁/수탁

○ 원소장자의 소유권이 유지된 채, 일정기간 동안 실물자료를 기탁받아 조사연구 · 전시 · 교육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에서 활용함

○ 특별전을 통해 발굴한 민간소장품 중 인천시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일 경우, 기증을 유도할 수 있으며, 거절할 경우 기탁을 제안할 수 있음

4. 수장고

1) 소장품 수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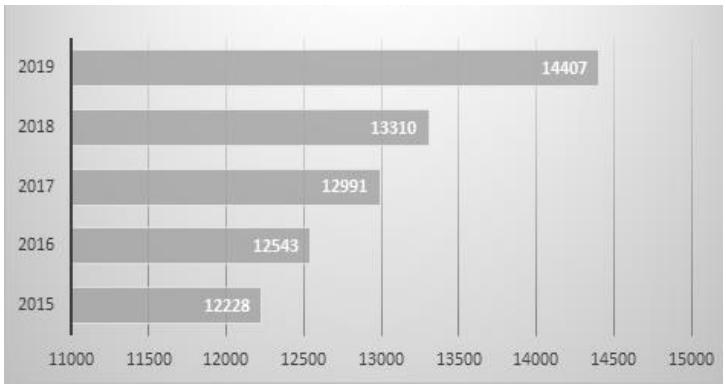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인천시박의 소장품 수집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558점이 반입됨(<표 35>)

(단위: 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장품수	12,228	12,543	12,991	13,310	14,407
비교증감	+612	+315	+448	+319	+1,097

〈표 35〉 2015-2019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 수집 추이

○ <그림 7>은 소장품 수집량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2019년 수집량의 급격한 증가에는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신축이전사업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음



〈그림 69〉 2015-2019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 수집 추이

○ 또한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및 위탁관리도 증가추세에 있음(<표 36>)

(단위: 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량	-	-	314	449	625
비교증감	-	-	+314	+135	+176

〈표 36〉 2015-2019년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및 위탁관리 추이

2) 수장고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수장고 현황



〈그림 70〉 인천시립박물관 수장고
(인천시립박물관)



〈그림 71〉 인천시립박물관 수장고
(인천시립박물관)

○ 인천시박의 수장고는 345m^{2}으로, 박물관 연면적(5,831m^2) 대비 구성비는 약 5.92%에 불과(<그림 70-71>, <표 37>)

○ 분관의 경우, 수장율 94.6%에서 152%의 포화도를 보이고 있음

박물관	크기 (m^2)	최대 수용량(점)	소장품 수량(점)	수장율 (%)
인천시립박물관	345.00	약 21,000	17,452	80.0
검단선사박물관	102.50 (86.80)	4,500	4,405	98.0
송암미술관	463.00	11,000	11,139	100
인천도시역사관	221.93	1,200	소장품: 327 이관품: 809	94.6
한국이민사박물관	234.80	25,000	37,958	152.0

〈표 37〉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수장고 현황

○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장고 공간의 칸을 나누고 소장품을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장품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가 근본적인 해결책임

○ 이에 인천시박과 분관은 수장고 증개축/보수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표 38>)

박물관	개설 연도	증개축/ 보수 연도	내용
인천시립박물관	1989	2006	3 · 4 수장고 증축(3수장고 86.6m^2, 4수장고 91.86m^2)
검단선사박물관	2008	2013	모빌렉 설치, 공간 부족으로 격납공간 확충
		2014	수장고 내 환기시설의 부재로 환기시설 설치
송암미술관	1992	2010	수장고 시설에 대한 전체적 리모델링 실시
인천도시역사관	2009		
한국이민사박물관	2013	2013	수장시설 부족으로 1개 수장고 증개축. 총 면적 72m^2(전실 28.8m^2, 수장고 43.2m^2)

〈표 38〉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수장고 증개축/보수 현황

(2) 문제점

○ 증개축/보수 사업을 통해 본관 및 분관이 가진 문제점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표 39>와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음

박물관	문제점
인천시립박물관	• 소장품관리 시설부족(유물촬영실 · 유물등록실 · 유물열람실 · 해체 및 포장실 · 훈증실 · 임시수장고 · 수장고 비품실 등) • 수장공간 및 관리시설 협소(수장고 전실 · 유물정리실 · 유물운송 엘리베이터 · 하역장 등)
검단선사박물관	• 공간협소(수장공간 부족, 전실 협소) • 시설부족(유물하역장 · 유물운송 엘리베이터 · 정리물품실 · 유물정리실 부재)
송암미술관	• 유물 수장공간 부족 • 유물 관리시설 전무(전실 · 촬영실 · 열람실 · 정리실 부재) • 관람객 엘리베이터를 유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보다 큰 유물은 반출 · 반입이 어려움
인천도시역사관	• 격납공간 부족 • 수장고 전실 협소
한국이민사박물관	• 사무공간 등 유휴공간을 증축한 수장시설이기 때문에, 공간구획 및 냉난방 단열 등에 문제가 있음

〈표 39〉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수장고 문제점

(3) 단기적 해결방안

○ 인천시박 및 분관의 수장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안은 <표 40>과 같음

박물관	현 박물관 내 증축/신설 가능	해결방안
인천시립박물관	X	• 외부 대여수장고나 외부 자체수장고를 통해 수장공간 확보
검단선사박물관	X	• 박물관 전시시설 일부 변경 사용(기획전시실 등) 검토
송암미술관	O	• 수장시설 개선(중층화 공사)
인천도시역사관	O (검토 필요)	• 인천뮤지엄파크 내 본관 신축이전 후 본관 소장 임시이관품 재이관
한국이민사박물관	O	• 한국이민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시 수장공간 확보

〈표 40〉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수장고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 매년 소장품 수집에 따른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최소로 필요한 수장고 시설과 면적은 <표 41>과 같음

박물관	계(m^2)	시설	면적(m^2)
인천시립박물관	2,350	전실 2실	250
		임시수장고	100
		수장고 6실	2,000
검단선사박물관	2,000	수장고(전실 포함)	2,000
송암미술관	1,000	수장고(전실 포함)	1,000
인천도시역사관	500	수장고(전실 포함)	500
한국이민사박물관	334.8	수장고(전실 포함)	334.8

〈표 41〉 최소로 필요한 수장고시설 및 면적

(4) 중장기적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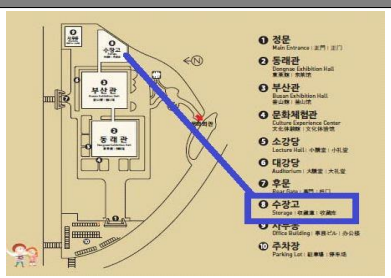
○ 본질적으로 박물관의 소장품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음. 특히 충무계획에 따른 전시와 비상시 인천 내 타기관 소장품의 인천시박 소개절차 이행을 위한 여분의 공간확보도 고려해야 함

○ 중장기적 해결방안은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신축건물 설계시 충분한 수장공간 확보로, 본관 소장품만이 아닌 분관 소장품,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관리, 충무계획에 따른 타기관 소장품 소개절차 이행 등의 경우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면적 도출 필요

〈사례 7〉 부산박물관 보존관리동



〈그림 72〉 부산박물관 보존관리동
(오광수 2015:18)



〈그림 73〉 보존관리동 위치
(부산박물관)



〈그림 74〉 보존관리동 수장고
(조소희 2015)



〈그림 75〉 보존관리동 수장고
(국립공주박물관 201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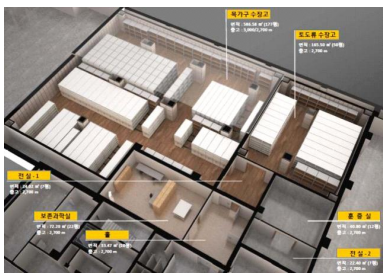
- 공립박물관인 부산박물관의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은 2008년 이후 유물이 급증했기 때문임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08년 6월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 관리청으로 지정된 후 자체적인 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입에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한 유물까지 크게 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수장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소장품을 재질별로 분류 및 보존하는데 차질을 빚게 되었고, 훈증실이 별도로 없었던 탓에 약식으로 보존처리하는 등 소장품관리에 한계가 따름
- 이에 박물관 본관 뒤편 공간에 기존의 6배에 달하는 연면적 3,300m^{2}의 독립 유물수장공간인 보존관리동(지하1층, 지상2층)을 건립하여 2015년 3월 준공식을 개최함(<그림 72-73>)
- 보존관리동 내부에는 6개의 수장고와 항온항습실, 보존과학실, 유물정리실, 유물복원실, 유물해포실 등의 시설 완비(<그림 74-75>)

(부산광역시 2015; 오광수 2015:18; 조소희 2015)

○ 2015년 박물관 본관 뒤편 공간에 건립된 부산박물관 보존관리동과 2024년 박물관 북쪽 부지에 완공될 예정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 디지털과학센터는 모두 넉넉한 면적의 박물관 부지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서울역사박물관은 본관 수장고(2,046.64m^2)외 별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기록원 지하1층 내' 은평수장고(1,030m^2)를 보유하고 있음(<그림 76>). 서울역사박물관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인천시박은 신축이전 후 현 박물관 건물을 수장고로 활용하는 안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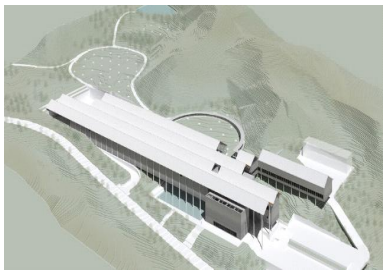


〈그림 76〉 서울역사박물관 은평수장고

(서울특별시 2019:14)

○ 또다른 중장기적 해결방안은 통합수장고 운영(안)이 될 수 있음(<사례 8>)

〈사례 8〉 서울시 개방형 통합수장고 건립사업



〈그림 77〉 서울시 통합수장고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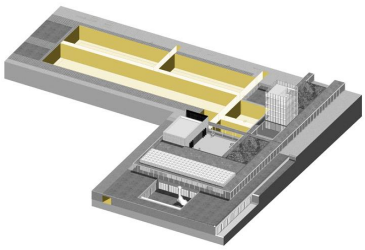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는 꾸준히 늘고 있는 소속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공간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건립하기로 결정. 이를 통해 수장공간 확보와 서울시 역사문화자원의 통합적인 관리 가능

- 통합수장고 건립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투자심사 등 2년간의 사전절차를 거쳐 2019년 설계공모를 진행함
- 시는 지자체 응모를 거쳐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일대에 통합수장고를 짓기로 함.
-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수장고는 44,615m^{2}의 부지에 연면적 9,000m^2 규모로 지어질 예정(<그림 77>)
- 총 사업비는 건물 406억8천400만원과 토지 22억원을 합해 428억8천400만원임
- 수장고는 위탁 유물의 재질 · 크기 등을 사전조사해 맞춤형으로 조성할 예정. 일반형 수장고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소장품을 가변형 수장대를 활용해 다양한 크기의 소장품을 보관할 수 있게 조성. 환경변화에 민감한 토기 · 필름 등을 보관하기 위해 항온 · 항습을 유지하는 특별형 수장고도 마련할 예정
- 보존처리실에는 개별 박물관/미술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3D 스캐너, X선 투과조사기, 훈증기 등의 장비 확보와 전문인력을 구비해 위탁받은 유물의 보존처리 · 복원 · 수리 등이 가능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
- 시는 통합수장고를 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넘어 전시 및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예정
- 이에 횡성군은 통합수장고 인근에 도로 · 공영주차장 등 교통 기반시설을 늘릴 뿐만 아니라, 횡성 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합수장고를 오가는 버스노선과 시티 투어버스 운영도 계획 중

(이수용 2020; 이정규 2020)

○ 통합수장고의 또 다른 사례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를 들 수 있음. 단지 내 들어설 5개 박물관의 소장품을 종합적으로 수장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단지 북편 중앙 지하에 통합수장고가 조성될 예정(<그림 78>). 통합수장고는 연면적 12,050m^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관람객이 직접 수장고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으로 설계(곽우석 2018)



〈그림 78〉 세종시 통합수장고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보존처리

1) 재질별 소장품 현황 및 시사점

(1) 재질별 소장품 현황

○ 재질별 소장품 현황을 살펴보면, 지류가 7,744점(53.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금속류 3,229점(22.4%), 도자기류 1,351점(9.38%) 순으로 나타남(<표 42>)

(2020년 기준, 단위: 점)

재질	소장품수	재질	소장품수
고무	8	지	7,744
골각패갑	37	초제	22
금속	3,229	토제	306
나무	817	피모	20
도자기	1,351	합성재질	156
사직	156	화석	34
석	214	기타	86
유리 보석	227	**계**	**14,407**

〈표 42〉 재질별 소장품 현황

(2) 시사점

○ 영구보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질별 전문 보존처리인력 확보 및 시설 확충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 소장품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류 · 금속류 · 도자기류 전담 보존처리 전문인력, 관련 시설 및 장비 확보가 시급

2) 보존처리 현황 및 시사점

(1) 보존처리 현황

○ 최근 5년간 보존처리업무 현황은 <표 43>과 같음

○ 보존처리업무는 본관인 인천시박에서 일임하고 있음

○ 분관인 검단선사박물관, 송암미술관,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경우 종합해충관리나 보존환경조성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타업무와 겸하고 있으며 보존처리담당 전문인력 부재

보존처리업무 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존처리 - 자체	97점	83점	374점	7점	86점
보존처리 - 위탁	2점	3점	1점	2점	5점
소장품 상태조사	612점	217점	-	-	752점
보존환경 조성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종합해충관리시스템	1회	1회	1회	1회	1회

〈표 43〉 2015-2019년도 보존처리 현황

(2) 시사점

○ 본관 및 분관 소장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예방보존을 위한 보존환경 조성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보존처리업무의 강화가 요구됨

○ 기본적으로 인천시박과 분관 소장품 위주로 보존처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인천을 대표하는 공립박물관으로서 인천의 문화자산을 영구히 보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과 관련된 주요 유물이나 인천 소재 타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훈증처리 및 보존처리 지원사업 수행의 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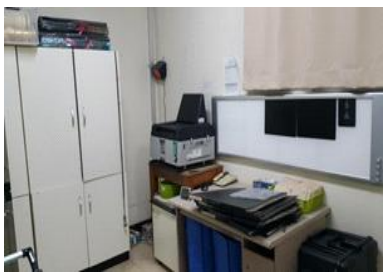
○ 따라서 보존처리업무의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됨

3) 보존처리 시설 현황 및 시사점

(1) 보존처리 시설 현황



〈그림 79〉 인천시립박물관 보존과학실(인천시립박물관)



〈그림 80〉 인천시립박물관 X-Ray실(인천시립박물관)

○ 인천시박은 보존처리 관련 시설로 보존과학실과 X-Ray실을 보유하고 있으며(<그림 79-80>), 총면적은 79.38m^{2}임(<표 44>)

시설	면적(m^2)
보존과학실	64.12
X선실	15.26

〈표 44〉 보존처리시설 면적

(2) 시사점

○ 인천시박 및 분관 소장품,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귀속문화재, 보존처리 지원사업 등을 위한 보존처리 공간 및 X-Ray 촬영 공간 부족
○ 신수 · 반입유물의 살충 · 살균을 위한 훈증고 부재
○ 소장품 중 지류가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류 보존처리시설 부재
○ 최소로 필요한 보존처리 관련 시설과 면적은 <표 45>와 같음

시설	면적(m^2)
보존과학실	250
X선실	30
훈증고	70
계	**350**

〈표 45〉 최소 필요 보존처리시설 및 면적

○ 보존처리 공간은, 보존처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방사선, 고전압의 전기, 유기화학품, 가스 등을 많이 사용하여 실험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수장고와 별개의 공간에 위치해야 함

4) 보존처리 장비

○ 현재 인천시박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53종으로 아래와 같음

강제순환건조기	약품장 및 실험용배기기	진공청소기
금속현미경	연마기	진공포장기
금속현미경용 노트북	열송풍기	진공함침기
노트북	열판자석교반기	초음파 세척기
데시게이터 2종	이차수제조장치	충전드릴드라이버
드라이 캐비넷	자동필름현상기	포터블 리프트
디지털 온습도계 3종	자외선 강도계	항온수조
디지털카메라 2종	자외선램프	핸드그라인더
디지털 캘리퍼스	저온배양기	현미경 카메라
모터툴	적외선 카메라용 노트북	휴대용 ph측정기
바이브레이터툴	적외선 카메라 세트	흄후드 2종
순환식 가열장치	전자저울 2종	Auto Clave
스팀다리미	정밀분사가공기 세트	SIL-AIR
스팀압력클리너	정밀저울	X선 촬영장비
실체현미경 2종	조도측정기	
실체현미경 광원기	조명확대경	

○ 보존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양호한 보존처리를 위해 향후 필수적으로 보유가 필요한 장비는 구비의 시급성 · 예산확보 · 공간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표 46>)

번호	기기	수량	용도
1	XRF	1	문화재 비파괴 성분분석
2	드라이 캐비넷	3set	습기에 민감한 물품 및 시료 보관
3	약품보관장	1	산/염기물질을 안전하게 보관
4	강제순환건조기	1	열변형 실험 및 열강화 실험 시료의 수분제거 등
5	진공건조기	1	금속문화재 정밀 건조
6	초음파 세척기	1	
7	이동형유해가스제거기	1	유해가스 정화 장치
8	암후드(천장설치)	3	외부 배기시스템에 연결하여 분진과 유해가스 제거
9	이동형집진기	1	소량의 흄, 분진, 냄새 제거
10	탈산처리기	1	지류의 화학적 안정화
11	3D 스캐너	1	유물 데이터화와 복원
12	에어컴프레셔	1	
13	소형컴프레셔	1	
14	색차계	1	분광광도계
15	실체현미경	1	손상 부위 제작기술조사
16	온습도기록계	30	수장환경 확인
17	훈증고	1	유물보존처리를 위한 훈증형 살충설비

〈표 46〉 인천시립박물관 보존처리업무 관련 향후 필수 보유장비

6. 인력

1) 현황

○ 2020년도 현재 인천시박 및 분관의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표 47>) 유물관리업무 담당자 대부분은 유물관리업무와 타업무를 겸하고 있거나, 유물관리업무와 보존처리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유물관리업무 현황분석 및 업무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유물관리와 보존처리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타]: 타 업무와 겸직
[병] 소장품관리 및 보존처리 업무 병행

박물관	인원수	직급	업무내용
인천시립 박물관	1	학예연구관	유물관리부 업무 총괄. [병]
	1	학예연구사	유물수집(기증, 기탁, 복제), 유물 해제 및 문화재 지정, 유물 보존처리 및 환경조성. [병]
	1	학예연구사	유물 관내 임시이관 및 관외 대여, 유물등록 및 전산화, 수장고 관리 및 운영
	1	학예연구사	유물구입, 유물관리부 서무. [타]
	1	학예연구사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및 위탁. [타]
	1	공무직	유물 열람 · 복제 · 촬영 허가, 유물촬영 및 이미지파일 관리, 유물등록 및 출납,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입력 및 관리
	1	공무직	유물 보존환경 조성, X-Ray실 관리
	1	공무직	자체 유물 및 위탁유물 보존처리, 보존처리실 관리
	1	공무직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입력 및 관리, 유물등록 및 출납, 온라인 유물정보 관리. [타]
	1	공무직	국가귀속문화재 등록, 유물관리 업무 보조. [타]
검단선사 박물관	1	학예연구사	종합해충관리 및 온습도 관리. [타]
	1	공무직	종합해충관리 및 온습도 관리. [타]
송암 미술관	1	학예연구사	유물 및 수장고 관리, 유물 대여 및 출납, 유물 감정평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관리. [타]
	1	공무직	유물 보존환경 조성, 유물촬영 및 이미지파일 관리, 유물 열람복제촬영 허가. [타]
인천도시 역사관	1	학예연구사	유물수집 및 관리. [타]
	1	공무직	유물등록 및 관리 지원. [타]
한국이민사 박물관	1	공무직	유물수집(기증, 기탁, 수집), 유물등록 및 전산화, 유물 관리 및 수장고 운영, 유물 열람 · 복제 승인, 유물 보존환경 조성. [타]
	1	기간제근로자	유물관리업무 보조

〈표 47〉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유물관리업무 인력배치 현황

○ 부산박물관의 경우, 유물관리와 보존처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물관리팀안에 학예연구관 2명을 두어 각기 각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표 48>)

유물관리팀	총 7명	학예연구관	2명
		학예연구사	5명

〈표 48〉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 인력배치 현황
(부산박물관 2019:8)

○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유물관리업무는 유물관리과에서 보존처리업무는

보존과학과에서 맡고 있음

2) 인력 증원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유물관리부 운영인원은 총 7명으로 <표 49>와 같음

소장품관리부[5]	총 7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6명

〈표 49〉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관리부 인력

○ 보존처리업무와 관련된 인력확충 시, 금속 · 도자 · 지류 보존처리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기에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보존과학 기능의 확대를 위해, 부산박물관의 사례처럼 최소한 유물관리부 내에 학예연구관 2명을 배정해 유물관리와 보존처리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소장품관리부 아래 유물관리과와 보존처리과를 두거나, 소장품관리부와 보존처리부를 별도로 두는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 분관의 소장품관리업무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인력배정이 어려우면, 본관과 분관 통합수장고 운영 및 통합관리체제에 대한 검토 필요

7. 예산

1) 현황

○ 인천시박의 소장품관리업무 관련 예산은 <표 50>과 같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8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947,590,000원 증가했다가 2019년도에 감소함. 가장 큰 이유는 2018년에 소장품 수집 예산이 증액되었

5)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계획(안)’에는 ‘자료수집부’로 되어있음. ‘자료수집’이라는 용어는 소장품관리 업무 중 한 부분인 수집활동만 의미하고, 소장품 등록 · 대여 · 보존처리 등의 업무는 배제하고 있기에, 인천시박 유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기 때문임. 이는 신축이전 후 재개관을 위한 전시품 수집을 위한 예산증액이 영향을 끼친 것임

○ 2020년에는 본예산의 약 7.36%에 해당하는 707,940,000원으로 예산이 증액됨. 이는 인천과 관련된 유물수집을 위한 481,900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임

(단위: 천원)

박물관명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시립 박물관	예산(원)	405,797	184,920	193,800	204,610	1,152,200	293,455
	구성비(%)	4.74	2.70	2.60	2.64	12.49	3.27
서울역사 박물관	예산(원)	2,641,329	1,559,265	3,439,040	2,253,399	3,439,040	2,515,900
	구성비(%)	17.11	7.00	23.11	15.64	22.79	17.00
부산 박물관	예산(원)	664,741	661,626	588,360	908,019	320,400	845,300
	구성비(%)	5.16	5.61	4.96	6.84	2.24	6.17
울산 박물관	예산(원)	832,819	1,041,628	1,001,285	1,003,235	854,225	263,724
	구성비(%)	6.85	8.64	7.28	8.61	7.40	2.34

〈표 50〉 주요 공립박물관 소장품관리업무 관련 예산

2) 운영비용 추정

(1) 소장품구입 예산

○ 2025년 개관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주제로 한 대표성이 있는 소장품 확보가 시급함

○ 기증이나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해도, 인천시박과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을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인천시박의 소장품 수량은 주요 광역단체 박물관 대비 20% 수준인데, 이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함에 있어 큰 제약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인천을 주제로 한 유물 구입 및 복제를 위한 예산(안)은 총 35억으로 세부내용은 <표 51>과 같음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예산	10	10	10	5

〈표 51〉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수집 예산(안)

(2) 소장품관리 예산

○ 소장품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300,000,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표 52>

와 같음

(단위: 천원)

지출항목	예산	비고
소장품 관리	100,000	보험가입, 해제, 재료비, 운송비 등
수장고 관리	100,000	해충관리, 훈증, 수장고 유지보수 등
외부대여 수장고	100,000	

〈표 52〉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관리 예산(안)

(3) 보존처리 예산

○ 보존처리를 위한 예산은 총 80,000,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표 53>과 같음

지출항목	예산
재료비	30,000,000
위탁보존처리비	20,000,000
보존환경 조성	10,000,000
시설장비유지비	20,000,000

〈표 53〉 인천시립박물관 보존처리 예산(안)

○ 이 밖에 보존과학 기능의 확대와 시설 확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 구입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약 2,932,500,000원이 필요함(<표 54>).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번	기기명칭	모델명	수량	추정가격(원)
1	XRF	브루커 EDtype	1	200,000,000
2	드라이 캐비넷	제이오텍 DC41	3set	11,000,000
3	약품보관장	제이오텍 SC-1912D4	1	4,500,000
4	강제순환건조기	제이오텍, OF-02G-4C	1	7,200,000
5	진공건조기	제이오텍, OV-11	1	10,000,000
6	초음파 세척기	제이오텍 UCP-10	1	1,300,000
7	이동형유해가스제거기	제이오텍 EFS-33-75D	1	2,500,000
8	암후드(천장설치)	제이오텍	3	17,000,000
9	이동형집진기	크린에어테크 UPC-260	1	800,000
10	탈산처리기		1	2,000,000,000
11	3D 스캐너	ArtecLeo	1	42,000,000
12	에어컴프레셔	HMC200S	1	2,000,000
13	소형컴프레셔	SilAir	1	1,200,000
14	색차계	X-rite Ci6X 시리즈	1	14,000,000
15	실체현미경	Leica MZ6	1	4,000,000
16	온습도기록계	testo	30	15,000,000
17	훈증고	SK/질소 병행방식, 20m^2	1	600,000,000
계				**2,932,500,000**

〈표 54〉 인천시립박물관 보존처리업무 관련 필수 보유장비 예산(안)

제3절 전시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그림 81〉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1)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 전시기능 강화

- ○ 인천시박 전시업무 담당자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 강화(그림 81>) 및 공립박물관으로서 지역밀착형 전시콘텐츠 개발 및 운영
- ○ 전시내용 전개 및 전시연출에서 인천시박만의 특징(signature) 창출
- ○ 온라인 전시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다각화를 통해 균등한 문화향유기회 제공
- ○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관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시내용에 적합한 첨단과학기술(예: 실감형 콘텐츠 기술) 적용
- ○ 전시를 통해 박물관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제고. 이를 통해 기증/기부/협찬 대상으로서의 신뢰성 구축
- ○ 인천 내 박물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전시 부문에서 상호 협력기회 확대 및 질적 향상 도모
- ○ 박물관전시 부문에서 축적하게 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전시 부문에서 인천시박의 전문성 제고 및 박물관계에서 입지 강화

2)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연계되는 삶

○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별 통사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전 시대에 걸쳐 인천의 변화상 조명 및 인천의 지역성 규명 시도
○ 변화의 양상과 변화의 동인에 대한 탐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세계 · 지식세계 · 인식세계 복원. 이를 통해 과거에서 현재의 생활상을 찾고, 현재 우리는 어떤 미래의 생활상을 창조하고 있는 중인지를 관조할 수 있도록 함.
○ 인천시민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이라는 지역환경 및 지역의 역사와 연결하여, 인천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인천인으로서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
○ 매년 1회 인천 내 모든 박물관(과학관, 미술관 등 포함)과 공동으로 특정 주제를 선정해 각 박물관의 차별화된 해석을 보여주는 특별전 개최.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문화생활 참여기회 증진 및 지역 축제의 장으로 기능

3) 통하다: 대한민국 속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

○ 타도시 박물관과의 교류전 및 순회전시 활성화를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타지역 사람들과 공유
○ 국제교류전 기획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타국 사람들과 공유
○ 타국 특정 도시와 인천을 비교하는 전시를 통해, 인천시민의 세계에 대한 인식 및 세계 속의 인천에 대한 인식 제고
○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국내외 타도시에 대한 전시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조명. 이를 통해 인천의 지역적 특색 규명, 다양성 포용 및 지역성 진화에 일조
○ 온라인 전시 강화 및 노출 극대화를 통해 국내외 잠재 관람객 개발 및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촉발

2. 전시콘텐츠 특성화 방안

1)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

○ 현재 인천시박은 상설전시인 공예실(2층)과 서화실(3층) 연결통로에 박물관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음(<그림 82>)



〈그림 82〉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에 관한 전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1946년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 설립'이라는 역사는 인천만의 역사가 아닌 한국 박물관계의 중요한 역사이자, 인천시박만이 가진 차별화된 콘텐츠임

○ 이에 독립된 상설전시실에서 박물관 형성과정부터 개관 당일까지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인천시박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와 의미 부각

○ 개관을 위해 수집한 소장품을 출처별로 전시함으로써, 수장고 내 비교적 전시활용도가 낮은 소장품을 적극적으로 전시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장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지구상에서 멸종된 매머드(mammoth)의 상아는(<그림 83>) 2004년 3월 16일 박물관 전시실 개 · 보수공사 때 수장고에 입고돼 단 한번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다가, 2016년 개관 70주년 특별전을 통해 재공개됨(지건태 2016)



〈그림 83〉 매머드 상아(지건태 2016)

- 이 상아는 일본군이 시베리아 지방에서 수집한 것을 본국으로 가져가려다 해방이 되자 중국인 소유의 창고 애붕사(중구 북성동 소재)에 숨겨 보관함. 그러다 화재가 발생하자, 당시 사고조사를 하던 인천경찰이 발견해 박물관에 이관함(지건태 2016)

○ 개관 이후 박물관의 역사는 각 시기별 인천의 역사를 다루는 상설전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인천역사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인천시박의 변화상 기록 및 인천사회 속에서 인천시박의 역할 부각 가능

- 주기별로(계절별, 월별 등) 다양한 내용(박물관에서 일어난 일, 관련된 사람, 소장품, 전시 등)으로 전시를 교체함으로써, 상설전시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음

2) 사람을 전시의 중심소재로 부각

○ '사람'이라는 소재를 피동적인 '그림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다른 소재들과 함께 전 전시영역에서 부각

○ 2018년 6월 8일-2019년 8월 25일 캐나다인권박물관(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은 넬슨 만델라에 관한 전시를 개최함. 이 전시에 만델라가 1964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에스퀴니티섬 로벤 아일랜드(Robben Island) 감옥을 재현함(<그림 84>). 여기에 만델라의 실루엣을 연출해 감옥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그림 85>), 만델라의 육성으로 정치범으로 복역한 경험,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차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줌



〈그림 84〉 로벤 아일랜드 감옥 재현(캐나다인권박물관)



〈그림 85〉 감옥 속의 넬슨 만델라(캐나다인권박물관)

- 이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캐나다인권박물관은 넬슨만델라재단(Nelson Mandela Foundation), 인종차별박물관(Apartheid Museum) 등의 협조아래 캐나다와 남아프리카에서 3년간 조사연구를 실시함
- 감옥에서의 넬슨 만델라 실루엣의 동작은 배우가 연기함

- 참고로 이 전시기법은 인천시박의 탄생에 관한 전시에서 초대관장인 이경성을 캐릭터로 적용해 볼 수 있음

○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특별전 <2002 서울 스타일>전 준비를 위해 조사를 담당했던 사토 코우지의 다음 글에는 전시기획단계에서부터 사람을 전시의 중심소재로 부각시키려는 고민을 엿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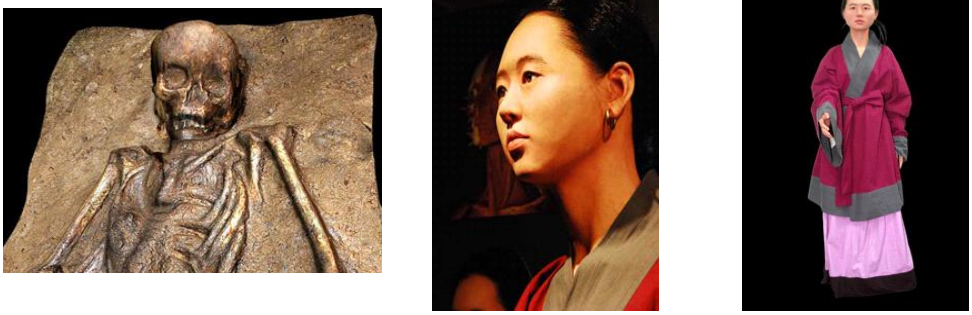
> 전시테마는 '한국'과 '가족' 그대로가 좋다. 그렇다면, 더욱 한국적인 가족이 있지 않을까? 더욱 표준적인 한국의 가족이미지를 추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의문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설정이야말로 요구되었다.
> 지금까지 박물관 전시라고 하면 사회의 전체상을 먼저 상정하고 전시품은 그 전체상을 그리기 위한 소재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를 전시한다면 그것은 한국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소재로 생각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선생 일가는 한국을 비추는 그림자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의 표상이 아닌 그 자신의 가치를 갖는 존재로서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사는 주인을 소중한 개체가 갖는 의미로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의 결과가 '서울스타일'이라고 하는 명칭에 담겨 있다. '한국의 가족'이 아닌 '이선생 일가'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가족 한명 한명이 고유의 시간과 고유의 공간을 가지며, 아파트의 방을 서로의 연결점으로 하여 주위의 세계로 이어져간다. 그러한 관계의 형태를 한국도 일본도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가족'으로 보고자 했다.
>
> (국립민족학박물관 2002:108-9)

○ 위인이나 권력가나 저명인사만이 아닌 소리없이 역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역사의 주체로서 조명

>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 · 중 ·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에는 인간이 없다. 단지 위인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업적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
> (한미라 · 전경숙 2004:3)

- 2004년 11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8-5번지에서 도로개설공사 중에 조선시대 회곽묘 1기가 발견됨. 조사과정에서 여성 시신과 함께 복식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됨. 이 회곽묘의 주인공은 150cm의 여성으로 미라화 된 상태였음(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16, 18)
- 인골에서 디엔에이(DNA)를 축출한 분석은 이미 고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법으로, 두개골의 경우 얼굴을 복원하는 단계까지 진행됨(<그림 86>)
- 인골은 문헌에서 볼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고인골이나 미라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 체격 · 식생활 · 질병 등 생활 전반을 추정하고 해

석할 수 있음. 인골을 전시소재로 할 경우, 흥미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골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어떤 추론이 가능한가에 초점 맞춤. 이를 통해 특정 시대에 대한 생동감과 현실감 강화



〈그림 86〉 순장인골 복원 모형: 가야소녀 송현(신세영 2012)

- 석남동 회곽묘의 경우, 피장자 뿐만 아니라 발견자 · 조사자 · 보존처리자 등 관련자도 전시의 소재가 될 수 있음(<그림 87>).



〈그림 87〉 시가현립비와코박물관 상설전시 중 '박물관 지하지층 조사'(김건희)

- 발견에서부터 인천시박의 소장품이 되기까지의 과정 · 회곽묘 여성 미라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와 복원모형 · 장묘문화 · 부장품(피장자가 착장한 장신구의 종류와 위치, 용도, 문양, 재질, 제작방법 등)을 주제로 전시할 수 있음

3) 인천을 중심에 놓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 한국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의 인천이 아닌, 인천을 중심에 놓고 한국사를, 더 나아가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 선택

○ 전시공간 속에서 '각 시기별 · 주제별로 인천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인천이라는 지리적 공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인천"이라는 개념으로 진화되었는지', '인천의 시작과 변화과정, 인천에서 전개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벌어진 사건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전시에 반영함으로써, ‘인천’하면 인천시박을 제일 먼저 연상할 수 있는 위상 정립 및 인천의 핵심문화시설로 입지 다짐

○ 이와 함께 전시를 통해 ‘인천과 관람객을 어떻게 관계맺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이를 위해, 전시내용의 전개에서 관점의 전환 필요

- 현재 인천시박의 상설전시실 역사1실에서 구석기 ‘선사시대의 인천’은 ‘선사시대의 인천 개관 → 선사시대 인천의 주요 유적 분포도 →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 청동기 시대 개관(<그림 88>) → 청동기시대 간돌칼 → 송산유적(신석기시대 유물전시) → 원당동유적(청동기시대 유물전시) → 매장문화재의 조사 → 신석기시대의 인천 → 청동기시대의 인천 → 장금도패총 → 인천의 고인돌’ 순의 구조로 전시하고 있음.



〈그림 88〉 선사시대 유물 전시

- 선사시대의 인천 중 구석기시대에 관한 전시를 ‘언제부터 인천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인천 최고(最古)의 유물 1점 전시 → 구석기시대 개관 → 인천의 구석기(구석기유적 분포도, 구석기인들의 유입경로 추정, 당시 자연환경, 관련 유물의 재질과 용도로 본 생활상과 기술, 세계사 및 한국사 속의 구석기와 비교 등)’ 순의 구조로 전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는”으로 시작하는 한국사의 일부로서 인천 조명이 아닌, “인천의 구석기시대는”으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인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천 중심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시 지향



〈그림 89〉 여러면석기
(인천시립박물관)



〈그림 90〉 인천 중구 출토 석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신수18895)

- 또한 관람객이 '인천의 선사시대'로 특화된 분관 검단선사박물관을 방문하도록 촉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장치(전시내용 분배, 검단선사박물관 언급 등) 마련. 전시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인천시박이 망원경으로 구석기시대를 본다면, 검단선사박물관은 현미경으로 구석기시대를 보는 방식의 내용분배 제안

4) 폭넓고 균형잡힌 시각

○ 인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밝히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진화하고 있는 변화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원래의 사회적 · 문화적 · 환경적 맥락에서 폭넓고 균형잡힌 시각의 전시 필요

- 2019년 10월 8일-2020년 2월 16일 인천시박은 인천 민속 문화의 해 특별전으로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 꽃>을 개최함(<그림 91>)



〈그림 91〉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 꽃' 설명문

[전시설명문 전문]
인천은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확장하면서 새롭게 변모하였습니다. [...] 한편으로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헌신하였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삶의 기록도 품고 있습니다.
인천의 민속문화는 아득히 먼 시간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는 '노동자의 삶'이 바로 인천의 '민속'이고 '민속문화'입니다. 전시를 통해 우리의 삶 역시 인천의 '민속'이고 '민속문화'로서 앞으로 이어져 내려갈 인천의 저력이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공업도시로서의 인천을 전시할 때, 노동자의 삶과 고충만이 아닌 고용주 · 중간 관리자 등의 삶과 고충도 함께 다뤄야 공업도시로서 인천의 면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 노동자의 삶이 인천의 민속문화라면, 고용주 · 중간 관리자 등의 삶도 인천의 민속문화이며, 산업화의 역군에는 노동자만이 아닌 고용주 · 중간 관리자도 포함됨
- 전시를 통해 미래의 인천에서는 고용주 · 중간 관리자 · 노동자 등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이 공공박물관으로서 인천시박의 책임과 의무라고

볼 수 있음

○ 독일 브륄(Brühl)의 아우구스투스부르크성(Schloss Augustusburg)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그림 92>). 이 성은 18세기 독일의 로코코 양식 건축물 중 가장 초기의 사례이며, 18세기 전반 유럽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힘(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 1992-2016).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일상사박물관(Museum Für Alltagsgeschichte)은(<그림 93>) 아우구스투스부르크성을 짓기 위해 돌을 운반했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전시 주제로 다루고 있음(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재단). 이 박물관은 상류층의 삶을 보여주는 아우구스투스부르크성과 한 쌍을 이루는 의미에서 1995년에 설립됨(브륄 박물관섬).



〈그림 92〉 아우구스투스부르크성
(아우구스투스부르크성)



〈그림 93〉 일상사박물관
(일상사박물관)

5) 시대별 인천의 생활상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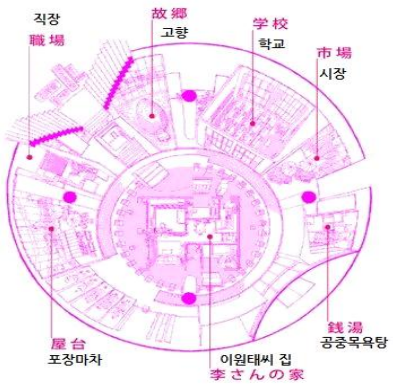
○ 시대별 · 주제별 생활상 복원을 통해, 현재와 분리된 과거가 아닌 '오늘을 있게 한 과거, 현재 창조해 가고 있는 미래'라는 시각에서 과거의 생활상과 현재의 생활상 비교조명

○ 연속성과 변화의 동인, 단절의 동인, 보편성, 지역적 특색, 교류를 통한 타문화의 유입과 변용과정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재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천의 미래 생활상 창조에 기여

○ 2002년 3월 21일-7월 16일 일본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国立民族学博物館)은 <2002年ソウルスタイル(2002년 서울 스타일)>전을 개최함

- 당시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3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원태 가족을 전시대상으로 함
- 2000년 전시대상 조사 및 전시자료 확보 작업 진행. 모든 생필품의 사진촬영 및 목록화, 1주일간 전 가족의 일정과 식단 관찰 및 기록, 가족 구성원과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조사함

-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집의 구조는 물론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 전부를 옮겨와 생활을 그대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의 가족구성원의 생활도 보여주려고 시도함(<그림 94>)



〈그림 94〉 '2002 서울 스타일'전 전시배치도

- 이 전시는 총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됨(<표 55>)

전시영역	내용
1. 도입	• 조남이(이원태 모친) · 이원태 · 김영숙(부인) · 이동화(아들) · 이의정(딸)을 각자의 의복과 소지품으로 존재감 있게 연출하면서, 상징적으로 표현  〈그림 95〉 가족구성원(김건희)
2. 집	• 전시장 1층의 중앙에 이원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재현 • 영상자료: 이원태 가족의 24시간을 촬영하여, 집에서의 생활모습을 보여줌  〈그림 96〉 이원태 가족의 집(김건희)

3. 직장	이원태의 직장 생활
4. 포장마차	•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1잔 • 영상자료: 이원태의 직장생활 및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의 모습  〈그림 97〉 포장마차(김건희)
5. 공중목욕탕	공중목욕탕 재현
6. 시장	• 재래시장 재현 • 김영숙(부인)의 활동영역으로써 선정
7. 학교	• 두 자녀의 활동영역으로서 초등학교 선택 •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이의정의 교실 재현 • 체험프로그램: 교실에서 한글공부 하기 • 영상자료: 수업과 급식 모습  〈그림 98〉 초등학교(김건희)
8. 고향	• 고향집과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의 무덤 • 영상자료: 제사지내는 모습. 할머니 인터뷰. ‘고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 조명

〈표 55〉 ‘2002 서울 스타일’전

- 인천시박은 이 전시연출방법을 3대 이상 인천에서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전시가 전시기획자의 해석을 통해 여과된, 즉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2020년 서울 스타일>전은 전시기획자의 해석이 배제된, 전시대상과 관람객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특이할 만함
- 2020년대 인천의 한 가정의 생활상을 타입캡슐로 저장하듯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500년 후 미래 세대에게 인위적이지 않은 생생한 2020년

대 인천의 한 가족의 실제 생활상을 체감하게 할 수 있음
- 이 전시는 가족 구성원의 기호 · 취향 · 사고방식 · 물질문화와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함
- 인천시박의 경우, 전시내용을 좀 더 확장해 각 가족구성원의 생활상 속에 내재된 '연속성과 변화의 동인, 단절의 동인, 보편성, 지역적 특색, 교류를 통한 타문화의 유입과 변용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제시

6) 한국 속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

○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국내외 타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천과 타도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조명 및 인천의 지역성 규명

○ 특히 인천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도시나 인천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은 도시, 또는 인천거주민의 출신지 분포에 따라 비중이 큰 지역이나 나라의 도시를 선정해 특정 주제에 관한 단기 교류전이나 선사시대-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인천과 비교할 수 있는 (쌍방교류) 장기 대여전(예: 해외 유수박물관 내 한국실) 개최. 이때 해당 도시의 박물관 및 유사기관과 연계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이주민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융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인천에서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인천시민에게는 한국 속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천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지역 정체성 정립의 장이 될 수 있음

7) 지역현안 조명을 통해 지역사회센터로 기능

○ 인천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발굴과 해결모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생활중심 전시 개최.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지역사회센터(comminity center)로서의 역할 수행
- 코로나19를 전시소재로 공항과 항구가 있는 인천의 검역역사에 관한 전시 개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및 예방수칙 준수 권장을 기획의도로 함
- 전시내용은 코로나19의 원인 · 경과 · 예방수칙 · 일상생활상의 변화,

역사 속의 감염병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바른/잘못된) 대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 예: 1821년 콜레라(호열자), 1890년대 일본 나가사키 콜레라와 피병원(월미도), 1883년 개항한 인천항과 온역장정(국내에서 인천항이 온역장정을 처음 적용한 항구), 1907년 만주 흑사병 창궐과 대월미도와 소월미도의 해항검역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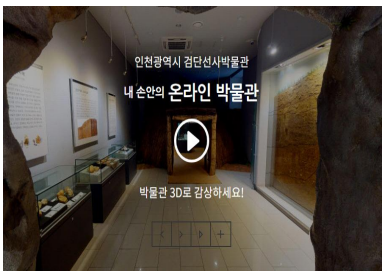
7) 온라인 전시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박물관계에서 온라인 전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인천시박은 기획특별전 <이발소 풍경>을, 분관인 검단선사박물관은 상설전시를 홈페이지에 올려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게 함(<그림 99-100>)



〈그림 99〉 인천시립박물관 온라인 전시



〈그림 100〉 검단선사박물관 온라인 전시

○ 현재 온라인 전시콘텐츠는 오프라인 전시를 온라인에 재현한 유형이 대부분으로, 컴퓨터의 마우스 클릭이나 휴대전화의 화면 터치로 실제 전시실에서 이동하며 전시물을 감상하듯 가상공간 속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음

○ 인천시박은 선제적으로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살린 전시콘텐츠 제작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박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체계 및 시설(녹음 및 촬영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구축, 장비(그래픽, 자막, 편집 등) 확보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환경은 인천시박의 온라인 전시만이 아닌 교육이나 홍보 등 타업무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 또한 분관의 온라인 콘텐츠만이 아닌, 인천지역 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박물관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박의 위상 정립, 인천 관련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인천시의 위상 강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3. 전시연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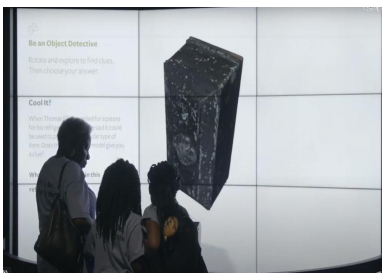
1) 전시연출 방향

(1) 역사적 사고력 신장

○ 맥락을 이해하고, 편견을 찾아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적 사고능력 함양

○ 이를 위해 1차 사료의 중요성과 다각적인 해석, 원 맥락에 대한 이해, 사건의 연속성과 변화, 원인과 결과 분석, 다양한 관점 제공이 수반되어야 함

○ 전시공간에 상호작용형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관람객 스스로 다양한 관점의 전시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함. 이는 전시공간 내에서 관람객의 다양한 관심사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 극복에 도움이 됨. 이를 통해 전시기획자가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무한한 이야기를 탐색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전환(<그림 101>)





〈그림 101〉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의 상호작용형 디지털아카이브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

(2) 복층구조의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구사

○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시내용의 성격에 따라 내러티브 · 스토리텔링 ·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결합 등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법 선택(<표 56>)

구분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미학	형식(문학의 전형적 양식)	소통(구술의 전형적 양식)
전달	일방성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상호작용성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
결말구조	선형성(linearity) 결말이 닫힌 선형적 완결구조	비선형성(non-linearity) 결말이 열린 비선형적 개방구조

특성	(서술적) 시간성, 인과성, 형식성	(재현적) 시공간성, 다감각성, 상호작용성
콘텐츠	만화 · 영화 · 애니메이션 등 닫힌 이야기 콘텐츠 포괄	구술 및 다감각 인터렉티브 콘텐츠 포괄

〈표 56〉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상관관계(류은영 2009:247)

(3) 정적인 전시와 동적인 전시 병행



〈그림 102〉 정적 전시
(아이엔씨 뉴스 2020)



〈그림 103〉 동적 전시
(타이 피비에스 박물관)

- ○ 정적인 전시는 전시품(유물) · 모형 · 드로잉 · 사진 · 디오라마 · 장면 재현 · 정보 · 안내책자 등으로 이루어짐(<그림 102>)
- ○ 동적인 전시는(<그림 103>) 동적 성격이 강한 전시를 통칭하는 것으로, 전력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 작동되는 전시가 대표적인 예이며, 관람객이 기기를 작동하여 움직임을 조종하는 전시도 포함됨(벨처 2006:103)
- ○ 박물관에서 관람객을 관찰해 보면, 전시실의 입구 부분에서는 각 전시물에 집중하며 시간을 지체하지만, 출구가 가까워질수록 전시물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이러한 관람행동은 사람의 오감 중 시각에 의존하는 정적 전시에서 두드러짐. 시각기능의 연속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는 정적 전시는 한 전시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데서 오는 정신적 피로감(museum fatigue)과 관람 중 축적되는 신체적 피로감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시물에 대한 흥미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 ○ 오감을 자극하는 동적 전시는 흥미유발에는 효과적이지만, 지속적인 오감자극은 박물관 관람 중 관람객이 느끼는 정신적 피로감을 증가시켜 자극이 덜 심한 정적 전시에 대한 선호를 유발하기도 함
- ○ 인천시박은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시내용과 전시 중 관람객이 느낄 수 있는 피로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정적 전시와 동적 전시 방법의 병행 시도 필요

(4) 감성과 이성의 조화

○ 이성을 자극하는 요소와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의 조화 시도
- 정보전달, 지식보급 등 이성을 자극하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지적 욕구 충족 및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력 증진
- 감성을 자극하는 전시를 통해, 전시내용에 대한 흥미유발과 공감 및 당시 시대상황에 대한 상상력과 영감을 불러 일으킴

(5) 창의성과 첨단과학기술 시험의 장

○ 전시를 통해 창의성과 첨단과학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장 제공

○ 첨단과학기술의 활용은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창의성과 첨단과학기술 부문에서 인천의 선도적 위치를 보여줄 수 있음

○ 단지 실감형 콘텐츠 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선보이기 위하여 별도의 전시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과학기술의 발달속도를 고려할 때, 전시콘텐츠의 수명이 짧을 수 있음

○ 전시내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사례 9>)

〈사례 9〉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전시



〈그림 104〉 가상현실 체험 (파리해방박물관)



〈그림 105〉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파리해방박물관)



〈그림 106〉 가상현실 콘텐츠 속 안내자(파리해방박물관)



〈그림 107〉 가상현실 속 캐릭터와 상호작용(파리해방박물관)

- 프랑스 파리해방박물관(musée de la Libération de Paris, 파리해방기념관)은 1944년 8월 26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파리가 해방되기 전의 저항운동을 당시 사진 및 문헌자료를 기반으로(<그림 104-105>) 시나리오 및 작화를 작성한 후, 이를 가상현실로 구현
- 장(Jean)이라는 캐릭터가 환영인사를 하며 안내자의 역할을 함(<그림 106>)
- 가상현실 속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설계(<그림 107>)

2) 전시연출 기법

○ 전시연출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음. 단일기법을 사용할지, 아니면 여러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할지는 전시내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연출기법 결정

(1) 반응적 전시

○ 관람객의 접근이나 위치를 인지하여 전시물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전시

(2) 체험적 전시

○ 관람객이 전시품을 직접 만지고 조작하면서 전시물의 반응을 살피거나, 전시물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는 등 온 몸의 신체감각을 활용해 전시물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시

(3) 상호작용적 전시

○ 관람객과 전시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람객의 참여를 요구하는 전시로,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전시가 다양한 양태로 변형될 수 있음

(4) 현장재현형 전시

○ 특정 시대 특정 장소를 영화장 세트처럼 재현하여, 관람객이 실제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분위기 연출

(5) 몰입형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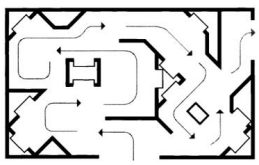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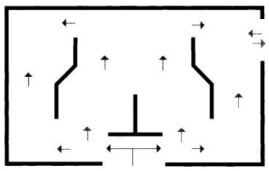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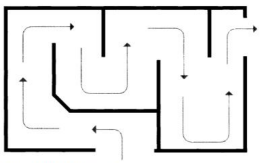
○ 전시내용 속의 상황에 빠져들도록 관람객의 경험을 미리 프로그램하는 전시(<사례 9>)

○ 몰입형 전시의 모든 요소(공간, 동선, 시간, 음향, 냄새, 정보, 관람객 수 등)는 콘텐츠 기획자가 통제함

3) 전시 관람동선

○ 전시 관람동선은 관람객이 습득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을 결정하기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관람동선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많은 유형이 있음. 그 중 데이비드 딘의 공간 내 전시레이아웃의 다양성으로 관람동선을 나눈 관람동선 유형은 <표 57>과 같음

동선유형		특성
제안동선		관람객의 동선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설치 없이 색상, 조명, 안내판, 표제, 전시디자인물 등 시각매체의 유도에 따라 관람객의 동선을 유도하는 방법
임의동선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자신의 관람패턴대로 동선을 선택하는 것. 기본적으로 동선은 통제되지 않고 무작위 관람패턴 발생.
유도동선		관람객이 관람을 시작하면 선택의 없이 공간과 전시물이 유도하는 대로 일방향으로 관람하는 방법

〈표 57〉 데이비드 딘의 관람동선 분류(딘 1994:54-6)

○ 관람동선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박물관 설계 시 전시품의 밀도와 배치 조정, 전시내용에 맞는 전시공간의 유형, 관람 방향을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표시(예: 화살표) 등이 있음. 신축이전 후 인천시박의 관람동선계획 수립 시, 바이즈만의 '길찾기 이론'의 특성을 적용해 볼 수 있음(<표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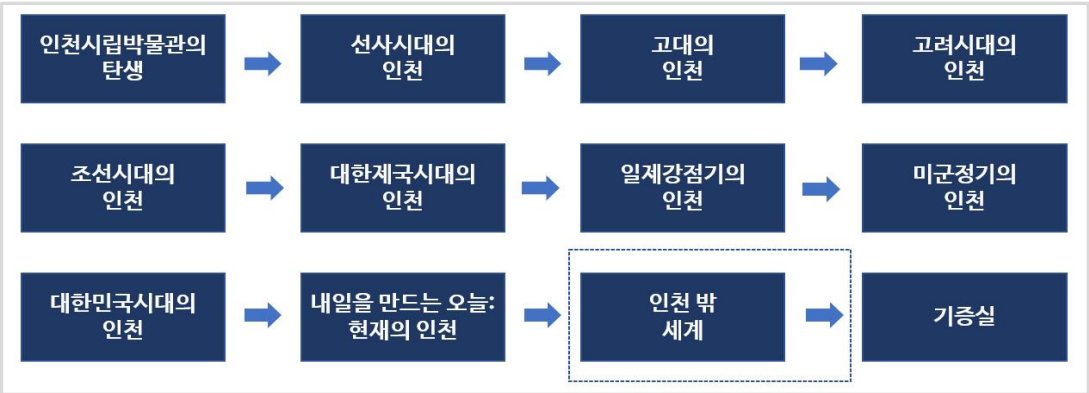
○ 공간구조와 전시내용에 따라 가장 최적의 관람동선 유형 설정필요

분류	특성	내용
평면 형상의 단순성	중심성	공간 내에 중심부를 느낄 수 있는 중정 같은 요소를 도입해 위치를 인지하게 함
	단순성	방향전환이 되는 결절점 수를 줄이는 평면 구성 또는 합리적인 결절점의 평면구성이 공간 내 지속적인 방향감각을 유지하게 함
	논리성	평면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간의 상대적 크기 · 중심성 · 축 등의 관계를 위치 · 특성과 같은 요소를 통해 형태 결정
	대칭성	대칭형 평면구성은 논리적 체계를 부여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
	친근성	관람객에게 익숙한 문자형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
	인지성	로비 · 계단 · 엘리베이터 · 홀 · 주출입구 등 공간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함
시지각적 접근성	가시성	내부공간으로 진입 시 내부공간에 대한 예비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면부를 가시형 벽체로 처리
	개방성	현 위치의 정보제공을 위해 동선이 형성되는 통로와 출입구 같은 곳은 넓은 것이 좋음
	수직성	보행밀도가 높은 수직 이동공간에 계단실을 분리하여 계획하고 직선계단을 설치
	연속성	군집행동에 의한 연속적 흐름 유도
건축적 식별성	이질성	공간의 고정적 요소를 이질적으로 처리해 독특한 이미지 부여
	일관성	통로 · 코어 · 결절점 등 기능에 따라 이미지를 일관성있게 부여해 식별성 높임
	적합성	공간의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해 공간의 정보 제공
	차별성	랜드마크적 요소를 두어 공간의 이미지를 강화해 현 위치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함
사인 체계	통일성	사인의 종류에 따른 디자인, 위치의 일관성이 있어야 관람객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효율적
	기능성	주로 결절점에 배치해 거리 · 방향 · 위치 정보를 제공
	접근성	정보를 읽는 위치와 거리를 적절하게 계획해 사인의 가독성 높임

〈표 58〉 바이즈만의 길찾기 이론의 특성

4. 전시구성 및 시나리오

1) 전시구성



〈그림 108〉 전시구성

2) 전시시나리오 예시[6)]

○ 주제별로 전시구역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함

- '전시구역1'은 인천시박의 성립과정부터 개관까지의 역사를 다룸. 이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자 인천 최초의 박물관이라는 인천시박의 위상 강조
- '전시구역2'는 선사시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인천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조명하여 인천의 변화상 부각 및 지역성 형성과정의 가시화 시도. 시대별 전시영역 구분은 현재 인천시박의 시대별 소장품 수를 반영함(87쪽 <표 33>)
- '전시구역3'은 '내일을 만드는 오늘'로 2000년대 인천의 생활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변화 고찰,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 미래의 긍정적인 인천상 구축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 마련
- '전시구역4'는 '인천 밖 세계'로, 국내외 타도시의 역사에 대한 전시를 통해 한국/세계 속의 인천에 대한 인식 제고
- '전시구역5'는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박물관 개관부터 현재까지의 기증품 관련 전시

6) 이 부분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박 본관 및 분관의 학예연구직 전원이 참여해 수립한 '인천뮤지엄파크(IMP) 조성사업: 110 전시주제, 전략과제 및 스토리 전개'를 참고함

(1) 전시구역1: 박물관의 역사

① 인천시립박물관의 탄생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박물관을 만든 사람들	이경성	• 생애 및 활동사항	이경성 흉상, 이경성 관련 물건, 사진 등
	홈펠 중위	• 생애 및 활동사항	홈펠 관련 물건, 사진 등
박물관 건물	건축	• 건립과정, 건축양식, 관련 일화 • 용도변경: 세창양행 사택 → 인천부립도서관 → 향토관 → 인천박물관 • 개관을 위한 건물 보수	칼 볼터와 세창양행 사진, 세창양행 사택 모형 및 사진엽서 등
소장품	형성과정	• 소장품 수집 관련 사연 • 향토관, 부평조병창, 세관창고, 기증(장석구 등), 애붕사 등 • 대여(국립박물관, 국립민족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논의	각 출처별 수집품 및 관련 자료, 사진 등
개관	1946. 4. 1.	• 개관의 의의 및 관련 일화	사진, 신문기사 등



〈그림 109〉 세창양행 사택과 칼 볼터(케이케이케이케이8155 2011)



〈그림 110〉 홈펠 중위 기증품 (인천시립박물관, 소장품번호: 000048)

(2) 전시구역2: 인천의 역사(선사시대-고려시대)

① 선사시대의 인천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구석기 시대의 인천	인천지역에 거주한 최초의 인류	• 인천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유물	격지, 긁개, 다각면원구, 망치돌, 몸돌, 밀개, 사냥돌, 석핵, 자르개, 주먹도끼, 찍개, 뚜르개 등
	인천의 구석기	• 구석기시대 개관 • 구석기인들의 유입경로 추정 • 구석기 유적 분포도	
	자연환경	• 각 시기별 인천지역의 지형, 해안선, 기후 등 환경의 변화, 식물상과 동물상	
	구석기인	• 구석기문화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생활모습	• 의식주, 생업, 물질문화와 기술(도구 제작기법 및 사용법), 의식과 예술 • 국내외 구석기문화와 비교	
신석기 시대의 인천	신석기인의 도래	• 신석기시대 개관 • 신석기 유적 분포도 • 신석기인의 확산	가락바퀴, 간돌도끼, 간돌화살촉, 간석기, 갈돌, 갈판, 골각기, 공이돌, 굴지구, 돌도끼, 돌끌, 빗살무늬토기, 뼈바늘, 뼈촉, 사선대문토기, 숫돌, 어망추, 심발형 토기(복제), 장금도 패총, 점열무늬토기(복제), 흑요석제 석기, 등
	자연환경	• 각 시기별 인천지역의 지형, 해안선, 기후 등 환경의 변화, 식물상과 동물상	
	신석기인	• 신석기문화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생활모습	• 의식주, 생업, 물질문화와 기술, 의식, 신앙, 예술, 가축(인천 옹진군 연평도 까치산 패총의 개 유존체) • 신석기시대 사회 및 교역 • 국내외 신석기문화와 비교	
청동기 시대의 인천	청동기인의 도래	• 청동기시대 개관 • 청동기 유적 분포도	간돌도끼, 간돌칼, 간돌화살촉, 갈판, 고인돌 분포도, 대팻날도끼, 돌창, 돌화살촉, 무문토기, 민무늬토기, 방추차, 석착, 석촉, 어망추, 원시두드림무늬토기, 유구석부, 지석, 홈자귀 등
	자연환경	• 각 시기별 인천지역의 지형, 해안선, 기후 등 환경의 변화	
	청동기인	• 청동기문화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생활모습	• 의식주, 생업, 물질문화와 기술, 의식(강화 청동기 암각화와 기우제, 고인돌과 장묘문화), 신앙, 예술 • 청동기시대 사회 및 교역 • 국내외 청동기문화와 비교	
	청동기와 고조선	• 단군전승(참성단, 삼랑성)	세종실록, 고려사, 사진 등

② 고대의 인천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마한 시대의 인천	철기시대, 마한, 그리고 인천	• 마한시대 개관 • 마한 유적 분포도	가락바퀴, 고리자루칼, 구슬, 단경호, 대부완, 덩이쇠, 철낫, 철모, 철촉, 타날문토기, 환두도 등
	생활모습	• 마한인의 생활모습: 의식주, 생업, 물질문화와 기술(철기), 의식(분구묘와 장묘문화), 신앙, 예술 • 마한시대 사회 및 교역 • 주변국과 비교	
삼국 시대의 인천	도입	• 삼국시대 인천 개관 • 삼국시대 유적 분포도	
	비류설화와 인천	• 비류와 미추홀	매소홀명와당, 삼국사

		• 비류계/미추홀집단의 기원 • 마한의 통합	기, 기타 비류백제 서술 서적 등
	생활모습	• 삼국시대 인천 연안지역 무덤을 통해 본 당시 생활상과 장묘문화 • 소금	목 짧은 항아리, 강화 교동 대룡리 우적 출토품 등
	해양도시	• 백제의 해상활동과 인천지역의 역할(능허대) • 인천연안의 대당항로 및 인천지역 섬들의 역할	성곽분포디오라마, 운남동 출토품, 청동초두, 청동인장, 흑유계수호 등
	삼국의 각축	•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강유역을 둘러싼 각축 속에서의 인천	계양산성 출토 고구려 기와, 연희동 출토 환두대도 등
통일신라시대	도입	• 통일신라시대 인천 개관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산성	• 통일신라시대 지방제도의 정비와 인천의 지명 변천 • 인천지역 고대산성의 위치와 지방제도와의 관계	계양산성 논어목간 및 출토 기와품, 문학산 제의유적 복원, 순화원년명 기와편 등
	해양도시	• 혈구진의 설치와 연안교통로 중 강화지역의 중요성 • 통일신라시대 무역선 영흥도선	영흥도선(축소 복원), 영흥도선 출토품, 입당구법순례행기 등

③ 고려시대의 인천(918-1392년)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도입		• 고려시대의 인천 개관 • 고려시대 유적 분포도	
호족과 지방관	고려시대 지방제도와 인천	•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한 인천지역 및 주변 호족의 성장 • 부평도호부의 설치와 그 역할	부평이씨 대동보, 인천이씨 명석록, 인천이씨 중종자료 등
	인주 이씨와 칠대어향	• 인주 이씨의 가계 • 칠대어향과 원인재 • 이자겸의 난	인주 이씨 관련 유물, 이자연묘지명 탁본, 고려사 등
생활모습	토기, 녹청자 및 청자	• 인천의 녹청자와 강도시대 청자 • 경서동 녹청자 제작과정	경서동 가마터 출토품, 녹청자음각연꽃무늬 주자 등
	인쇄문화	• 상정고금예문 등을 통해 고려시대 인쇄기술과 강화지역의 역할 • 팔만대장경의 제작지로서의 강화	동국이상국집, 선원사 출토품, 해동문헌총록, 해인사 장경판 등
	교육	• 안향과 교동향교를 중심으로 성리학의 전래과정 및 강화향교, 부평향교 설명	강도지, 안향 초상, 해동명적, 부평향교안, 교동지 등
	종교	• 불교문화	학림사지 출토품, 전등사 본말사지 등

	죽음	• 강화고려왕릉, 귀족묘 등 장묘문화	왕릉 출토품, 이규보 묘갈 탁본, 청자호, 청자잔 등
사건	대몽항쟁	• 몽골의 고려 침략과 황실천도 • 강화도 간척사업 • 강도시대 고려의 대몽항쟁 • 강화의 성과 축조과정 • 삼별초의 저항	이자연묘지명 탁본, 참성단 개축비 탁본, 김취려 묘비, 고려사절요, 강화부지 등

(3) 전시구역2: 인천의 역사(조선시대-광복)

① 조선시대의 인천(1392-1897년)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개항전	도입	• 조선시대의 인천 개관 • 조선 태종 13년(1413) '인천'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는 과정	강도지, 여인천묘갈첩, 인천부중기, 인천도호부청사지 기와편 등
	행정구역	• 인천, 강화, 교동, 부평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행정구역	인천부지도, 동국대지도, 대동여지도, 조선총람도 등
	지방관	•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의 업무와 권한 • 강화유수부 • 망궐례와 제의	강화유수부 겸 진무사 첩지, 인천부사, 이성곤 묘지명 등
	교육	• 공립교육기관, 향교 • 사립교육기관, 서원 • 과거제도	인천향교기, 인천서원 상량문, 과지, 백패 등
	성리학	• 성리학의 정착과 변화	홍우순신도비탁본, 이세주묘출토관덮개 등
	사회 · 경제	• 신분제도, 사회제도, 법률제도, 조세제도 등 • 인구의 증가 • 인천에 기반했던 가문	호패, 당백전, 상평통보, 조선통보대해서, 강화부 준호구 등
	생활모습	• 일상 모습 및 생업 •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장묘문화(인천 서구 석남동 회곽묘)	인천부중기, 세종실록지리지, 석남동 회곽묘 모형 및 부장품 등
	사건	• 임진왜란과 인천	총, 조총, 북관대첩비 탁본 등
		• 정묘호란과 인천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등
		• 병자호란과 인천	삼학사전, 선원선생속집 등
		• 왕실의 보장처, 강화	월미행궁 디오라마, 강화방어지도 등

포함외교 (프랑스, 미국, 일본)	사건	• 병인양요(1866)와 인천	양요일록, 전격양박도주, 해도 등
		• 신미양요(1871) 당시 방어 준비와 내외 사정	소성진중일지, 슈펠트 제독 편지 등
		• 을해왜요(1875, 운요호 사건)	을해왜요 관련 석판화, 화승총, 샤스포총 등
개항후	도입	• 1883, 인천 세계에 문을 열다	
	개항	• 근대 조약의 체결 • 제물포 개항 • 근대적 행정기구로 변화	개항문답, 서양 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문 등
	조계 설정	• 외국 공관의 설치 및 조계설정	영국영사관 설계도, 각국 조계석 등
	변화	• 개항장 일대의 다양하지만 이질적인 생활모습(일본식, 중국식, 서구식) • 항구도시로의 발전 • 새로운 상업 질서의 모색: 외국상인의 진출과 민족상인의(인천신상협회) 대응 • 일본 금융기관의 진출 등	개항장 분포도 축소모형, 개화기 인천 경관, 외국인이 찍은 인천 사진, 인천시가도, 존스턴별장이 그려진 질그릇 뚜껑, 개화기 은행 통장, 당백전 등
	사건	• 청일전쟁(1894-1895년)	고승호 인양 유물, 청일전쟁 화보 및 석판화 등

③ 대한제국시대의 인천(1897-1910년)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도입		• 대한제국시대 인천 개관	
변화	금융	• 1899년 5월 우리 민족 최초의 근대 금융기관인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개설	광무2년명 한냥은화, 황성신문의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창설 광고 등
	이민	• 1902년 인천인의 하와이 이민	최초 하와이 이민자 명단, 갤리호 관련 자료 일괄 등
	군사	• 인천항과 근대식 군함 양무호(나라의 힘을 키운다는 의미)와 광제호	양무호 사진, 양무호 신순성 함장 사진, 광제호 연습탄 등
사건	러일전쟁	• 제물포해전과 러일전쟁 • 군수기지로 기능했던 인천	러일전쟁 기념메달, 정로편람 등
	한일강제병합	• 한일강제병합후 인천의 변화(조계지 철폐, 인천부로 개편)	재한외국인거류지폐지의정서, 재조선중화민국거류지폐지의정서 등

③ 일제강점기의 인천(1910-1945년)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도입		• 일제강점기 인천 개관	
도시화	도시공간의 확장	• 인천부의 변천 • 부역의 확대 • 인구의 증가	일제강점기 인천 지도, 인천부내도, 인천부부세일반, 인천화교 세대별 명부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 인천 도시공간의 변화 • 축항과 갑문 • 협궤열차 수인선	월미도 매립현형도, 축항 사진엽서, 인천 갑문 기공식 관련 자료, 수인선 협궤 선로 등
생활모습	의식주	• 서양 및 일본식 의식주 문화 유입에 따른 변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광고, 일본 맥주병 일괄, 송도임해주택분양 포스터 등
	교육	• 식민지 통치 이념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제도	영화사립소학교 졸업장, 인천영화학교 상장, 인천영화중학교 생도증 등
경제	인천의 경제상황	• 인천 경제의 시기별 상황 • 재인 일본인의 경제활동 • 미두취인소 • 인천인의 경제활동과 민족자본의 형성 • 인천상업회의소 • 도심형 시장의 형성	인천부 부세일반, 인천항세요람, 인천항운서약서, 인천항 무역통계개람, 미두취인소 계산서 · 엽서 · 영업세칙 · 장부, 인천상점계산서, 인천남방상전 가방 등
산업	인천 3대산업	• 염업 • 정미업 • 양조업	염전토목공사도, 인천가등정미소포대, 조일양조장 백자술통 등
	외식산업	• 냉면, 추탕, 해장국 • 인천의 음식조합과 음식의 규격화	요리법, 인천석금,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
	노동운동	• 인천지역의 노동사정과 시기별 노동운동 전개 • 인천 정미소 파업운동, 성냥공장 파업운동 등 공장 동맹파업 • 부두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	1930년대 동양방직 인천공장 전경, 조선에 관한 기록, 강경애 作 인간문제, 동맹 파업 문서, 동아일보 (1935.6.13.) 등
일본 제국 주의	일본 제국주의 전쟁	• 일본의 군국주의화 •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발발	대동아공영권 지도, 만주국 지폐, 만주국 관련 일본발행우표, 만주국 자체 발행 우표 등
	공업도시 인천	• 일본 독점재벌의 진출과 인천의 병참	전시체제 하 일본발행

		기지화 • 인천육군조병창 • 조선기계제작소	화폐, 황국신민의 서사, 인천공립상업학교 총검술기초훈련, 국가총동원법 해설 등
	항일운동	• 인천의 항일운동	독립선언서, 국채보상모금 영수증 등
광복	1945. 8. 15.	• 해방 직후 인천의 모습: 8 · 15 당일 인천 곳곳에서의 모습 및 분위기 증언	귀국선과 귀국자들의 사진, 등

(4) 전시구역2: 인천의 역사(미군정기-1990년대)

① 미군정기의 인천(1945-1948년)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인천	제물포시	• 개관(면적, 인구 등)	조일양조장 관련 유물 4건, 경인사이다 상표, 인천(영자판), 조선인촌 주식회사 관련 유물 4건, 애스컴(ASCOM) 관련 유물 7건, 조선주둔미군사령관 하지 성명서, 아미리카 화보, UN 한국임시위원단 환영 포스터, UN 한국임시위원단 환영 관련 자료 일괄, 미군정시기 교과서 일괄, 미군정시기 학용품류 등(구입), 남북협상 개최 논의 서신(복제) 등
사람	한국인	• 미군의 인천상륙 당시 상황: 애스컴 시티(ASCOM City) 시작, 임시정부요인 환국, 재일한국인의 귀국, 징병한국인 귀항, 재조일본인의 귀환(인천세화회), 미철수 일본인 등	
	일본인		
	미국인		
혼란과 질서	정치	• 정치적 혼란 • 행정체제 및 경찰조직 개편	
	경제	• 식량부족, 물가폭등 • 적산기업 관리, 귀속재산 불하 • 해방 후 최초의 해외무역선 중국으로 출발 • 사회구호사업	
	질병	• 콜레라 • 나병환자 소록도 송환	
문화	문학	• 광복 후 한국 최초의 문예 동인지 <<문예탑>>(1945년 11월)	<<문예탑>> 등
	인천시립박물관	• 1946년 4월 1일 개관 후 인천시박의 역사	

② 대한민국시대의 인천(1948-1990년)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대한민국	도입	• 대한민국시대의 인천 개관	
	1940년대 인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인천 상황 • 정부 수립 후 인천(면적, 인구, 인천부	1940년대 의식주 관련 자료, 유행을 보여주는 물건 등

대한 민국 시대의 인천 연대기		→ 인천시)	
		• 개관이후 1949년까지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	인천고적조사보고서 등
	1950년대 인천	• 1950년대 인천 개관(면적, 인구 등) • 1950년대 생활상,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 • 인천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	1950년대 의식주 관련 자료, 유행을 보여주는 물건 등
		• 인천과 6 · 25전쟁 • 인천상륙작전 • 분단고착과 이북5도민의 인천 정착	인천학도병 관련 자료, 인천상륙작전 관련 유물 등
		• 1950년대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	관보, 기증품 대장, 박물관 전시실 사진 등
	1960년대 인천	• 1960년대 인천(면적, 인구, 부천군 작약도 편입 등) • 1960년대 생활상,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 • 인천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	1960년대 의식주 관련 자료, 유행을 보여주는 물건: 인천공고 전봇대 실습 사진 등
		• 1960년대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발굴현장 사진첩, 인천향토사료 등
	1970년대	• 1970년대 인천(면적, 인구 등) • 1970년대 생활상,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 • 인천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	1970년대 의식주 관련 자료, 유행을 보여주는 물건: 인천공고 - 동인천역 궐기대회 사진 등
		• 1970년대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	공문서 발송용 고무인, 방문 기념 스탬프 등
	1980년대	• 1980년대 인천(면적, 인구,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 옹진동 영종면과 용유면,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편입 등) • 1980년대 생활상,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 • 인천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	1980년대 의식주 관련 자료, 유행을 보여주는 물건 등
		• 1980년대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	전시포스터, 점검일지 등
	1990년대	• 1990년대 인천(면적, 인구, 직할시 → 광역시 등) • 1990년대 생활상, 문화, 사회, 경제	1990년대 의식주 관련 자료, 유행을 보여주는 물건, 기표소, 지방자치법, 1995년

		및 정치 • 인천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	지방자치선거 자료 등
		• 1990년대 인천시립박물관의 역사	인천시립박물관 준공 머릿돌, 전시 도면 등
인천의 지역성 규명을 위한 고민, 진단, 시도	프롤로그: 상실의 시대	• 인천의 지역성 규명에 대한 고민: 인천토박이 감소 · 이주민 증가 · 근대화 · 산업화 · 개발 · 아이템의 피상적인 관광상품화 등이 초래한 지역성 상실, 흥미위주의 일시적인 향수를 불러내는 아이템을 통한 '인천성' 표방에 대한 문제제기 • 아이템의 콘텐츠화와 인천이라는 정체성의 텍스트화의 필요성	설명문, 그래픽
	해양도시	• 해양도시 인천의 면모와 인천의 지역성으로서의 진단 • 부산과 비교 • 인천 고유의 지역성 도출 시도	인천항 객차 수출 사진, 소래포구 전경, 김금화 만신 영상, 북성포구 파시 모형 등
	개항도시	• 개항도시 인천의 면모와 인천의 지역성으로서의 진단 • 부산 및 원산과 비교 • 인천 고유의 지역성 도출 시도	
	산업도시 및 도시재생	• 산업도시 및 도시재생 인천의 면모와 인천의 지역성으로서의 진단 • 서울 구로공단과 비교 • 인천 고유의 지역성 도출 시도	발 재봉틀, 대우중공업 굴삭기 사진, 송도 스마트밸리 전경 사진, 인천 바이오산업단지 사진 등
	확장	• 매립의 역사, 시대별 해안선의 변화 및 인천의 지역성으로서의 진단 • 인천 고유의 지역성 도출 시도	월미도매립현형도, 해안선 변화 지도 등
	다양성: 공존의 도시	• 인천의 인구구성: 인천으로/타지로 이산/이주/이동 • 식문화를 통해 본 다양성 • 인천 고유의 지역성 도출 시도	망배단 제례범절과 축문, 충남향우회 관련 자료 등
	'최초'	• 인천이 보유한 '최초'의 기록들(경인선 · 온역장정 · 철도 · 공립박물관 · 고속도로 등) • 인천 고유의 지역성 도출 시도	경인전철표, 경인고속도로 개통식 초청장, 통행료 영수증 등
	에필로그: 인천 고유의 지역성을 찾아서	• '진화' 중인 인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 지형적 특성, 인천인의 역사, 상이한 문화적 전통 사이의 융합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	설명문, 그래픽

(5) 전시구역3: 인천의 역사(현재)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공존: 함께 만드는 인천	나는 인천 토박이	• 3대 이상 인천에서 거주한 시민 중 1가족을 선정해, 가족구성원의 가정생활 및 가정 밖 활동	실제 생활용품, 바깥 활동(직업) 관련 물품, 취미 관련 물품, 인터뷰 영상물, 사진 등
	나도 인천 사람	• 타지방에서 인천으로 이주한 주민의 인천 적응과정과 생활상	
		• 타국에서 인천으로 이주한 주민의 인천 정착과정과 생활상	
		• 북한이탈주민의 인천 정착과정과 생활상	
현안	코로나19	• 인천 첫 코로나 환자 발생 • 코로나19 원인, 경과, 예방수칙, 일상생활상의 변화 • 역사 속의 감염병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바른/잘못된) 대처, 해결을 위한 노력	신문기사, 검역 관련 사진,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복, 영상물 등

(6) 전시구역4: 인천 밖 세계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세계/한국 속의 인천	해외도시 (예: 나가사키) 또는 국내 도시	• 인천의 역사와 비교하는 연표 •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문화	관련 유물 대여

(7) 전시구역5: 기증

주제	소주제	내용	전시물
기증의 역사와 예우	기증의 역사	• 연도별 기증품 현황 소개 • 연도별 주요 기증품 전시 • 최근의(분기별 또는 반기별) 기증품 전시	기증품, 기증자 사진/인터뷰 영상, 명패 등
	(기증자) 명예의 전당	• 기증자에 대한 예우인 디지털 명패 게시	

5. 인력

1) 현황

○ 2020년도 현재 인천시박 및 분관의 전시업무 관련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9>와 같음. 전시업무 담당자는 전시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홍보 등 타 업무도 겸하고 있음

[타]: 타 업무와 겸직

박물관	인원	직종	업무내용
인천시립 박물관	1	학예관	전시교육부 업무 총괄. [타]
	1	학예사	작은전시 행정지원. [타]
	1	학예사	자체 기획전 기획 및 운영, 기타큐슈 교류전 행정지원. [타]
	1	학예사	상설전시 기획 및 운영, 갤러리 전시 행정지원. [타]
	1	학예사	국제교류전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전시장 유지 · 관리 및 전시시설 개보수, 기획전시 디자인, 전시모니터링. [타]
	1	공무직	갤러리 전시 운영. [타]
	1	공무직	작은 전시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기타큐슈 시립대학 교류전 운영. [타]
검단선사 박물관	1	학예사	학예업무 총괄. [타]
	1	학예사	특별전시 기획 및 운영, 상설전시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특별전시 운영 지원. [타]
송암미술관	1	학예사	상설 · 특별전시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상설전시실 관리, 전시디자인. [타]
인천도시 역사관	1	학예사	상설전시 기획 및 운영, 특별전시 기획 및 운영,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전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박물관 전시 디자인, 상설 및 특별전시 운영 지원. [타]
한국이민사 박물관	1	학예사	상설전시 운영, 특별전 기획 및 운영. [타]

〈표 59〉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전시업무 인력배치 현황

○ 인천시박은 매년 상설전시 관리(전시품 교체, 모형 및 영상 보수, 진열장 내부 조명설비 교체 등) 외 특별전 3회와 작은 전시 2회를 개최하고 있음. 분관들은 매년 1-2회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음

○ 박물관 관람객 유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전시임.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2019년에 총 16회의 특별전시(기획전시 8회, 로

비전시 8회)를 개최함(<표 60>)

번호	특별전시	기간	장소
1	경강-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2018.11.08-2019.01.27	기획전시실A
2	딜쿠샤와 호박목걸이	2018.11.23-2019.03.24	기획전시실B
3	한강의 다리 사진전 - 나루에서 다리로	2018.12.25-2019.02.24	1층 로비
4	단성사와 한국영화상영 100주년	2019.02.26-2019.03.24	1층 로비
5	서울과 평양의 3 · 1운동	2019.03.01-2019.06.09	기획전시실A
6	3 · 1운동과 천도교 중앙대교당	2019.03.26-2019.04.21	1층 로비
7	안데르센, 코펜하겐 1819	2019.04.26-2019.07.21	기획전시실B
8	안데르센, 코펜하겐 1819	2019.04.26-2019.06.23	1층 로비
9	경성유람-1929, 별건곤으로 본 서울	2019.06.25-2019.07.28	1층 로비
10	북촌, 열한 집의 오래된 기억	2019.07.19-2019.10.06	기획전시실A
11	유성온천과 대전	2019.07.30-2019.08.25	1층 로비
12	집합도시장	2019.09.07-2019.11.10	기획전시실B
13	카메라를 든 헝가리 의사	2019.10.01-2019.12.01	1층 로비
14	성균관과 반촌	2019.11.08-2020.03.01	기획전시실A
15	차가웠던 그 시절, 영맨들의 뜨거웠던 움직임	2019.12.03-2020.01.27	1층 로비
16	서울의 전차	2019.12.20-2020.09.27	기획전시실B

〈표 60〉 2019년에 개최된 서울역사박물관 특별전

○ 인천시박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전시업무 전담부서 신설이 바람직함

2) 인력 증원(안)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전시업무의 운영인원은 총 13명으로 <표 61>과 같음

전시부[7]	총 13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12명

〈표 61〉 인천시립박물관 전시부 인력

○ 인천시박의 운영인원과는 별도로, 장기적으로는 분관의 전시업무 전담인력 확보/지원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7)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계획(안)'에는 '전시운영부'로 되어있음. 전시업무에는 전시콘텐츠 개발 · 전시품 선정 및 조사 · 전시연출방법 연구 · 전시해설문 작성 · 도록 발행 · 전시실 운영 등이 포함되기에, 인천시박의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으로 '전시부' 제안. 참고로 서울역사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시과'로 명명함

6. 예산

1) 현황

○ 인천시박의 전시업무 관련 예산(분관 제외)은 '상설전시 운영', '특별전시 개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연도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62>).

(단위: 천원)

박물관명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시립 박물관	예산(원)	197,600	169,000	171,000	200,000	208,000	240,000
	구성비(%)	2.46	2.47	2.30	2.58	2.26	2.68
서울역사 박물관	예산(원)	2,502,678	1,947,600	2,315,425	3,124,065	2,729,350	2,396,950
	구성비(%)	15.87	8.74	14.65	21.68	18.09	16.20
울산 박물관	예산(원)	1,400,963	1,337,728	2,493,797	1,307,772	779,185	1,086,335
	구성비(%)	11.37	11.10	18.13	11.22	6.75	9.63

〈표 62〉 주요 공립박물관 전시업무 관련 예산

2) 운영비용 추정

○ 비교를 위해 선정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업무 관련 예산(분관 제외)에는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 '기획전', '특별전', '기증유물전시실 운영 및 특별전', '도시모형영상관 유지 운영', '서울반세기 종합전'이 포함되어 있음. 울산박물관의 경우, '상설전 운영', '특별기획전', '영상관 운영'이 포함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업무 관련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12배가 넘으며, 울산박물관의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7배가 넘음

○ 지난 5년간 박물관 전체예산에서 전시업무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천시박은 평균 2.46%, 서울역사박물관은 평균 15.87%, 울산박물관은 평균 11.37%를 차지하고 있음

○ 평균 10%가 넘는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울산박물관의 전시 관련 예산은 박물관업무 중 전시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신축이전에 따른 규모 확대, 가상현실 ·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기

술의 구현을 통한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 구축 등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총예산에서 전시업무 관련 예산의 비중을 5%대로, 장기적으로는 10%대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제4절 교육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그림 111〉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1)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 교육기능 강화

○ 인천시박 교육업무 담당자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 강화(그림 111>) 및 공립박물관으로서 지역밀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모두를 위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에 적합한 첨단기술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디지털 원격교육을 도입하여, 온라인만 연결되면 박물관 교육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평생학습이 가능한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해 개인의 생애주기별 지적 욕구 충족 및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위상 정립
○ 박물관교육 부문에서 축적하게 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교육 부문에서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 및 박물관계에서 입지 강화
○ 문체부의 '박물관 후원 활성화: 후원문화조성을 통한 박물관 운영기반 공고화' 사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기부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굴(문화체육관광부 2019ㄱ:30-2)

2)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연계되는 삶

○ 인천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소장품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인천과 유리된 박물관 진열장 속의 역사와 문화가 아닌. 현재 인천시민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진화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라는 인식 촉진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인천에 관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사고의 폭 확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창의성 발현 유도. 이를 통해 인천만의 독특한 역사적 · 문화적 특성을 저작물 · 문화상품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창조자로서의 학습자의 잠재적 문화콘텐츠화 역량 강화에 기여
○ 인천의 역사적 · 문화적 특성을 살린 전시와 연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인천을 아끼는 마음 및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박물관 소장품과 인천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인문학 진흥에 동참

3) 통하다: 대한민국 속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

○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타지역 및 타국 사람들과 공유
○ 타지역 및 타국 특정 도시와 인천을 비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시민의 세계에 대한 인식 및 세계 속의 인천에 대한 인식 제고. 이를 통해 세계화에 걸맞는 세계시민의식 함양. 또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천의 지역적 특색 규명에 일조
○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의 노출 극대화를 통해 인천시민 · 타지역 사람들 · 타국 사람들의 박물관 방문 촉진 및 인천관광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2. 교육프로그램 분석

1) 최근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분석

○ 최근 인천시박에서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표 63-64>),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한 교육대상을 도출할 수 있음

번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장소	재원	참여인원 및 예산		
						2016	2017	2018
1	유아	꼬꼬마! 가자~ 박물관으로	유치원생	세미나실	시비	589명 1백만원	889명 0.5백만원	566명 0.3백만원
2	어린이	상설체험교실	초등학생	체험교실	시비	3,969명 7백만원	3,733명 6백만원	3,043명 6백만원
3	어린이	가자! 박물관으로	초등학생	강당	시비	1,397명 1백만원	1,070명 7백만원	924명 7백만원
4	어린이	겨울호빵	초등학생	다목적실	시비	84명 2백만원	-	-
5	가족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6-12세 동반가족	다목적실	시비	166명 3백만원	218명 5백만원	-
6	청소년	상상놀이터	중3	다목적실	시비	19명 0.3백만원	-	9명 0.2백만원
7	청소년	상상공작소	고1	다목적실	시비	22명 2백만원	32명 1백만원	36명 1백만원
8	성인	박물관대학	성인	강당	시비	326명 12백만원	287명 13백만원	287명 13백만원
9	성인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성인	강당	시비	58명 0.2백만원	-	-
10	성인	타박타박, 인천	성인	답사현장	시비	48명 1백만원	76명 1백만원	82명 0.4백만원
11	전문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초중 교원	강당	시비	46명 5백만원	53명 5백만원	60명 2백만원

〈표 63〉 2016-2018 인천시립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인천시립박물관)

2) 최근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번호	대상	프로그램	내용
1	유아	꼬꼬마! 가자~ 박물관으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박물관이 재미있고 즐거운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획된 유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유물해설, 창작동화 듣기, 활동지 작성 등으로 구성
2	어린이	상설체험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 유물의 모형을 직접 만지면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총 9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 간격으로 순환운영. 9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한 학생에게는 상품 증정
3	어린이	가자! 박물관으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 전시관람, 애니메이션 감상, 만들기, 게임, 토론 등으로 구성. 2014년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
4	어린이	겨울호빵	겨울호빵(겨울방학엔 하하호호 빵 터지는 박물관)은 겨울방학에 운영된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활동을 통해 입체적이고 풍성한 문화경험을 제공하고자 시도. 어린이 맞춤형 교육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해 진행
5	가족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가족 간의 소통과 공감형성 기회 제공. 2017년에는 '유물 속 자연과 노닐다'를 주제로 '꽃을 통한 자연: 모란 속에 핀 가족의 부귀영화', '그림 속 자연: 일상에서 감상하는 와유산수' 진행. 이를 통해 산수화 속 자연을 만나보고, 자연의 소중함과 그 속에 담긴 의미 학습. 이 밖에 '가족태교프로그램: 새 가족 맞이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를 주제로 프로그램 진행
6	청소년	상상놀이터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학교 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인천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7	청소년	상상공작소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교과형 체험프로그램.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론교육, 체험/도보답사, 시청각교육으로 구성.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수강할 경우, 박물관 자원봉사인 청소년기자단 활동 자격이 주어짐
8	청소년	박물관에서 미(ME)로(路) 찾기	2019년 신설된 교육프로그램. 중학교 단체(학급/동아리) 선착순 모집. 박물관 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유물관리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진로체험프로그램
9	성인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공동개설하여 운영한 교육프로그램.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일반, 동아시아학, 한국학, 인천학 등 네 분야 중 주제 선정. 75%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100% 출석자에게는 개근상 수여

10	성인	박물관대학	역사학 · 고고학 · 미술사 · 문화재 일반을 주제로 한 시민대상 강좌. 이론강의와 문화유적 답사로 구성. 1999년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운영하다, 2007년부터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 75%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100% 출석자에게는 개근상 수여
11	성인	타박타박, 인천	박물관 학예사와 함께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도보답사 프로그램
12	전문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역사와 미술사에 대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교육현장에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강의와 체험/답사로 구성

〈표 64〉 2016-2019 인천시립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내용(인천시립박물관 2017-2019)

3) 교육프로그램 유형 제안

○ <표 63-64>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및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을 제안함

내용적인 측면	
소장품에 대한 교육	박물관의 본질적 기능으로, 전시된 소장품만이 아닌 수장고에 보관된 소장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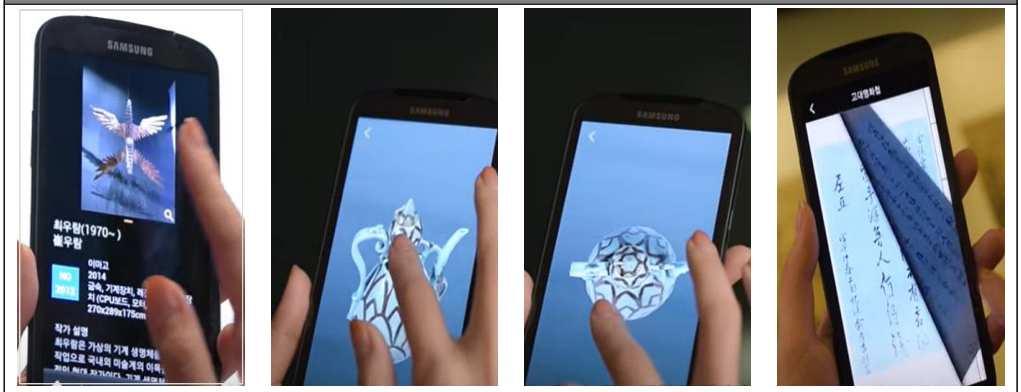
교육대상별	
영유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출산율 회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이라는 시정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증, 난독증, 치매 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공교육 이탈 학생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공교육에서 이탈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인천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노년층	요양원에 있는 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외국인	인천 거주 외국인, 관광 온 외국인, 해외 외국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전문인	초중등 교원에 국한하기 보다는, 폭넓게 설정할 필요 있음(예: 박물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박물관	관외(outreach) 프로그램

3. 교육프로그램 개발방향 기본구상

1) 전시관람 지원프로그램

○ 전시설명문 · 라벨 · 활동지 · 도록 · 오디오가이드 · 디지털가이드 · 전시해설사 등을 통해 전시주제 및 전시물에 대한 심도깊은 학습활동 지원 (<사례 10>)

〈사례 10〉 디지털 전시가이드



〈그림 112〉 디지털 전시가이드: '똑또기'(리움 2015)

- 리움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전시가이드 '똑또기'(PDA 안내기)를 도입해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의 모든 전시품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와 작품해설 제공(〈그림 112〉)
- 별도의 조작 없이 작품 앞에 다가서면 자동으로 해당 작품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함께 해설을 들을 수 있음
- 똑또기의 이미지를 확대하면 전시품의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음
- 주요 도자기 전시품의 경우 '360도 뷰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미지를 돌려가며 전시실에서는 볼 수 없는 전시품의 아래, 위, 뒷면까지 볼 수 있음
- 화첩의 경우, 전시되지 않은 부분도 똑또기 화면상의 책장을 넘겨가며 볼 수 있음
- 한문 번역 기능은 고서화에 포함된 한문 텍스트를 한글로 해석해 줌
- 이밖에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면 간직하고 싶은 리움 건물 이미지를 관람자의 휴대전화에 옮길 수 있음
- 관람을 마친 후 '작품 다시보기 기능'을 클릭하면, 전시실에서 감상한 작품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억에 남는 작품을 다시 감상할 수 있음

2)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관람이 실물을 직접 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전시기획자가 전달하고자 의도하는 지식을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해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함

가족워크숍	학술회의
 〈그림 113〉 전시연계 교육: 가족워크숍 (인천시립박물관)	 〈그림 114〉 전시연계 교육: 학술회의 (인천시립박물관)
• 초등학생 동반 10가족을 대상으로 특별전 〈미미팩토리: 微美factory〉전 연계 교육프로그램인 '작가와 함께 하는 키네틱아트 만들기' 운영 • 교육일정: - 2019년 12월 7일(토), 14일(토) - 2020년 1월 4일(토), 19일(토)	• 특별전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 꽃〉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술회의 '인천공단 노동자의 삶' 개최 • 일시: 2019년 11월 21일 오후 2시-6시 • 장소: 박물관 1층 석남홀

3)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1) 영아 대상 프로그램

○ 국내 박물관 분야에서 영아를 위한 자체적인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음

○ 스웨덴은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교육과 문화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갖춰져 있음. 이를 바탕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시민으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문화정책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혼자 할 수 있어

요!(Kan själv!)>임(서울역사박물관 2018)

○ 영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사례를 연구하여(<그림 115>), 인천의 실정에 맞는 영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림 115〉 영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혼자 할 수 있어요!(Kan själv!)'(베스트라)

(2) 유아 대상 프로그램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유치원수는 430교이며, 원아수는 39,393명임. 이를 통해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수요층을 파악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유아 교육과정에 발맞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창의성 고취 및 교육부의 인성(생활예절교육, 언어문화 개선, 타인 배려, 협동심 강화 등)을 가꾸는 생태계 조성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개인의 잠재적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일조

○ 기존 콘텐츠인 '꼬꼬마! 가자~ 박물관으로' 활용(<그림 116>)



〈그림 116〉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꼬꼬마!
가자~ 박물관으로'(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9:9)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인원	예산	재원
꼬꼬마!가자~ 박물관으로	유치원생	회당 40명 연 1,000명	20백만원	시비

(3)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초등학교수는 250교이며, 초등학생수는 160,853명임. 이를 통해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수요층을 파악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발맞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창의성 고취 그리고 교육부의 인성(생활예절교육, 언어문화 개선, 타인 배려, 협동심 강화 등)을 가꾸는 생태계 조성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개인의 잠재적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일조

○ 집중력 등에서 차이가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기존 콘텐츠인 ‘가자~ 박물관으로’, ‘상설체험교실’ 활용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인원	예산	재원
가자~ 박물관으로	초등학생	학급단위 연 80학급	20백만원	시비
상설체험교실	초등학생	회당 20명 연 4,000명	40백만원	시비

(4) 가족 대상 프로그램

○ 기존 콘텐츠인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활용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인원	예산	재원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가족	회당 10가족 연 100가족	15백만원	시비

(5)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중학교수는 135교이며, 중학생수는 74,458명임. 고등학교수는 125교이며, 고등학생수는 78,401명임. 이를 통해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수요층을 파악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발맞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창의성 고취 그리고 교육부의 인성(생활예절교육, 언어문화 개선, 타인 배려, 협동심 강화 등)을 가꾸는 생태계 조성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개인의 잠재적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일조

○ 기존 콘텐츠인 ‘상상공작소’ 활용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인원	예산	재원
상상공작소	고1	40명	10백만원	시비

○ 중학생 대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지식을 단계별로 쌓아갈 수 있는 연속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 이론강의, 게임(모노폴리 등 응용), 현장답사로 구성

○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박물관직업군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박물관소장품과 연계해 한 점의 소장품에 대한 교육 후 해당 소장품의 제작 및 유통에 참여한 직업군으로 폭을 넓히는 방향에 대한 고려 필요. 이론강의, 직업 종사자와의 만남, 역할놀이(role play)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

(5) 성인 대상 프로그램

○ 기존 콘텐츠인 ‘박물관학대학’, ‘타박타박, 인천’ 활용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인원	예산	재원
박물관학대학	성인	회당 200명 연 400명	30백만원	시비
타박타박, 인천	성인	회당 30명 연 180명	-	-

(6) 전문인 대상 프로그램

○ 기존 콘텐츠인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활용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인원	예산	재원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초중학교 교원	회당 80명 연 160명	10백만원	시비

○ 전문인의 폭을 확장할 필요 있음. 일차적으로 인천시박과 분관의 전문인력, 공립박물관 종사자, 지역내 박물관 종사자 등 박물관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향후 박물관교육 수요가 있는 전문인 직업군 발굴 필요

(7)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① 공교육 이탈 학생 대상 프로그램

○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공교육에서 이탈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 2020년 현재 인천에는 3개의 대안학교가 있음(<표 65>)

번호	학교명	설립구분	설립연도	교육과정	소재지
1	인천청담고등학교	사립	2011	고	인천 연구 동춘동
2	인천한누리학교	공립	2013	초중고 통합	인천 남동 논현동
3	인천해밀학교	공립	2012	중고 통합	인천 남구 구월동

<표 65> 인천광역시 대안학교(교육부)

○ 인천시박이 공교육 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제안함

○ 공교육 이탈 예방 사례로, 해외에서는 공교육 부적응자 중 해당 학생의 관심사인 비행기를 전시 및 수장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몇 달에 걸쳐 집중력 강화 등 공교육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학습역량 강화 후 학교로 돌려보낸 사례 있음

○ 모든 공교육 이탈 (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인천시박의 성격과 맞는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효과적.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공교육 기관 및 대안학교와의 연계 필요

② 다문화 가정을 매개로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아래 '인천 시민화', '한국 국민화'에 있음. 이를 위해서 소수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인천시민/한국인(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미국, 대만 등)과 다수의 인천시민/한국인 간의 쌍방향 소통이 중요함

○ 서로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천시박의 다문화교육 즉 문화다양성교육은 '따로 또 같이' 방식의 대상별 세분화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선입견 표출에 의한 정신적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

○ 현재 인천시박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인 '디어 마이 프렌드' 실시 예정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인원	예산	재원
디어 마이 프렌드	초등학생	회당 30명 연 720명	20백만원	시비

○ <표 66> 문화다양성 교육의 핵심가치에 기반해 다문화 가정을 매개로 쌍방향 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핵심가치	내용
인권 및 평등	평등의 원리에 따라 폭력 없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대화	서로간의 존중과 개방된 질문 그리고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시민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공유된 가치, 공동의 신뢰, 그리고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시민성
문화적 민감성/적절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함양을 통해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간 문화적 역량 획득
존중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
관용 및 포용	자신의 편견과 전제를 재검토함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의 삶의 방식인 관용과 포용의 가치 발견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적 기반에서 문화적 동일성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자각과 포용 강조
사회적 정의	다양성에 대한 공적 인식과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정의를 통해 차이와 통합 사이의 균형을 이룸
차이	차이 혹은 다름에 기초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구성
연대 및 결합	연대와 결합을 통해 지배적인 주류 집단이 불평등한 권력구조와 통치를 통하여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소외시키는 것 방지 가능
공존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를 뜻하는 공동체나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직결되는 것으로 차이에 대한 존중, 관용을 의미, 민주적이며 열린사회에 대한 시발점
협력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특성과 장점을 호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

〈표 66〉 문화다양성 교육의 핵심가치

(김영천 외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18 재인용)

③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대상 프로그램

○ 신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증, 난독증, 치매 등 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인식 필요

○ 공립기관으로서 인천시 거주자 중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일조

○ 문화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연령별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 인천에는 총 10개의 특수학교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전공과 과정을 운

영하고 있음(<표 67>). 특수학교, 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바람직해 보임

특수학교	구분	장애영역	교육과정	학생수(명)
미추홀학교	공립	지적장애	고등학교, 전공과	169
인천서희학교	공립	지적장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전공과	169
인천성동학교	사립	청각장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113
인천연일학교	공립	지적장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전공과	217
인천예림학교	사립	지적장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전공과	159
인천은광학교	사립	지체장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전공과	122
인천인혜학교	공립	지적장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전공과	192
인천청선학교	공립	지적장애	유치원, 초 · 중등학교	218
인천청인학교	공립	지적장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전공과	273
인천혜광학교	사립	시각장애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전공과	93

〈표 67〉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현황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원센터 및 각 학교 홈페이지)

〈사례 11〉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그림 117〉 국립민속박물관 장애인 대상 교육(국립민속박물관)



〈그림 118〉 부산박물관 장애인 대상 교육(부산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민속 우리 몸짓'이라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중. 민속문화 체험을 통한 재활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그림 117〉). 각 회당 정원은 15명으로 2시간 교육 후 점심 제공. 요청시 점심식사 후 전시관람 가능
- 2020년도에는 전시연계 교육으로 '골골이와 인형 친구들' 인형극 관람, 인형극의 등장인물 되어보기,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고 소통하며 주체적 활동을 통해 자신감 갖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
- 부산박물관에서는 특수학교 재학생을(청각 · 발달장애) 대상으로 '조용한 수다'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아동들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임(〈그림 118〉)
- 2020년에는 '아름다운 전통문양'을 주제로, 십장생 카드 만들기, 전통문양 목걸이 만들기, 유물 속 전통문양 맞히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

④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 노화로 인하여 신체 능력이나 인식능력이 저하된 노년층, 요양시설에 있는 노년층 등 노년층에 대한 세분화된 인식 필요

○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가 없는 노년층을 기존의 성인프로그램에서 소화할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해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기존의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및 중년층과의 일시적 교류가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⑤ 북한이탈주민 대상 프로그램

○ 2020년 현재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963명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역적응교육 차원에서 박물관이 동참할 수 있음

(8)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 인천 거주 외국인, 외국인 관광객, 해외 거주 외국인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인천에 대한 지식공유, 부수적으로는 인천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애정 촉진, 인천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외국어 능력과 한국인의 시각이 아닌 외국인의 시각에서 교육내용 및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다문화 가정이나 인천 거주 외국인 중 협력자/자원봉사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시해설사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9) 관외(outreach) 프로그램: 찾아가는 박물관

○ 2020년 인천시 인구가 2,952,685명인데, 2015-2019년 인천시박 관람객 수는 평균 약 108,582명임. 관외 프로그램은 현재의 박물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의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오기를 '기다리는 박물관'이 아닌 '찾아가는 박물관'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관외프로그램은 또한 신체상의 이유,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박물관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따라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음

〈사례 12〉 찾아가는 박물관



〈그림 119〉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2017)



〈그림 120〉 서울역사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그림 121〉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나는 문화재 탐험'(김윤경 2016)



〈그림 122〉 부산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부산박물관 2019:36)

-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은 평소 박물관에 쉽게 오기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그림 119〉)
- 2016년 서울역사박물관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그림 120〉)
-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의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 환우를 찾아 '신나는 문화재 탐험' 프로그램 진행(〈그림 121〉). 이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관계인 구글이 함께 만든 것으로, 카드보드로 가상체험을 하게 해주는 익스피디션 프로그램 적용. 바다 속 물고기, 박물관 전시실의 유물 감상, 전 세계 아름다운 궁전들을 거니는 내용으로 구성
- 2018년 부산박물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중 박물관을 찾아오기 힘든 곳에 위치한 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박물관 소속 교육강사들을 파견해 학급단체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그림 122〉). 4학년 교과서 〈〈부산의 생활〉〉 부록 〈〈부산의 역사〉〉와 박물관 전시품을 연결한 초등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PPT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진행

○ 관외 프로그램의 또 다른 유형인 학습용 교구 대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안(<사례 13>)

〈사례 13〉 교구 대여프로그램



〈그림 123〉 교구 대여프로그램: '상자 속 역사'(노스캐롤리나역사박물관)



〈그림 124〉 교구 대여프로그램: '추억의 여행가방'(헬싱키시티박물관)

- 미국 노스캐롤리나역사박물관(North Carolina Museum of History)은 공교육 · 사교육 · 재택교육 교수자를 대상으로 '상자 속 역사(History-In-a-Box)' 프로그램 운영(〈그림 123〉). 박물관소장품 복제품 · 교재 등이 제공되는 대여 교구는 노스캐롤리나의 역사를 언어 · 과학 · 수학 · 시각예술과 연결하는 접근법의 다학제적 내용으로 구성
-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3주로, 대여자가 우편으로 반납시 배송비를 지불해야 함
- 핀란드 헬싱키시립박물관(Helsingin kaupunginmuseo)은 양로원 · 노인복지관 · 학교 ·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억의 여행가방(Muistojen matkalaukku)' 프로그램 운영(〈그림 124〉). 여행가방에는 추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옛 물건들이 담겨 있음
-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1주에서 4주까지로, 대여자가 직접 박물관을 방문해 여행가방을 대여 및 반납해야 함
- 여행가방은 총 8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4개는 생활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생활영역을 보여줌. 나머지 4개는 1950년대를 중심으로 미용과 관련된 물건이 들어 있는 화장품 상자, 헬싱키에서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물건들(일상용품, 게임 등)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어린 시절 여행가방, 여러 시대의 물건들이 담긴 학교 가방(학생용 가방과 교사용 서류가방으로 구성), 소말리아와 핀란드의 과거 및 현재의 일상용품이 담긴 소말리아 여행가방임

4) 온라인(디지털)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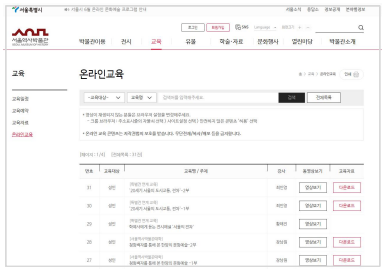
○ 온라인용 박물관전시 · 소장품 · 인천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음

○ 인천시박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천과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온라인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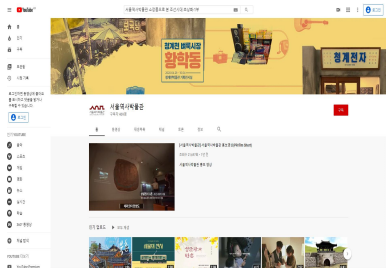
○ 하지만 단순히 강의영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그대로 유튜브 등에

올리는 수준이 아닌 경우,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비용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며, 디지털매체나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는 단점 있음

〈사례 14〉 서울역사박물관 온라인 프로그램



〈그림 125〉 서울역사박물관 온라인 교육



〈그림 126〉 서울역사박물관 유튜브

-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그림 125〉). 해당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보기와 함께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서울역사박물관은 유튜브에 교육용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음(〈그림 126〉). 유튜브에 올린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전시, 청계천 벼룩시장, 황학동'의 경우 2주만에 조회수 672회 달성. 한국인용에는 청각장애자를 위한 한국어 자막을 외국인용에는 영어 자막을 넣어 동영상 올림. 이밖에 '서울역사박물관은 살아있다: 일일 학예사가 된 관장님', '서울 600년 도시 스토리' 등이 있음

4. 인력

1) 현황

[타]: 타 업무와 겸직

박물관	인원	직종	업무내용
인천시립 박물관	1	학예관	전시교육부 업무총괄. [타]
	1	학예사	유아 · 초등단체 · 가족교육 행정지원. [타]
	1	학예사	청소년교육 및 청년 자원봉사 행정지원. [타]
	1	학예사	유물해설사 관리, 자원봉사자 총괄. [타]
	1	학예사	체험교실 운영, 체험교사 관리. [타]
	1	학예사	성인교육 운영, 도서관리 행정지원. [타]
	1	공무직	소식지 발간 및 간행물 편집 자원봉사 관리. [타]
	1	공무직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공무직	가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 도서관리 자원봉사 관리. [타]
	1	공무직	청소년교육 운영. [타]
검단선사 박물관 (휴직 1명)	1	사무관	검단선사박물관 업무 총괄. [타]
	1	학예사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리. 발굴체험장 개편 기획 및 운영. [타]
	1	학예사	체험실 운영 및 교구 개발,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 [타]
	1	공무직	주말교육, 유아단체교육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방학교육, 초등단체교육 기획 및 운영, 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험실 운영 및 체험교구 개발 지원. [타]
송암 미술관	1	사무관	송암미술관 업무 총괄. [타]
	1	학예사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청소년교육 운영, 도서자료실 관리. [타]
	1	공무직	어린이 및 가족교육 운영. [타]
인천도시 역사관 (휴직 1명)	1	학예관	인천도시역사관 업무 총괄. [타]
	1	학예사	교육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타]
	1	공무직	성인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타]
	1	공무직	유아 및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집 양성. [타]
한국이민사 박물관 (휴직 1명)	1	학예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업무 총괄. [타]
	1	공무직	박물관교육 및 홍보. [타]
	1	기간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타]

〈표 68〉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교육업무 인력배치 현황

○ 2020년도 현재 인천시박 및 분관의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표 68>), 교육업무 담당자는 교육뿐만 아니라 전시 · 홍보 등 타 업무도 겸하고 있음

○ 인천시박 및 분관은 연령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박물관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문인력은 1-2명에 불과함

○ 이에 전문인력 부족 ·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부족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물해설 · 체험교사 · 도서관리 등의 교육업무에 자원봉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인천시립박물관 자원봉사 제도

연혁

- 2000년 11월 18일 박물관 자원 봉사단 발족(유물해설 활동)
- 2002년 박물관 체험교사 활동 시작
- 2009년 간행물 편집 및 영상 활동 시작
- 2012년 청소년 및 청년 자원봉사 활동 시작

현황

- 2020년 자원봉사자 위촉자: 총 209명

유물해설 94명	체험교사 61명	간행물 편집 6명
도서정리 3명	청년 22명	청소년(기자단) 23명

연령별 구성

- 청년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면, 70% 이상이 1951년-1970년에 출생한 50-60대 자원봉사자로 구성됨.

만 70세 이상(1950년부터 이전 출생자)	23명
만 60세 이상(1960년부터 이전 출생자)	65명
만 50세 이상(1970년부터 이전 출생자)	51명
만 40세 이상(1980년부터 이전 출생자)	20명
만 30세 이상(1990년부터 이전 출생자)	2명
만 20세 이상(2000년부터 이전 출생자)	23명(22명 청년 분야 자원봉사자)
만 17세(2003년 출생자)	23명(전원 청소년 기자단)

활동영역

- 유물해설: 박물관 상설전시에 대한 유물해설 담당
- 체험교사: 상설체험교실의 운영 및 체험교구의 개발
- 간행물 편집 및 영상: 박물관 계간 소식지의 기획, 취재, 편집 및 영상 아카이빙 담당, 소식지의 표지 및 내용에 들어가는 사진 촬영 담당
- 도서관리: 박물관 도서자료실의 사서정리 및 등록 업무 등 담당
- 청년 자원봉사: 박물관 청소년교육의 멘토링 업무 등 담당
- 청소년 자원봉사: 박물관 계간 소식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기사 작성 담당

○ 점차 인천시박 및 각 분관의 성격에 기반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획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1-2명의 교육전문인력(educator)이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하기가 어렵기에, 교육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함

2) 인력 증원(안)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인력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교육전문인력의 담당업무에 따라 크게 교육프로그램개발팀과 운영팀으로 구분하고, 두 팀간 순환방식으로 전문인력 운용. 개발팀에 배정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 환경 제공

○ 자격요건으로 박물관교육과정 전공/이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능, 디지털 기술 이해(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가능(외국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부산박물관의 조직구성을 보면 전시부서와 별도로 교육홍보부를 두고 있으며(부산박물관 2019:8), 2018년도 교육홍보부의 운영인원은 총 7명임(<표 69>)

교육홍보부	총 7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2명(임기제 1명)
		행정직 8급	1명
		전산직 6급	1명
		공무직 실무사무원	2명

〈표 69〉 부산박물관 교육홍보부 인력현황
(부산박물관 2019:8)

○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섭외교육과와 어린이박물관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19년도 교육담당 인력은 총 16명임(<표 70>)

섭외교육과	총 8명	학예직	5명
		일반직	3명
어린이박물관과	총 8명	학예직	6명
		일반직	2명

〈표 70〉 국립민속박물관 2019년도 교육업무 관련 인력현황
(국립민속박물관 2020:44)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업무의 운영인원은 총 10명으로 <표 71>과 같음. 교육교류부는 교육업무와 홍보마케팅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교육교류부[8]	총 10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7명
		6급	1명
		7급	1명

〈표 71〉 인천시립박물관 교육교류부 인력(안)

○ 장기적으로는 교육업무와 홍보마케팅업무를 별도의 부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예산

1) 현황

○ 인천시박의 교육업무 관련 예산은(분관 제외) <표 72>와 같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6년도 박물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5억 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예산은 감소함

○ 하지만 2017년부터 교육 관련 예산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30,890,000원에 달함

(단위: 천원)

박물관명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시립 박물관	예산(원)	117,728	125,912	108,557	109,993	117,563	126,615
	구성비(%)	1.48	1.84	1.46	1.42	1.27	1.41
서울역사 박물관	예산(원)	731,327	756,381	879,503	698,909	640,570	681,270
	구성비(%)	4.53	3.39	5.57	4.85	4.25	4.60
울산 박물관	예산(원)	469,390	234,808	554,693	497,011	535,976	524,460
	구성비(%)	3.90	1.95	4.03	4.26	4.65	4.65

〈표 72〉 주요 공립박물관 교육업무 관련 예산

8)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계획(안)’에는 ‘교육홍보부’로 되어있음. ‘쌍방향 또는 다방향 소통’이 강조됨에 따라 박물관분야에서는 홍보마케팅업무를 ‘대외협력’, ‘교류’ 등의 용어로 대체하거나, ‘교류’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음(예: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교류홍보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교류홍보과, 경기도박물관의 경영협력실, 국립경주박물관의 교육문화교류과, 서울역사박물관의 교육대외협력과 등). 이에 인천시박 교육업무와 홍보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으로 ‘교육교류부’ 제안

2) 운영비용 추정

○ 인천시박 교육 관련 예산에는 ‘도서자료실 운영비’,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음

○ 비교를 위해,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자료실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울산박물관의 경우 ‘쉼터도서관’과 ‘박물관 도슨트양성비’를 교육 관련 예산에 더함(<표 72>)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의 교육업무 관련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6배가 넘으며, 울산박물관의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약 4배에 달함

○ 지난 5년간 박물관 전체예산에서 교육업무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천시박은 평균 1.48%, 서울역사박물관은 평균 4.53%, 울산박물관은 평균 3.9%를 차지하고 있음. 울산박물관의 경우 2015년도 예산을 제외하면, 평균 4.4%를 차지하게 됨. 이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전체 박물관업무에서 교육업무가 차지하게 되는 비중이 커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인천시박도 추후 교육업무 관련 예산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신축이전에 따른 규모 확대와 접근성 향상이 가져올 잠재 관람객 수,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 활용,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135,000,000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울산박물관 평균예산의 15% 수준인 180,108,000원 달성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함

제5절 홍보마케팅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그림 127〉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1)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

○ 인천시박 홍보마케팅 업무 담당자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 강화 (<그림 127>)
○ 전시 · 교육 ·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천시박의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 인천시박만의 특화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는 자체 빅데이터 구축
○ 인천시박에 대한 인지 → 방문 → 만족/호감, 특화된 경험 → 추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물관 조직 전반에 걸쳐 내부소통체계 구축
○ 기존 박물관 이용객 유지, 재방문 유도 및 새로운 이용객 개발을 위하여 타부서와 연계해 이용객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 인천시박의 브랜드 수립 및 브랜드에 기반한 박물관문화 구축을 통한 인천시박의 위상 제고
○ 홍보마케팅 업무에서 축적하게 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홍보마케팅 부문에서 인천시박의 전문성 제고 및 박물관계에서 입지 강화

2) 브랜드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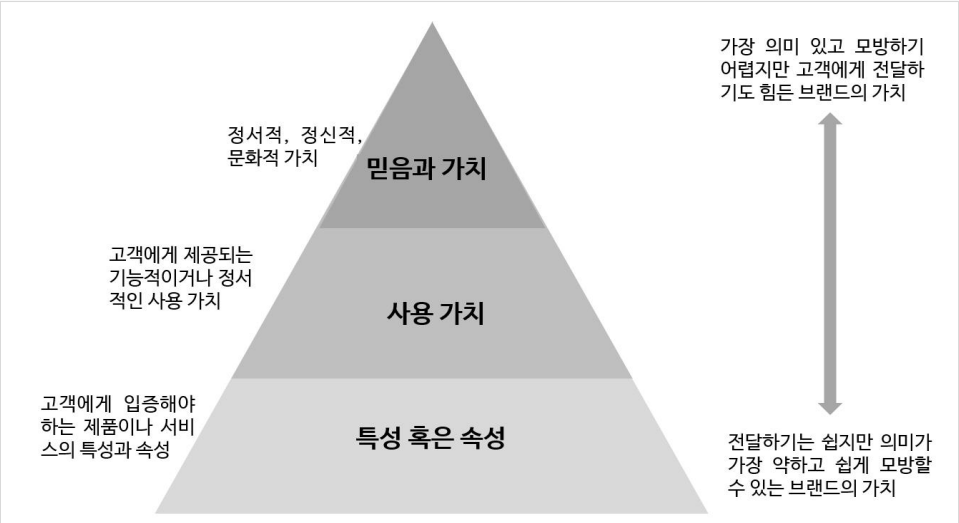
○ 인천의 역사적 · 문화적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역특화박물관으로서 인천시박의 가치 구체화
○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최전선 파수꾼으로서 인천시박의 가치 가시화
○ 지방분권 강화 기조 아래, 인천 거점 박물관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자문, 교육 등)이 가능한 모(母) 박물관으로서 인천시박의 가치 제고
○ 공공기관으로서 인천시박의 사회적 가치 창출
○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서, 인천시민 각 개인에게, 내외국인 이용객 각 개인에게 방문의 이유가 되는 가치 생성

3) 통하다: 대한민국 속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

○ 박물관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 파악 및 제거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 구현
○ 홍보마케팅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인천시박에 대한 정보접촉 기회 확대
○ 홍보마케팅 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인천시박에 대한 관심 유도
○ 정기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천시박에 대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도
○ 브랜드 기반 맞춤형 소통전략을 통해 인천시박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기증 · 기부 · 후원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인천시립박물관’이라는 브랜드 경쟁력의 축적이 상위 브랜드인 인천의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이어짐으로써 상생효과 증대
○ 내외국인에게 방문할 가치가 있는 지역문화거점으로서 인천 관광활성화에 일조

2. 인천시립박물관 브랜드 구축 및 자산화

○ ‘인천시립박물관’이라는 브랜드는 무형이지만 박물관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타 박물관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임



〈그림 128〉 브랜드 가치 피라미드(데이비스 2004:95)

○ 실제로 박물관을 방문해 전시관람을 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는 박물관과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로, 인천시박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가 타 박물관과 차별되지 않는다면, 박물관 이용객들은 인천시박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인천시립박물관’이라는 브랜드의 강점으로 인지하지 못함

○ <그림 128> ‘브랜드 가치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강력한 브랜드 가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브랜드에 대한 매우 높은 충성도를 갖게 함. 브랜드 자체가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의 판매를 보장해 줌. 게다가 브랜드 가치의 중요한 징표가 되는 입소문이 남. 다시 말해, 전시 · 교육 등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하고, 전시도록 등의 문화상품을 구매하려 하고, 주변인들에게 추천하며, 자원봉사자 · 회원 · 기증자 · 후원자 등의 형태로 박물관과 관계를 형성함

○ 브랜드 가치 피라미드의 ‘특성 혹은 속성’은 경쟁 브랜드가 모방할 수 있지만, 피라미드 정점의 가치는 경쟁 브랜드가 그 위치를 넘보기 어려움. 즉, 콘텐츠나 서비스는 모방할 수 있지만, 전시나 교육 등을 통해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 생산되는 가치는 타 박물관에서 모방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브랜드 구축, 육성 및 자산화는 매우 중요함

3. 관람객 개발

1) 관람객 추이

○ 최근 5년간 인천시박의 관람객 수 변화추이는 <표 73>과 같음. 분관을 포함한 전체 관람객 수는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인천시박의 관람객 수는 2018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시립박물관	108,592	111,452	118,026	103,825	101,014
검단선사박물관	36,848	38,942	39,954	38,520	41,193
송암미술관	15,744	15,905	16,201	17,153	15,053
인천도시역사관	103,407	101,659	97,958	122,909	140,266
한국이민사박물관	124,681	114,371	103,159	100,736	98,510
계	**389,272**	**382,329**	**375,298**	**383,143**	**396,063**

〈표 73〉 인천시립박물관 관람객 수 변화추이(인천시립박물관)

○ 인근에 위치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관람객 수는 전체적으로 인천시박의 관람객 수보다 많음(<표 74>). 인천시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한 분석 필요. 신축이전 후에도 제기될 문제라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내국인	161,878	170,177	169,757	156,207
외국인	40,188	31,312	32,528	33,995
계	**202,066**	**201,489**	**202,285**	**190,202**

〈표 74〉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람객 수 변화추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30, 2017:30, 2018:30, 2019:33)

○ 향후 공격적인 외국인 관람객 유치 마케팅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처럼 관람객 수 통계에 외국인 관람객 수를 별도로 집계할 필요 있음

○ 인천시박은 관람객 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관람객 수 통계와 같은 기본정보 위주의 조사를 제외한 심층적인 조사는 최근 4-5년간 실

시하지 않음. 이는 인력 및 예산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존 관람객 관리 및 보다 많은 내외국인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는 박물관 업무별, 관람객 대상별 등으로 세분화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토대로 고도화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2) 인구통계적 환경

○ 인천시는 2016년에 인구 3백만 명을 넘어섬. 인천시의 최근 5년간 인구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내외국인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표 75>)

○ 2019년도 외국인 수는 72,236명으로 인천시 전체인구의 2.38%를 차지하고 있음(<표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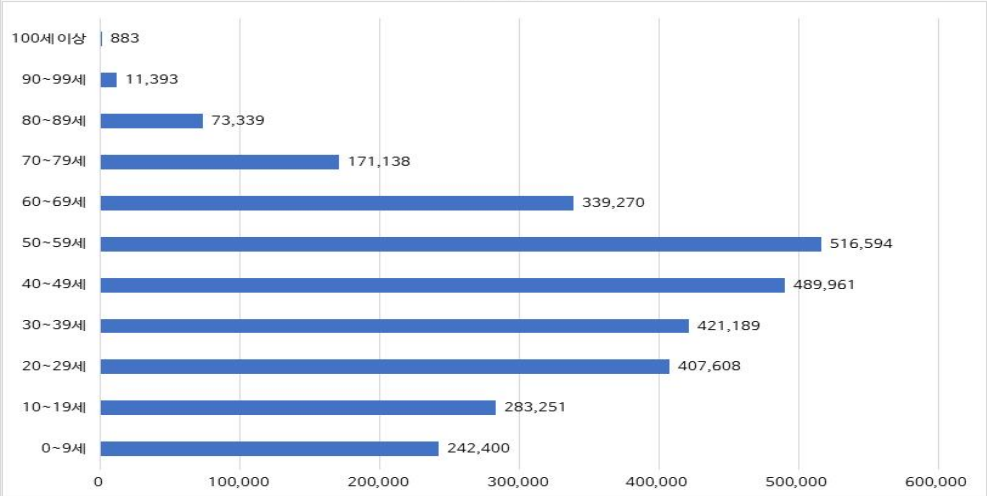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내국인	2,925,815	2,943,069	2,948,542	2,954,642	2,957,026
외국인	57,669	59,103	62,596	67,869	72,236
계	2,983,484	3,002,172	3,011,138	3,022,511	3,029,261

<표 75> 인천광역시 인구수 변화추이(인천광역시 데이터혁신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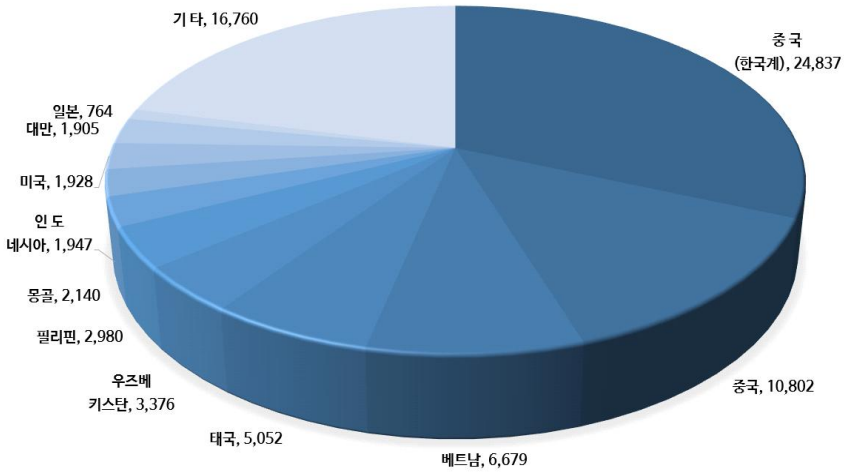
○ 2019년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수는 <그림 129>와 같음

○ 0-9세는 242,400명(8%), 10-19세는 283.251명(10%), 20-39세는 828,797명(28%), 40-59세는 1,006,555명(34%), 60세 이상은 596,023명(20%)임. 가장 많은 연령층은 4-50대 중장년층임



<그림 129> 2019년도 인천광역시 연령별 인구수(인천광역시 데이터혁신담당관)

○ 2019년도 인천시 국적별 외국인 수는 한국계 중국(24,837명)이 가장 많으며, 중국(10,802명), 베트남(6,679명), 태국(5,052명), 우즈베키스탄(3,376명), 필리핀(2,980명), 몽골(2,140명) 순으로 집계됨(<그림 130>)



〈그림 130〉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국적별 외국인 수(인천광역시 데이터혁신담당관)

3) 잠재 관람객

○ 인천시의 인구통계를 통해 인천시박의 잠재 관람객 수를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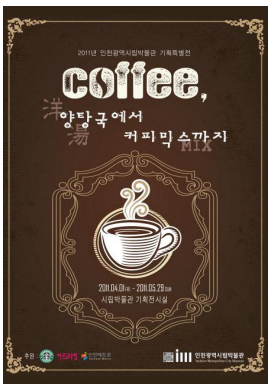
○ 이를 바탕으로 잠재 관람객 유형 세분화 및 각 유형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함

○ 막연하게 '관람객 수를 증가시켜야만 한다'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 '20대층의 박물관 방문을 현재보다 5% 더 늘이도록 한다'는 식으로 실전과제를 설정하고, 20대 잠재 관람객층의 세분화(대학생, 직업인, 무직 등) 및 표적대상을 설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하기 쉽고, 향후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마케팅전략 수립

4.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1) 전시 연계 홍보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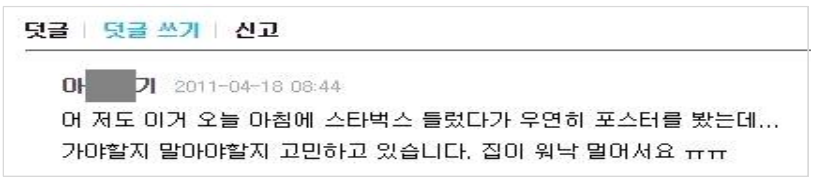
○ 전시에 대한 관심 고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지님



〈그림 131〉 특별전 〈커피, 양탕국에서 커피믹스까지〉 포스터

- 인천시박은 2011년 특별전 〈커피, 양탕국에서 커피믹스까지〉전 개최 당시, 전시 연계 홍보마케팅을 스타벅스와 공동으로 진행함
- 당시 진행했던 홍보마케팅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특별전 포스터 부착
  - 전시기간 동안 스타벅스 원두 무료 제공
  - 전시실에서 커피 시음
  - 박물관 교육실에서 스타벅스 커피 인문강좌 2회 실시(강좌, 원두커피 내리기 등)

○ 인천시박에서 진행한 홍보마케팅 중 내국인 관람객 유치에 큰 효과를 본 유형 중 하나는 특별전 <커피, 양탕국에서 커피믹스까지>전과 연계해 진행한 홍보마케팅임(<그림 131-132>)


덧글 | 덧글 쓰기 | 신고

아[redacted]기 2011-04-18 0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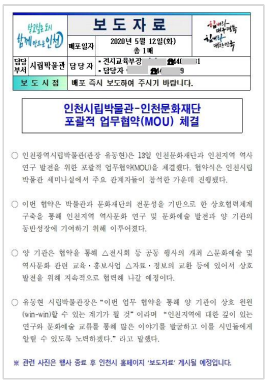
어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스타벅스 들렀다가 우연히 포스터를 봤는데...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이 워낙 멀어서요 ㅠㅠ

〈그림 132〉 인천시립박물관 홍보마케팅 관련 반응

○ 영국 런던의 더브리티시박물관(The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은 전시 연계 마케팅으로 '레스토랑 패키지(Restaurant packages)'를 운영한 적이 있음. 특별전과 연계해 전시기간 동안 전시주제에 맞춰 해당 국가의 음식을 메뉴로 개발해 점심(매일), 저녁(금요일)에 판매. 가격대는 £6.25(약 9,323원)에서 £15.50(약 23.171원) 선

○ 재원조성을 위한 마케팅이긴 하지만, 전시 중인 이국의 식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즉 박물관 본연의 역할을 지키며 박물관만이 할 수 있는 마케팅 전개

2)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마케팅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0년 5월 12일(화) 총 1매

담당부서 시립박물관 담당자 • 전시교육부장 [redacted] • 담당자 [redacted]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인천문화재단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 인천광역시립박물관(관장 유정원)는 12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지역 역사 연구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인천시립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이번 협약은 박물관과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지역 역사문화 연구 및 문화예술 발전과 양 기관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스토리텔 등 공동 행사의 개최 스토리텔 및 역사문화 관련 교육 • 홍보사업 스카토 • 정보의 교환 등에 있어서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유정원 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윈윈 (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인천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림 133〉 보도자료 제공(인천시립박물관)



경인뷰

인천시립박물관-인천문화재단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경인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13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지역 역사연구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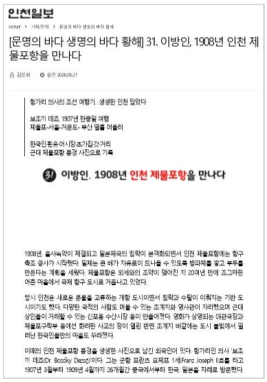
협약식은 인천시립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박물관과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지역 역사문화 연구 및 문화예술 발전과 양 기관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시회 등 공동 행사의 개최 문화예술 및 역사문화 관련 교육홍보사업 자료정보의 교환 등에 있어서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원 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림 134〉 보도기사 (유정식 2020)



인천일보

[문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 황해] 31. 이방인, 1908년 인천 제물포항을 만나다

이방인, 1908년 인천 제물포항을 만나다

〈그림 135〉 취재지원 (김은희 2020)

(1) 보도자료 제공

○ 인천광역시 대변인실을 통한 보도자료 사전 제공(<그림 133-134>)

최근 사례:

- 2020년 5월 7일 〈인천시, 박물관 오실 때 마스크 꼭 챙겨오세요〉
- 2020년 5월 11일 〈인천시립박물관 성인강좌 '제22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5월 22일 개강〉
- 2020년 5월 12일 〈인천시립박물관 - 인천문화재단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2) 취재지원

○ 지역신문 문화부 기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박물관 관련 기사를 주기적으로 게재(<그림 135>)

최근 사례:

- 2020년 5월 21일 자 〈〈인천일보〉〉 7면에 실린 창간31주년 특별기획 〈[문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 황해] 31. 이방인, 1908년 인천 제물포항을 만나다〉

(3) 촬영장소 제공

○ 2013년-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 명인대학교 박물관 장면을 인천시박 공예실에서 촬영

○ 2014년 박물관홍보를 위해 드라마 포스터 박물관 내 부착(<그림 136>) 및 드라마 소품인 비녀 전시(<그림 137>)

○ 2013년에는 중국인 관람객이 거의 없었는데, 드라마 소품인 비녀가 전시된 후 매월 3,000명에 가까운 중국인들 방문(강종구 2014; 김민정 2014)



〈그림 136〉 '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스윗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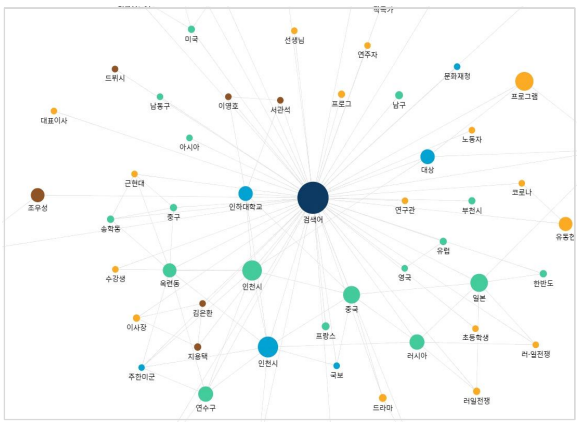
〈그림 137〉 '별에서 온 그대' 소품 전시(강종구 2014)

(4) 향후 고려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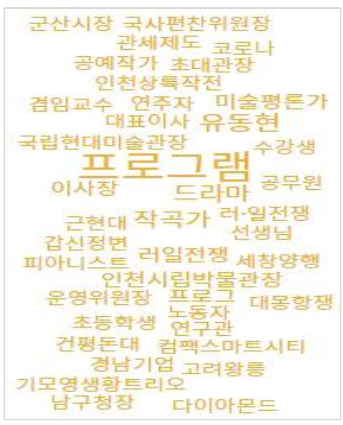
○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관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인천시박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1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277건의 기사가 검색됨[9)]

○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역사박물관은 총 4,697건, 울산박물관은 총 8,303건, 부산박물관은 총 1,847건의 기사가 검색됨

○ 검색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기사에서 추출된 개체명(키워드, 인물, 기관, 장소) 사이의 연결관계를 시각화한 관계도 분석은 <그림 138-139>와 같음



〈그림 138〉 인천시립박물관 연관어 관계도 (빅카인즈)



〈그림 139〉 키워드 상세정보 (빅카인즈)

9) 빅카인즈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중앙지(11), 경제지(8), 지역종합지(28), 방송사(5), 전문지(2) 등 총 54개의 언론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연관어와 키워드 상세정보를 분석해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인천시박에 대한 이미지 구축에 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음. 이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277건의 기사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의 정보누락 및 보도되는 기사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인천시박이 자체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기사내용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지를 고려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박이 보도된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계 · 언론계 · 방송계 등에서 정보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 · 사설 · 인문학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는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만큼, '인천'하면 '인천시립박물관'이 연상될 수 있도록 인천시박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에 대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강화
○ 인천시박이 실시했던 드라마 장소제공을 통한 홍보마케팅은 절반의 성공으로 보임. 소품인 비녀를 상설전시실에서 전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정적인 논란이 확산됨. 이에 박물관 계단 앞 <별에서 온 그대> 포토존에 문제의 비녀를 전시하게 됨
○ 박물관 홍보마케팅 활동은 테마파크의 홍보마케팅과는 다름. 공공박물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 필요. 이를 바탕으로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 시, 사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3) 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마케팅

(1) 민속행사: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인천시박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박물관 우현마당에서 개최하고 있음(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취소)
○ 일반시민과 가족단위 관람객 등이 대상인 이 프로그램의 연 관람인원은 약 1,000여 명으로 집계됨
○ 이 행사는 박물관 자원봉사자 주관으로, '체험마당'(걱정인형 만들기, 짚계란 꾸러미 만들기, 가면 만들기, 제기 만들기, 팽이 만들기, 소원지 쓰기) ·

‘놀이마당’(투호, 윷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떡메치기, 토정비결) · ‘겨루기 마당’(신발던지기, 목소리를 높여가, 가족 단체 줄넘기) · ‘공연마당’ · ‘달집 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전통풍속을 되새길 수 있는 각종 체험행사로 구성

(2) 상설공연: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 인천시박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박물관 석남홀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운영(<그림 140>)

○ 일반시민 대상인 이 프로그램의 연 관람인원은 약 1,200여 명(회당 200명)으로 집계됨

○ 이 행사는 국악, 클래식, 전통연희, 세계음악, 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구성됨

날짜	공연단체	공연내용
5월 19일	한우리오페라예술단	• 앙상블로만짜의작은음악회 현악과 성악 그리고 영상이 어우러져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
6월 16일	퍼니밴드	• Colorofbrass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새로운 개념의 퍼포먼스와 함께 선사하는 공연
7월 21일	아트필드	• 갓korea심쿵artfestival 한국춤과 발레를 클래식과 함께 선사하는 융합예술공연
8월 4일	엑시트	• 아카펠라하모니 목소리만으로 따뜻한 하모니를 만들어 지친 마음을달래주는 공연
8월 18일	광개토사물놀이	• 국악&힙합퓨전콘서트 전통 및 현대가 어우러진 융복합 퓨전콘서트
9월 15일	극단친구(벤컬스)	• 복화술사의콜라보레이션쇼 소리를 던지는 예술,복화술과 성악이 어우러진 공연
10월 20일	인천플루트콰이어	• 아름다운천상의소리플루트 소프라노,피콜로,알토,베이스플루트와 온가족이 즐기는 공연
11월 17일	이모션콘텐츠	• 어린왕자매지컬 마술!벌룬!버블!등 퍼포먼스가 결합되어 펼쳐지는 스토리텔링 가족매지컬
12월 1일	콘티(Con.T)	• 아쿠아쇼 신나는 음악과 예쁜 버블이 만나 어우러진 복합 퍼포먼스공연
12월 15일	클래프 아츠	• 춤추는클래식 버라이어티한 클래식 관객이 참여하는 신개념 음악콘서트

〈그림 140〉 인천시립박물관 2019년도 상설공연 일정(인천시립박물관)

○ 2020년에는 상설가족공연 ‘구름나무와 친구들’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됨

(3) 렉처 콘서트 및 갤러리 콘서트

○ 인천시박은 2019년 10월 26일(토)부터 2020년 1월 18일(토)까지 박물관 1층 석남홀과 2층 기획전시실에서 콘서트를 개최함(<그림 141>)

○ 이 행사는 인천시 주최, 인천시박과 인천콘서트챔버 공동주관, 인천일보의 후원으로 이루어짐



〈그림 141〉 인천시립박물관 전시실
콘서트(인천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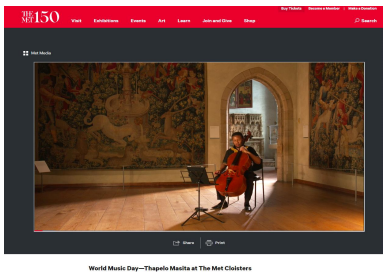
(4) 향후 고려해야 할 점

○ 문화행사의 본질적 기능은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있기에 일반시민뿐만이 아닌 소외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긴 기획 필요. 이는 인천시박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최근 들어 박물관의 사회적 소명과 치유의 역할이 제기되고 있음

> 박물관에서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가 사회적 소명과 치유의 역할이다. 일상이 힘든 시민들이 박물관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즐거움을 … [비싼 가격을 치르지 않고]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사회적 역할이란, 돈을 벌려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영역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정신적 치유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 (조셉 벨탕트; 정인경 2019 재인용)

○ 2020년 6월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미술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콘서트 영상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첼로연주자 타펠로 마시타(Thapelo Masita)의 글을 같이 올림(<그림 142>)



〈그림 142〉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온라인
콘서트(메트로폴리탄박물관)

○ 타펠로 마시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어떻게 모든 역경을 딛고 살아남았는지를 상기시키며,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그 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전보다 나은

인류가 되기 위해 변해야 한다며, 그가 들려주는 연주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묵상이라고 함

- ○ 미술관의 연주자에 대한 소개글 속에는 '희망', '단결', '공동체'에 대한 성찰이라는 표현이 있음. 이 콘서트는 미술관의 유니콘 태피스트리 전시실에서 촬영됨
- ○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온라인 콘서트는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브랜드 가치에 잠재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추구', '백인이 아닌 흑인 연주자 선정', 연주자의 인생철학, 첼로가 연주되는 장소가 '유니콘' 태피스트리 전시실이라는 점 등 치밀한 계산이 이면에 있음
- ○ 이 온라인 콘서트는 관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라는 브랜드에 정서적 가치라는 무게감을 얹어줌
- ○ 신축이전 후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천시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트렌드 · 잠재 관람객의 요구 · 문화행사의 집객력 등에 대한 문화/교육/홍보마케팅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박물관으로서 인천시박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4) 홍보 간행물 발간 및 배포

(1) 박물관 소식지 <<박물관 풍경>>



<그림 143> 인천시립박물관 소식지

- ○ 계간지인 <<박물관 풍경>>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시 · 교육 · 행사 (프)리뷰 등 인천시박의 주요사업도 홍보하고 있음(<그림 143>)
- ○ 형태는 국2절 28면이고, 연 4회 분기별 발간. 회당 4,000부 인쇄

○ 배포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임. 이밖에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2) 기타 홍보자료

○ 월별 전시 · 교육 · 행사 홍보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월간 홍보 광고지 간행 및 배포 예정

(3) 향후 고려해야 할 점

○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박물관 풍경>>의 우편발송 효과에 대한 점검 필요

○ 향후 인천시박 회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원혜택으로 <<박물관 풍경>>을 발송하는 방안과 콘텐츠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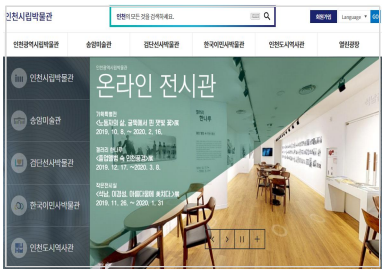
○ 한국인용과 외국인용 <<박물관 풍경>>을 간행해, 인천공항과 비행기 내 비치하는 전략을 홍보마케팅 실천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외국인용 <<박물관 풍경>>을 간행할 경우, 한국인의 시각이 아닌 외국인의 시각에서 내용구성이 요구됨

5) 온라인 홍보마케팅

(1) 홈페이지

○ 인천시박은 본관 및 분관 통합 홈페이지(www.incheon.go.kr/museum/index)를 운영하고 있음(<그림 144>)



〈그림 144〉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① 향후 고려해야 할 점

○ 외국어 사이트 링크 재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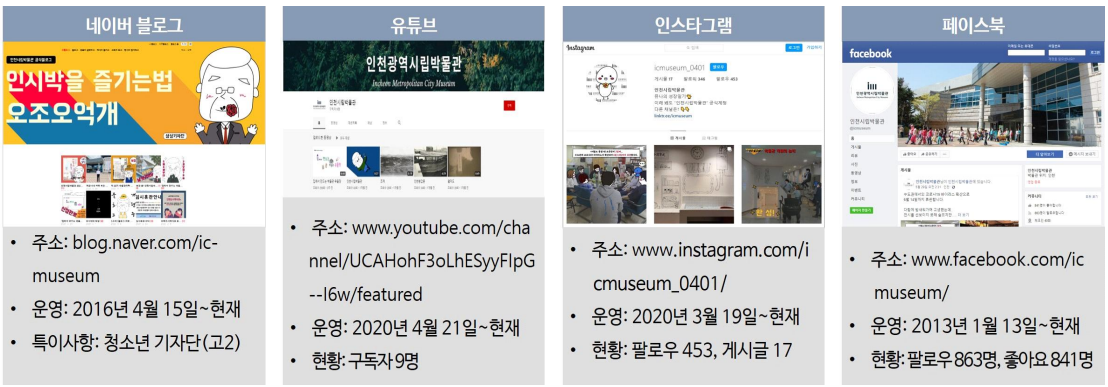
- 홈페이지 대문 우측 상단 회원가입 옆 'Language'에서 언어 선택 후

'GO'를 클릭하면 인천시청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음

- 각 박물관의 외국어 사이트는 '박물관명 클릭 → LANGUAGE 클릭 →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선택해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음. 하지만 외국인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우측 상단의 'Language'외에는 모든 언어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각 박물관 사이트로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중 본관 및 분관 사이트 방문자는 인천시청이 아닌 각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온 것임. 홈페이지 대문에서 'Language'를 클릭해 인천시청이 나올 경우, 짜증 등과 같은 감정이 유발될 수 있음. 이는 인천시박에 대한 관심저하 등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방문하였는지', '어떤 정보를 클릭했는지' 등 사이트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확보 필요. 이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온라인 방문자(내국인, 외국인)를 유치할 수 있음. 또한 온라인 방문을 오프라인 방문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2)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림 145〉 인천시립박물관 사회관계망 서비스

○ 2020년 현재 인천시박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음(<그림 145>)

○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인천시박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의 박물관에 대한 관여도를 깊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음

인천시박 청소년기자단

- 위촉대상: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인 상상공작소를 수료한 고등학교 2학년생
- 활동내용:

구분	블로그 기자단	영상 기자단
활동인원	15명(5명씩 3팀)	8명(4명씩 2팀)
관리	상상발전소 블로그기자단 멘토 (청년 자원봉사자)	상상발전소 영상기자단 멘토 (청년 자원봉사자)
활동내용	'박물관, 인천, 역사'를 주제로 블로그 기사 작성(연 4회)	'박물관, 인천, 역사'를 주제로 미디어 영상 제작(연 4회)
분량제한	1,000-2,000자 이내	최대 5분
운영방식	3개월씩(교육 및 콘텐츠 제작-조언/지도 및 편집-최종본 제출) 4분기 활동 진행	

〈표 76〉 인천시립박물관 청소년기자단

- 활동혜택: 월별 결과물 제출 시 봉사시간 인정
  활동 증명을 위한 위촉장 및 수료증 발급
  우수 기자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우수 콘텐츠는 박물관 소식지 게재

① 향후 고려해야 할 점

○ 현재 인천시박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내국인 대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인 '세계화'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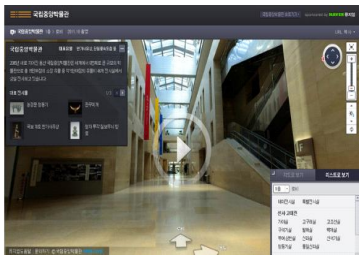
○ 내국인만이 아닌 외국인 유치 방안으로 활용도 높일 필요 있음

(3) 디지털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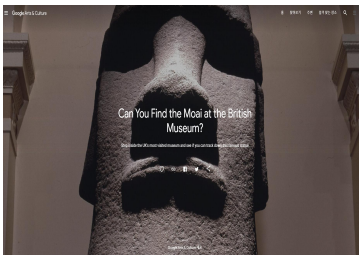
○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online) 박물관(소장품, 전시 등)을 접할 수 있게 하면 흥미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이에 박물관(offline)을 더 많이 찾게 된다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는 마케팅이 권장/도입되고 있음(예: 이광석 2015)

○ 이에 내국인용으로는 '네이버뮤지엄'과 '네이버지도 뮤지엄뷰'를(<그림 146>) 외국인용으로는 '구글 예술 및 문화(Google Arts & Culture)'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그림 147>)

○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인천시박도 현재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음(<그림 148>)



〈그림 146〉 네이버지도 뮤지엄뷰(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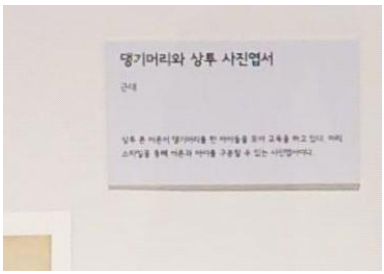
〈그림 147〉 구글 예술 및 문화(구글)



〈그림 148〉 인천시립박물관 온라인 전시

① 향후 고려해야 할 점

-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박물관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박물관 운영의 중요성이 커짐
- 하지만 디지털박물관 운영이 실제로 관람객 확보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인천시박의 '온라인 전시관'의 경우, 전시라벨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그림 149-150>)



〈그림 149〉 인천시립박물관 온라인 전시



〈그림 150〉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

- '내 손안의 디지털박물관'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 박물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통해, 인천시박 앱을 내려받으면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주파 음역대 파장을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그날의 행사 안내 및 예약이 가능하고, 전시실에 들어서면 전시해설이 실행되며, 카페나 식당 앞을 지나가면 추천메뉴 관련 정보가 전송되는 서비스

6)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망 구축

○ 인천시박에서는 판매용이 아닌 홍보용으로 문화상품을 제작 및 배포한 바 있음



〈그림 151〉 세창양행 사택 도안 배지



〈그림 152〉 제물포구락부 도안 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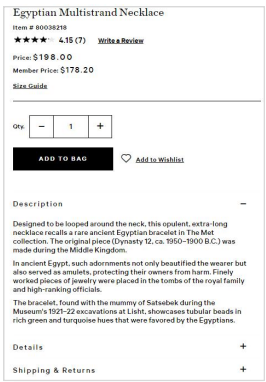
- 2018년 인천시박 홍보용 배지를 제작함(〈그림 151-152〉).
-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서 인천시박의 역사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물이었던 세창양행 사택(1946-1950)과 제물포구락부(1953-1990)를 도안으로 각 도안별 800개씩 제작함.

○ 1870년에 설립된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문화상품 제작 및 판매의 역사는 거장들의 작품을 복제해 판매했던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감. 문화상품 판매와 관련해 초기부터 미술관은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함: 첫째 상품을 저가로 보급함으로써 예술을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교육적 목적), 둘째 판매수익금은 전적으로 미술관 운영비로 사용(박현택 2004:617, 619)

○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소장품과 관련된 상품개발(<그림 153>) 및 관련 소장품에 대한 해설(<그림 154>)을 제공함으로써 미술관만의 특화된 마케팅 구현. 타 박물관의 소장품을 모티브로 활용할 경우, 로열티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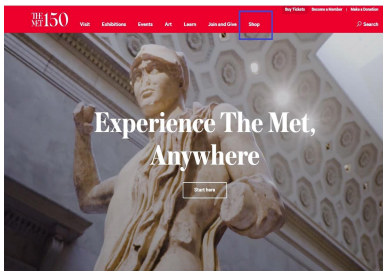
〈그림 153〉 소장품을 응용한 문화상품



〈그림 154〉 문화상품과 관련된 소장품에 대한 설명

○ 소장품을 응용해 양질의 상품으로 개발 후 판매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보급할 경우, 해당 박물관에 대한 친밀도 증가 효과와 함께, 관람을 유인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음

○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문화상품 유통창구로 미술관 내 문화상품점과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으며(<그림 155>), 판매사이트의 각 상품 하단에 모든 수익금은 소장품 · 연구 · 보존처리 등 박물관 운영비로 사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음(<그림 156>).



〈그림 155〉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홈페이지



〈그림 156〉 수익금 사용용도

○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상품유통망을 미술관 내 상점과 홈페이지로 국한하지 않고 제이에프케이 국제공항(JFK International Airport), 태국 방콕 등으로 확장하고 있음

○ 문체부의 '2019-2023 박물관 ·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에는 개별 박물관의 출판 및 유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국립박물관 · 미술관 재단의 온 · 오프라인 문화상품점 활용 확대를 추진사업으로 제시



〈그림 157〉 인천시립박물관 문화상품점(박윤옥)

○ 현재 인천시박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상품점에는 기념엽서와 박물관 특별전 도록을 비롯한 문구류, 손거울, 부채, 에코백과 지갑류, 도자기와 기념접시 등의 장식물, 책갈피, 역사건물 모형 등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음(<그림 157>)

○ 향후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박물관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소장품을 응용한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망에 대한 고민 필요

7) 특화된 카페 및 레스토랑 운영

○ 인천시박 카페는 계산대와 주방공간이 박물관 문화상품점과 한 공간에 있으며(<그림 158>), 갤러리 한나루를 카페 홀로 사용하고 있음(<그림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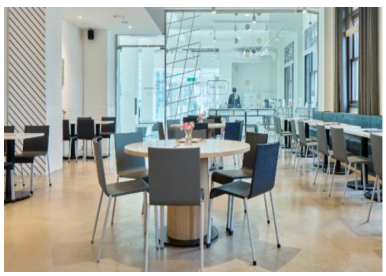
〈그림 158〉 인천시립박물관 카페(박윤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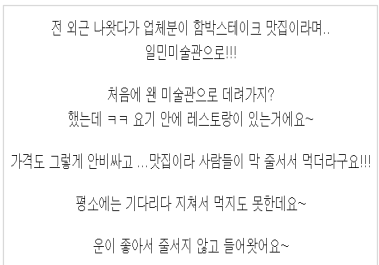
〈그림 159〉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김건희)

○ 최근 들어 박물관은 전시관람만을 위해 방문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박물관 카페 및 레스토랑이 전시관람으로 이어지는 집객효과 · 박물관 이미지의 대중화 효과 등을 가져오는 사례가 늘고 있음(<그림 160-161>)



〈그림 160〉 일민미술관 카페(일민미술관)



〈그림 161〉 일민미술관 카페에 대한 반응(오르트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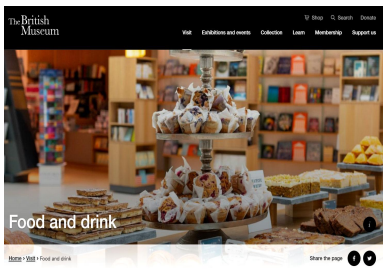
○ 일민미술관 카페 이마(IMA)는 맛집으로 유명함. 2017년 광화문 인근의 직장인들이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는 유료 문화활동으로 매월 한 권의 책을 읽고 저자와 대담을 하며, 셰프가 책을 주제로 개발한 메뉴로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인 'IMA Book Club-미감적 번역'을 운영한 적이 있음(회

당 7만 원, 20명 이내)

> 미술을 통해 의학의 역사를 보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첫 시간을 마무리했다면, 두번째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4월 28일부터는 일민미술관에서 전시도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서점에 들려 책도 보고 미술관에서 전시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
> (이미혜 2017)



〈그림 162〉 더브리티시 박물관 '레스토랑 패키지'



〈그림 163〉 더브리티시 박물관 홈페이지의 카페 및 레스토랑

○ 더브리티시 박물관의 특별전과 메뉴 사이의 연계를 보여줬던 '레스토랑 패키지'와 박물관이 홈페이지에 'Food and drink' 사이트를 별도로 두고 카페/레스토랑 소개 · 메뉴 소개 · 예약 등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그림 162-163>)

8) 환승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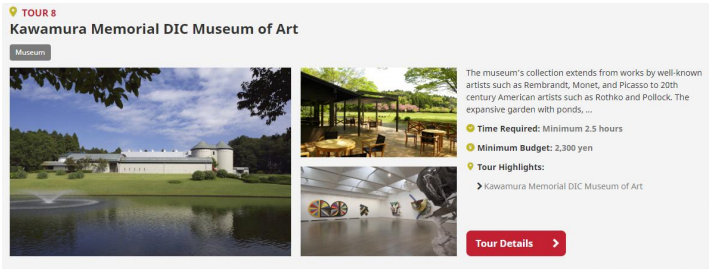
○ 인천시박은 2011-2015년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대상 환승투어(Free Transit Tour)를 실시함

○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는 효과를 봤지만,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시의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성과를 거둠

○ 그 이유는 환승객 대부분이 서울 혹은 인천 개항장 코스를 선택했고, 박물관 코스를 선택했을때 총 관광시간은 2시간에 불과. 따라서 실질적인 박물관 체류시간은 2-30분밖에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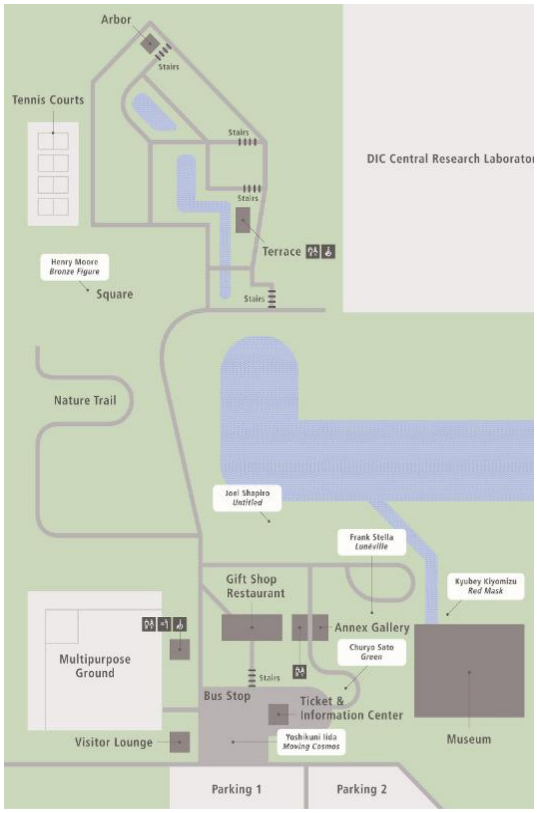
○ 인천시박의 환승투어 프로그램은 환승객의 눈높이에서 인천시박의 집객 매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었던 프로그램으로 보임

○ 2005년부터 환승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본 나리타공항은 셀프가이드 투어 중 하나로 디아이씨 가와무라기념미술관(DIC 川村記念美術館)을 넣음(<그림 164>)



〈그림 164〉 일본 나리타공항 박물관 환승투어(나리타공항)

○ '미술', '자연', '건축'을 내세우는 디아이씨 가와무라기념미술관은 일본의 대표적인 인쇄용 잉크회사인 디아이씨(DIC)에서 1990년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미술관임. 넓은 부지에 조성된 정원은 계절별 피는 다양한 꽃, 연못, 산책로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음(<그림 165>)



〈그림 165〉 디아이씨 가와무라기념미술관 지도(디아이씨 가와무라기념미술관)



〈그림 166〉 렘브란트의 1635년 작 '넓은 챙모자를 쓴 남자의 초상화' (디아이씨 가와무라기념미술관)



〈그림 167〉 녹차와 화과자 (디아이씨 가와무라기념미술관)

- 렘브란트, 모네, 피카소, 로스코, 폴락 등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 전시는 또 다른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음(<그림 166>)
-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맛집으로 소문난 벨베데레 레스토랑, 녹차와 화과자를 맛볼 수 있는 다실 또한 미술관의 집객력을 높이는 요소임(<그림 167>)

9) 회원제도 도입

○ 유료 회원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검토 필요
○ 차별화된 혜택 제공을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사례 연구
○ 여러모로 시사점이 많은 국립현대미술관의 회원제도는 <표 77>과 같음

구분	혜택
종류	• 전시회원: 연회비 3만 원 • 일반회원: 연회비 5만 원 • 특별회원: 연회비 10만 원
전회원 공통 혜택	• 연간 전시관람 무료(회원 본인): 국립현대미술관 전관, 덕수궁(대한문) 입장료 별도 • 제휴 할인: 미술관 내 · 외부 식음료 시설 할인(상세내용 '제휴할인처' 참조), 미술관 내 문화상품점 할인(일부 품목 제외) • 주차 할인(서울): 주차요금 1시간 면제 • 회원대상 소식지(전시 · 교육 · 행사 일정) 전자우편으로 발송 • 재가입 시 연회비 10% 할인
일반회원 특별회원 추가혜택	• 동반 1인 무료관람 • 회원대상 프로그램 운영: 전시연계/교육강좌/행사초청 • 서울 일일 무료주차권 지급: 특별회원 10매/일반회원 3매(회원카드 제시자에 한함) • 특별회원 전용 라운지 운영: 1일 1회, 동반 1인 포함 이용 가능

〈표 77〉 국립현대미술관 회원제도

10) 국내외 교류 및 지원사업

○ 국내외 교류 및 지원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타 박물관/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조사연구 성과 및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 공유

- 타 기관/기업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생효과 및 인천시박 브랜드 구축

(1) 국내교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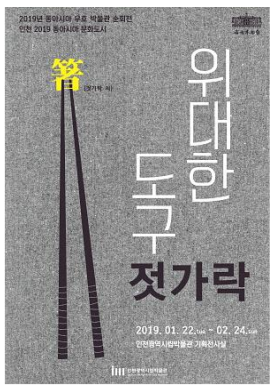
○ 인천시박의 최근 국내교류 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2월 한국청소년연맹 인천광역시 지부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5월 인천문화재단과 공동 학술조사 및 전시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2) 국제교류 사업

○ 인천시박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은 2010년에 체결한 '동아시아우호박물관 교류협약'으로, 일본 키타큐슈시립자연사 · 역사박물관(北九州市立自然史・歴史博物館, 北九州市立いのちのたび博物館)과 중국 대련시 여순박물관(旅顺博物馆) 간 3자 협약

- 2011년부터 매년 실무자회의 및 관장회의 개최
- 201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순회전시 개최(<그림 168>)



〈그림 168〉 인천시립박물관 국제교류전

(3) 지원사업

○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인천시박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당시 남구청)과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추진(<그림 169-171>, <표 78>; 배성수 2019)

○ 박물관 개관 준비, 특별전 개최, 마을박물관 운영인력 교육 등의 지원사업 전개



〈그림 169〉 토지금고 마을박물관(배성수 2019)



〈그림 170〉 쑥골마을박물관 (배성수 2019)



〈그림 171〉 독쟁이 마을박물관(배성수 2019)

박물관	소재지	조성 시기	운영 시간	마을 큐레이터	비고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용현 5동 용정근린공원	2015년 10월 19일	매주 화-토 10:30-13:30	10명	
쑥골 마을박물관	도화 2·3동 공가	2016년 10월 25일	매주 월-금 09:00-18:00	6명	2019년 4월 26일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독쟁이 마을박물관	용현 1·4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11월 8일	매주 월-금 09:00-18:00	9명	2019년 8월 29일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표 78〉 인천시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현황(배성수 2019)

5. 인력

○ 2020년도 현재 인천시박 및 분관의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홍보마케팅업무 담당자는 전시교육부에 속해 있으며, 홍보마케팅뿐만 아니라 전시 · 교육 등 타 업무도 겸하고 있음(<표 79>)

- 2020년 전시교육부 인력보강을 통해 본관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충원했지만, 청소년 교육 및 청년자원봉사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분관 홍보도 맡고 있음

○ 본관 및 분관의 홍보마케팅을 전담할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함

- 행정적으로 분관이 본관의 관리 하에 있지만, 별개의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향후에는 각 분관마다 홍보마케팅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별도의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 1명의 홍보마케팅 전공 경력자를 확보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본관 및 분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다가 점차 분관에도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 배치. 이밖에 외국인 대상 홍보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외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인력 필요

- 본관의 홍보마케팅을 전담할 전문인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분관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간제 또는 공무직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타]: 타 업무와 겸직

박물관	인원	직종	업무내용
인천시립 박물관	1	학예사	국제교류 업무. [타]
	1	학예사	국내교류사업(박물관협의회), 연보발간, 소식지 발간 행정지원. [타]
	1	학예사	민속행사, 상설음악회 행정지원. [타]
	1	학예사	관람객 현황 관리. [타]
	1	공무직	소식지 발간, 간행물 편집. [타]
	1	공무직	민속행사 운영. [타]
	1	공무직	상설음악회 운영. [타]
	1	공무직	박물관 본관 및 분관 홍보. [타]
검단선사 박물관	1	학예사	박물관 홍보 업무 관리. [타]
	1	학예사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선사박물관 네트워크 구축. [타]
	1	공무직	박물관 홍보물 기획 및 운영. [타]
	1	공무직	민속행사 운영 보조. [타]
	1	공무직	선사문화축제 운영 지원, 박물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박물관 홍보 협업. [타]
송암미술관	1	학예사	미술관 홍보, 박물관협의회 및 미술관협력망 운영. [타]
	1	공무직	미술관 홍보 및 블로그 운영. [타]
인천도시 역사관	1	공무직	온라인 홍보. [타]
	1	공무직	각종 행사 프로그램 진행 및 협조. [타]
	1	공무직	각종 행사 프로그램 진행 및 협조. [타]
한국이민사 박물관	1	학예사	대외교류 협력망 구축. [타]
	1	공무직	박물관 교육 및 홍보,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타]

〈표 79〉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및 분관 홍보마케팅업무 인력배치 현황

2) 인력 증원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홍보마케팅업무는 교육업무와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며 운영인원은 총 10명으로 <표 80>과 같음

교육교류부	총 10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7명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

〈표 80〉 인천시립박물관 교육교류부 인력

○ 장기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를 교육업무와 분리하고, 고객관리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예산

1) 현황

○ 인천시박의 홍보마케팅 예산은 '문화행사', '홍보 간행물(리플렛, 소식지, 연보)', '박물관 협의회 연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5년 박물관 협의회 연회비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한 것 외에 동일함(<표 81>)

(단위: 천원)

박물관명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시립 박물관	예산(원)	77,260	77,100	77,300	77,300	77,300	77,300
	구성비(%)	0.94	1.1	0.9	1	0.8	0.9
서울역사 박물관	예산(원)	1,325,776	1,186,532	911,943	1,466,637	1,362,556	1,701,211
	구성비(%)	9	7	6	10	9	11
울산 박물관	예산(원)	128,466	220,430	99,650	111,650	110,300	100,300
	구성비(%)	0.90	1	0.7	0.9	1	0.9

〈표 81〉 주요 공립박물관 홍보마케팅업무 관련 예산

2) 운영비용 추정

○ 인천시박의 홍보마케팅업무 예산이 매년 총예산의 증감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점은 안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 운영비가 소요될만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비교를 위해,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홍보마케팅 강화'와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박물관 정보화'를, 울산박물관의 경우 '홍보 강화' 비용을 홍보마케팅업무 관련 예산에 더함(<표 81>)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의 홍보마케팅업무 관련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17배가 넘으며, 울산박물관의 평균예산은 인천시박의 1.5배 이상임

○ 지난 5년간 박물관 전체예산에서 홍보마케팅업무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천시박은 평균 1%에 못 미치며, 서울역사박물관은 평균 9%, 울산박물관은 평균 0.9%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정보화를 위해 전시영상시스템 소모품, 키오스크, 홈페이지, 디지털아카이브 유지보수, 휴대용 음성안내기 콘텐츠 구축, 스마트 도슨트 앱 및 비콘 유지보수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표 82>). 이는 디지털 시대, 스마트 박물관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인천시박도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박물관 리플렛 제작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문화행사	94,800	151,800	185,600	193,210	193,210
홍보마케팅 강화	251,600	461,170	268,872	319,000	378,000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249,737	286,973	131,600	78,400	77,900
박물관 정보화	578,395	859,513	868,565	759,946	1,040,101
계	**1,186,532**	**911,943**	**1,466,637**	**1,362,556**	**1,701,211**

〈표 82〉 서울역사박물관 홍보마케팅 예산

○ 박물관의 홍보마케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이전 · 재개관에 앞서 관람객 조사,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박물관 정보화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2025년 재개관까지 매년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제6절 경영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그림 172〉 인천시립박물관의 지향가치

1)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 경영 기능 강화

- ○ 인천시립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되는 인력들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 강화(<그림 172>)
- ○ 소장품 수집 및 관리 · 전시 · 교육 등 본질적 기능의 심화 확장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에서 최고의 공립박물관 도모
- ○ 인천시립박물관 전문인력들이 각자 전문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박물관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 지원
- ○ 자체 업무진단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인천시립박물관 내실화에 박차 및 경쟁력 제고
- ○ 환경변화, 박물관 운영에 적용되는 법규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립박물관의 중장기계획 방향 결정
- ○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와 원활한 관계 유지
- ○ 효율적인 의사소통(보고체계 등) 체계 수립
- ○ 4차 산업혁명에 박물관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조성
- ○ 삶의 질 향상 · 지역균형발전 ·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10] 인천시립박물관이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사회기

반시설로서의 성과 가시화
○ 고객관리체계 구축 · 운영 및 서비스 기능 확대 · 강화
○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공공성 지표 강화
○ 효율적인 재정지출, 재원조성 다각화 및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도난 · 지진 · 질병(코로나19 등) · 안전사고 · 화재 등 위기시 가동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박의 안전기능 강화

2)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역할 및 역량 강화

○ 인천의 역사성과 지역성 규명 및 이를 바탕으로 인천문화의 진화를 선도하는 박물관으로서 인천시박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지역특화박물관의 모범사례 제시
○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 지역공동체에 사회 ·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인천지역 박물관의 역량 강화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지원 확대
○ 문화도시 인천만들기에 능동적으로 동참 및 인천관광 활성화에 기여

3) 통하다: 대한민국 속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

○ 현재 박물관계의 범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외 박물관과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망 구축 및 정보 공유
○ 초연결 지능화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인천시박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 앱 개발을 통해 이용 편의 제고
○ 인천시민뿐만 아닌 내외국인 이용객의 인천시박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참여'로 자료를 수집하는 '빅데이터형 이용객 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 지역거점 박물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망 구축
○ 인천시박의 세계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국제협력 확대

10) 2018년 8월 6일 문화 ·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ㄱ:1). 이에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 19곳에 가상(VR) · 증강현실(AR) 체험관 설치(박준석 2018)

2. 박물관 명칭

1) 현황

○ 현재 인천시박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 세 가지 유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그림 173-17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 2006-09-26 조례 제 3047호
(일부개정) 2007-01-03 조례 제 3900호
(일부개정) 2010-11-18 조례 제 4070호
(일부개정) 2011-07-28 조례 제 4957호
(전부개정) 2011-11-17 조례 제 5024호
(일부개정) 2014-01-09 조례 제 5321호
(일부개정) 2016-04-04 조례 제 5640호
(일부개정) 2019-06-03 조례 제 6179호
(일부개정) 2020-02-26 조례 제 6348호

〈그림 173〉 인천시립박물관 운영조례



〈그림 174〉 인천시립박물관 로고



〈그림 175〉 인천시립박물관 도록

○ 1946년 개관 이래 인천시박은 ‘인천부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직할시박물관’, ‘인천광역시박물관’ 등 인천의 지명변천에 따라 박물관 명칭이 변경됨(<표 83>)

지명	시기
인천부(仁川府)	1945년 10월 28일
인천시(仁川市)	1949년 8월 15일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	1981년 7월 1일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1995년 3월 1일

〈표 83〉 인천의 지명변천(인천광역시 2020)

○ 박물관의 명칭은 그 박물관의 정체성(성격, 위상 등)을 드러내고, 박물관이 지향하는 가치 · 건립목적 등을 포괄할 수 있으며, 향후 박물관이 전개할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는 분야를 제시할 수도 있음
○ 또한, 다른 경쟁기관이나 업체와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경쟁기관이나 업체와 식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박물관의 ‘브랜드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인천시박의 경우 ‘시립/광역시립’이란 단어를 통해 ‘공립’이라는 박물관의 위상을, ‘인천’이라는 지역명을 통해 인천전문박물관이라는 성격을 포괄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2)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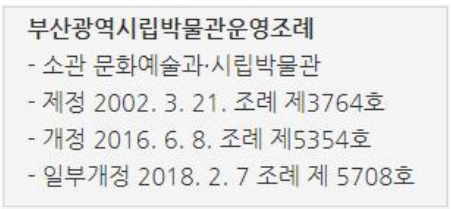
○ 1995년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에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으로 개칭한 부산박물관의 경우, 운영조례에는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이란 명칭을, 통상적으로는 ‘부산박물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그림 176,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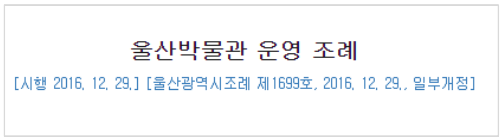
〈그림 176〉 부산박물관 로고



〈그림 177〉 울산박물관 로고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
- 소관 문화예술과·시립박물관
- 제정 2002. 3. 21. 조례 제3764호
- 개정 2016. 6. 8. 조례 제5354호
- 일부개정 2018. 2. 7 조례 제 5708호

〈그림 178〉 부산박물관 운영조례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2016.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1699호, 2016. 12. 29., 일부개정]

〈그림 179〉 울산박물관 운영조례

○ 울산광역시 산하의 울산박물관의 경우, 운영조례에도 ‘울산박물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그림 177, 179>)

○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2001년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하지만 관리 및 운영조례에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이라는 형태로 표기하고 있음(<그림 180-18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51호, 2017. 9. 21., 제정]

〈그림 180〉 서울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4. 19.] [서울특별시규칙 제3857호, 2012. 4. 19., 일부개정]

〈그림 181〉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최근 공립박물관계에서는 ‘시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딱딱하고 경직된 이미지를 벗고 친근한 박물관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처럼 박물관의 운영주체를 나타내는 용어를 생략하는 추세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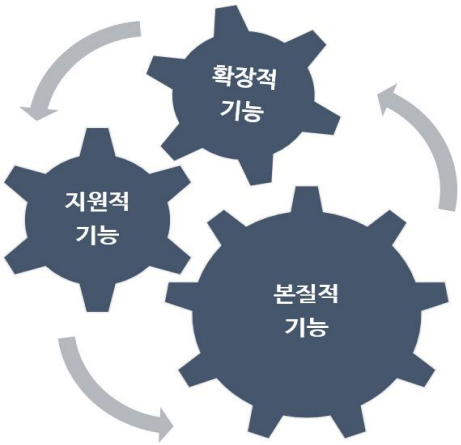
3) 제안

○ 인천시박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 박물관의 위상을 '시립'이라는 용어에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의 명칭들은 지자체인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는 점과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라는 점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박물관 명칭의 브랜드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명칭의 분산된 마케팅보다는 공식명칭과 애칭/약칭 두 가지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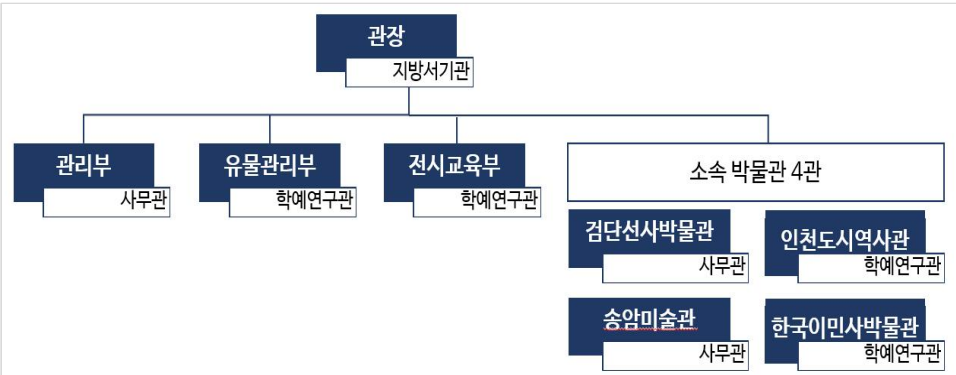
1) 조직구성의 기본방향

○ 인천시박의 조직구성은 박물관의 본질적 기능 · 지원적 기능 · 확장적 기능의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음(프라임전략연구원 2011:81)
○ 본질적 기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박물관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듯이, 박물관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기능을 의미함
○ 지원적 기능은 박물관이 전개하는 모든 업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함. 관리(시설, 인력, 재무, 조직 등) · 홍보마케팅 · 행정 · 통/번역 등을 담당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함
○ 확장적 기능은 기존의 전시 · 교육 업무를 통한 정보제공의 수준을 넘어서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지원기능, 서비스영역에서 점차 디자인이 갖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대인의 감성에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적 기능(전시 디자인 · 출판 및 홍보물 디자인 · 교육활동지 디자인 · 온라인 프로그램 디자인 · 문화상품 개발 등), 위기관리기능(도난 · 화재 · 지진 · 코로나19 등) 등을 의미함
○ 여기서 지원적 기능과 확장적 기능은 박물관의 본질적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그림 182>)



〈그림 182〉 조직구성의 기본방향

2) 인천시립박물관 조직구성



〈그림 183〉 인천시립박물관 조직도(인천시립박물관)

○ 인천시박은 관장 아래 3부, 4관을 두고 있음(<그림 183>)
○ 3부는 관리부 · 유물관리부 · 전시교육부이고, 4관은 분관인 검단선사박물관 · 송암미술관 · 인천도시역사관 · 한국이민사박물관임
○ 관리부는 지원적 기능인 행정 · 시설관리 업무와 확장적 기능인 정보화 · 안내데스크 운영 업무를 맡고 있음
○ 유물관리부는 소장품관리 · 보존처리 · 학술조사 · 학술회의 등 본질적 기능 위주의 업무와 함께, 지원적 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를 맡고 있음
○ 전시교육부는 본질적 기능인 전시 · 교육 업무외에, 지원적 기능인 자원봉사자 운영 · 홍보 · 행정 업무를 맡고 있음
○ 각 분관은 관장 아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예: 국립중앙박물관

분관), 본질적 · 지원적 · 확장적 기능에 해당하는 각 업무에 인력을 배분하고 있음

3) 조직구성 사례분석

(1)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은 관장 아래 1관 · 3단/실 · 14과/부/팀, 13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184>)



〈그림 184〉 국립중앙박물관 조직도(국립중앙박물관)

○ 1관은 미래전략담당관이고 3단/실은 행정운영단 · 학예연구실 · 교육문화교류단임

○ 미래전략담당관의 담당업무는 <표 84>와 같음

관	담당업무
미래전략 담당관	주요사업 분석 · 평가 · 성과 관리, 역량강화 및 표준화 · 효율화 방안 통합관리(소속박물관 특성화사업 통합운영관리, 가상현실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래전략 계획수립, 브랜드화 전략, 문화 관련 기관 협력 강화, 법/제도 관련 업무(국립중앙박물관 법령 및 예규,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예규, 학예사 자격제도) 등

〈표 84〉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업무분장(국립중앙박물관)

○ 행정운영단은 3과 1팀으로 구성되며, 담당업무는 <표 85>와 같음

과/팀	담당업무
행정 지원과	보안 및 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 · 통제 · 발간 및 기록물 관리, 공무원 임용 · 복무 · 교육훈련 · 연금 · 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및 방호,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야간개장 관련 업무(계획수립, 운영, 월별 실적관리 등,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박물관 정보화과	박물관 정보화사업 및 전산실 운영, 스마트박물관 구축, 유비쿼터스 관람환경 조성(소장품 3D 스캔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 정보보안 업무,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박물관 연보 및 업무편람 제작, 연구용역(빅데이터 활용), 포럼개최(디지털 시대, 스마트 박물관), 예산, 감사 및 반부패에 관한 업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국가정부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이관업무
시설 관리과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 · 유지 · 보수,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수목 · 잔디 · 온실 등 관리
고객 지원팀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전시해설, 관람환경 모니터링, 박물관 관람예절 교육,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내데스크, 실종아동),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현장근무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 친절교육 · 시상,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응급대기실 운영, 영업배상책임보험, 물품보관소 및 수유실 운영관리,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표 85〉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 업무분장(국립중앙박물관)

○ 학예연구실은 5부로 구성되며, 담당업무는 <표 86>과 같음

부	담당업무
유물 관리부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소장품 구입 · 대여 ·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 관리, 소장품의 복제 · 복사 · 모조 · 촬영 등 허가, 소속 박물관 소장품관리에 관한 사항, 박물관학 및 박물관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등
고고 역사부	고고역사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조사연구 · 발굴 · 수집 · 전시 · 고증 · 평가 · 분석 · 제도 · 촬영, 관련 자료 발간 및 보급, 고고역사에 관한 전시실 운영 및 관리
미술부	미술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조사연구 · 발굴 · 수집 · 전시 · 고증 · 평가 · 분석 · 제도 · 촬영, 관련 자료 발간 및 보급, 미술사학에 관한 전시실 운영 및 관리
세계 문화부	아시아 관련 고고학 · 미술사학 · 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조사연구 · 발굴 · 수집 · 전시 · 고증 · 평가 · 분석 · 제도 · 촬영, 관련 자료 발간 및 보급, 아시아에 관한 전시실 운영 및 관리
보존 과학부	소장유물의 보존 · 복원 · 과학적 조사, 소장유물의 복제 · 모사, 보존과학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 배포, 국내외 보존과학기관과의 교류 · 협력

〈표 86〉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업무분장(국립중앙박물관)

○ 교육문화교류단은 4과 1팀으로 구성되며, 담당업무는 <표 87>과 같음

과/팀	담당업무
문화교류 홍보과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교류 · 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 · 협력사업 지원,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홍보용 간행물 · 영상물의 제작 배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등
전시과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	박물관교육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원,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 · 운영, 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도서실 운영 · 관리,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어린이 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 · 운영, 어린이 · 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 운영, 어린이 대상 행사에 관한 사항,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디자인팀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출판물 기획 · 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박물관 사업 · 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표 87〉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업무분장(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은 지원적 기능의 업무를, 행정운영단은 지원적 · 확장적 기능의 업무를, 학예연구실은 본질적 기능의 업무를, 교육문화교류단은 본질적 · 지원적 · 확장적 기능의 업무를 위주로 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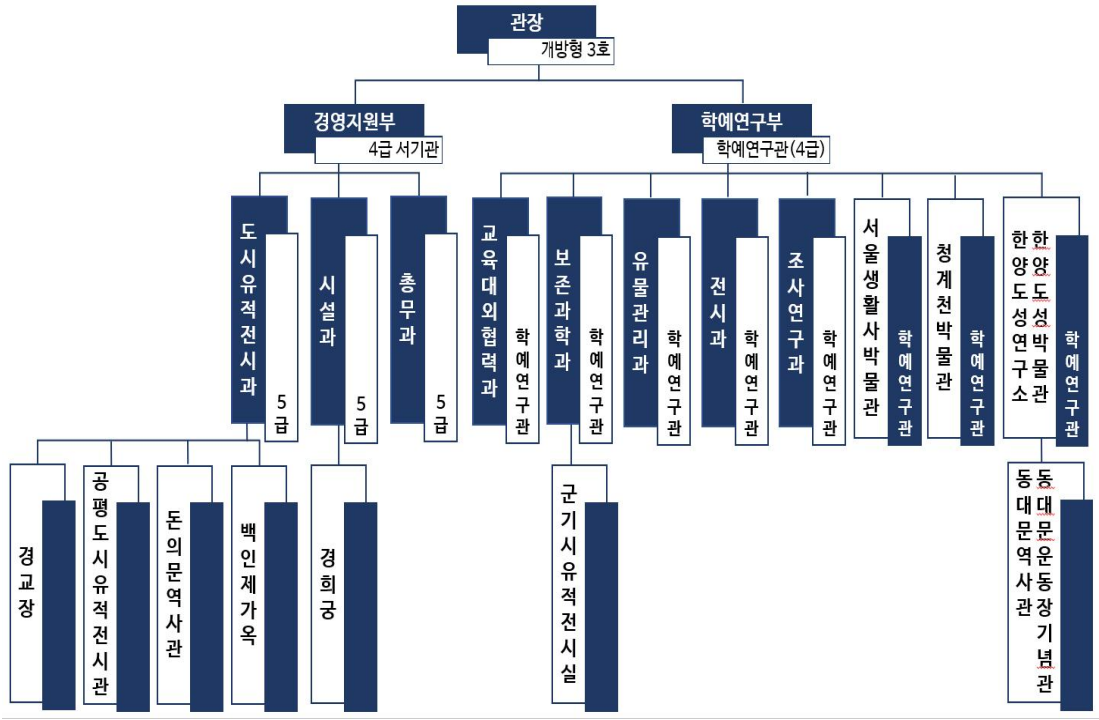
(2)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은 2부 · 11과(박물관 · 연구소 포함)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185>)

○ 2부에는 경영지원부와 학예연구부가 있음

○ 경영지원부 아래에는 총무과 · 시설과 · 도시유적전시과가 있으며, 학예연구부 아래에는 전시과 · 교육대외협력과 · 조사연구과 · 유물관리과 · 보존과학과가 있음

○ 10개의 분관은 경영지원부와 학예연구부가 분산해 운영 및 관리



〈그림 185〉 서울역사박물관 조직도(서울역사박물관)

○ 경영지원부 산하 부서의 담당업무는 <표 88>과 같음

과	담당업무
도시유적 전시과	분관인 경교장,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돈의문전시관, 백인제가옥 운영 및 관리
시설과	청소 · 경비 · 조경 · 주차장 등 박물관 시설물 및 직원 관리, 박물관내 시설(기계 · 전기 · 영선 · 방재 · 소방 · 보안시설 · 건축 등) 관리, 대관업무, 전산시스템운영(홈페이지, 유물관리시스템 등), 전시장내 영상장비 관리, 통신설비 · 전자교환설비 관리, 서울시 소유 박물관 시설관리 운영업무 총괄기술지원. 분관인 경희궁 운영 및 관리
총무과	박물관 행정업무 총괄관리. 인사 · 조직 · 예산 · 계약 · 교육 등 종합적 행정업무, 박물관멤버십 회원관리, 문화행사 개최,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도슨트) 활동 지원 등

〈표 88〉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업무분장(서울역사박물관)

○ 학예연구부 산하 부서의 담당업무는 <표 89>와 같음

○ 분관인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박물관은 학예연구부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기념관/동대문역사관과 군기시유적전시실은 학예연구부 산하의 한양도성연구소/박물관과 보존과학과에서 각기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과	업무분장
교육 대외협력과	교육업무(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홍보업무(언론홍보, 홍보간행물, 뉴미디어 홍보, 온라인 뉴스레터, 전시 연계 홍보행사 등), 문화상품 개발, 국제교류업무(국제심포지엄, 국제교류전시 등) 총괄
보존과학과	소장품 보존처리, 야외 전시물 유지관리, 문화재 분석, 유물보존환경 관리, 훈증소독, 유해생물종합관리 운영, 유구전시장 보존관리, 〈문화재 보존연구〉 발간, 보존실 견학 프로그램 운영, 보존처리 관련 연수교육, 대외기관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상태조사, 발굴유물 보존처리, 보존처리 기술 및 재료연구, 문화재 재질 및 구성성분에 관한 과학적 분석연구, 복제 및 모사방법과 재료연구, 문화재의 생물피해 방제 및 방법연구, 문화재 재질별 보존환경연구 등. 분관 군기시유적전시실 운영 및 관리
유물관리과	소장품수집 및 관리, 소장품 전산화 및 정보화 운영, 소장품 도록 및 관련 자료 발간, 수장고 관리 및 운영, 국가귀속유물 관리 및 문화재지정 관련 업무,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 정리, 기증유물 전시실 운영 및 기증유물 특별전 개최
전시과	전시품선정 및 조사, 전시기법연구, 상설/기획/작은전시 개최, 도록 발행 등 전시업무 총괄
조사연구과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전시연계 서울기획연구,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학술총서 및 서울 시정사진 기록총서 발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발굴유물 특별전, 해외자료조사, 서울역사자료실 운영

〈표 89〉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업무분장(서울역사박물관)

○ 경영지원부는 지원적 기능의 업무를, 학예연구부는 본질적 기능의 업무를 위주로 하면서 지원적 기능의 업무도 맡고 있음

3) 신축이전 후 인천시립박물관 조직구성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시박 조직구성은 <그림 18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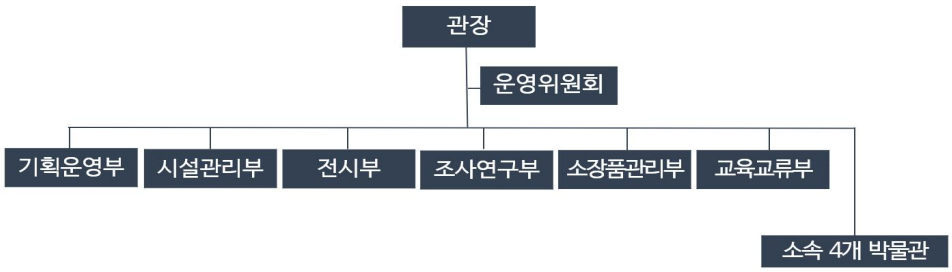
○ 행정 · 시설관리 · 정보화 · 안내데스크(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부’는 ‘기획운영부’와 ‘시설관리부’로 분리됨.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관리부에서, 행정 · 정보화 · 안내데스크(고객응대) 업무는 기획운영부에서 맡으면서 ‘기획’ 업무가 더해짐

○ 전시 · 교육 ·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전시교육부’는 ‘전시부’와 ‘교육교류부’(교육 · 홍보 업무 담당)로, 조사연구 · 유물관리 ·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유물관리부’는 ‘조사연구부’와 ‘소장품관리부’(유물관리 · 보존처리 업무 담당)로 분리됨

○ 이와 같이 3부에서 6부로 조직이 세분화됨에 따라, 박물관 업무의 전문성도 체계적으로 분배되어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인력배분에 있어서 기획운영부와 시설관리부는 행정직 중심으로, 전시부, 조사연구부, 소장품관리부 및 교육교류부는 학예직 중심으로 구성됨



〈그림 186〉 신축이전 후 인천시립박물관 조직도

○ 본 보고서의 ‘소장품관리 기본계획’에서 보듯이, 향후 인천시박과 분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를 위주로 하면서, 발굴문화재 뿐만 아니라 인천 내 박물관, 개인소장 인천관련 유물 등에 대한 보존처리 지원기능의 강화가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보존처리 업무를 별도의 부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박물관계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운영기반의 체계화, 내실화, 연계성 및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관장 아래 2부 8과의 조직체계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지원 및 확장 기능 강화: 기획운영부 아래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교류(홍보, 대외협력) 및 고객지원과
- 본질적 기능 강화: 학예연구부 아래 전시과, 교육과, 조사연구과, 소장품관리과, 보존처리과
- 관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부장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전문성 평가와 단기 및 중장기계획 수립

4) 인천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의 역할 분담

○ 미국의 ‘스미스소니언(독립신탁 비영리기관), 독일의 ’박물관섬(프로이센문

화재단 산하, 개별 박물관의 독자성과 상호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한 박물관간 조화 우선시) 등을 참조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는 국가기록박물관, 국립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등 5개의 박물관 시설과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등 2개의 통합시설을 조성하는 안(<그림 187>). <박물관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추진전략 연구>(2020)는 국립박물관단지 운영방식으로 단일 통합법인 운영, 통합기능 최소화, 절충식 단계적 통합 등 세 가지 안을 제안함



〈그림 187〉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배치도(행복청)

○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독일의 박물관섬, 영국 리버풀국립박물관연합 등은 경영 · 마케팅 분야에서 경험이 축적된 운영주체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이라는 점과 개별 박물관의 집객력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간의 연계이기에(특히 소장품) 시너지 효과가 큼

○ 서구의 통합운영방식의 도입에 있어서, 각 박물관 간 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인력 및 예산 절감, 공간 활용 등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박물관계를 둘러싼 환경, 소장품 자체의 집객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통합운영의 현실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파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운영상의 통합은 아니지만, 2009년 용산공원 조성 당시 공원 일부를 국립중앙박물관 · 한글문화관 · 국립민족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자연사박물관 · 국립과학박물관 등을 배치하는 '뮤지엄 콤플렉스' 즉 박물관 복합단지 조성(안)이 제안되었지만, 2020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이외에는 신설이나 이전 계획이 없음

○ 2015년에 2023년 개관을 제시했던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또한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립박물관단지 개관이 연기됨. 예산 규모도 당초

4,552억원에서 3,995억원으로 축소될 예정(곽우석 2019)

○ 일본 도쿄 시내 우에노공원 내 박물관단지에는 도쿄국립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도쿄도미술관, 우에노모리미술관, 동경예술대학미술관, 우에노동물원, 우에노식물원 등이 있음. 각 기관은 별도의 행정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박과 시립미술관의 경우, 통합운영보다는 독립성 · 자율성이 담보된 운영방식인 일본 우에노공원 내 박물관 단지 사례를 고려해 볼 필요 있음. 참고로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2019)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박과의 연계보다는 독립적인 운영방식을 제안함

○ 같은 부지 내 인천시박과 미술관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미국 '뉴욕뮤지엄마일(New York Museum Mile)'을 참고할 수 있음

○ 뉴욕뮤지엄마일은 1970년대 뉴욕 맨해튼 인근 박물관들이 재정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센트럴파크와 인접한 5번가에 위치한 박물관 간 컨소시엄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되어 구성된 복합단지로, 뉴욕 맨해튼 82-105번가의 2블록에 위치한 9개의 운영주체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 참여하고 있음

○ 참가박물관들은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길거리 라이브공연, 오프닝 행사, 특별전, 어린이용 프로그램 등을 개최. 당일 행사는 연간 5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접근성, 박물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생생한 문화예술행사이자 뉴욕의 대표적인 연례 시가행사로 자리잡고 있음(이기환 2020)

○ 이에 인천시박과 시립미술관만이 아닌 인천 내 모든 박물관이 참여하는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문화도시 인천의 지역축제 방식이나 인천시박과 시립미술관이 동일한 주제로 각 관의 특성에 맞는 특별전시를 기획하는 방식 속에서의 역할 분담이 시너지 효과 제고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인력

1) 현황

○ 2020년도 현재 인천시박 및 분관의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인력 38명(정원 40명), 기타인력 66명임(<표 90>)

(단위: 명)

직종별 / 부서별		계	일반직														연구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행정	행정	학예연구	행정·학예	행정	공업 전기	행정·학예	행정	전산	공업 기계	공업 전기	방호	행정	행정	전기		
정원		40	1	1		3	1	1	1	4	1	3	3	1	2	0	0	3	15
현원		38	1	1		2	1	1		4		3	1		1	1	1	4	17
증감		0				-1			-1		-1		-2	-1	-1	+1	+1	+1	+2
현재인원	관리부	8	1	1			1	1		3		1							
	전시교육부	6																1	5
	유물관리부	5																1	4
	송암미술관	5				1										1	1		2
	검단선사박물관	5				1						1			1				2
	한국이민사박물관	5								1		1						1	2
	인천도시역사관	4											1					1	2

※ 기타인력 66명: 공무직 37명, 청원경찰 13명, 시설관리공단 12명, 기간제(학예보조) 4명

〈표 90〉 2020년도 인천시립박물관 인력현황

○ 각 부서별 최소 필요인력 및 능력은 '제4장 박물관 운영 기본계획' 각 절의 '인력' 항목 참조

○ 인천시박의 경우, 외국인 이용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외국어 가능자(원어민 수준)의 확보가 매우 시급함

2) 인력 증원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시박의 정규인력은 총 51명이며(<표 91>), 이를 부서별로 배치하면 <그림 188>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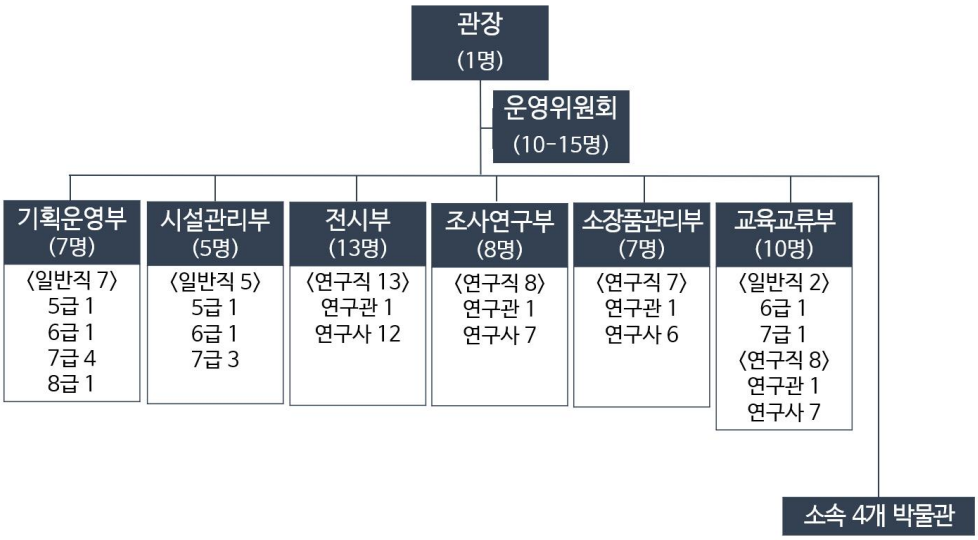
○ 기타인력은 총 44명으로 학예보조 10명, 청원경찰 10명, 안내 8명, 시

설관리 등의 업무에 16명임

(단위: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 구 직	
			행정	행정	공업	행정·학예	행정	공업	행정	전산	녹지	공업	운전	행정	행정	전기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정원	2020년	38	1	1		2	1	1	4			4		1	1	1	4	17
	이전 개관	51	1	1	1		2	1	3	1	1	2	1	1			4	32
증		+20			+1		+1			+1	+1		+1					+15
감		-7				-2			-1			-2			-1	-1		

〈표 91〉 신축이전 후 인천시립박물관 정규인력



〈그림 188〉 신축이전 후 인천시립박물관 부서별 인력배치

5. 예산

1) 현황

○ 최근 5년간 인천시박의 예산을 살펴보면(<표 92>), 인천시 총예산에서 평균 0.09%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 예산도 인천시 총예산의 0.09%인 9,622,771천원임

(단위: 천원)

박물관명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시립 박물관	예산(원)	8,046,383	6,844,865	7,440,938	7,760,119	9,224,439	8,961,556
	구성비(%)	0.09	0.09	0.09	0.09	0.10	0.09
서울역사 박물관	예산(원)	16,433,297	22,281,428	15,801,557	14,409,493	14,878,885	14,796,121
	구성비(%)	0.06	0.09	0.06	0.05	0.05	0.04
부산 박물관	예산(원)	12,987,051	11,785,125	11,866,799	13,283,294	14,289,238	13,710,800
	구성비(%)	0.13	0.14	0.13	0.13	0.13	0.12
울산 박물관	예산(원)	12,057,031	12,053,666	13,753,613	11,655,384	11,538,490	11,284,002
	구성비(%)	0.40	0.57	0.43	0.36	0.34	0.31

<표 92> 주요 공립박물관 예산

○ 주요 공립박물관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역사박물관이 가장 크고, 인천시박이 가장 작음. 흥미로운 점은 서울시 총예산에서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06%로 인천시박보다 작음. 이는 서울시 총예산이 인천시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은 데서 기인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해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음

○ 한편 부산박물관과 울산박물관의 평균예산은 인천시박보다 많으며, 시 예산에서 박물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인천시박보다 큼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울산시의 예산은 인천시보다 적으나, 시 예산에서 울산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천시박보다 큼

2) 운영비용 추정

○ 박물관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인건비나 관리비에 비해 사업비의 비중이 큰 것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

국역사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함(<표 93>)

○ 인천시박의 경우, 전체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함

(단위: 백만 원)

박물관	총예산	관리비	사업비	인건비(인원)
국립민속박물관	38,047	2,147	28,986	6,914 (250명)
국립중앙박물관	158,122	2,202	113,927	41,993 (312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6,349	431	11,842	4,076 (162명)

〈표 93〉 2018년도 국립박물관 예산현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252)

○ 이에 인천시박은 매년 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는 10,000,000천 원 달성과 사업비 비중을 2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93>의 국립박물관 예산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표 94>와 같음. 표본대상인 국립박물관의 경우, 사업비의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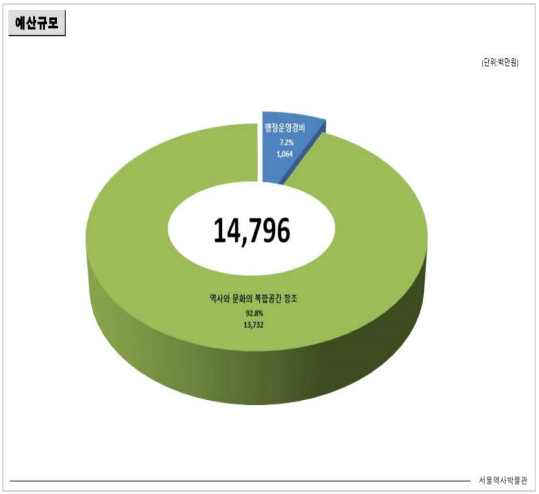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박물관	총예산	관리비(%)	사업비(%)	인건비(%)
국립민속박물관	38,047	2,147 (5.6)	28,986 (76.2)	6,914 (18.2)
국립중앙박물관	158,122	2,202 (1.4)	113,927 (72.0)	41,993 (26.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6,349	431 (2.6)	11,842 (72.4)	4,076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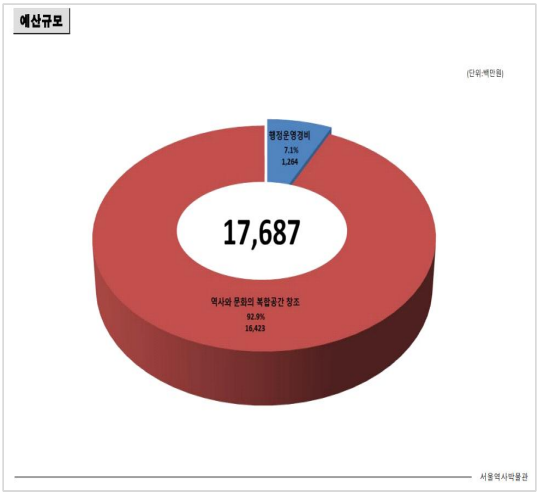
〈표 94〉 2018년도 국립박물관 예산구성비 비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252)

○ 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총예산을 '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이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의 비중은 90%를 넘음(<그림 189-190>)

○ 신축이전에 따른 박물관 규모와 사업영역의 확대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 최소 필요예산을 기본으로 총예산 증액과 사업비의 비중을 70%대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189〉 2019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규모(서울역사박물관)



〈그림 190〉 2020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규모(서울역사박물관)

3) 재원확보 방안

○ 비영리기관인 박물관의 존재의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박물관"이란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고고(考古) · 인류 · 민속 · 예술 · 동물 · 식물 · 광물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지식 습득 및 문화향유를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세금이 국민/시민에게 환원되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국공립박물관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 시설관리 및 유지 등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임
○ 인천시박의 경우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음
○ 박물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으로 시비에 환원되기에, 박물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소장품 구입비 · 콘텐츠 개발비 등으로 바로 재투자되지 않음
○ 2015-2018년도 인천시박의 수익활동을 살펴보면, 임대수수료가 주를 이루고 있음(<표 95>)

(단위: 백만 원)

박물관	2015		2016		2017		2018	
	임대	기타	임대	기타	임대	기타	임대	기타
인천시립박물관	4	2	3	2	7	-	14	-
한국이민사박물관	9	-	9	-	7	-	7	-

〈표 95〉 인천시립박물관 2015-2018년도 세입현황
(인천시립박물관 2016:43, 2017:41, 2018:43, 2019:42)

○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입 창출방식은 관유물대여료, 대관(대강당, 야외공간, 회의실), 자판기, 건물대여(한국박물관협회 사무실 등), 주차요금 등이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어 박물관의 문화상품점, 일부 특별전시, 일부 교육프로그램, 식음료장, 공연, 공연장 및 관련 시설 대관, 공연장 장비 사용료, 출판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음. 특히 문화상품의 경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제작, 판매,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의 80%를 차지함(국립중앙박물관 20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 268-9)

○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임대료(식음료장, 박물관상품점), 대관료(박물관 로비 및 광장, 강당 아주개홀, 경희궁), 주차요금,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소장품 이미지 복제, 유료멤버십 연회비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음(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4)

○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고객 세분화 마케팅과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시에서 받는 재정 이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체제 및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 일부 특별전 유료(다양한 할인제도 적용)
- 공공기관으로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무료' 전제하에, 교육내용 심화용 교재 유료 및 일부 교육프로그램 유료
- 소장품 대여 및 이미지 복제
-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망(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축
- 대관료(강당, 회의실 등), 특화된 식음료장 임대료
- 유료회원제 도입 및 패키지 상품 개발 등

○ 문체부의 <박물관 ·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살펴보면, 박물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 유치, 기부 여건 조성, 기업이나 은행 등 민간과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등의 안이 제시되어 있음

○ 이러한 기류에 발맞춰 기부 및 후원제도 도입, 기업이나 은행과의 협찬 활성화 등이 가능한 체계 구축, 사업발굴, 인천시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및 기부/후원/협찬 대상으로서 인천시박만의 가치 발굴과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제7절 문화콘텐츠로서 박물관 건축 기본계획

1. 기본방향

○ “바로셀로나의 가우디 건축이 도시 건축 문화 콘텐츠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고, 가우디의 디자인 DNA가 바로셀로나 건축가들에게 전달되어 세계적인 건축가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으로 작용하는 것처럼”(김현아 · 서정렬 2008:91), 잘 지은 박물관 건축 자체가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디자인은 후대의 건축가들을 세계적인 건축가로 만들어내는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문화도시로서 한 도시(인천)에 대한, 문화강국으로서 한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 구축 가능

○ 인천시박의 신축건물이 인천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랜드마크(landmark)’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 191>에서 제시하는 박물관 건축 기본방향에 대한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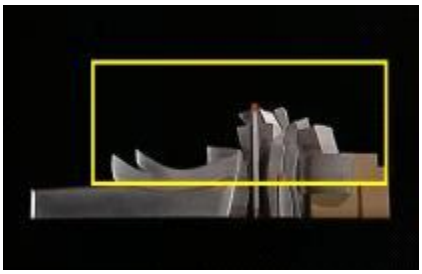
〈그림 191〉 ‘랜드마크’로서의 박물관 건축 기본방향

①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건축물

○ 조형적인 측면에 치중한 건축물이 아닌, 박물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맞춤형 건축물이어야 함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구겐하임 빌바오(Guggenheim Bilbao)는 박물관 건물 자체가 조형미를 지닌 예술품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공간 활용이나 소재의 선택에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 건물임

- 일례로, 지면으로부터 26-53m에 해당하는 부분은 빈 공간으로, 건축디자인상 필요한 이 27m에 달하는 부분은(<그림 192>) 박물관의 기능과 전시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음(<그림 193>)



〈그림 192〉 조형적인 부분(재구성)



〈그림 193〉 조형적인 부분의 분리

- 스코츠데일 웨스트박물관(Scottsdale Museum of the West)의 경우, 박물관 건물 외관의 조형미와는 달리(<그림 194>), 내부 건물구조는 사각형 구조임(<그림 195>)



〈그림 194〉 스코츠데일 웨스트박물관 외관(존스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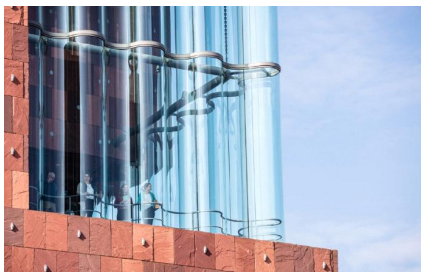
〈그림 195〉 스코츠데일 웨스트박물관 기본구조(존스 스튜디오)

② 첨단기술의 집약체로서의 건축물

○ 국내외 건축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국내외 박물관 건축의 이정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196〉 안드스트룸박물관 외관 (비앙키니 2020)



〈그림 197〉 안드스트룸박물관 내부 (비앙키니 2020)

- 2011년에 완공된 벨기에 안드스트룸박물관(Museum aan de Stroom)

건물은 유리가 기둥이 되어 콘크리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구조임(<그림 196>). 구조물의 강도를 견딜 수 있도록 기둥 역할을 하는 유리를 주름 형태로 제작함(<그림 197>)

③ 디테일이 생명인 완성도 높은 건축물

○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박물관 건축이기에, 박물관 건물 자체가 전시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결과물로서의 건축물 자체의 완성도와 가치를 위해 세부적인 면들에 집중이 필요함

- 구겐하임 빌바오의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Frank Gehry)는 자신이 구상한 박물관 건축의 스케치를 다양한 형태로 풀어나갔고, 박물관 건물의 형태가 윤곽을 드러나게 됨에 따라 모형을 제작하여 형태의 구체화를 시도함. 이어서 점점 모형의 크기를 확대해 가면서 세세한 부분들에 집중하며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임. 또한 항공디자인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으로 박물관을 지어 봄으로써, 가상건물의 형태에서 세세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박물관 건설 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함(<그림 198-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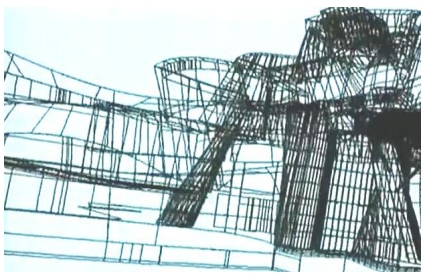
〈그림 198〉 모형1



〈그림 199〉 모형2



〈그림 200〉 모형3



〈그림 201〉 3D 설계프로그램

④ 다양한 이야기를 생산하는 건축물

○ 다중적인 내러티브가 담긴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의 건축물 지향

- 구겐하임 빌바오의 경우, 박물관 건물 남쪽으로는 '도시와의 대화'(돌, 직각, 정렬된 창)를(<그림 202-203), 북쪽은 '강과의 공감'(물결 모양처럼 기복이 있는 형태)을(<그림 204>), 건물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박 모양은 흘러가는 삶의 한 부분과 변화를 나타냄과 동시에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것을 상징하기 위해 '항해 중인 배'를 나타내려고 의도함(<그림 205>)



〈그림 202〉 구겐하임 빌바오 남측



〈그림 203〉 남측에서 본 구겐하임 빌바오



〈그림 204〉 구겐하임 빌바오 북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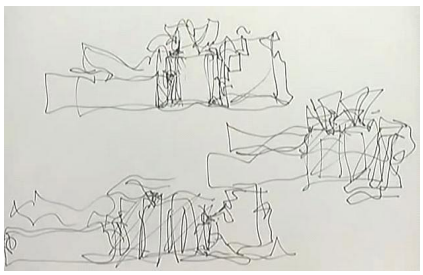


〈그림 205〉 선박 모양

- 대가리와 꼬리를 떼어낸 물고기 모양과 물고기의 움직임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시그니처로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을 담고 있음(<그림 206-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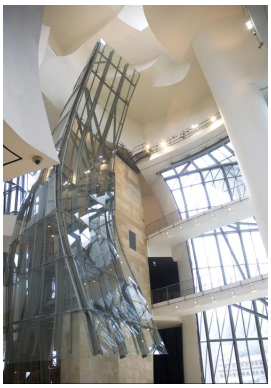
〈그림 206〉 프랭크 게리와 물고기



〈그림 207〉 물고기 모양을 응용한 스케치



〈그림 208〉 외관의 물고기 모양



〈그림 209〉 내부의 물고기 모양

⑤ 지역과 소통하는 건축물

○ 박물관의 성격뿐만 아니라, 인천의 환경 · 특성을 살린 인천다운 건축물 구현을 통해, 인천의 건축문화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타이완 이란현의 랜드마크인 이란현립란양박물관(宜蘭縣立蘭陽博物館)은 건축가 야오런시(姚仁喜)가 이란 동북쪽 바닷가 절벽에서 모티프를 따 박물관 건물을 디자인함(<그림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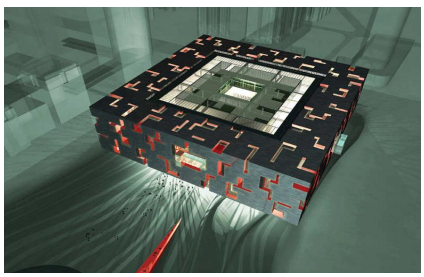
〈그림 210〉 이란현립란양박물관



〈그림 211〉 구겐하임 빌바오



〈그림 212〉 광둥성박물관
(아치데일리 2011)



〈그림 213〉 광둥성박물관
(아치데일리 2011)

- 구겐하임 빌바오의 성공 이면에는 박물관이 건립되는 도시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철학적 비전을 담은 목표 설정이 있음(<그림 211>).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박물관을 건립할 때, 빌바오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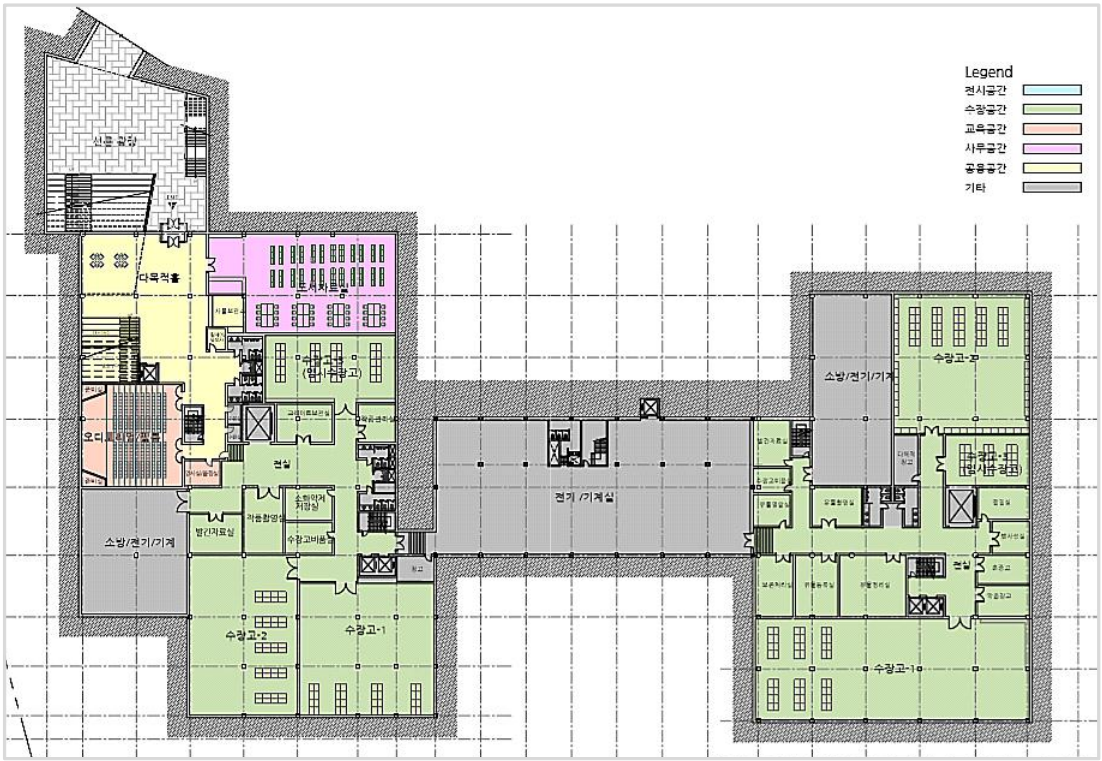
이상 침체된 산업도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산업시대의 종식에 대한 인식 고취’, ‘타도시로의 주민 이탈 막기’, ‘빌바오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회복’ 등을 위해 기념비적인 박물관을 빌바오에 건립하고, 도시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목표를 설정함. 또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근 문화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함

- 중국 광둥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인 광둥성박물관은 41,027m^2의 부지에 컨테이너 형식의 현대적 건축물로(<그림 212-213>), 이 건물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증진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광둥성박물관 2016; 아치데일리 2011)

2. 신축박물관(안) 검토

○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1) 지하1층



〈그림 214〉 지하1층 평면도

미술관 총 2,450m² (약 741평)	• 도서자료실(정리실 포함), 발간자료실, 창고 • 수장고1, 수장고2, 수장고3(임시), 수장고비품실, 작품보관실, 작품촬영실, 전실, 크레이트보관실 • 다목적홀, 사물보관소, 수유실, 오디토리엄(준비실, 영사실/음향실 포함), 외부와의 출입구, 휠체어/유모차 보관소, 화장실, 소방/전기/기계, 소화약제저장실
(구)OCI 사옥	• 박물관 · 미술관 공용시설: 전기/기계실, 승강기, 화장실
박물관 총 2,700m² (약 817평)	• 다목적창고, 발간자료실 • 수장고1, 수장고2, 수장고3(임시), 수장고비품실, 유물등록실, 유물열람실, 유물정리실, 유물촬영실, 전실 • 방사선실, 보존처리실, 약품창고, 함칠실, 훈증고 • 화장실, 소방/전기/기계



박물관 공간
- 소방/전기/기계
- 수장고2: 420m²
- 발간자료실: 45m²
- 수장고비품실: 30m²
- 유물열람실: 30m²
- 유물촬영실: 50m²
- 다목적창고
- 수장고3: 105m²
- 함칠실: 30m²
- 방사선실: 30m²
- 보존처리실: 55m²
- 유물등록실: 60m²
- 유물정리실: 90m²
- 훈증고: 30m²
- 약품창고: 30m²
- 수장고1: 680m²

(구)OCI 사옥 공간
- 전기/기계실

〈그림 215〉 지하1층 박물관 공간 배분

(1) 소장품관리 측면

○ 수장고 옆에 보존처리용 '약품창고'와 '소방/전기/기계' 시설의 배치 피함. 이는 지진 · 화재 등에 의한 2차 사고에 따른 피해와 폭발 · 진동의 위험으로부터 유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임

○ 지하1층 수장고 면적(1,205㎡)은 지금(346㎡)의 약 3.4배로 현재 박물관 소장품을 수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향후 인천도시역사관에 임시 이관한 유물반환 계획, 위탁보관유물, 국가귀속자료 수장 등을 감안하면 최소 2,000㎡의 수장고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

○ 박물관 건축면적의 1.5배 이상을 확보하여 수장고 면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층고를 7-9m로 유지하여 향후 중층 구조로 수장고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임시수장고를 제외하더라도 수장고 공간은 최소 4개소로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 수장고 2개 공간당 전실 공간이 1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 도면상 전실 부재

전실의 역할
- 반입유물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막고 변형 및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공간
- 유물등록, 전시이력 변경 및 전시로 인한 피로도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공간
- 수장고 출입 시 출입문이 열림에 따라 수장 공조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충공간
-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이 직접적으로 수장고에 이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공간
- 외부의 벌레 등 유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곤충이 수장고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공간
- 수장고 전실의 온습도와 소방시설, 방법시설 등은 수장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체육관광부 2017:42-43)

○ 유물등록실과 유물정리실을 합쳐 유물정리실로 통합운영하고, 임시수장고를 유물정리실 옆에 배치하여 업무시간 종료 시 작업 중인 유물을 임시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물열람실은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하거나 최대한 가깝게 배치해야 함

○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크기와 적재하중은 클수록 좋음.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가장 크고 무거운 유물의 하중과 크기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발간자료실 공간은 수장고비품실로 확장하여 활용

○ 지하는 환기가 어렵고 수재를 당할 우려 등이 있기에 지상층에 수장고를 두는 추세가 국내 박물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

(2) 보존과학 측면

○ 보존처리시설은 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배치해야 함. 지하에 배치할 경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될 수 있음. 1층 배치가 이상적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층이나 4층에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크기 및 적재하중에 각별한 고려 필요

- 보존처리에는 다양한 약품을 사용하기에 독극약물에 노출되기도 함. 1998년 보존과학자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숨진 연구원의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박인희 2008)
- 지하는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존처리시설을 지하에 둘 경우 환기 및 공기청정에 매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급인화성 약품, 전기 및 가스사용 등에 의한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고

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시 있는 보존처리시설을 수장고와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피하도록 권고되고 있음

○ 보존과학실의 면적은 최소 200m^{2}가 확보되어야 하며, 보존처리와 관련된 함침실 · 방사선실 · 훈증고 등은 보존처리실에 인접해 있어야 함

○ 특히 훈증고는 현재 제시된 면적보다 최소 1.5배 정도 넓어야 하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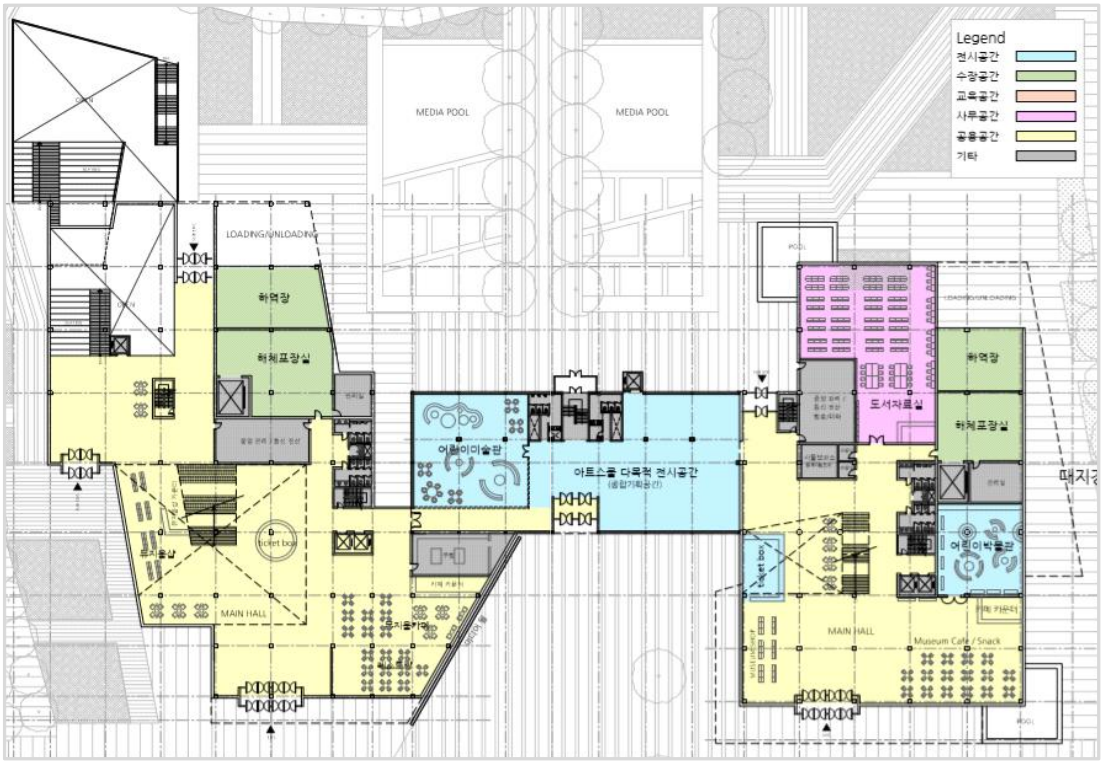
(3) 기타

○ 지하1층의 면적을 비교할 때 박물관이 미술관 면적에 비해 250m^2 더 넓은 것으로 산출했지만, 눈대중으로 보아도 미술관의 면적이 박물관에 비해 넓음. 2,700m^{2}이라는 박물관 면적과 2,450m^{2}이라는 미술관 면적과 (구)OCI 사옥의 지하층 면적의 산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요구됨

○ 침수방지 및 지진에도 대비할 수 있는 내진설계 시스템 구축 필요

○ 화재 조기감지 및 건물이상관측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해 소장품 보존환경 강화 필요

2) 지상1층



〈그림 216〉 지상1층 평면도

미술관 총 3,150m² (약 953평)	• 관리실, 로비, 안내데스크, 레스토랑, 주방, 카페, 문화상품점(창고포함), 승강기, 화장실 • 하역장, 해체포장실 • 미화시설, 방호시설, 중앙관리실, 전산통신시설
(구)OCI 사옥	• 미술관시설: 어린이미술관 • 공용시설: 아트스쿨 다목적 전시공간(종합기획공간),* 승강기, 화장실
박물관 총 2,900m² (약 877평)	• 로비, 안내데스크, 사물보관소, 휠체어/유모차 보관소, 수유실, 카페/스낵, 문화상품점(창고포함), 승강기, 화장실 • 하역장, 해체포장실 • 어린이박물관, 도서자료실(정리실 포함) • 관리실, 미화시설, 방호시설, 중앙관리실, 전산통신시설

* '아트스쿨 다목적 전시공간'은 〈인천 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218쪽에는 공용시설로, 112쪽 '미술관 공간 배분 세부 내역'과 114쪽 '박물관 공간 배분 세부 내역'에는 박물관 시설로 되어 있음



박물관 공간
- 도서자료실: 430m²
- 하역장: 100m²
- 해체포장실: 160m²
- 중앙관리: 50m²
- 전산통신시설: 50m²
- 방호시설: 35m²
- 미화시설: 35m²
- 사물보관소: 30m²
- 유모차/휠체어: 16m²
- 관리실
- 어린이박물관: 200m²
- 수유실: 16m²
- 로비: 710m²
- 안내데스크: 110m²
- 문화상품점: 150m²
- 카페테리아: 240m²

(구)OCI 사옥 공간
- 다목적 전시실: 360m²

〈그림 217〉 지상1층 박물관 공간 배분

(1) 전시적 측면

○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볼 때, 기본계획에 제시된 면적으로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공간 확보가 요구됨

○ '아트스쿨 다목적 전시공간'을 미술관과 공동사용할 경우, 향후 공간운영상 양측의 갈등요소가 될 수 있음

(2) 소장품관리 측면

○ 하역장과 해체포장실을 수장고와 인접한 지하층에 배치하면 바람직하지만, 현 건물도면상 지하로 화물용 차량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지 의문. 이 경우 현재 도면대로 1층에 하역장과 해체포장실을 두고,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크기와 적재하중에 각별한 주의 필요

(3) 기타

○ 박물관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1층은 관람객이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좁은 면적에 하역장 · 해체포장실 · 안내데스크 · 카페테

리아 · 방제실 등이 배치되어 있어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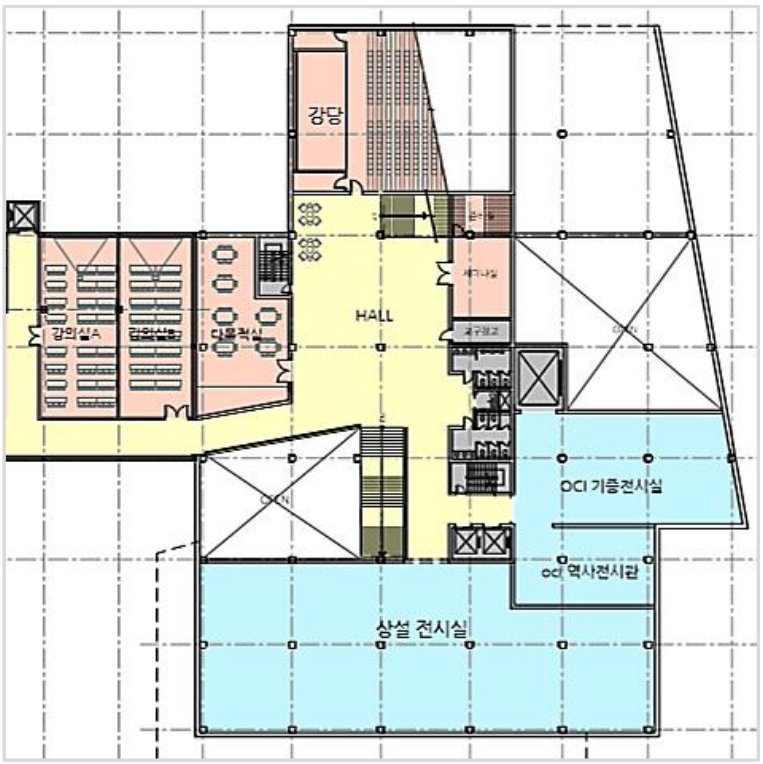
○ 박물관 · (구)OCI 사옥 · 미술관의 주출입구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이용객 동선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이에 (구)OCI 사옥 1층을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한 주출입구로 삼고, 양 기관의 안내데스크 · 문화상품점을 배치하여 공간 안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지상2층



〈그림 218〉 지상2층 평면도

미술관 총 2,500m² (약 756평)	• 상설전시실, 상설체험교실 • 강의실A, 강의실B, 다목적 사무 연구 공간, 세미나실, 시소도구보관실 • 승강기, 화장실
(구)OCI 사옥	• 미술관: 교육교구창고, 교육라운지, 교육준비실, 세미나실1, 세미나실2 • 공용: 계단, 승강기, 화장실 • 박물관: 강의실1, 강의실2
박물관 총 2,665m² (약 806평)	• 상설전시실, OCI역사전시관, OCI기증전시실 • 강당1층(시청각실, 240석),* 교구창고, 교육준비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 승강기, 화장실



박물관 공간
- 강당: 315m²
- 공연준비실: 30m²
- 다목적실(실습교육실): 145m²
- 세미나실: 50m²
- 교구창고: 20m²
- OCI기증전시실: 220m²
- OCI역사전시관: 110m²
- 상설전시실: 620m²

(구)OCI 사옥 공간
- 강의실A: 170m²
- 강의실B: 110m²

〈그림 219〉 지상2층 박물관 공간 배분

(1) 전시적 측면

○ 'OCI기증전시실'과 'OCI역사전시관'은 (구)OCI 사옥에 설치하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큼

○ 2층과 3층 또는 3층과 4층을 상설전시공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교육적 측면

○ 강당을 2층 규모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 전체적으로 교육시설이 1-3층에 분포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2개의 층에 교육시설을 집중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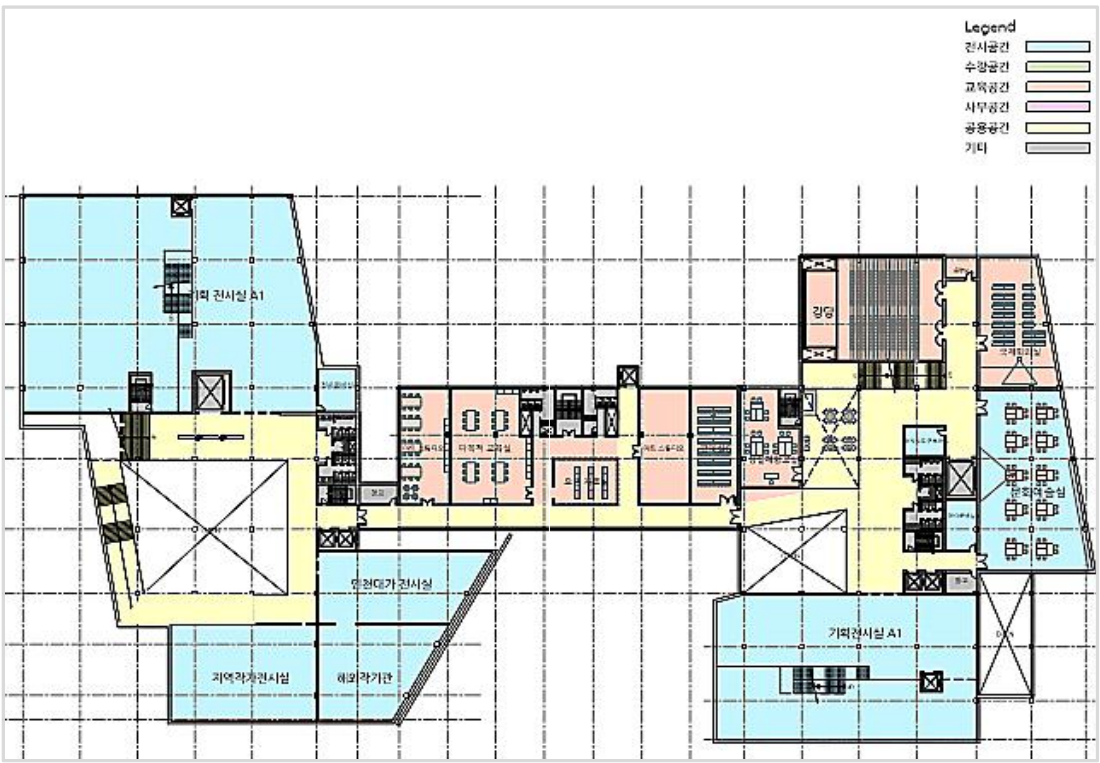
○ 유아 및 어린이 단체나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층고 차이가 많이 나는 (구)OCI 사옥의 교육시설에서 박물관으로 이동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구)OCI 사옥 1층으로 내려가 다시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유도한다 해도 우천시 교육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

(3) 기타

○ 박물관과 미술관 양측의 전시 및 교육시설이 지상2층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 시설 가동시 2층 공간 혼잡 및 이용객의 동선에 간섭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층고가 다른 박물관 건물 2층과 (구)OCI 사옥 2층을 슬로프로 연결하여 이동통로로 사용하기 보다는 별도의 건물로 분리하고, 교육시설은 박물관 건물 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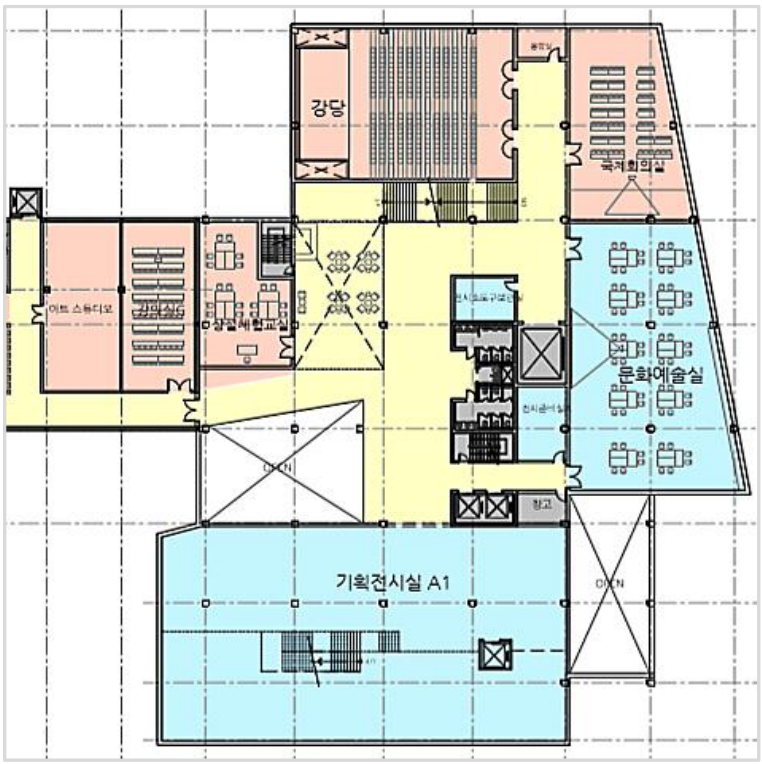
4) 지상3층



〈그림 220〉 지상3층 평면도

미술관 총 2,982m² (약 902평)	• 기획전시실A1(전시준비실 포함), 인천대가전시실, 지역작가전시실, 해외작가관 • 계단, 승강기, 화장실
(구)OCI 사옥	• 미술관: 다목적교육실, 아트스튜디오, 오픈 자료실, 창고 • 공용: 계단, 승강기, 화장실 • 박물관: 강의실C, 다목적 스튜디오*
박물관 총 3,060m² (약 926평)	• 기획전시실A1, 문화예술실, 전시소도구보관실, 전시준비실 • 강당2층 및 음향실, 국제회의실, 상설체험교실 • 계단, 승강기, 창고, 화장실

* 도면의 '아트스튜디오'는 '다목적 스튜디오'의 오자로 보임



박물관 공간
- 강당: 315m²
- 음향실/영사실: 30m²
- 국제회의실: 315m²
- 상설체험교실: 120m²
- 전시소도구보관실: 45m²
- 전시준비실: 110m²
- 문화예술실: 390m²
- 창고
- 기획전시실A1: 880m²

(구)OCI 사옥 공간
- 다목적 스튜디오: 110m²
- 강의실C: 110m²

〈그림 221〉 지상3층 박물관 공간 배분

(1) 전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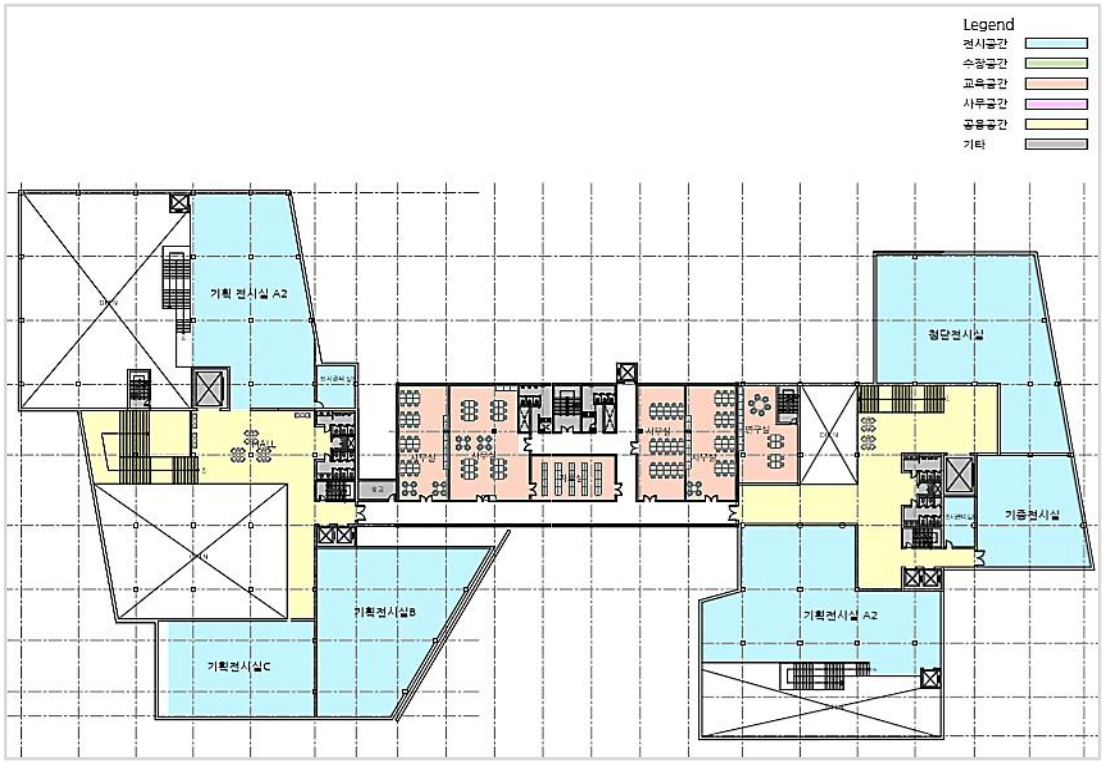
○ 박물관 용도로 건립되는 대부분의 건물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시실 내 기둥이나 그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상식임. 전시실 중앙에 3-4층을 연결하는 계단과 승강기 설치는 전시공간의 활용도를 매우 낮게 만들기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선시대 공예품, 서화 등을 현재와 같이 독립된 전시로 운영할지 아니면 상설전시 속에 포함시킬 지의 여부에 따라 '문화예술실'의 용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2)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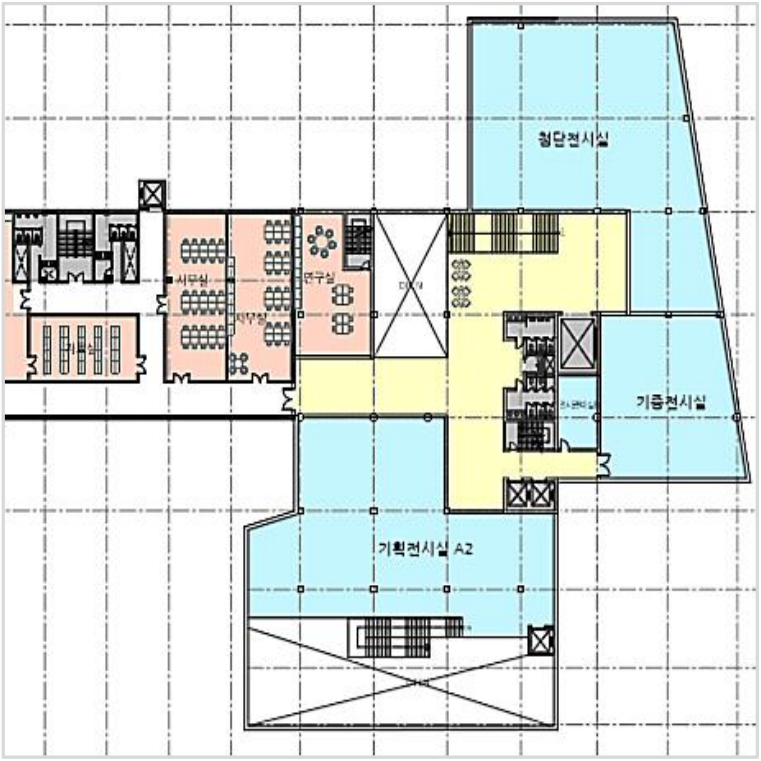
○ 전시시설과 교육시설이 있는 각 층에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 필요(예: 카페나 자판기 설치, 이용객용 의자 배치 등)

5) 지상4층



〈그림 222〉 지상4층 평면도

미술관 총 3,900m^2 (약 1,180평)	• 기획전시실A2 및 전시준비실, 기획전시실B, 기획전시실C • 계단, 승강기, 화장실
(구)OCI 사옥	• 미술관: 사무실1, 사무실2, 창고, 자료실 • 공용: 계단, 승강기, 화장실 • 박물관: 사무실1, 사무실2
박물관 총 3,300m^2 (약 998평)	• 기증전시실, 기획전시실A2, 첨단전시실, 전시준비실 • 연구실 • 계단, 승강기, 화장실



박물관 공간
- 첨단전시실: 520m²
- 기증전시실: 250m²
- 전시준비실: 45m²
- 기획전시실A2
- 연구실: 110m²

(구)OCI 사옥 공간
- 사무실: 480m²

〈그림 223〉 지상4층 박물관 공간 배분

(1) 전시적 측면

○ 관람객 유인 효과가 있는 기획전시실은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상현실(virtual real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홀로그램, 상호작용매체(interactive media),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등 실감형 매체의 전시접목은 상설 및 기획전시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큼

- 박물관으로서 전시내용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로 실감형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객효과를 위한 테마파크식 재미용 도구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후, 실감형 매체 구현에 '첨단전시실'과 같이 별도의 공간을 배정할지 말지 결정

(2) 기타

○ 두 기관의 사무공간으로 (구)OCI 사옥 4층을 공동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함. 자율성 · 독립성 · 업무의 효율성 보장을 위해 인천시박과 미술관의 사무공간을 한 공간에 두기보다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천시박의 경우,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문서실/기록보관실(archive)이 필수적임. 보안이 필요한 자료도 있기에, 문서실/기록보관실은 타기관과 공동사용이 아닌 별도의 공간 확보가 요구됨.

6) 기타 검토사항

○ 미술관과 '아트스쿨' 옆에 인천시박보다는 성격이 유사한 콘텐츠빌리지를 배치하는 것이 '감상 → 교육 → 생산'이라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음(<그림 224>)



〈그림 224〉 박물관 부지 변경(안)

콘텐츠빌리지란?

-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산업 지원 시설.
- 입주시설: 미디어 팹랩, 공용 스튜디오, 테스트베드 등 문화콘텐츠 생산 플랫폼 시설, 미디어아트 및 산업기술 융복합연구소 등

○ 보통 박물관 부지를 결정할 때, 후일의 증축에 대비하여 넉넉한 부지의 확보는 매우 중요함(이난영 2006:132).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존건물인 (구)OCI 사옥을 매개로 연결하기보다는, 분리함으로써 향후 부지 내 증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9,362m^{2}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문화유산 디지털과학센터'를 관내 부지에 건립하여, 현재 박물관 건물 안에 있는 보존과학부를 신축건물로 옮길 예정(손영옥 2020)

○ 디지털기술의 가속화는 소장품관리, 전시 및 교육환경,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등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해외 주요 박물관들은 소장품 디지털화, 실감형 콘텐츠 제작, 디지털 전시설 구축 등을 통해 변화환경에 재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업무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문체부는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 · 미술관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인천시박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영상촬영, 녹음 등) 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됨

제8절 기존 건축물 활용계획

1. 인천뮤지엄파크 부지 내 건축물 활용계획

1) (구)OCI 사옥 활용계획(안)

(1) 개요

○ 산업유산인 (구)OCI 사옥을 보존 및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그림 225>)

○ (구)OCI 사옥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연면적 5,624m^2 규모임



〈그림 225〉 (구)OCI 사옥
(인천영상위원회 2017)

○ 인천뮤지엄파크 내 배치계획도를 보면(<그림 226>), 보존건물인 (구)OCI 사옥(아트스쿨)을 매개로 인천시박과 미술관이 연결되어 있음. 이를 통해 '통합의 뮤지엄'을 나타내려 의도하고 있음



〈그림 226〉 인천뮤지엄파크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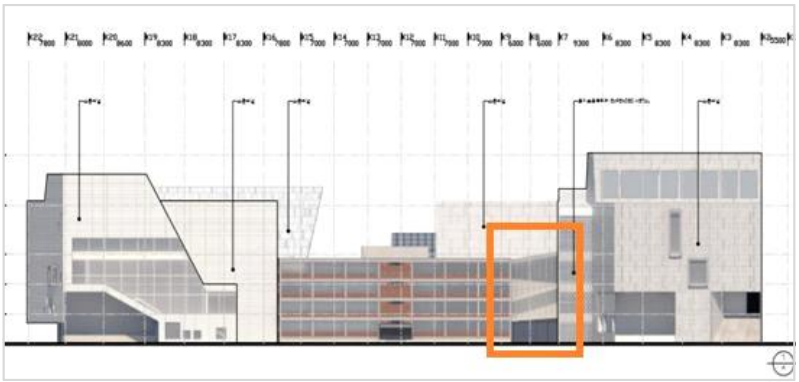
(2) 활용(안)

○ 지하 1층은 전기/기계시설로 사용

○ 지상 1층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주출입구로 사용하고, 로비, 안내데스크 및 문화상품점 배치. 이와같이 산업화를 상징하는 (구)OCI 사옥에 주출입구를 둠으로써, '문화의 시대'와 '통합의 뮤지엄'이라는 개념을 체감할 수 있게 함

○ 2층의 경우,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표 96>의 1-2안). 높은 층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계획했기 때문에, (구)OCI 사옥과 박물관의 층고가 맞지 않음(<그림 227>). 이에 1층과 2층을 한 개 층으로 터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대로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그대로 둘 경우, 2층에 OCI 기념전시관과 카페를 둘 수 있음. 단 2층 이상은 급경사이기에 박물관과 연결통로로 잇지 않고 분리. 박물관 사무공간이 있는 층만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그림 227〉 인천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입면도

○ 3층과 4층의 경우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무공간으로 하되, 한 층을 한 기관이 다 사용. 이를 통해 갈등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간활용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구분	층	1안	2안	3안
지상	4	박물관 사무시설	미술관 사무시설	박물관/미술관 사무시설
	3	미술관 사무시설	박물관 사무시설	미술관/박물관 사무시설
	2	층고를 맞추기 위해 없앰	(구)OCI 전시관 및 카페	수장고
	1	박물관 및 미술관 로비, 안내데스크, 문화상품점	박물관 및 미술관 로비, 안내데스크, 문화상품점	
지하	1	전기/기계 시설	전기/기계 시설	전기/기계 시설

〈표 96〉 (구)OCI 사옥 활용계획(안)

○ (구)OCI 사옥 활용의 3안으로 건물 일부를 수장고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부족한 수장고 공간을 확보하고, 개방형 수장고로 활용도 가능

2) (구)극동방송 사옥 및 선교사 사택 활용계획(안)

(1) 개요

○ 총 연면적은 1,804m^{2}으로, 극동방송 사옥 한 채와 선교사 사택 일곱 채로 구성(<그림 228>)



〈그림 228〉 극동방송 사옥과 선교사 사택(신상윤 2016:9)



〈그림 229〉 극동방송 사옥과 선교사 사택(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미국 복음주의동맹선교회(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소속의 선교사인 톰 왓슨과 한국인 유학생 강태국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한국복음주의방송국(극동방송의 전신) 개국 준비 시작(신상윤 2016:9; 윤용상 2011)

○ 1954년 7월 27일 체신부로부터 무선국 설치 허가를 받아 김포공항과 부천 사이의 여월리에 전파송신설비를 설치하고 시험방송을 하지만,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에 전파장애를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염분이 있는 바다에 안테나가 있으면 강력한 전파를 송출할 수 있다는 지식과 당시 미국에서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이 꽤 유명해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미국에서 모금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한 왓슨은 인천에서 대상지를 물색함. 당시 바다에 면해 있었던 인천 학익동의 지역사회가 갯벌에 안테나를 세울 수 있도록 학익동 간석지 일부를 무료로 제공. 이에 133m 높이의 안테나가 갯벌에 세워짐(<그림 229>)

○ 미국의 벽돌건물 양식을 적용해 지은 사옥과 사택은 붉은 벽돌 외벽과 끝이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이블(gable) 지붕형태의 건물(<그림 230-231>)

○ 가족단위 건물인 선교사 사택 중 여섯 채는 2층에 세모난 다락방을 갖추고 있으며, 한 채는 지하1층이 있음. 내부는 미닫이 형태의 붙박이 가구들이 배치돼 있음(<그림 232-233>).



〈그림 230〉 극동방송 사옥
(인사이트 인천)



〈그림 231〉 선교사 사택
(인천영상위원회)



〈그림 232〉 선교사 사택 내부
(극동방송)



〈그림 233〉 선교사 사택 내부
(인천영상위원회)

○ 1956년 12월 23일 오후 5시 한국복음주의방송국 사옥에서 호출부호 HLKX, 주파수 1천230㎑의 첫 방송 시작(<그림 234-235>). 한반도 인근의 공산권 국가들에 선교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처음에는 하루 5시간씩 한국어 · 영어 · 중국어로 방송, 연주소를 북성동으로 이전하고부터는 러시아어를 추가해 하루 16시간 씩 주간 총 101시간 방송함

○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국과 최초의 해외송출 방송이 인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음



〈그림 234〉 톰 왓슨과 선교사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그림 235〉 방송제작 모습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 활용(안)

① (구)극동방송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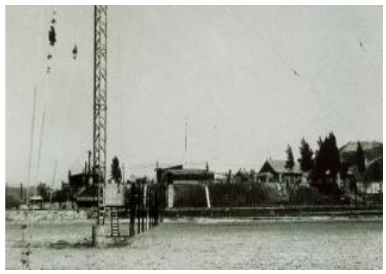
○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국이자 최초의 해외송출 방송이 인천에서 시

작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큰 (구)극동방송 사옥은 '톰 왓슨 박물관'으로 활용

○ 민간방송국으로서 설립과정, 건축양식과 국내 건축계에 미친 영향, 기독교 선교 및 성과 등을 전시주제로 다룰 수 있음

○ 사건 중심이나 선교사의 관점에서만 다루기보다는 인천시민의 관점이나 사옥과 사택을 짓는 데 동원된 사람들의 관점, 각국의 방송청취자의 반응 등을 같이 조명하여 균형 잡힌 역사의식 고취

- 각 전시소재에 대한 복층구조의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구사(예: 안테나, <그림 236>)



〈그림 236〉 한국복음주의방송국
안테나(한국학중앙연구원)

> 전쟁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한국의 겨울은 유난히 춥다. 얼어붙은 개펄을 헤치면서 안테나 공사를 하다 보니 피부는 늘 갈라 터지고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 드디어 내일 첫 방송이 송출된다.
>
> 1956년 12월 22일 윈첼 선교사의 일기 중

> 까마득히 높은 철탑위에 은괴가 있을 거라고 했다. 누군가 그 은덩어리를 노리고 철탑을 기어오르다가 감전됐다느니, 중간에 경비원에 잡혔다느니 소문이 무성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 하늘을 찌를 듯 바다 위에 우뚝 선 철탑 꼭대기에 있다던 은덩어리는 보리밥에 방귀만 '뽕뽕' 대던 아이들에게 쌀밥을 꿈꾸게 했고, 밀린 공과금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음속 한 편에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못 오를 철탑 위 은덩어리를 대신해 썰물 때 갯벌에서 드러난, 철탑으로 이어진 동선(銅線)을 잘라다 엿과 바꾸어 먹곤 했다.
>
> 김윤식 시인의 회상(김주희 재인용)

② 선교사 사택

○ 1채는 톰 왓슨, 윈첼, 래리 런스포드(Lary Luncheford) 등 당시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교활동과 연결되는 개개인의 재능, 기독교인이 된 이유, 그들의 만남, 한국행, 인천생활, 초기 극동방송 사역 에피소드 등을 주제로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

○ 자료가 충분하다면, 1채는 선교사 중 1인을 선정해 당시 선교사의 생활상을 복원한 박물관으로 활용(<그림 237>)



〈그림 237〉 일본 나가사키 오란다자카

○ 1채는 인천시박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로 활용

○ 4채는 식음료장 및 문화상품점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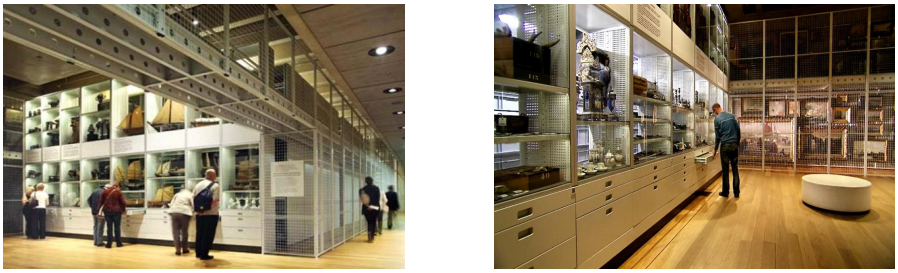
- 식음료장은 인테리어 · 맛 · 위생 · 서비스 부문의 질관리를 통해 맛집으로 집객효과 높임
- 레스토랑의 경우, 당시 선교사가 조리했던 음식이나 선교사 집안에 내려오는 요리비법 중 메뉴를 선정해 상품으로 개발. 아니면 복고풍 감성을 자아내는 경양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 다른 레스토랑은 인천의 맛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활용. 최근 국내 유명 백화점 식품관이 전개하고 있는 '지역에서 명성 높은 노포 입점' 마케팅과 인천공항 '지역특색 맛집' 마케팅을 사례로 참조
- 1950년대 6 · 25전쟁 직후 다방이 단순히 차를 마시고 쉬는 장소만이 아닌 문화적인 기능도 함. 이에 당시의 분위기 재현 및 특화된 메뉴를 제공하는 다방 운영

시설	채	내용
극동방송 사옥	1	톰 왓슨 박물관
선교사 사택	1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으로, 사역 에피소드, 한국생활 등을 주제로 전시
	1	선교사 중 1인을 선정해 당시 생활상 재현
	1	인천시립박물관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
	1	문화상품점
	1	1950년대 다방
	1	인천시립박물관 레스토랑(양식)
	1	인천시립박물관 레스토랑(인천의 맛)

〈표 97〉 극동방송 사옥 및 선교사 사택 활용계획(안)

2. 이전 후 현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활용계획

1) 인천시립박물관 수장고로 활용하는 안



〈그림 238〉 벨기에 안드스트룸박물관(Museum aan de Stroom)의 개방형 수장고(© Filip Dujardin, Bruynzeel Storage Systems Group)

- 2013년 송도국제도시 내 센트럴파크로 박물관을 신축이전하는 안과 함께, 현 박물관 건물을 수장고로 활용하는 안이 제시됨(남창섭 2013)
- 소장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 전시시설 중 일부를 개방형 수장고로 운영(<그림 238>)
- 이와 더불어 2026년에 80주년이 되는 인천시박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 · 소장품 · 박물관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보관실(archive) 기능을 추가하여, 소장품관리 · 기록물관리 · 보존처리 분야의 특화시설로 운영
- <표 98>과 같은 시설활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시설	내용
수장고	
개방형 수장고	현 전시시설 중 일부를 개방형 수장고 형태로 운영
기록보관실(archive)	박물관의 역사 기록 기능. 업무 관련 문서, 전시도면, 도록, 박물관 건축도면, 사진, 영상물, 구술자료 등 수집 및 보관
보존처리시설	수장고 및 기록보관실 자료 보존처리, 인천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지원
학습실(study room)	소장품이나 기록보관실 자료 열람 및 촬영/복사.
전시실	보존처리 관련 전시
교육시설	소장품관리, 기록물관리, 보존처리 관련 (유료 실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표 98〉 인천시립박물관 활용계획(안): 수장고 및 기록보관실

2) 인천광역시 시사기록원으로 활용하는 안



〈그림 239〉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광역시청)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을(<그림 239>) 현 인천시박 건물로 이전한 후, '인천광역시 시사기록원'으로 조성하는 안(인천광역시 2018:216-7)

- 2018년 인천시가 발표한 시정운영계획 중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임. 그 첫 번째 핵심과제는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으로(양순열 2018), 해당 구역의 주요 시설 중 하나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건물임. 이에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의 이전 문제가 제기됨

○ 이전 후 <표 99>와 같은 시설활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시설	내용
기록보관실(archive)	인천 관련 문헌자료, 구술자료, 사진, 영상물 등 보관
열람실	소장자료 열람 및 복사
교육실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한 강좌, 학술회의 등 개최
전시실	※ 인천시박과 연계

〈표 99〉 인천시립박물관 활용계획(안): 인천광역시 시사기록원

3)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별관으로 활용하는 안

○ 인근에 위치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기념관의 별관으로 활용하는 안(인천광역시 2018:216)

시설	내용
전시실	
영상관	한국전쟁 혹은 전쟁 관련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시 상영
역사가상체험관	실감콘텐츠(AR, VR)를 활용하여 한국전쟁 당시와 인천상륙작전을 가상체험하는 공간
도서관	전쟁사 관련 도서관

〈표 100〉 인천시립박물관 활용계획(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별관

제5장

단계별 운영방안

제1절 신축이전사업 추진계획

1. 단계별 신축이전 추진일정(안)



<그림 240> 인천시립박물관 신축이전사업 소요기간

○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시박의 신축이전 추진(안)은 완공까지 총 66개월이 남음(<그림 240>)

○ 인천시박 신축이전사업은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기획 및 추진되어야 함

○ 인천시박 신축이전사업은 옥련동 신축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성격/규모의 타 공립박물관 건립/이전사업 추진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각 단계 및 분야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유기적 일정관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

1) 1단계: 계획

(1) 신축이전사업 추진준비단 구성 및 운영

○ 인천시박 내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전담기구인 '인천시립박물관 신축이전사업 추진준비단' 구성

○ 주요 업무는 신축사업을 위한 설계자 선정, 신축이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확정, 본설계 심의 · 감독 수행, 공사입찰 준비, 신축공사 기구로 전환준비 등임

○ 신축이전에 관한 심의 · 자문은 인천시박의 운영위원회를 활용하되, 현재의 운영위원회에서 전시전문가 또는 박물관 건립 실무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 필요

- 인천시박 운영위원회는 현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확대 개편 시 운영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훈령과 예규를 제정할 수 있음

(2) 신축이전사업 기본계획

○ 신축이전사업 기본계획은 <인천 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2018)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2020)를 포함한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신축이전사업을 위한 기본 골격 마련. 이 단계에서 결정한 내용은 다음 단계들을 위한 기본자료가 됨

○ 기본계획에는 박물관 신축이전의 목적과 비전, 커뮤니케이션 전략, '1단계: 계획'부터 '5단계: 재개관 준비'까지의 단계별 세부운영방안, 위험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신축이전사업 추진단 발족 및 운영

○ 신축이전사업 추진단은 박물관 건물 신축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지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여 공사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공사와 관련된 행정업무처리 및 지원업무 등 수행

○ 추진단은 기획팀(신축이전에 따른 기획, 서무, 예산 홍보 등), 전시팀(전시자료 수집업무 포함), 소장품 이전팀, 개관준비팀 등 분야별로 운영

- 신축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므로 건축팀은 필요치 않으나, 공사관련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건축직은 필요함

2) 2단계: 설계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이 단계는 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공모와 건축가 선정 이후 기본설계 단계 및 실시설계 단계로 구분됨

○ 박물관 건물 시공과 전시시공은 별도의 전문조직에 의해 관리되어 내용상 충실도를 높여야 하지만, 사업진행의 모든 일정에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좋은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사명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두 사업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

3) 3단계: 공사

(1) 신축사업 전개

○ 신축사업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공사, 전시공사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됨

(2) 전시사업 전개

○ 전시사업은 전시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통해 전시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수집함. 자료수집의 1차 목표는 개관전을 위한 전시자료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수집은 인천시박의 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전시자료의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전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전시 실시설계 이후 전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박물관통합디자인(MI) 작업이 필요함

○ 전시공사는 자료의 수집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실물 · 복제 · 재현 · 영상 등 적절한 기법으로 진행되어야 함

4) 4단계: 이전

(1) 소장품 이전

○ 박물관 신축이전사업 기본계획 중 소장품 이전계획에 따라 시행

○ 학예연구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전팀이 소장품 포장 · 운송 · 해포를 담당하되, 이전팀장은 모든 소장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소장품 운송을 담당할 전문운송업체 선정

○ 소장품 이전 업무 담당자는 운송 대상 소장품을 사진과 함께 각 소장품의 크기 · 재질 · 중량 · 상태 등을 기록한 목록을 시행업체에 전달하여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소장품 도난/망실/파손 위험 최소화에 주의

○ 소장품별 포장방법, 운송방법, 포장과 운송 시 주의사항, 해포 장소, 인수자의 확인 등 소장품 이전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장품 이전 업무 담당자와 시행업체 책임자가 사전 숙지하도록 함

○ 이전 대상품 운송 중 예상되는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보험 가입 필요

5) 5단계: 재개관 준비

- ○ 이 단계는 박물관 건물 및 전시실의 기본적인 공사가 마무리된 후 개관을 준비하는 단계임
- ○ 2025년 12월 재개관을 목표로 전시물 설치, 운영프로그램 시험운영을 거침으로써, 개관 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시험운영 기간 동안 개관홍보와 개관행사 준비작업에 착수함.

2. 전체 일정표

사업내용			수행기간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단계	기본계획														기존연구[11] · 본연구[12] · 후속연구
	신축이전사업 추진준비단 구성														
	신축이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 확대 개편
	세부운영계획 수립														
	전시스토리 기본설계확정														전시시공 설계를 위한 사전계획
	전시물 조사, 수집,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함
2단계	건축/전시 실시설계														
	설계지침 확정														필요공간 계획
3단계	시공	건축/전시													
		구조													
		설비/전기													
		기타													
	시운전														
	인허가	심의/허가													
		착공													착공시점 감리시작
		준공/사용검사													
	하자보수														
4단계	소장품 이전														
5단계	재개관 준비														2025년 12월 개관

〈표 101〉 인천시립박물관 신축이전사업 추진 일정표

※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1) <인천 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2018)
1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2020)

제2절 준공 이후 콘텐츠 운영계획

분야	기간	내용
조사연구	단기	• 단기 및 중장기 조사연구계획 수립 • 예산 및 인력 확보 • 인천 관련 연구범위 및 주제적 접근의 다각화 • 조사연구 성과 공유체계 다양화(학술회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전시 및 교육 연계) • 전반적인 박물관업무에 대한 진단제도 개발 및 적용 • 국내 전문인력, 산/관/학 등과 공동조사 및 연구를 위한 협력망 강화
	장기	• 조사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및 체계 구축 • 해외 인천 관련 자료 발굴 • 박물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강화 • 1년 1회 학술회의 개최 • 오프라인 아카이브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해외 전문인력, 산/관/학 등과 공동조사 및 연구를 위한 교류체계 구축
소장품관리	단기	• 단기 및 중장기 소장품 수집 · 관리 · 보존처리 계획 수립 • 예산 및 인력 확보 • 신축이전에 따른 전시품 수집 • 수집방법 다각화 및 인천 내 잠재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 소장품 및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과학적 보존처리 기능 강화
	장기	• 소장품 및 관련 자료 종합관리 및 공개체계 구축 • 구조적으로 과학적인 보존체계 구축 및 보존환경 조성 • 소장품관리업무와 보존처리업무를 별도의 부서로 분리 • 인천 소재 타박물관 소장품의 관리, 훈증처리 및 보존처리 지원 • 통합수장고 확보 • 국내외 인천 관련 물질문화의 현황 파악
전시	단기	• 예산 및 인력 확보 • 지역밀착형 전시 콘텐츠 개발 • 상설전시 내용 부분적 교체 • 신축이전 후 개관을 위한 상설전 및 특별전 준비 • 주제적 적합성을 위한 전시기법 및 연출방안 연구 • 인천 내 박물관과 연계강화(매년 1회 인천 내 모든 박물관과 공동 전시 개최)
	장기	• 전시에서 인천시박만의 특징 창출 • 상설전시 영역의 단계적 외연 확장 • 온라인 전시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다각화 • 국내 타지역 박물관과의 교류 및 순회전시 활성화 • 국제교류전 기획력 강화 및 활성화 • 해외 유사 박물관의 기획전시 유치

분야	기간	내용
교육	단기	•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및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 예산 및 인력 확보 • 지역밀착형 교육콘텐츠 개발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 • 신축이전 후 상설전 관람 지원프로그램 개발(전시설명문, 활동지, 오디오가이드 등)
	장기	• 디지털 원격 교육시스템 도입,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노출 극대화 • 도서관 운영 활성화 • 어린이박물관 운영 • 박물관교육자료센터 운영 • 유료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및 제작 • 교육업무와 홍보업무를 별도의 부서로 분리
홍보마케팅	단기	• 예산 및 인력 확보 • 내외국인 관람객 및 인천 거주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잠재 관람객 유형 세분화 및 맞춤형 홍보마케팅전략(단기 및 중장기) 수립 • 내외국인 유치방안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의(한국어 및 외국어) 활용도 제고 • 홈페이지의 외국어 사이트 링크 재조정 및 영어/일어/중국어 페이지 제작 • '인천시립박물관'이라는 브랜드 구축 및 자산화
	장기	• 기증/기부/후원 활성화 방안 연구 • 유료 회원제 도입 • 한국인용 및 외국인용 박물관 소식지 간행. 이를 인천공항 및 여객기 내 비치 •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망 구축 • 카페 및 레스토랑 운영 • 국내외 교류 및 지원사업 다각화 • 홍보업무와 교육업무를 별도의 부서로 분리
경영	단기	• 예산 및 인력(외국어 원어민 수준 구사자 등) 확보 • 자율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 및 직제 구현 • 다양한 전문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협력망 구축 •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소통체계의 현대화
	장기	• 단계별 예산 및 조직규모 확대 •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 기부/후원/협찬 대상으로서 인천시박의 가치 발굴,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 국제 경쟁력 강화

부록

【부록 1】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

2. 과업 목적 : 인천시립박물관의 뮤지엄파크 이전 건립을 위한 전시방향 및 콘텐츠 개발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개요

가. 위 치
- 대지위치 : 용현 ·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화공원(기부채납)부지 내
- 대지면적 : 53,092㎡ (16,060) ※사화 주DCRE 기부채납 협약(2016.11.23)

나. 사업내용 : 뮤지엄(미술관, 박물관), 문화산업시설 등 복합문화단지 조성

구 분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예술공원 (문화부지)	문화산업시설	
				콘텐츠클라자	콘텐츠밸리지
연 면 적	14,982㎡	14,625㎡	1,802㎡	38,000㎡	14,000㎡
층 수	지하1/지상4	지하1/지상4	지상1(8개동)	지하4/지상7	지하3/지상7
주요시설	전시실 수장고 등	전시실 수장고 등	갤러리 회랑 등	문화시설 극장 등	문화 콘텐츠 생산기업 입주 등
사업비	1,148억원(시비)	200억원(국비) 659억원(시비)	25억원(시비)	852억원(민간)	431억원(민간)

*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4억 미포함
* 건물연면적 : 지하주차장 부지 제외 - 미술관(5,460㎡), 박물관(5,314㎡)

다. 사업기간 : 2017년 ~ 2025년(9년)

라. 총사업비 : 3,315억(국비 200억, 시비 1,832억, 민간 1,283억)

배 치 도	조 감 도
	

Ⅱ 과업의 기본방향

1. 인천뮤지엄파크에 조성될 시립박물관의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건립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시립박물관의 콘텐츠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개발한다.
3. 인천시립박물관의 특색 있고 체계적인 전시콘텐츠를 발굴하여 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4. 전시 기본구상, 운영 조직, 인력, 전시디자인, 홍보, 소장품 수집 방안, 교육프로그램 등의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시립박물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5. 건립과 관련된 법규 및 절차 등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박물관 건립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한다.
6. 용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박물관학, 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역사학 등 박물관 관련 학과(전공 포함)의 전임교원이나 박물관 소속의 전임연구원이 주축이 되는 연구진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Ⅲ 과업의 내용

1. 과업 내용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최종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공익성과 공공성을 중시한 효율적 운영 기본 계획
- 시립박물관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조사 · 분석
-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분담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운영조직, 인력 등) 시스템의 합리적인 경영 방안 도출
-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한 운영비용 추정
- 박물관 운영활성화 방안 제시 및 이용객(외국인) 유치방안

○ 박물관 공간 활용에 대한 기본 구상
- 전시공간별 전시방향 및 공간활용과 동선계획 수립
- 전시연출 방법, 전시디자인 등 제안
- 선교사 사택지, 극동방송 사옥, OCI 건물 등에 대한 공간 활용 계획

○ 전시 방향 및 콘텐츠 디자인 계획
- 국내 · 외 사례분석을 통한 전시 방향 도출
- 전시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전시대상(유물) 제안
- 전시구성 및 시나리오 제안
- 지역의 특색이 녹아있는 전시 콘텐츠 설계

○ 소장품 확보 및 보존환경 조성 방안
- 체계적 컬렉션 형성을 위한 소장품 수집 및 재원확보 방안
- 안전하고 양호한 소장품 보존 및 관리 기본구상
- 수장고 및 보존 처리실 등 유물관리 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 보존과학 기능의 확대와 시설 확충 방안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 계획
-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구상
- 대내외적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기본 구상
- 정보 인프라의 성장에 따른 디지털뮤지엄, SNS 등 구축 방안

○ 조사 및 연구 기본 계획
- 실용성이 높은 중장기적 조사 · 연구 계획 수립
- 학술교류 활성화 및 조사 · 연구 성과의 공유 방안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 준공 이후의 콘텐츠 운영방안 마련
- 시립미술관과 연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전략 수립
- 연차별 수행계획 및 중장기발전 계획

○ 사전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및 지원
-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콘텐츠 자료 지원
- 각종 위원회 및 용역 관련 보고의 업무 지원

○ 박물관의 확대.이전에 따른 기존 콘텐츠 활용방안
- 현재 시립박물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 지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전시 콘텐츠 확보 및 박물관 운영방안 수립

2. 보고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총 3회 보고를 기본으로 한다.

가. 착수 보고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나. 중간보고회 (공정률 50% 달성 시점 - 협의 후 조정 가능)

다. 최종보고회 (과업종료 14일전)

【부록 2】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조사

조사명	조사기간	조사내용	비고
경주 고적 조사	1947. 5-6.	경주지역 고적 조사	
인천 고적 조사	1949. 5-10.	인천 전역 7개 지역 고적 조사	
주안동 고인돌 발굴	1957. 11. 30.	주안동 사미 고인돌 발굴 조사	발굴
영종도 운남동 고인돌 발굴	1963. 1. 15.	영종도 운남동 고인돌 발굴 조사	발굴
인천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1965. 12-1966. 5.	녹청자 도요지 발굴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조사)	발굴
영종 · 용유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1992-1993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이라는 변화 이전의 영종 · 용유지역의 역사 및 생활상에 대한 조사. 1994년 〈영종 · 용유지역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발간	
영종 송산 유적	1995. 11-1996. 1.	신석기유적 발굴 (서울시립대박물관과 공동조사)	발굴
인천 금석문 현황 조사	1999-2001	강화, 옹진, 인천 내륙 지역 금석문 현황 조사	
덕적군도 종합학술조사	2001. 10-12.	덕적군도의 문화유적, 역사, 민속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자료 조사. 2002년 〈덕적군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2002. 7-12.	서해 5도의 문화유적, 역사, 민속문화의 현황파악 조사. 2003년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인천 (구)영종진지 지표조사	2002. 11-2003. 1.	인천 영종진지의 문화유적의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2003년 〈인천 (구)영종진지 지표조사보고서〉 발간	
강화 고려고분 지표조사	2003. 3.-12.	강화도 내 고려시대 고분군의 현황조사 및 보존을 위한 지표조사. 2003년 〈강화의 고려고분 지표조사보고서〉 발간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2003. 3-12.	인천 남부지역의 자연부락, 근대건축물, 역사유적 및 생활상에 대한 종합적 학술 조사. 2003년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인천 북부 종합학술조사	2003. 3-12.	인천 북부지역의 문화유적, 근대건축물, 생활상에 대한 종합적 학술 조사. 2004년 〈인천 북부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	
강화 창후리 고분 시굴 조사	2004. 2-3.	강화 창후리 고려 고분 유적 시굴 조사	발굴
강화 군내 도로 부지 발굴 조사	2004. 6-8.	강화 선두리 도로 확장 부지 발굴 조사	발굴

조사명	조사기간	조사내용	비고
강화 교동 무학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4. 9-10.	강화도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2004년 〈강화 교동 무학3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발간	
강화 군내도로 확 · 포장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2004. 9-10.	강화군내도로 확 · 포장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2006년 〈강화 군내도로 확포장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강화 교동 대룡리 유적 시굴조사 및 지표조사	2004. 11.	강화 교동지역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학술조사. 2004년 〈교동 대룡리 유적 시굴조사 및 지표조사보고서〉 발간	발굴
강화 정밀지표조사 II (삼산 · 서도면)	2005. 3-12.	강화도 삼산 · 서도면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한 유적현황 파악. 2005년 〈강화정밀지표조사보고서 - 삼산 · 서도면〉 발간	
강화 창후리 고분 발굴 조사	2005. 4-9.	강화 창후리 고려 고분군 발굴 조사	발굴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II (영흥 · 자월 · 북도면)	2005. 4-12.	서해도 영흥 · 자월 · 북도면의 문화유적 및 민속 조사. 2005년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II - 영흥 · 자월 · 북도면〉 발간	
교동향교 소장자료 조사보고	2005. 4-12.	교동향교 소장 고문서 및 전적류의 정서 · 번역 및 조선후기 교동지역사와의 관련성 조사. 2007년 〈교동향교 소장자료 조사보고서〉 발간	
강화 교동 무학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5. 9.-11.	과거 강화도의 해안가 지형을 중점으로 매장문화재 및 민속자료 수집조사. 2005년 〈강화 교동 무학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2006 문학산일대 고려시대 유적조사	2006. 2-12.	문학산 일대의 고려시대 문화유적에 대한 확인 및 잔존유적의 양상 파악을 위한 조사. 2006년 〈2006 문학산일대 고려시대 유적조사 보고서〉 발간	
강화정밀지표조사 (화도면)	2006. 3-12.	강화군 화도면 일대 매장문화재, 유물 산포지에 대한 조사. 2006년 〈강화 정밀지표조사보고서 - 화도면〉 발간	
강화 교동 2-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7. 1. 31-3. 1.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일대의 매장문화재 확인 및 경지정리 이후 농경 · 생활문화 변화에 대한 조사. 2007년 〈강화 교동 2-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조사명	조사기간	조사내용	비고
강화의 마장 지표조사	2007. 2-5.	강화도에 설치되었던 목장의 위치, 현황 파악 및 목장의 연혁, 마장 경영의 배경정리에 대한 조사. 2007년 〈강화의 마장 - 지표조사보고서〉 발간	
강화산성 지표조사	2007. 7-10.	강화산성 전구간의 성곽현황조사를 중심으로 문헌관련조사 및 주요구간 실측조사. 2007년 〈강화산성 - 지표조사보고서〉 발간	
강화 창후리 청소년 유스호텔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2004. 2-3. 2005. 4-9.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43번지 부지의 2004년 문화유적 시굴조사, 2005년 문화유적 발굴조사 총 2건의 조사보고와 이후 시행된 시굴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2008년 〈강화 창후리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강화의 절터 지표조사	2008. 8-12.	강화도의 절터를 중심으로 불교유적의 현황을 정리하여 강화지역 불교문화 연구의 기본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 2009년 〈강화의 절터 -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강화 교동 대룡리 유적	2007. 11- 2008. 6.	강화 교동 2-1지구 경지정리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2010년 〈강화 교동 대룡리유적 조사보고서〉 발간	발굴
강화 고려시대 유적 조사	2009. 2-12.	강화 고려시대 유적현황 조사	
인천 연안 어로 민속 학술조사	2010. 2-12.		
인천 근 · 현대 도시유적	2012. 2-12.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조사. 2012년 학술조사보고서 〈인천근현대 도시유적〉 발간	
인천 중앙시장	2013. 2-12.	철거예정인 동구 중앙시장의 탄생과 발전, 현재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조사. 2014년 학술조사보고서 〈인천 중앙시장〉 발간	
관영주택과 사택	2014. 1-12.	일제강점기 인천에 건설된 관영주택과 사택 조사. 2014년 학술조사보고서 〈관영주택과 사택〉 발간	
인천의 동제	2015. 1-12.	마을 제사인 '동제'의 현황 및 변화양상에 대한 조사. 2015년 학술조사보고서 〈인천의 동제〉 발간	
인천의 종가 학술조사	2015. 1-12.	인천, 강화 지역 문중 현황 조사	
인천항 구술조사	2015. 7- 2016. 12.	인천항을 일터로 삼은 사람들이 바라본 인천항의 역사, 변화, 정체성에 대한 조사. 2016년 학술조사보고서 〈인천항 사람들〉 발간	

조사명	조사기간	조사내용	비고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2017. 2-6.	문학산성의 조사 및 복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정밀 지표 조사. 2017년 〈문학산성 정밀 지표 조사 보고서〉 발간	
인천 외국인 묘지	2017. 7-12.	19세기 말 부평으로 이전한 외국인 묘지를 대상으로 현황과 피장자의 정보, 묘지의 변천과정에 대한 조사. 2017년 학술조사보고서 〈인천 외국인 묘지〉 발간	
건평돈대 발굴 조사	2017. 3-4.	1679년에 쌓은 돈대 가운데 하나인 건평돈대의 구조 파악을 위한 전면 발굴 조사. 2017년 〈건평돈대 발굴 조사 보고서〉 발간	발굴
주안공단	2018. 3-2019. 4.	공단의 조성의 산업적 의미, 공단 조성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정리하기 위한 조사. 2019년 학술조사보고서 〈주안공단〉 발간	

참고문헌

강덕우 (2020) <제물포구락부의 변신>, <<기호일보>>, 3월 4일, 11면.

강종구 (2014) <‘별그대’ 소품 비녀가 유물? 인천박물관 전시 논란>, <<연합뉴스>>, 8월 11일, www.yna.co.kr/view/AKR20140811111000065.

곽우석 (2018)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 첫발… 2022년 윤곽>, <<세종의 소리>>, 10월 24일, 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2.

곽우석 (2019) <국립박물관단지 개관 ‘슬그머니’ 2027년으로 연기>, <<세종의 소리>>, 4월 10일, 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87.

광둥성박물관(广东省博物馆) (2016) <Guangdong Museum Introduction>, 8월 4일, www.gdmuseum.com/engdmu/overview/introduction/index.html.

국립공주박물관 (2016)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 연구>, 연구보고서: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2017)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세상이 펼쳐진다!’: 2017년 국립민속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전시버스 새단장>, 보도자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족학박물관(国立民族学博物館) (2002) <<2002年ソウルスタイル>>, 大阪: 国立民族学博物館.

국립중앙박물관 (2019ㄱ) <국립박물관 연보>, 연보: 국립중앙박물관.

———— (2019ㄴ)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 내부문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2019) <2018 미술관 연보>, 연보: 국립현대미술관.

권전오 · 조혜정 · 민건영 (2013) <청량산 둘레길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김명균 (2014) <러시아 ‘바리야크함 깃발’ 인천에 반환>, <<연합뉴스>>, 11월 9일, www.yna.co.kr/view/AKR20141109023300065?input=1195m.

김민정 (2014) <‘별그대’ 소품 비녀, 박물관 전시 논란 “유물도 아닌데 왜?”>, <<이데일리>>, 8월 12일, 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5526606186664&mediaCodeNo=257&OutLnkChk=Y.

김영천 외 (2013) <2012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

김은희 (2020) <[문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 황해] 31. 이방인, 1908년 인천 제물포항을 만나다>, <<인천일보>>, 5월 20일,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609.

김윤경 (2016) <구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린이병원학교 친구들과 ‘신나는 문화재 탐험’을 시작합니다.>, <<구글 한국 블로그>>, korea.googleblog.com/2016/08/CI-and-NMK-meet-snuhschool.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blogspot/vCGH+(Official+G

oogle+Blog+-+Korea.
김주희 (미상) <전파에 실은 우리의 이야기, 극동 방송과 경인 방송>,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김현아 · 서정렬 (2008) <<도시는 브랜드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남창섭 (2013) <인천시립박물관, 송도 센트럴파크로>, <<인천일보>>, 9월 11일,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658.
노스캐롤리나역사박물관(North Carolina Museum of History) (미상) <History-in-a-Box>, www.ncmuseumofhistory.org/learning/educators/history-in-a-box.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재단(Nordrhein-Westfalen-Stiftung) (미상) <Die kleinen dinge des täglichen lebens>, www.nrw-stiftung.de/projekte/projekt.php?pid=100.
동아일보 (1946) <인천에 박물관>, <<동아일보>>, 3월 31일.
데이비스, 스코트 (2004) <<브랜드 자산 경영>>, 제1판 제6쇄, 서울: 기획출판 거름.
리움 (2015) <디지털 가이드 사용안내 영상>, www.youtube.com/watch?v=yr1oY7Uo3eI.
문옥표 외 (2004)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연구보고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08)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1)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7ㄱ)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 타당성 평가 운영실태 조사 및 지침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7ㄴ) <공립박물관 수장고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9ㄱ)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 · 미술관: 박물관 ·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 (2019ㄴ)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20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5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7) <2016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8) <2017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9) <2018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상현 (2017) <"유물은 박물관의 본질… 화재 유품 · 인종차별 낙서도 수집해야">, <<연합뉴스>>, 8월 30일, www.yna.co.kr/view/AKR20170830174400005?input=1195m.

박인희 (2008) <"99%의 성공도 우리에겐 실패다": 미세한 균열 · 완벽함과의 싸움… 역사를 복원하는 '보존과학자'>, <<매일노동뉴스>>, 7월 20일,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72.

박재우 (2019) <부평미군기지 내 '일본 조병창' 보존하면서 오염 토양 정화>, <<KBS NEWS>>, 12월 19일, mn.kbs.co.kr/news/view.do?ncd=4346014.

박준석 (2018) <체육관 · 박물관… '생활 SOC'에 7조 투입>, <<한국일보>>, 8월 8일, 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81697326181.

박지현 (2020) <간송미술관 보물 불상 2점, 경매서 유찰>, <<파이낸셜뉴스>>, 5월 27일, www.fnnews.com/news/202005271917463112.

박창우 (2017) <문화 랜드마크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가시화>, <<경기신문>>, 8월 24일, 7면.

박현택 (2004) <박물관 상점(museum shop)의 이미지 전략과 마케팅 운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5(1), 611-625쪽.

배성수 (2008) <인천의 근대시설(7) - 제물포구락부 ->, <<기호일보>>, 2월 25일, 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670.

———— (2015) <해방 직후 혼란 속… 처음 박물관을 만든 문화도시>, <<기호일보>>, 3월 31일, 17면.

———— (2019) <주민의 삶을 담아 낼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학술대회 발표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배영수 (2016) <인천시립미술관 부지 용현 · 학익구역으로 결정>, <<인천in>>, 10월 18일, 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68.

부산광역시 (2015) <부산박물관 보존관리동(수장고) 준공식(3. 25.) 개최 - 박물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안택굿' 공연 ->, 3월 23일, www.gov.kr/portal/locgovNews/440621.

———— (2020) <2020년 6월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박물관 (2019) <부산박물관 연보>, 제41호, 연보: 부산박물관.

브로델, 페르낭 (1995ㄱ)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주경철 옮김, 서울: 까치.

———— (1995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2>>, 주경철 옮김, 서울: 까치.

브륄 박물관섬(Brühler Museumsinsel) (미상) <Museum für Alltagsgeschichte>, www.bruehler-museumsinsel.de/museum_alltagsgeschichte.html.

비앙키니, 리카르도(Bianchini, Riccardo) (2020) <MAS – Museum of the City, Antwerp>, <<Inexhibit>>, 6월 15일, www.inexhibit.com/mymuseum/mas-museum-of-the-city-antwerp/.

서울역사박물관 (2018) <서울-예테보리 국제교류전: 아이 캔 두 잇! Children's Visit to a Swedish Museum: I Can Do It!>, <<아트바바>>, www.artbava.com/exhibit/%EC%84%9C%EC%9A%B8-%EC%98%88%ED%85%8C%EB%B3%B4%EB%A6%AC-%EA%B5%AD%EC%A0%9C%EA%B5%90%EB%A5%98%EC%A0%84-%EC%95%84%EC%9D%B4-%EC%BA%94-%EB%91%90%EC%9E%87-childrens-visit-swedish-museum-i-can-do-it/.

———— (2019) <주요업무보고>, 내부문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2019) <2019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내부문서: 서울특별시.

———— (2020) <2020년 1/4분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내부문서: 서울특별시의회.

석종수 (2011) <인천시립박물관 접근체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손영옥 (2020) <3개 숙원 사업 착수… 국립중앙박물관 신났다>, <<국민일보>>, 2월 12일,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2372&code=13160000&cp=nv.

송도타임즈 (2015) <인천 송도가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 유치의 최적지인 이유>, <<송도타임즈>>, 6월 3일,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gdo_times&logNo=22037856365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스윗 (2014) <청량산에서 봄을 만끽하다/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인천시립 박물관>, 4월 20일, 블로그: blog.naver.com/bbbsj1/50193190627.

신상윤 (2016) <[인천 고택기행 · 6] 극동방송 옛 사옥 · 사택>, <<경인일보>>, 2월 11일, 제9면.

신세영 (2012) <17세 가야소녀는 왜 순장당했나…>, <<뉴스메이커>>, 7월 8일, 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96.

아이-뷰(I-View) (2018) <자료로 '인천 근현대'를 본다>, <<I-View>>, 8월 13일, enews.incheon.go.kr/usr/com/prm/BBS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392&nttId=4934&menuNo=2001&upperMenuId=2.

아이엔씨 뉴스(INC News) (2020) <Change at the British Museum: Philip Attwood retires after 41 years>, <<INC News>>, 2월 27일, incnews.org/2020/02/27/philip-attwood-retires/.

아치데일리(ArchDaily) (2011) <Guangdong Museum / Rocco Design Architects>, 4월 15일, www.archdaily.com/127122/guangdong-museum-rocco-design-architects.

양순열 (2018) <인천시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방안은>, <<인천뉴스>>, 10월 25일, 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98.

———— (2019) <인천시립박물관, "방공호는 일제의 침탈과 강제 노역의 증거">, <<인천뉴스>>, 8월 13일, 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11.

오광수 (2015) <부산박물관 수장고 '콩나물시루' 오명 벗는다>, <<국제신문>>, 3월 22일, 18면.

오르트랑 (2015) <일민미술관 레스토랑 왔어요:D>, 블로그: blog.naver.com/gemma3530/220496287035.

울산광역시통계 (2020) <인구>, 5월, www.ulsan.go.kr/stat/index.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UNESCO World Heritage Centre) (1992-2016) <Castles of Augustusburg and Falkenlust at Brühl>, whc.unesco.org/en/list/288/.

유정식 (2020) <인천시립박물관-인천문화재단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경인뷰>>, 5월 12일, www.giview.co.kr/news/article.html?no=32541.

윤용상 (2011) <극동방송 사옥 등록문화재 등재 관심 커>, <<연합기독뉴스>>, 6월 1일, www.y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7.

윤일주 (1966) <<한국양식건축80년사>>, 서울: 치정문화사.

이기환 (2020) <스미소니언인가, 박물관섬인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는 어떤 모습일까>, <<경향신문>>, 2월 20일,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00942001.

이경성 (1998)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 초판 2쇄, 서울: 시공사.

이광석 (2015) <뮤지엄이 바라보는 디지털 기술: 관람객으로의 관점 전환>, <<브런치북>>, 11월 28일, brunch.co.kr/@quane/17.

이난영 (2006) <<박물관학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이상만 (2020) <예천박물관, 국보급 문화재 등 2000여점 기탁 받는다>, <<경북일보>>, 5월 21일, 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657.

이수용 (2020) <서울 역사 · 문화자원의 보물창고 '서울시 통합수장고' 본격 추진>, <<위클리 오늘>>, 3월 23일, 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204.

이미혜 (2017) <맛있는 미술관>, <<VOGUE>>, 4월 27일, www.vogue.co.kr/2017/04/27/%eb%a7%9b%ec%9e%88%eb%8a%94-%eb%af%b8%ec%88

%a0%ea%b4%80/.
이보람 (2020) <주객 전도된 인천 뮤지엄파크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투데이>>, 6월 22일, 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52.
이정규 (2020) <서울시, 미술품 · 유물 35만점 한 데 모아... 통합수장고 추진>, <<한겨레>>, 3월 23일, www.hani.co.kr/arti/area/capital/933743.html.
이주영 (2019) <인천시 문화유산 수장공간 확보 ... 검여 재발 막는다>, <<인천일보>>, 9월 18일,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319.
이현준 (2014) <기념관(인천상륙작전) 제자리찾기 '월미도 상륙작전'>, <<경인일보>>, 7월 18일, 제1면.
이희환 (2007) <향토사 연구의 필요성>, <<인천일보>>, 5월 18일,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773.
인사이트 인천 (미상) <극동방송 사옥 · 사택>, www.insightincheon.com/contents/view.php?sq=25&cat=2&page=1.
인천광역시 (2004) <<미군정기의 인천자료>>, 인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 (2015)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인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2018)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 (2019)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 (2020) <지명 변천>, www.incheon.go.kr/IC040303.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상) <교육통계현황>, www.ice.go.kr/sub/info.do?page=060501&m=050401&s=ice#.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미상) <특수교육 현황>, www.ice.go.kr/sub/info.do?page=0209&m=0209&s=iss.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98)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1946-1997>>,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비매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2010) <세 가지 시선, 러일전쟁>, 특별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2016ㄱ) <1946-2016: 인천시립박물관 70년>, 비매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2016ㄴ) <박물관 70년, 기억의 문을 열다>, 특별전 도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2017) <2016 연보>, 제28집, 연보: 인천광역시박물관.

———— (2018) <2017 연보>, 제29집, 연보: 인천광역시박물관.
———— (2019) <2018 연보>, 제30집, 연보: 인천광역시박물관.
———— (2020) <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 과업지시서>, 내부문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데이터포털 (미상) <통계로 보는 인천>, www.incheon.go.kr/data/DATA020101.
인천문화재단 (엮음) (2006)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인천: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2017) <[No.42 Behind the scene] OCI관(구 선교사 사택)>, <<뉴스레터>>, 9월 19일, www.ifc.or.kr/board/view.php?code=bodo&cat=&sq=284&page=2&s_fld=&s_txt=.
자르네, 자크 (1995) <<전통중국인의 일상생활>>, 김영제 옮김, 서울: 신서원.
장덕필 (2016) <예천박물관, 품격 한 단계 'UP'>, <<경상매일신문>>, 2월 4일, 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29762&part_idx=289.
장승철 (2005)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시대 열리다] 5000년의 역사 · 문화 백의민족 魂이 숨쉰다>, <<파이낸셜뉴스>>, 10월 26일, www.fnnews.com/news/200510261351323609.
장윤이 (2011) <인천해전의 선택적 기록과 목적적 기억>, <<인천학연구>>, 제15호, 189-229쪽.
정민경 (2019) <프랑스 '인쇄' 박물관이 말하는 위기 타개책>, <<미디어 오늘>>, 11월 3일,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32.
조소희 (2015) <지하 보관 유물 둘 곳 생기다>, <<부산일보>>, 3월 23일, 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324000018.
지건태 (2013) <인천 문화의 자긍심, 시립박물관을 가다>, <<인천in>>, 7월 2일, 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4.
———— (2016) <5만 년 전 사라진 '매머드 상아' 인천서 보네>, <<기호일보>>, 3월 25일, 1면.
———— (2018) <인천시, 폐석회 공장부지에 2022년 뮤지엄파크 조성>, <<문화일보>>, 3월 2일, 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0 2MW144924360078.
최모란 (2018) <짜장면 · 쫄면 고향에 누들타운, 제물포구락부는 카페로 띄운다>, <<중앙일보>>, 10월 26일, 20면.
최성연 (2002) <<개항과 양관역정(윤문본)>>,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케이케이케이케이8155(kkkk8155) (2011) <칼 볼터(세창양행 사옥)>, blog.naver.com/kkkk8155/140137712062.
한갑수 (2017) <인천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월미도 이전 가능할까>, <<파이낸셜

뉴스>>, 7월 13일, www.fnnews.com/news/2017071312215751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일반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시범연수 운영 요약보고서>, 연구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미라 · 전경숙 (2004) <<한국인의 생활사>>, 서울: 일진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 <박물관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추진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홍재경 (2020) <인천시, 미군반환 부평 켐프마켓부지 활용방안 시민의견 수렴>, <<뉴스핌>>, 2월 5일, www.newspim.com/news/view/202002050007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발 행 일: 2020년 6월 23일
발 행 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인 쇄 처: 북코리아(02-704-7840)